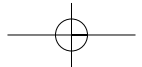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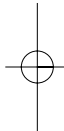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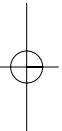


문학 속에 피어난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향토사자료집 총서

- 제01집** 중구 향토사 관계 자료집 - 중구 관련 논문 모음집
- 제02집** 중구사화(史話) - 중구의 문화유적에 얹힌 이야기
- 제03집** 남산의 역사와 문화
- 제04집** 서울 중구 도심 속으로의 역사기행
- 제05집** 중구의 시장, 어제와 오늘
- 제06집** 중구의 구전설화
- 제07집** 명동 변천사
- 제08집** 중구의 축제
- 제09집** 영화의 메카 충무로
- 제10집** 중구의 세시와 풍속
- 제11집** 정동, 역사의 뒤편길
- 제12집** 남겨진 풍경 지나간 흔적
- 제13집** 청계천, 중구의 물길 따라
- 제14집** 서울 중구 12경, 살아있는 전통을 만나다
- 제15집** 한류의 중심 서울 중구, 그 뿌리를 찾아서
- 제16집** 서울 번영의 상징, 을지로
- 제17집** 서울 중구의 문화예술인을 찾아서
- 제18집** 서울 중구, 동네방네 이야기
- 제19집** 서울 중구 퇴계로를 걷다
- 제20집** 서울 중구의 독립운동 이야기
- 제21집** 서울 중구 회현동, 은행나무와 12정승
- 제22집** 문학 속에 피어난 서울 중구

특별호

- 1998** 사진으로 본 중구의 어제와 오늘
- 2015** 서울중구문화원 20년 발자취 맥(脈)
- 2018** 한양도성과 중구의 각자성석(刻字城石)

중구향토사자료 제22집

문학 속에 피어난 서울 중구

● 발간사

서울 중구문화원 향토사자료 제22집 『문학 속에 피어난 서울 중구』를 발간하게 된 것을 중구 문화가족 여러분과 함께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장 서울 중구는 한양 천도 이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수많은 문화유산을 품은 ‘서울 속의 서울’로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유구한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자랑스러운 면모를 지닌 지역입니다.

우리를 흔들고 동요시키는 것이 인생이며, 우리를 안정시키고 확립해 주는 것이 문학이라는 명구가 있습니다. 이처럼 문학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힘들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해 오며 어두운 현실에서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왔습니다.

조선 시대 청빈한 선비의 공간이었던 남촌, 서민과 함께한 칠패시장, 그리고 개천(청계천)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들은 그 시대 생활상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제 강점기를 극복하고 뒤이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다시 일어난 명동, 남대문시장, 서울역의 모습과 산업화의 모순을 담아낸 문학 작품들에서는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조선 시대 금석문인 녹옹 조현명의 시부터 다양한 문학비를 통해 서울 중구가 문학 1번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자료집 발간을 계기로 조선 시대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 문학인들의 삶의 터전과 작품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현장들을 더 늦기 전에 발굴하여, 소중한 문학예술 자원을 자료화하고 차후 문화유산을 토대로 한 문화콘텐츠로 계발하여 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문학 속에 피어난 서울 중구』를 통해 독자 여러분께서 우리 중구의 문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 최고의 향토사 연구사업을 지원해 주는 서양호구청장님과 조영훈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구의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을 해주신 중구 향토사연구위원회, 집필을 해주신 성민경, 박성현 문학박사님, 이경아 시인, 감수와 자문을 해주신 중구문화관광해설사회 김광시 회장님과 한국여성문예원 김도경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중구문화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중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서울중구문화원장 남 월 진

차 례

발간사 | 서울 중구문화원장 · 4

들어가는 글 | 서울 중구, 그 생생한 문학적 표정들 · 19

1부 고전문학 속의 중구

1장 명승^{名勝}과 청빈한 선비의 공간 남산 · 28

1. 명승의 공간 · 29
2. 청빈한 선비의 공간 · 44

2장 변화한 도시적 유상공간 청계천 · 56

1. 광통교: 남북대로를 연결하는 큰 다리 · 58
2. 고전소설과 한시에 자주 등장한 수표교 · 76

3장 생동하는 서민의 생활공간 칠패 · 82

2부 한국문학의 담론장과 중구

1장 국권침탈 그리고 일그러진 근대 · 93

1. 서울의 모더니티와 근대 소비도시의 탄생 · 93
2. 식민지 병참기지화와 ‘죽음’의 향존성 · 99
3. 판타스마고리아의 문학적 형상화 · 103

2장 전쟁의 비극을 딛고 일어서다 · 108

1. 폐허 속의 실존의식 · 109
2. 전쟁의 폐허와 문학적 내면화 과정 · 111
3. 재편되는 문단의 풍경과 중구 · 117

3장 산업화 시대의 문학적 형상화 · 124

1. 새로운 생산수단과 산업화의 표징들 · 125
2. 시민적 삶의 터전으로서의 중구 · 131
3. 자유와 민주의 열망, 해방구로서의 중구 · 134

3부 현대문학 속의 중구

1장 한반도 교통의 중심 서울역 · 141

1. 근대에서 미래로, 현대시의 서울역 · 145
2. 근대라는 경이 혹은 생활의 역설, 현대소설의 서울역 · 150

2장 서울을 품은 모성, 남산 · 163

1. 삶의 원초적 자기부정과 욕망, 현대시의 남산 · 166
2. 역사적 꺾진성과 판타지의 동시성, 현대소설의 남산 · 175

3장 역사를 이어온 삶의 터전, 남대문시장 · 190

1. 인간에 대한 통찰과 물신숭배의 양가성, 현대시의 남대문시장 · 193
2. ‘그래도 삶은 지속된다’, 현대소설의 남대문시장 · 202

4장 영화와 인쇄산업의 중심 충무로 · 211

1. 모더니즘의 성지, 현대시의 충무로 · 218
2. 진고개에서 영화와 인쇄의 거리로, 현대소설의 충무로 · 227

5장 명동, 폐허를 딛고 일어서다 · 241

1. 바보가 성자가 되는 곳, 현대시의 명동 · 243
2. 현대소설에 등장하는 명동 · 252

6장 그 밖의 주요 장소들 · 262

1. 빛과 어둠의 절묘한 아케이드, 소공동 · 262
2. 치유의 약속, 정동 · 268
3. 젊음의 성지, 을지로 · 272

나오는 글 | 소설가 구보 씨가 걸던 중구 · 279

【부록1】 중구의 문학비를 찾아서 · 284

【부록2】 서울 중구의 문학단체들 · 311



겸재(謙齋) 정선(鄭璡)의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 중 〈목막조돈(木覓朝墩)〉, 1741~1759년, 간송미술관 소장

‘목막산에서 아침 해 돌아오르다(木覓朝墩)’

曙色浮江漢 새벽빛 한강에 떠오르니
觚稜隱釣參 언덕들 낚싯배에 가린다
朝朝轉危坐 아침마다 나와서 우뚝 앉으면
初日上終南 첫 햇살 종남산에서 오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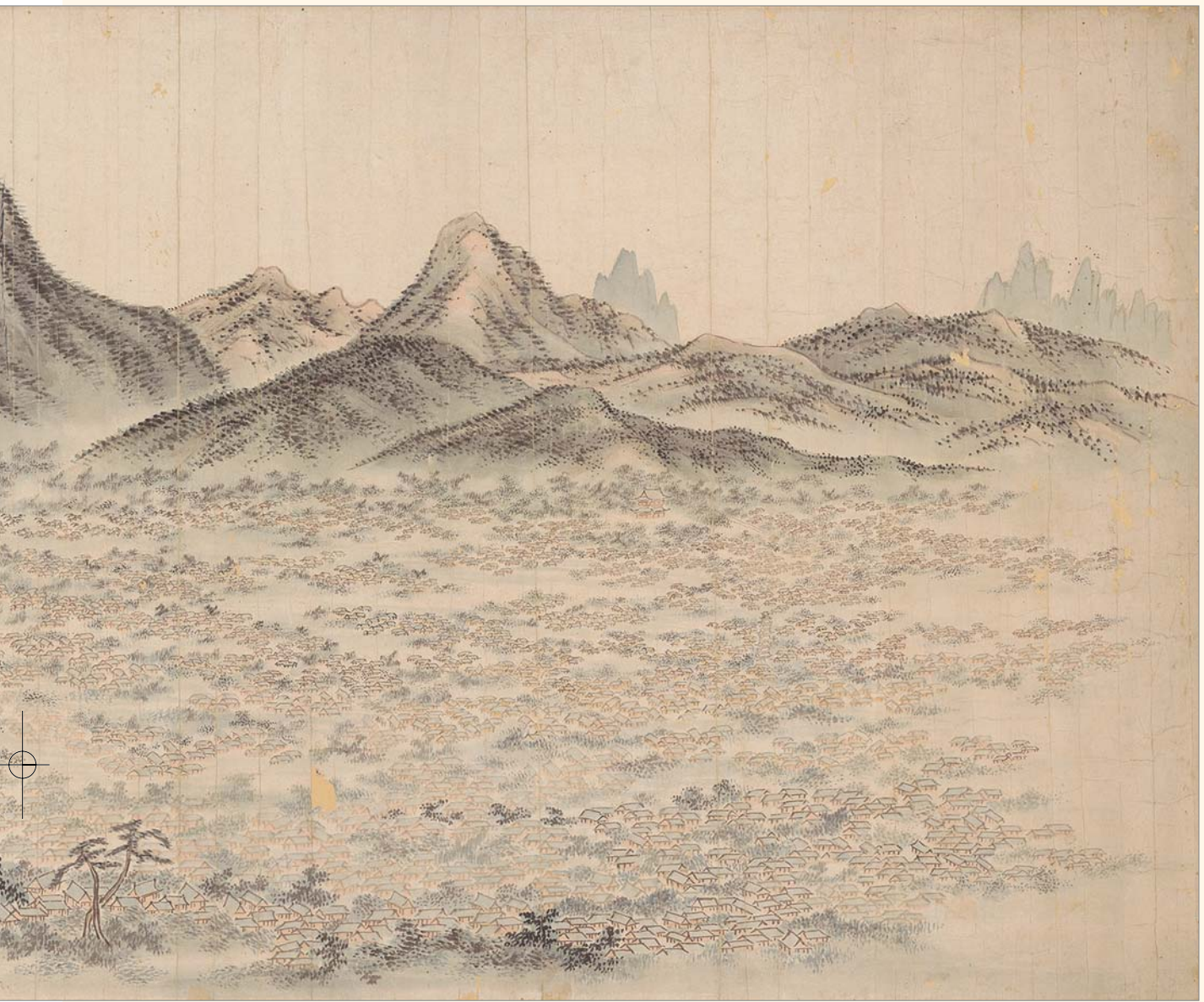
— 사천 이병연(槎川 李秉淵, 1671~1751)



‘구름이 북쪽 궁궐을 가로지르다(雲橫北闕)’

玉葉橫金闕	옥엽(玉葉)은 금궐(金闕)에 비끼고,
朱薨照碧天	붉은 기와 푸른 하늘에 비치네.
丁東傳促漏	땡땡 물시계 재촉하는데,
戌北釀非煙	북쪽에 상서로운 구름 일어나누나.
佳氣晴相擁	아름다운 기운 갠 날 서로 돌렸는데,
高標望更連	높은 기상 바라보니 다시 잇닿았네.
南山將獻壽	남산 같은 높은 복을 우리 임금께 드리려니,
穆穆萬斯年	조심조심 일만 년을 누리소서.

— 교은(郊隱) 정이오(鄭以吾, 1347~1434)의 「남산팔영(南山八詠)」 중에서



김수철(金秀哲)의 〈한양 전경(全景)〉. 19세기 중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남산 잠두봉에 오르다(登南山蠶頭)’

高坐南山第一峯	남산의 제일봉에 높이 올라앉으니
煙花闊展萬千重	고운 봄 경치가 천만 겹 펼쳐지네
若爲借得樵夫斧	나무꾼의 도끼를 빌릴 수만 있다면
斫却面前三四松	앞을 가린 소나무 서너 그루 베내련만

— 무명자(無名子) 윤기(尹禧, 1741~1826)



이명기, 〈송하독서도(松下讀書圖)〉

18세기 말~19세기 초,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청학동(靑鶴洞)

금수는 산 떠나지 않고
숲에 깃든 새는 반드시 숲으로 돌아온다네.
고서를 읽는 선비에게
어찌 산수를 좋아하는 마음 없겠는가.
시정은 변화하여 으레 이익을 가까이하니
선비들은 예부터 한가로운 곳에 거처하였네.
국조의 명재상들의 거처를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푸른 산 옆에 누대가 있었다네.
익평부원군 옛집은 산 중턱에 있었고
맹씨의 호젓한 거처 만송과 이웃했다네.

— 강준흠(姜浚欽, 1768~1833)의
「한경잡영(漢京雜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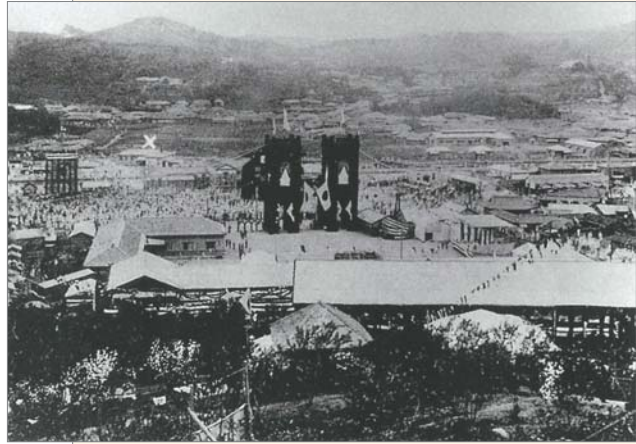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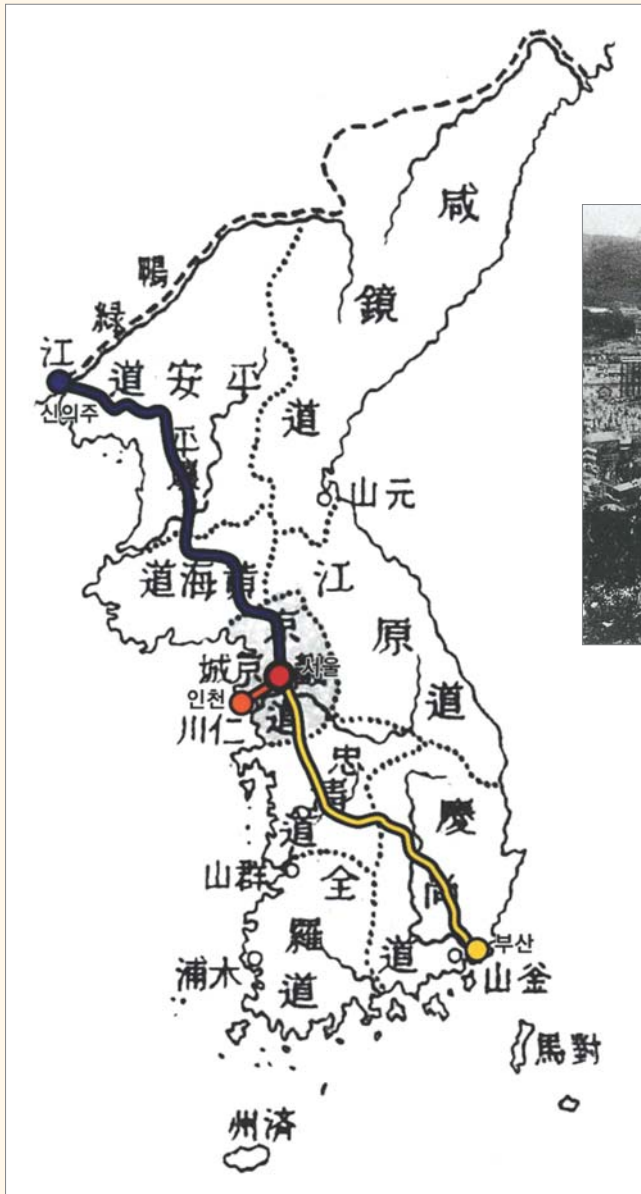


기산(箕山) 김준근(金俊根, 생몰년 미상)의 <풍속도> 중 '시장'

한양의 아침 시장(日出漢陽市)

日出漢陽市	한양 저자에 해가 뜨자
百物如山積	온갖 물산 산처럼 쌓이네
耳中聞何聲	귀에 무슨 소리 들리는가
聒聒相交易	물건을 사고파는 떠들썩한 소릴세
賣者擡其售	파는 자는 값을 올리고
買者低其直	사는 자는 값을 깎는구나

— 강이천(姜彝天, 1768~1801)의 「한경사(漢京詞)」 중



▲ 근대 초의 철도 노선도, <신정분도대한제국지도(新訂分道大韓帝國地圖)>(1908)의 부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 남대문정거장에서 열린 경부철도 개통식(1905년 5월 25일)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소리에
남대문을 등지고 떠나가서
빨리 부는 바람의 형제같으니
날개 가진 새라도 못 따르겠네

늙은이와 젊은이 섞여 앉았고
우리 내외 외국인 같이 탔으나
내외친소 다같이 익혀 지내니
조그마한 탄 세상 절로 이뤘네

관왕묘와 연화봉 둘러보는 중
어느 덧에 용산역 다달았도다
새로 이룬 저지는 모두 일본 집
이천여 명 일인이 여기 산다네

서관(西關)가는 경의선 에서 갈려서
일산수색 지나서 내려간다오
옆에 보는 푸른 물 용산나루니
경상 강원 옷물배 띄는 곳일세

— 최남선(崔南善, 1890~1957)의 「경부철도가」 중에서



▲ 중구청과 중구문화원이 주관하는 장충단 추모문화제
 ▼ 장충단사 기념사진(1900년경, 출처: 보스트위크 사진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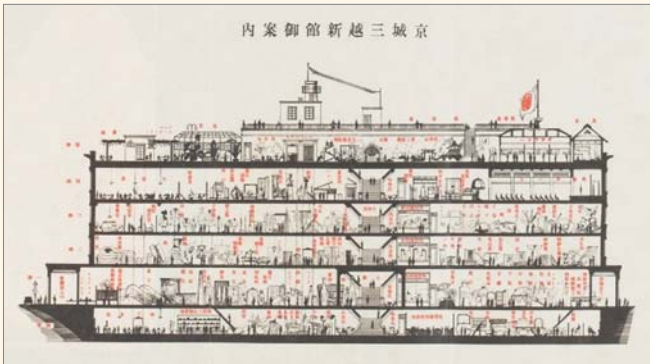
장충단 앞 눈물이 떨어져 돌에 이끼가 생기는데
 두어 번 어루만지며 대 위로 올라간다
 밤마다 영혼 계시니 밝은 달에 와서 있을 것이고
 해마다 한식날이 되면 자귀가 와서 울고 간다
 지난날 이곳의 일들 모두 아득한 옛적인데
 지금 누가 찾아와 술 한 잔을 부어 드릴 것인가
 시 한 수 읊어 위로하고 숲속에 앉아 있노라니
 산 단풍 푸르고 검은데 저녁놀 기울어진다

壇前墮淚石生苔
 數回摩摩倦上臺
 夜夜精靈明月在
 年年寒食子規來
 遂令此地成千古
 更何人酌一杯
 吟罷麓些良久坐
 山楓青黑夕陽迴

— 임규(林圭, 1863-1948), 〈장충단시(槩忠壇詩)〉, 『북산산고(北山散稿)』



미스코시 백화점(현 신세계백화점 본점) 옥상정원



미스코시 백화점 안내도

운동(運動)

일층(一層)위에있는이층(二層)위에있는삼층(三層)위에있는옥상정원(屋上庭園)에올라서남(南)쪽을보아도아무도없고
해서옥상정원(屋上庭園)밑에있는삼층(三層)밑에있는이층(二層)밑에있는일층(一層)으로내려간즉동(東)쪽에서쫓아오
른태양(太陽)이서(西)쪽에떨어지고동(東)쪽에에서쫓아올하늘한복판에와있기때문에시계(時計)를꺼내본즉서기는했
으나시간(時間)은맞는것이지만시계(時計)는나보담도짧지않으나하는것보담은나는시계(時計)보다는느리지아니하였다
고아무리해도믿어지는것은필시그럴것임에틀림없는고로나는시계(時計)를내동댕이쳐버리고말았다

— 이상(李箱, 1910~1937), 〈조선과 건축〉(1931.8)

일제 강점기 본정2정목
(충무로2가) 풍경



나는 종종 해질 무렵의 본정 거리를 걷기를 좋아한다. (중략) 본정은 건물들도 크지 않고 또 자동차나 인력거가 다니지 못하리 만큼 도로도 좁다. 본래부터 웅장한 것보다 아담한 쪽을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나 나는 이 웅장하지 못한 건물과 넓지 못한 도로에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또 그 거리에 맞는 남산의 배경이 더욱 좋다. 미관상이라든가 위생적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문구를 다 그만두고라도 우선 하늘이 그 남산 때문에 더 높은 것 같고, 하늘이 높기 때문에 다리가 건들건들 들리는 것도 유쾌하겠지만 다리가 건들건들 들리기 때문에, 많은 구두 소리가 요란스러워진다.

— 최정희(崔貞熙, 1912~1990), 『빨강치마를 입던 날』(『가정지우(家庭の友)』 1940.12) 중에서



AP통신원이 담은 6·25 당시 서울 모습(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에 남아 있던 사람에겐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일단은 부역의 혐의를 걸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마련이었다. 비록 그들이야말로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은 순수한 양민이었다고 해도 말이다. 정상은 참작되지 않았다. 부역에 있어서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결백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한강다리를 건너 피난을 갔다 왔다는 게 제일이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반공주의자 내에서도 도강파라는 특권계급이 생겨났다. (...) 그렇지 않고서야 친일파의 정상은 그렇게도 잘 참작해주던, 그야말로 성은이 하해와 같던 정부가 부역에는 그다지도 지엄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 박완서(朴婉緒, 1931~2011),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 중에서

서울 중구, 그 생생한 문학적 표정들

서울의 핵심부에 자리 잡은 ‘중구’(中區)는 어떤 방식으로 ‘서울’이라는 메트로폴리탄의 상징적 공간으로, 또한 한국 문화예술의 중심이자 근대문학의 규범적 심금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 서울 중구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관광 한류의 이미지가 아로새겨진 장소란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구는 조선조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장대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대의 급속한 재편을 온전히 수용하고 내면화한 현대성도 가지고 있다. 과연 중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의 교두보가 된 것일까? 이 글의 질문과 관심은 여기서 시작한다.

통상 문학을 비롯한 예술 전반은 창조의 공간인 작가와 예술가의 지리적 좌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훗날 작품 생산 과정을 통해 그 좌표의 역사적 맥락은 작품의 내적 기제로 포용되고 변형되며 내면화된다. 다시 말해, 작가와 예술가의 지리적 ‘좌표’는 구체적인 생생한 ‘장소’로 탈바꿈되면서 작품에 반영되고, 우리는 ‘작품’을 감상하면서 장소성을 충분히 받아들인다.

서울의 중구는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좀 더 특별한 장소성을 갖게 된다. 경복궁이 자리한 한성 중심부와 바로 인접한 특성으로 그로 인해 조선시대에는 물론 근·현대 역사에서 가장 활발한 문화적 활동이 이뤄진 것이 첫 번째며, 한강으로 집중되는 물류를 가장 빠르게 결집하고 재분배할 수 있는 경제적 교류의 집산이 그 두 번째다. 아울러 일제강점기를 뒤흔들었던 3·1만세운동을 비롯해 4·19혁명을 필두로 ‘서울의 봄’(1979~1980)과 ‘6·29민주화선언’(1987) 등을 만들어낸 정치적 민주화 운동의 산파가 그 세 번째다.

물론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은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서구열강과의 대면이 잦아지고 한반도의 근대화 물결이 첨예화될 때도 지속되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4차 산업 이후의 디지털혁명이 한창인 지금도 서울 중구가 가진 장소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한눈에 봐도 서울특별시청, 서울시의회 등 주요 관공서가 들어선 지역이며, 국내외 기업체들의 본사가 있어 경제 발전의 메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유서 깊은 재래시장들은 서울과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등지까지 갖춰진 신경 조직망은 글로벌화된 서울 중구의 놀랍기만 한, 그러나 이제는 익숙한 모습이다.

고전문학에서는 서울 중구의 장소성을 문학의 주제로 삼은 작품들이 많다. 남산은 이미 명승(名勝)과 청빈한 선비의 공간이었으며, 무척이나 아름답고 정교한 광통교와 수표교가 있는 청계천은 변화한 도시의 유상공간이었다. 또한 한성의 물류 집산지였던 ‘칠패’(七牌)는 서민들의 생동하는 생활공간이었다. 근·현대문학에서도 서울 중구는 여지없이 자신의 강렬한 색채를 드러낸다. 서슬 퍼런 일제강점기의 제국주의적 폭압을 꺾듯하게 버티면서 우리 문학인들은 시대의 고통과 통렬함, 절박한 상황을 문학의 장(場)에 담아냈으며, 한국전쟁 등 현대사의 질곡을 온몸으로 끌어안으면서 당대의 모순을 그려냈다. 어쩌면 우리가 서울 중구를 고전과 현대를 가로지르는 문학적 장소의 뚜렷한 예봉(銳鋒)으로 간주해도 과언이 아닌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앞으로 충분히 살펴볼 것이지만, 서울 중구의 주요 장소들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하나의 공식화된 상징으로 각인되고 있다. 이를테면, “자네 감독 그만둘 거야?



1970년대 초반 명동의 거리 패션(영화 속의 한 장면)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면 별문제지만. 공연히 잘난 척하지 말어. 영화는 돈과 시나리오만 있으면 어떻게든 만들어져. 감독과 배우는 충무로 바닥에 지천으로 깔려 있어.”¹⁾라는 소설의 한 대목처럼, ‘충무로’는 우리나라에서 영화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집적된 공간으로, 즉 영화의 대명사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저녁 5시 반쯤의 종로, 명동, 소공동 들은 여자가 부쩍 숲을 이룬다. 의상 또는 하이패션의 온 퍼레이드, 그런데 그 속에서 여자의 옷은 어느 여자의 옷과도 같은 무늬, 같은 빛깔이 없다.”²⁾는 고은의 문장처럼 ‘명동’과 ‘소공동’은 매혹적이고 세련된 소비문화의 중심지이고, “멀리 서울역 광장이 보이면서부터 사람들의 숫자는 더 많아졌다. 후암동 쪽으로 오르는 골목마다 장갑차들과 전경들

1) 정종명, 『올가미』, 문학나무, 2009. 160쪽.

2) 고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고은 전집 제1권, 김영사, 2002, 54쪽.

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냥 심심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시위가 벌어지면 상황이 달라지겠지. 행인들은 별로 전경들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었다. 하기야 시위의 돌팔매질, 진압의 최루가스 맡는 거야 문자 그대로 시민 생활이 되어버렸으니 익숙해질 만도 한 노릇이었다.”³⁾는 박태순의 문장처럼 서울역 광장은 일제강점기나 지금이나 저항과 해방구의 이미지도 갖고 있다. 이러한 ‘각인’들을 한데 모을 수만 있다면, 서울 중구의 예술사적 지도와 그에 걸맞은 위상을 증명할 수 있으리라.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서울 중구라는 공간의 뚜렷한 장소적 의미는 ‘자료’들을 살펴본다고 저절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슨 말이나 하면, 첫째 서울 중구의 역사와 지리를 관통하는 통시적 맥락들을 살펴야 하며, 둘째 각각의 작가와 예술가들이 그 ‘맥락’에서 어떠한 공시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읽어내야 ‘장소적 의미’의 거시적인 안목들이 펼쳐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위의 문제 제기를 염두에 두면서 서울 중구의 지리가 어떤 이미지로 계보화되고 있으며, 작가와 예술가들이 작품 속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내재화했는지를 진지하게 고찰해 나갈 것이다. 특히 중구를 둘러싸고 있는 ‘서울’의 지정학적 분포와 구체적이고 세밀한 재편과정을 동시에 짚어내면서, 요컨대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침략과 서구 열강의 개입으로 인해 급격히 와해되는 봉건질서, 동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재편되는 근대화의 양상, 또한 한국전쟁 직후에 문인과 예술인들의 집결지로서 한국문학의 산실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두루 고찰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 중구의 문학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담론 생산’에 관한 미셸 푸코의 언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담론의 질서』에서 “어떤 사회에서든 담론의 생산을 통제하고, 선별하고, 조직화하고, 나아가 재분배하는 일련의 과정들—담론의 힘들과 위험들을 추방하고, 우연한 사건을 지배하고, 담론의 무거운, 위험한 물질성을 피해 가는 역할을 하는 과정들—이 존재한다.”⁴⁾고 말한다. 담론이

3) 박태순, 『밤길의 사람들』, 20세기 한국소설(20), 창작과비평사, 2005, 277쪽.

4) 미셸 푸코, 『담론의 질서』, 이정우 역, 서강대학교출판부, 1994, 10쪽.



1980년 '서울의 봄' 당시의 서울역 앞 시위 모습

생산되기 전에 담론을 통제하고, 선별하며, 조직화와 재분배를 담당하는 일련의 사회적 기제들이 존재한다는 말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작가와 예술가를 포함한 개인의 '신체'는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푸코의 고찰을 일제강점기의 서울 중구로 예각해보자. 여기서 우리는 '중구'가 일제강점기 문화적 총체가 집결된 곳이며, 따라서 조선총독부(당시 남산에 위치)를 비롯해, 일제 헌병경찰제의 중추였던 '경무총감부'(중구 필동 소재) 등 날이 시퍼런 식민지 핵심 권력이 밀집한 곳임을 알게 된다. 이들 식민지 권력은 그 존재만으로도 폭압적이다. 그들은 도처에서 개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게다가 이들은 민중들을 자신들이 잘 감시할 수 있도록 배치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현실적인 무게를 가진 담론을 만들고, 그것을 휘두름으로써 민중들의 신체적 능력을 배제하고 재분배하게 된다. 푸코의 권력 이론을 폭넓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좀 더 내밀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일제에 의

한 강제 도시화는 그 이면을 보면 대륙 침략을 위한 권력의 배제와 재분배의 과정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다.

“권력은 사람의 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힘을 묶어 두는 것이 아니다. 그 힘을 전체적으로 증가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묶어 두는 것이다.”⁵⁾라는 푸코의 적절한 지적처럼, 일제에 의한 식민지의 권력화는 철저하게 제국주의적 이해 속에서 진행되며, 한반도의 근대화는 물론 서울의 도시화도 이러한 맥락을 고수하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은 일제 강점 내내 일제가 노골적으로 또한 보이지 않게 감시 체제를 구축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더욱 가공할 감시 체제가 만들어 진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중구는 그 지정학적 입장이나 공간적 맥락에서도 조선시대와 애국계몽기, 그리고 일제강점기는 물론이고 한국전쟁과 산업화시대를 관통하는 문학 담론 생산의 중요한 장(場)으로 작동한다. 이제 우리는 조선시대와 18세기 후반, 소위 애국계몽기라 불리는 시기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문인들의 시선에 포착된 중구의 풍경을 살펴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전쟁과 산업화 시기, 1990년대의 IMF와 2000년대까지를 포괄해 그 역사적 추이도 지켜볼 것이다.

비록 주마간산(走馬看山) 격일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그 풍경의 안쪽에 서울 중구의 맨 얼굴과 다양한 표정들이 그려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숭고하고 생생한 역사적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5) 미셸 푸코, 앞의 책, 255쪽.

1부

고전문학 속의 중구



‘중구(中區)’는 이름 그대로 서울의 중앙에 위치한 자치구이다. 서울특별시청을 비롯한 각종 관공서와 기업체들의 본사 건물이 자리하고 있고, 역사 깊은 재래시장 및 영화 산업의 메카를 품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한류에 매료되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쇼핑을 위해 반드시 찾는 글로벌 공간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서울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실 ‘중구’라는 명칭 자체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했던 ‘남촌(南村)’ 일대를 경성부의 중심으로 지칭하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한양이 조선의 수도로 기획되고 발전한 이래로 ‘중구’에 속하는 주요 공간은 장구한 역사성으로 인해 이미 우리에게 공통된 심상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으로 각인되어 있다.

이러한 중구라는 장소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중구를 다차원적인 경험 현상으로 보고 위치나 경관 같은 장소의 다양한 속성과 개인적 장소 경험 등을 탐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장소 경험과 장소감에 필수 요소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장소 의미의 원천이나 본질을 밝힐

수 있는 것이다.¹⁾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위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적합한 재료가 바로 문학이 아닐까 한다. 문학은 사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로서, 고전문학이 다양하게 그리고 있는 중구의 주요 장소들은 현재 우리에게 각인된 중구 이미지의 원형을 보여주는 훌륭한 보고(寶庫)이기 때문이다.

공간에 대한 물음은 결국 인간의 선형적 구성들에 대한 물음이다. 다르게 말하면 공간은 인간과 무관하게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공간적인 존재인 이상, 인간이 공간을 구성하고 자기 주변에 공간을 펼치는 존재인 이상, 다시 말해 인간이 공간을 구성하고 자기 주변에 공간을 펼치는 존재인 한에서만 공간은 존재한다.²⁾ 이러한 의미에서 고전문학이라는 상자를 통해 중구를 들여다보는 작업은 인간이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기본 표현을 탐색함과 동시에 중구라는 공간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삶을 펼쳐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그 근본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고전문학에서 묘사되는 중구의 주요 공간으로 남산(南山), 청계천, 칠패(七牌)를 주목하였다. 그리고 그 형상화의 특징을 각각 ‘명승과 청빈한 선비의 공간’, ‘변화한 도시적 유상공간’, ‘생동하는 서민의 생활공간’으로 파악하였다. 이 곳들은 현재에도 중구의 주요 관광자원이자 문화공간으로 역할하고 있는데, 고전문학에서 이 공간들이 형상화되는 양상을 살피는 것은 현재 이들 공간이 갖는 심상의 원형을 탐색하는 작업으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1) 에드워드 헬프 지음, 김덕현 외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77면 참조.

2)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지음, 이기숙 옮김,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23면.

1장 명승名勝과 청빈의 공간 남산

조선 시대 수도 한양을 둘러싼 네 개의 산을 내사산(內四山)이라고 부른다. 북쪽의 북악산(北岳山), 서쪽의 인왕산(仁王山), 동쪽의 낙산(駱山), 그리고 남쪽의 목멱산(木覓山)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남산(南山)이다. 남산은 궁궐을 마주하고 있는 안산(案山)으로 풍수지리상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태조 4년(1395) 12월에 남산의 산신(山神)을 목멱대왕(木覓大王)으로 봉작해 국가에서 제사를 받들게 했던 신령스러운 신산(神山)이었다. 남산의 정상에 이 목멱대왕을 모시는 목멱신사(木覓神祠)를 지어 봄·가을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 이후로 중구와 용산구의 경계를 이루는 이 산을 목멱산으로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목멱신사는 나라에서 제사 지내는 사당이라는 뜻으로 국사당(國師堂)이라고도 한다.

이렇듯 남산은 풍수지리적으로, 또 군사적 방어 요충지로서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1897)에서 “아름다운 남산으로부터 산에 둘러싸인 서울이 가장 잘 보인다.”고 했듯이, 남산은 빼어난 경관으로 유명하며 고전문학에서 묘사되는 남산의 주요한 이미지 역시 명승

(名勝)이 즐비하고 청렴한 선비들이 거주하는 유토피아적인 공간이다. 본 장에서는 고전문학에 나타난 서울 중구의 첫 번째 모습으로 ‘남산’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명승의 공간

조선 초기에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찬성사(贊成事) 및 판한성

정선, 〈목역산도〉, 18세기,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부사(判漢城府事), 즉 지금의 서울시장을 지낸 교은(郊隱) 정이오(鄭以吾, 1347~1434)는 남산의 아름다운 경치 여덟 가지를 「남산팔영(南山八詠)」이라는 연작시로 노래했다.

1) 구름이 북쪽 궁궐을 가로지름(雲橫北闕)

玉葉橫金闕	옥엽(玉葉)은 금궐(金闕)에 비끼고,
朱蕙照碧天	붉은 기와 푸른 하늘에 비치네.
丁東傳促漏	땡땡 물시계 재촉하는데,
戍北釀非煙	북쪽에 상서로운 구름 일어나누나.
佳氣晴相擁	아름다운 기운 갠 날 서로 둘렀는데,
高標望更連	높은 기상 바라보니 다시 잇닿았네.
南山將獻壽	남산 같은 높은 복을 우리 임금께 드리려니,
穆穆萬斯年	조심조심 일만 년을 누리소서.

남산에 오르면 북쪽으로 궁궐이 보인다. 첫 번째 수에서는, 구름이 대궐에 비껴

있는 것에 대해 노래하면서 새 왕조에 대한 송축(頌祝)을 기원하고 있다.

2) 물이 남강에 넘침(水漲南江)

潦流橫被野	장마물 들판을 덮었는데,
江氣白連城	저 강의 흰 기운 성곽에 잇달았네.
卷盡平沙去	모래판[平沙] 휩쓸어 가고
包容衆派橫	온갖 냇물 다 모았네.
渡頭知岸沒	나루터에서 언덕이 묻힌 줄 알겠는데,
天際望舟行	저 하늘가 가는 배 아득하게 바라본다.
夕靄水輪上	저녁때 비 개고 둥근 달 떠오르니,
溶溶混大清	용용(溶溶)한 그 모습 하늘에 달았네.

북쪽으로는 궁궐이 보이지만, 남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볼 수 있다. 잔잔한 파도가 모래톱을 곱게 휩쓸고, 돛단배는 하늘을 스치듯 아득하다. 저녁때 비가 개고 둥근 달이 떠오른 풍경은 평화롭기만 하다.

3) 바위 밑의 그윽한 꽃(巖底幽花)

春歸紅瘦後	봄은 가고 꽃 이미 졌는데,
山密綠肥時	산중에 뽕뽕하게 녹음 무성하네.
渡水幽香遍	물 건너니 그윽한 향기 풍기고,
隈巖異卉奇	가까운데 언덕 위 바위틈에 기이한 풀 있구나.
晚叢憐隱逸	늦은 떨기 은일(隱逸)인 양 가련하고,
浪藥惜興衰	부질없는 꽃 흥망성쇠 애석하네.
自是能貞吉	이로부터 정(貞)하고 길(吉)하나니
天工豈有松	하늘이 어찌 소나무 두었는가.

정도(定都) 초기 한양의 10경(景)[漢都十詠] 중 하나로 남산의 꽃구경[木覓賞花]이

꼭힐 정도로 봄철 만개한 남산의 꽃의 아름다움은 유명했다. 그런데 정이오는 만개했던 꽃이 모두 지고 난 후 바위 밑에 그윽하게 남아 있는 꽃에 주목하여, 만물이 흥망성쇠하는 이치의 애석함을 노래함으로써 시인만의 독특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4) 고갯마루의 높은 소나무(嶺上長松)

繞屋層巒聳	집을 둘러 층층의 뿔부리 솟아,
撐空翠蓋成	공중에 버터 푸른 일산 되었네.
雨晴雲襯白	비가 개니 구름 와서 희게 걸치고,
夜靜月篩清	밤이 고요하니 달이 맑게 흥청이네.
壁立千年地	벽이 서 있는 지 천 년은 되어,
風傳十里聲	바람 따라 10리에 소리 들리누나.
無人回首見	이 모습 돌아보는 이 없고,
擾擾競馳名	떠들썩 명예만 따라 경쟁하네.

네 번째 수에서는, 우리가 애국가의 가사로도 바로 떠올리게 되는 남산의 소나무를 읊고 있다. 뻣뻣하면서도 높게 솟아 공중에 버티고 있는 소나무의 모습을 멀리서 보았을 때, 푸른 일산을 떠올리는 시인의 발상이 이채롭다. 키 큰 소나무에는 비가 개면 구름이 걸치고, 밤이 되면 달이 맑게 흥청거린다. 뻣뻣하기가 벽과 같은 소나무는 족히 천 년은 되었을 듯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키며, 소나무 숲을 지나가는 바람은 멀리 10리까지 소리를 전한다. 결국에서는 웅장하고 의연한 자연의 모습과 대비되는 속세의 시끄러운 명예 경쟁을 비판하고 있다.

5) 3월의 답청 놀이(三春踏青)

北望雖城市	북쪽 바라보면 비록 성시(城市)이지만,
南尋卽洞天	남쪽으로 오면 곧 동천(洞天)이라네.
問花風澹蕩	꽃을 찾으니 바람이 맑게 불어오고,



정선의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 중 〈장안연우(長安烟雨)〉. 이슬비가 촉촉이 내리는 날, 서울 장안을 육상궁의 뒷산쯤에 해당하는 북악산 서쪽 기슭에 올라가 내려다본 정경이다. 그림 상단에 남산이 보인다.

남산에 오르면 보이는 풍경의 남북 대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북쪽은 도성이 있는 시가로 복닥복닥하고 활동적인 생활의 공간이라면, 남쪽으로 보이는 공간은 도가에서 신선이 산다는 별천지, 즉 동천(洞天)이다. 봄이 무르익은 3월의 남산은 꽃을 찾든 풀을 밟든 바람을 비롯한 날씨가 맑고 따사롭기 그지없다. 시인은 이런 모임이 결코 흔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신선놀음에 못지않다는 지극한 감동을 표출하고 있다.

6) 중앙절의 등산(九日登高)

佩酒登高日 술병 차고 높은 데 오르는 날,
天晴九月頭 하늘도 맑은 9월 초일세.

楓林酣遠壑 단풍 숲 먼 골짜기에 한창이고,
 松色護層丘 푸른 소나무 층층의 언덕 둘러쌔네.
 藍洞題詩處 남동(藍洞)은 시 짓던 곳이고,
 龍山落帽秋 용산(龍山)에 모자 떨어지던 때로다.
 古今同一醉 예나 이제나 취함은 같은 것,
 適意百無求 마음에 맞으면 그 밖에 다른 무엇 구하리.

음력 9월 9일은 중양절이다. 술병을 차고 산에 올라 단풍의 정취를 즐기며 시를 짓고 술을 나누는 시주(詩酒)의 행사를 즐겼다. 아름다운 남산은 이러한 행사를 치르기에 제격이었을 것이다. 용산(龍山)에 모자가 떨어진다는 것은 『진서(晉書)』 권 98, 「맹가열전(孟嘉列傳)」에 보이는 고사이다. 진(晉)나라 맹가(孟嘉)가 9월 9일에 정서장군(征西將軍) 환온(桓溫)이 베푼 용산(龍山)의 주연(酒宴)에 참군(參軍)의 신분으로 참석했다가, 국화주에 취한 나머지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고서 측간에 가자, 환온이 그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눈짓을 하고는 손성(孫盛)에게 희롱하는 글을 짓게 하였는데, 맹가가 돌아와서 그 글을 보고는 곧장 멋지게 대응하는 글을 지어서 좌중을 경탄하게 했다는 것이 용산낙모(龍山落帽)의 고사이다. 시인은 옛사람들이 중양절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고사를 들어 선인들의 가회(嘉會)에 지금의 모임을 빗대어 만족스러운 감상을 내비치고 있다.

7) 언덕에 올라 관등 행사 구경(陟巘觀燈)

八日觀燈盛 4월 8일 관등놀이 성대한데,
 昇平第幾春 승평세월 이 얼마인가.
 萬龕明似晝 일만 초롱불 대낮같이 밝으니,
 四境靜無塵 사방이 고요하고 티끌 하나 없네.
 虹焰蟠千丈 붉은 불길 천 길이나 서린 듯,
 星芒拱北辰 별 광채 북두칠성[北辰]으로 향했네.
 通宵看未足 밤을 새워도 구경 부족하여,

不覺到鷄晨 닭 우는 새벽에 이른 줄도 모른다네.

한양도성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남산의 입지는 4월 초파일에 관동 행사를 구경하기에도 적격이다. 남산에서 내려다보면 장안 집집마다 연등놀이가 성대하여 밤하늘이 대낮같이 밝다. 그 구경은 밤을 새워도 부족할 정도로 흥을 일으킨다.

8) 시냇물에 갇끈 빨기(沿溪濯纓)

靖節徒臨水 도연명[靖節] 선생은 다만 물에 다다랐고,

終軍早請纓 종군(終軍)은 일찍이 긴 노끈 청했네.

流清何濯足 냇물 맑으니 발 어이 씻으리,

塵拂澹忘情 티끌 떨고 세상 물정 잊겠네.

宛轉苔溪滑 천천히 흐르니 시내에 이끼 끼어 미끄럽고,

盤回玉派縈 굽이쳐 돌아오니 옥 물결 감도네.

落紅浮出洞 떨어진 붉은 꽃 물에 떠 동구 밖으로 나가니,

還訝近蓬瀛 봉래(蓬萊) 영주(瀛洲) 여긴가 하노라.

마지막 8수는 시냇물에 갇끈을 빠는 청아한 행위를 통해 남산의 탈속적 정취를 극대화하고 있다. 남산의 맑은 냇물은 너무 맑아 발을 씻을 수 없고 다만 티끌을 떨고 세상 물정을 잊을 따름이다. 도연명은 ‘귀거래(歸去來)’를 노래하며 귀향했고, 한(漢)나라 간의대부(諫議大夫) 종군(終軍)은 긴 밧줄[長纓] 하나만 주면 남월(南越)의 왕을 묶어서 궐하(闕下)에 바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한서(漢書) 권 64, 「종군전(終軍傳)」). 예로 든 인물들로 볼 때, 시인은 나라에 충성을 다하면서도 중국에는 도연명처럼 귀거래하는 삶을 꿈꿨던 것 같다. 붉은 꽃잎이 한가로이 동구 밖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중국 전설상의 삼신산(三神山) 중 봉래(蓬萊)나 영주(瀛洲)가 여기인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남산의 정취가 빼어남을 노래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 전기의 문인들은 한양의 10경, 즉 한도십영(漢都十詠) 중

하나로 남산의 꽃구경, 목멱상화(木覓賞花)를 꼽았다. 먼저 조선 초의 대표적인 관각(館閣) 문인인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작품을 살펴보자.

관각의 중심에 있었던 서거정답게 시는 도성 쪽에서 남산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시작된다. 하늘에 닿을 듯 우뚝한 남산에 오르면 연꽃 봉오리를 꽃아 놓은 듯한 북악산과 포뚱빛으로 물들여 낸 듯한 한강이 한눈에 들어온다.

〈漢都十詠・木覓賞花〉

尺五城南山正高	성 남쪽엔 하늘 닿은 산이 참 우뚝한데
攀緣十二靑雲橋	열두 청운의 다리를 디디고 올라가 보니
華山插立玉芙蓉	북악산은 연꽃 봉오리를 꽃아 놓은 듯하고
漢江染出金葡萄	한강 물은 포뚱빛으로 물들여 낸 것 같네
長安萬家百花塢	장안의 일만 가호는 온갖 꽃의 동산이라
樓臺隱映紅似雨	누대에 은은히 비쳐 붉은 비가 온 듯하네
靑春來賞能幾何	청춘으로 꽃 완상할 날이 그 얼마나 되랴
白日正長催羯鼓	해가 정히 길거니 갈고(羯鼓)나 재촉해 보자꾸나

이어서 시인은 꽃이 만개한 장안의 일만 가호와 그 빛으로 붉게 물든 누대를 언급하여 변화하고 평화로운 성시의 모습을 노래한다. 전구(轉句)까지 시상의 전개는 시의 제목과 달리 정작 남산에서의 꽃구경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듯하다. 시인은 결구(結句)에 와서야 꽃을 완상할 날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드러내어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은근히 노래하고, ‘갈고(羯鼓)’를 재촉한다는 함축적인 표현으로 상춘(賞春)의 정취를 극대화했다. 갈고는 말가죽으로 메운 장구를 말하는데, 갈고를 재촉한다는 것은 당 현종(唐玄宗)의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당현종이 본디 음률(音律)을 잘 아는 데다 갈고를 특히 좋아했던 바, 한번은 2월 초 어느 날 밤비가 막 갠 아침에 내정(內庭)의 버들개지와 살구꽃 등이 막 터져 나오려는 것을 보고는, 고역사(高力士)를 시켜 갈고를 가져오게 하여 친히 춘호광(春好光) 한 곡조를 지어서 갈고를 연주하고 나니, 버들개지와 살구꽃 등이 이미 다

터져 나왔더라는 고사가 있다.

역시 관각 문인의 한 사람인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은 서거정의 <한도십영(漢都十詠)>에 화운(和韻)하여 시를 지었다.

終南積翠凌雲高	종남산 푸른 봉이 구름 위에 높이 솟아
俯瞰二十四箇橋	24교를 내리 굽어보누나
鶯花政賦宮苑深	깊디깊은 궁원에는 영화가 한창인데
像想玉罍斟葡萄	아마도 옥잔에 포도주를 기울이리
雲錦粧成萬家塢	만호 장안 집집에 비단 같은 화단
一犁已足收香雨	향기로운 봄비도 흠씬 내렸네
長繩難繫四飛日	긴 밧줄로도 못 매는 서로 가는 해
麗醺慳春起鍾鼓	고루에서는 똥똥 북소리 나네

〈題四佳漢都十詠屏風〉

서거정의 시에 화운한 시인만큼 시상의 전개가 유사하다. 시에서 말하는 종남산은 남산이다. 당나라 수도 남쪽의 산이 종남산이므로 한양의 남산도 종남산이라 쓴 것이다. 한양 전체를 내려다보기에 최적인 남산의 위치, 아름답고 평화로운 궁궐과 민가의 모습, 긴 밧줄로 매어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가는 것이 아쉬운 봄날의 시절과 아득히 들려오는 북소리로 시를 마무리 짓고 있다.

비슷한 시기 관각 문인 이승소(李承召, 1422~1484)도 남산의 꽃구경을 소재로 시를 지었다.

〈漢都十詠·木覓賞花〉

南山坐對層城高	남산에서 앉아 보니 층진 성이 드높은데
御溝楊柳拂虹橋	어구(御溝) 가의 수양버들 홍교 위를 스치누나
上苑花發蒸紅霞	상원(上苑) 속에 핀 꽃에는 붉은 노을 무르녹고
太液波暖漲葡萄	태액지(太液池)의 물 따뜻해 포도주가 넘실대네

甲第連雲春滿塢	큰 집들은 구름 달고 봄은 언덕 가득한데
東風吹送如酥雨	동풍은 또 부드러운 비를 불어 보내누나
千紅萬紫總含姿	천만 가지 꽃들 모두 고운 자태 머금어서
相催不用臨軒鼓	어서 오라 마루의 북 칠 필요가 전혀 없네

시상의 전개는 역시 비슷하다. 남산에 앉으니 보이는 높은 도성, 대궐로부터 흘러나오는 개천인 어구(御溝) 가의 수양버들, 진(秦)나라 때 세워진 궁궐의 정원인 상림원(上林苑)의 준말인데 후대에는 궁궐의 동산을 뜻하는 말로 쓰인 상원(上苑), 역시 한나라 때 장안의 건장궁(建章宮) 북쪽에 있던 연못으로, 후대에는 궁궐 안에 있는 연못을 뜻하는 말로 쓰인 태액지(太液池)에 대한 언급은 시인의 관심이 도성 및 궁궐에 쏠려 있었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늘어선 큰 집들에 가득한 봄기운과 동풍이 불어 보내는 부드러운 봄비는 성시의 안락과 평안을 그려내고 있다. 결국에서 비로소 재촉할 필요도 없이 이미 가지마다 고운 자태를 머금고 피어 있는 남산의 꽃들을 노래한다.

성임(成任, 1421~1484)은 문집이 남아 있지 않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한성부(漢城府)」에 목석상화 시가 전한다.

引慶山入層雲高	인경산(남산)에 드니 층층의 구름 높고,
架空百尺垂虹橋	공중에 백 자는 되게 무지개다리 걸려 있네.
登臨遊目興無涯	올라가 멀리 바라보니 흥이 다함 없고,
綠醅初潑濃葡萄	푸른 술 처음 익어 포도빛이 진하여라.
千紅萬紫暗花塢	천만 가지 꽃핀 언덕이 어두운데,
忍使無歡委風雨	어찌 즐기지 않고 풍우에 맡기리.
欲傾漢水添金樽	한강수 기울여 금빛 술동이에 더하고
百枹打徹雷門鼓	일백 개 방망이로 뇌문고 마음껏 두드려 보려네.

성임 역시 조선 전기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하기는 했지만, 성임의 시는 앞서 살

펴본 관각 문인들의 시와 달리 남산에 올라 꽃을 감상하는 정취를 제대로 드러내고 있다. 시인은 남산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를 먼저 노래하는데, 하늘에는 층층의 구름이 높게 펼쳐지고 무지개다리가 걸려 있다. 조금 올라가 멀리 바라보면 흥이 다함이 없고 푸른 술까지 막 익었으니 꽃을 감상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이다. 천만 가지에 꽃이 만개해서 언덕이 어두울 지경이니 즐기지 않을 도리가 없다. 멀리 바라다보이는 한강수까지 기울여 술동이에 더하고, 춘추 시대 월(越) 나라에 있던 북으로, 그 소리가 1백 리 밖에까지 들렸다고 하는 뇌문고(雷門鼓)까지 마음껏 두드리고 싶을 만큼 흥에 겨운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성종의 형, 월산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 1454~1488)이 지은 시를 살펴보자.

春雲窈窕春山高	봄 구름 아름답고 산은 높는데
翠微隱隱連溪橋	푸른 산빛은 은근히 시내 다리에 이어져 있구나.
登高賞花且取醉	산에 올라 꽃구경에 술까지 거나하여
與君盡日斟葡萄	그대와 온종일 포도주 주고받네.
蜂喧鳥咽幾村塢	몇몇 마을 담장에 벌들은 붕붕 새들은 조잘조잘
花氣已蒸春晚雨	꽃기운 달아오르고 봄은 무르익어 비 내리네.
歸來日斜紫陌長	돌아오니 해는 뉘엿 붉은 꽃두렁 긴데
雲從街裏聞鍾鼓	운종가엔 인정(人定) 치는 소리 울리네.

여타 어느 시보다도 낭만적인 정취가 넘친다고 할 수 있다. 멀리서 바라다보이는 아름다운 봄 구름, 그 아래의 높은 산, 그 산빛이 은은하게 시내 다리에 이어져 있다는 묘사는 시인의 예리하고 섬세한 관찰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산에 올라 꽃구경을 하며 술까지 거나해지고 마음에 맞는 상대와 종일 포도주를 주고받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광경이다. 이어서 시인은 내려다보이는 마을에 벌과 새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을 의성어로써 묘사하고, 꽃기운이 달아오르고 봄이 무르익어 비가 내리는 오후의 한적한 풍경을 서술한다. 결국에서는 꽃놀이를 마치



잠두봉 포토 아일랜드에서 바라본 서울 중구

고 돌아오는 상황까지 시에 담에 마치 한 편의 짧은 영상을 본 것처럼 하루 동안 벌어진 유상(遊賞)의 전 과정이 마무리되고 있다.

이처럼 한시에서 남산은 봄에 꽃구경하기에 제격인 명승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남산 안에서도 특히 잠두봉(蠶頭峯)은 꽃구경을 비롯한 봄놀이에 적합한 곳으로 꼽혔다.

잠두봉은 산봉우리가 누에머리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잠두봉은 남산 정상에서 북악산을 바라보고 남산 케이블카 도착 지점 옆 계단을 따라 100미터 정도 내려가면 ‘잠두봉 포토아일랜드’란 곳이 나오는데 바로 그곳이다. 잠두봉은 성인 스무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리 크지 않은 산봉우리다. 잠두봉 너머는 절벽으로 되어 있어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해준다. 김매순(金邁淳, 1776~1840)이 기록한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를 통해 조선 시대 잠두봉이 봄 경치가 뛰어나서 유상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임을 알 수 있다.

서울의 꽃과 버들은 삼월에 제일 아름답다. 남산의 잠두봉(蠶頭峯), 북악의 필운대(弼雲臺)와 두 세심대(洗心臺)가 유상객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구름같이 모이고 안개처럼 밀려들어 한 달 내내 줄지 않는다.³⁾

한양에서 경치가 좋은 곳을 꼽으라면 잠두봉, 필운대, 세심대이다. 춘삼월 잠두봉이 이렇게 유명세를 탄 것은 잠두봉의 경치가 아름다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끊어질 듯한 절벽 위 잠두봉에서 한양을 바라보는 전망이 일품이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문신 윤기(尹愷, 1741~1826)는 잠두봉에 오른 소감을 다음과 같이 드러내었다.

高坐南山第一峯	남산의 제일봉에 높이 올라앉으니
煙花闊展萬千重	고운 봄 경치가 천만 겹 펼쳐지네
若爲借得樵夫斧	나무꾼의 도끼를 빌릴 수만 있다면
斫却面前三四松	앞을 가린 소나무 서너 그루 베내련만

〈登南山蠶頭〉

시인은 봄날 남산 제일봉인 잠두봉에 편안히 앉아 한양의 경치를 감상하고 있다. 멀리 보이는 도성의 경치는 안개 속에 꽃들이 활짝 피어 있어 아름답고 몽롱하다. 다만, 아까부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앞에 있는 서너 그루 소나무이다. 소나무가 경치를 만끽하고자 하는 시인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다. 시인은 나무꾼의 도끼를 빌려서 당장 앞을 가린 소나무를 베어 버리고 싶어한다. 그만큼 잠두봉에서 바라본 경치가 아름답기 때문이다.

이 밖에 고전문학사에서 남산의 명승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은 남산에서 벌어졌던 시회(詩會)와 남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 정지들이다.

3) 金邁淳, 「三月」, 『洌陽歲時記』, “京城花柳盛於三月, 南山之蠶頭, 北岳之弼雲, 洗心二臺爲遊賞湊集之所, 雲攢霧簇盡一月不衰.”

이안눌(李安訥, 1571~1637)은 아래에서 살펴볼 청학도인 이행(李荇)의 증손으로 강도유수, 함경도 관찰사, 예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이태백에 비견될 정도로 시에 뛰어났던 이안눌은, 목릉문단(穆陵文壇)을 주도한 뛰어난 시인으로 한국한시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안눌이 남산에서 벌였던 시회가 바로 ‘동악시단(東岳詩壇)’이다.

그의 후손 이석(李 瀾 1701~1759)의 「동원기(東園記)」에서 그 자세한 내력을 알 수 있다.

동악선생은 날마다 당대 명류인 오봉(五峰, 李好閔), 석주(石洲, 權輶), 학곡(鶴谷, 洪瑞鳳) 등과 어울려 누(樓)에 오르기도 하니 사람들이 신선 같다며 부러워하였다. 단에 모였다가 글 외우고 시 읊는 소리가 마냥 따뜻하고 부드럽게 어울렸기에 그 다락을 가리켜 시루(詩樓)라 하고, 그 단을 일컬어 시단(詩壇)이라 하였다. (중략) 도헌공(都憲公, 李周鎭)이 마침내 그 동산에 담장을 두르고 거칠고 더럽혀진 곳은 가지런히 다듬고 흙을 보태서 단을 수리하고 물을 끌어 연못도 파고 바위에 ‘동악선생시단(東岳先生詩壇)’이라는 글자를 쏘아 새겼다. 푸른 대나무, 붉은 단풍, 철쭉 따위를 고루 갖추어 연못 둘레 섬돌 계단 사이사이에 옮겨 심기도 하였다.⁴⁾

이안눌이 당시의 대표적인 시인들과 시를 짓고 풍악을 즐기면서 놀던 다락을 ‘시루(詩樓)’라 하였고, 그 단을 ‘시단’이라 불렀으며, 사람들이 신선 같다며 부러워하였다는 언급은 그 모임의 청아함을 잘 보여주는 듯하다. 거기에 드나들며 시를 통하여 우정을 교환한 문사로는 이안눌과 함께 정철(鄭澈)의 제자였던 권필(權輶)을 비롯하여 평생의 맞수였던 이호민(李好閔)과 홍서봉(洪瑞鳳), 그리고 이정구(李廷龜) 등이 있었다. 서로 시를 나누고 즐기는 모임에 있어 당파마저도 무색해지는 모습에

4) 李 瀾 + 爽, 「東園記」, 『桐江遺稿』 권5, “先生日與當世名流, 五峰, 石洲, 鶴谷諸公, 會于壇, 會于樓, 燕酣而賦詩, 人皆仰之如神仙. 誦之如韶英, 指其樓曰詩樓, 名其壇曰詩壇. (中略) 都憲公遂就其苑, 繚以爲垣, 剗其荒穢, 增土修壇, 引水爲池, 刻諸巖面曰東岳先生詩壇. 移翠竹, 丹楓, 躑躅之卉於陂陀塔砌之間.”

서 아회(雅會)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세월이 흘러 현손 이주진(李周鎭)이 시단을 보수하고 ‘동악선생시단(東岳先生詩壇)’이라고 바위에 음각한 글씨를 쫓아 새겼다. 이 동악선생시단의 바위는 1984년 동국대학교에서 고시학관을 지을 때 그대로 떠다가 ‘시루’의 자리인 학생회관 옆으로 옮기려 하였으나, 심한 풍화로 쪼개져버려 그 조각을 모아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 현재 동국대 중문 근처에 세워져 있는 비는 새로 제작한 것이다.

이안눌은 벼슬이 예조참판에 이르고 홍문관과 예문관의 제학을 지내기도 했지만 항시 고결한 마음과 청아한 시심(詩心)을 지니고 남산의 언덕과 골짜기를 거닐며 마음 가는 대로 유유히 생활하였다고 한다. 시회를 이끌었던 이안눌의 이러한 성품이 당대의 명사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동악시단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당대의 문인 지식인들의 모임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시사(韓國詩史) 연구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런 모임이 남산 기슭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시심을 절로 불러일으키는 명승으로서의 남산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전통시대 지식인에게 누정(樓亭)은 혼자만의 수양과 독서의 공간이었고 벗과 손이 함께 어울리는 사교와 문학의 장이었다. 누정에 내건 현판에는 주인의 인생과 세계에 대한 생각이 담겼다. 누정의 의미가 이러했던 만큼 누정의 위치는 중요했을 터, 남산 기슭에 있었던 여러 누대와 정자들은 홀로 명상에 잠기기에, 벗과 어울려 담소를 나누기에도 제격이었던 명승 남산의 위상을 보여준다.

남산의 기슭에는 천우각(泉雨閣) · 쌍회정(雙檜亭) · 화수루(花樹樓) · 재산루(在山樓) · 홍엽루(紅葉樓) 등 수 많은 정자들이 있었다. 고종 때의 영의정인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쌍회정(雙檜亭), 정원용(鄭元容, 1783~1873)의 화수루(花樹樓) 등의 정자가 있었으며 특히 남별영(南別營) 계곡물에 세워진 천우각(泉雨閣)은 여름철 피서지로 유명했다.

영조 즉위의 일등공신 중 한 사람으로 ‘이인좌의 난’을 평정할 때도 큰 공을 세운 조현명(趙顯命, 1690~1752)은 남산 자락 필동에 세거하면서 귀록정(歸鹿亭)을 경영하였는데, 녹문산(鹿門山)에 은거한 은자를 추종하는 뜻에서 녹문산으로 귀거



김윤겸의 〈천우각 금오계첩도〉, 1768년, 경기도박물관 소장

래하겠노라 하면서 정자 곁에 사슴을 키웠다. 그리고 남산에는 무학대사(無學大師)가 집터를 잡아준, 조선의 건국공신(建國功臣)인 권람(權覽, 1416~1465)의 집이 있었고 그 집터 위에 소조당(素凋堂) 유적이 있었는데 후에 후조당(後凋堂)이라 했다가 녹천정(綠泉亭)으로 이름이 바뀌어 전해지고 있다.

조현명이 귀록정에서 읊은 시 한 수를 보자.

〈卽事〉

淸樽自酌一琴鳴	맑은 술 자작하며 거문고 소리 듣네
歸鹿亭前月正明	귀록정 앞 달 정녕 밝은데
醉暫成眠眠更覺	취해 잠시 졸다가 졸음에서 깰더니
宮聲已歇羽聲生	궁(宮) 음은 끝나고 우(羽) 음으로 접어드네

맑은 술과 거문고 소리, 귀록정 앞에 정히 밝게 뜬 달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광경이다. 술에 취해 잠시 졸았다가 깨니 옆에서 누군가가 연주하는 거문고 소리는 궁(宮) 음에서 우(羽) 음으로 접어들고 있다. 남산 기슭에 자리한 귀록정의 풍경은 이렇듯 볼 만했던 것이다.

현재 귀록정은 사라지고 그 터에 귀록정이 있었던 곳임을 알려주는 각자(刻字)만이 남아 있으며, 후조당도 그 터에 통감관저 터라는 표지만 있고 후조당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과거 남산이 품었던 이런 소중한 복합 문화적 유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유래나 설명을 담은 안내판 하나



『동국여도(東國輿圖)』 중 도성도, 19세기 전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정도 마련하는 정성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 청빈한 선비의 공간

한편 명승과 더불어 남산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상징은 ‘청빈한 선비의 공간’이다. 우리가 ‘남산’ 하면 으레 떠올리게 되는 ‘남산골 선님’이 바로 이러한 이미지를 대표한다.

구한말 애국지사인 황현(黃玗, 1855~1910)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는 벌얼화된 노론 집권층의 공간인 ‘북촌’과 대비되는 정치적으로 몰락한 소론과 남인 등 소외된 사람들의 공간으로서 ‘남촌’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남인 최우형(崔遇亨)은, 잇달아 청직(淸職)에 발탁되어, 이조판서(吏曹判書)와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과, 봉군(封君)등의 요직을 거쳐, 충훈부(忠勳府)까지 관장하였다. 그가 일찍이 수레를 타고 북촌(北村)에 도착하자, 부채로 코를 가리면서 말하기를, “노론(老論)의 썩은 냄새가, 어찌 이리도 고약한가?”라고 하였다. 서울의 대로(大路)인 종각 이북을, 북촌이라 불렀는데, 이곳에는 노론들이 살았다. 그 남쪽은 남촌이라 하는데, 소론 이하 삼색당(三色黨)이 살고 있었다.⁵⁾

황현은 동시대를 살았던 최우형(崔遇亨, 1805~1878)의 일화를 기록하며 구한말 한양의 지역 분화 상황을 전하고 있다. 최우형의 발언은 당대에 이미 썩은 냄새를 풍긴다고 묘사될 정도였던 노론의 부패 정도를 드러내며 그들이 밀집해서 살았던 ‘북촌’이 집권층 노론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어지는 황현의 언급은 대로인 종각을 기준으로 남촌·북촌이 나뉘며, 남촌에는 소론 이하 삼색당(三色黨), 즉 남인이나 북인을 비롯한 소외된 사람들이 주로 거주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조금 더 후대인 일제강점기 잡지의 기록 역시 비슷한 상황을 전하고 있다.

이제 넷 서울의 各 族屬의 분포상황을 畧記하면, 北山 밋힐 北村, 南山 밋힐 南村, 駱山 근처를 東村, 西小門 内外를 西村, 長橋, 手標橋 어름을 中村, 廣通橋 以上을 우대, 孝橋 以下를 아레대, 江邊을 五江, 城밧 四面 10里 以内를 字內(字內라 함은 서울 城壁에 天地 玄黃의 順으로 어느 점으로부터 어느 점까지의 間은 天字區域 혹은 地字區域이라 하여, 그 문자와 문자의 間을 各 軍營에서 分擔 守備한 故이다)라 하여, 동, 서, 남, 북의 네 村 (通稱 日 四山밋)에는 양반이 살되, 北村에는 文班, 南村에 武班이 살었으며, 또 가튼 文

5) 黃玑, 『梅泉野錄』 권1, “南人崔遇亨, 連擢淸要, 至吏判, 弘提, 封君, 兼管忠勳府, 嘗乘輅至北村, 舉扇掩鼻曰, ‘老論腐臭, 何其薰也.’ 京師大路鍾閣以北, 謂之北村, 老論居之. 南曰南村, 少論以下三色雜居之.”

班의 양반이로되, 西村에는 「西人」이 살었으며, 그 후 西人이 다시 老論 少論으로 난위
고 東人이 다시 南人, 北人, 또 大北, 小北으로 난임에 미치는, 西村은 少論, 北村은 老論,
南村은 南人이 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사실은 少論까지 雜居하되 주로 武班이 살었으며,
그리고 東村에는 小北, 中村은 中人 우대는, 六曹 이하의各司에 소속한 吏輩 庫直 族屬
이 살되 특히 茶洞 相思洞 等地에 商賈(통칭 市井輩)가 살었고 아래대는 각종의 軍屬(將
校 執事 等類)이 살었으며 특히 宮家를 중심으로 하여 景福 西便宮 樓下洞 근처는 所謂
大殿別監(宮家の 隸屬)派들이 살고, 昌德宮 東便의 苑南洞 蓮池洞 근처는 武監族屬이 살
었으며, 東小門 안 成均館 근처는 館人(속칭 館사람)이 살고, 往十里에는 軍銃(兵丁)들이
살고, 五江邊에는 船人商賈들이 만히 살었는데 속칭 강대사람이라 함은 강변에 사는 사
람을 지칭함이었다.⁶⁾

천도교 세력을 배경으로 발행된 월간 종합잡지 『개벽(開闢)』의 기록이다. 이 기
록에 의하면 내사산인 북악, 인왕, 목멱, 낙산 아래 경치가 좋은 곳은 모두 양반들이
사는 곳이었다. 북촌은 북악산 아래인 창덕궁과 경복궁 사이 지역으로, 이곳에는 집
권 양반인 노론 세력이 집단 거주하였다. 남촌은 목멱산 아래 지역으로 무반과 더불어
실세한 남인과 소론 세력들이 잡거하였다. 소북 세력은 낙산 주변에 거주하였고,
소론은 서소문 근처에 거주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성내의 주거지 분화는 종로를 경계로 지배층이 주축을 이루는 북촌과 한
미한 양반·상인·하층민 등이 주류를 이루는 남촌으로 구분되었다. 지리적으로 볼
때 북촌은 백악산 남쪽에 위치하여 맥의 기가 충만한 명당으로 인식되어왔다. 이곳
은 남향받이인 동시에 배수가 양호한 도성 내 최상의 주거지였으므로 경복궁·창덕
궁 등 다수의 궁궐과 중요한 관아가 배치되고 지배층도 이곳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국가의 핵심부로 조성하였다. 반면 목멱산 밑의 남산골에는 한미한 양반의 주거지,
구리개 일대에는 약재상 및 의원들의 주거지, 다방골에는 기생촌, 광희문 일대에는
무관과 군병들의 주거지가 형성되었다.

6) 小春, 「네로 보고 지금으로 본 서울 中心勢力的 流動」, 『開闢』 48호(1924년 6월 1일 발행)

앞서 살펴본 시들이 남산의 아름다운 경관과 그 속에서 한껏 고양된 유상의 즐거움을 노래했다면, 조선 후기 문인 강준흠(姜浚欽, 1768~1833)이 노래한 남산은 변화한 성시와 대비되는 청빈한 선비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인경산이라고 했으며, 도성 안 남쪽에 있다(舊號引慶山, 在都城內南).

漢陽烟花一萬重	한양에는 안개 속의 꽃이 일만 겹으로 피고
家家正對木覓山	집집마다 목멱산 봉우리를 바로 대하고 있네.
木覓之西我家深	우리 집은 목멱산 서쪽 기슭 깊은 곳에 있어
松間五峰見二峰	소나무 사이로 오봉(五峰) 중에서 2개 보인다네.
土厚園林饒果木	땅은 비옥하여 원림에는 과일나무 잘 자라고
世平隣里聞歌鍾	세상은 평안하여 옆 마을에서 풍악 소리 들리네.
一生我是無求者	나는 평생 바라는 바 없으니
胡在都人穰穰中	어떻게 도성 사람들 변화한 속에서 살겠는가.

〈漢京雜詠·木覓山〉

강준흠의 「한경잡영(漢京雜詠)」은 총 40수의 연작시로 한양의 지명을 제목으로 삼고 있으며, 시에 앞서 지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위의 시는 목멱산, 즉 남산을 노래하였는데, 이를 통해 강준흠의 집이 남산 기슭에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 시의 첫 구절은 두보의 「상춘(傷春)」의 “장안에서 삼천리 떨어진 변방의 요새, 안개 속의 꽃이 일만 겹이라(關塞三千里, 烟花一萬重).”를 활용하여 남산에서 바라본 한양의 봄 풍경을 나타냈다. 위의 시에서 앞의 두 구절은 자신의 집에서 도성을 바라본, 즉 남산 기슭에서 바라본 도성을 묘사한 것이다. 시의 중반부에서는 집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태평한 시대에 터가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나타냈다. 마지막 두 구절에서 시인이 진정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공간에 대한 느낌이 드러나는데, 자신의 집과 성시를 대비시켜 남산 기슭에 있는 자신의 집을 탈속적인 선비의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남산한옥마을 안내도

한편 고전소설로 시선을 돌려 ‘남산골 산님’을 떠올려 보면 우리의 뇌리를 단번에 스치는 인물이 있으니, 즉 ‘허생(許生)’이다.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한문 소설 「허생전(許生傳)」의 도입부는 다음과 같다.

허생은 묵적골에 살았다. 곧장 남산 밑에 이르면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고, 사립문이 은행나무를 향하여 열렸는데 두어 칸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했다. 그러나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샅바느질을 해 입에 풀칠을 했다. 하루는 그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먹이며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에 나가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 합니까?”

허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에 익숙하지 못하다오.”

“그럼 장인 일도 있잖아요?”

“장인 일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소?”

“장사도 있지 않나요?”

“장사는 밑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소?”

처는 마침내 성이 나서 꾸짖기를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배운 게 단지 ‘어찌 하겠소?’란 말씀이오?”

목적골은 현재의 목정동(墨井洞)으로 추정된다. 허생이 살고 있는 남산 기슭의 초가삼간은 비바람도 막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기만 하다. 당대 소외된 선비들의 거주 공간인 남산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의 샅바느질에 의지해 입에 풀칠을 하고 있으면서도 허생은 글만 읽고 있을 따름이다. 가난으로 고통받을지언정 글 읽기를 포기하지 않고 수공업이나 장사 따위는 하지 않겠다는 남산골 선님의 꼬장꼬장한 자존심이 엿보인다.

이후의 이야기는 주지하는 바와 같다. 허생은 부자 변 씨에게 돈을 꾸어 매점매석으로 큰돈을 벌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남은 돈으로 변 씨에게 빌린 돈의 두 배로 빚을 갚는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영영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허생은 가난했지만 결코 무능하지는 않은 선비였던 것이다.

남산골 선님의 이미지는 이희승의 수필 「딸깍발이」에서 그 구체적 형상의 완성형이 만들어진단다.

겨울이 오니 땔나무가 있을 리 만무하다. 동지 설상(雪上) 삼척 냉돌에 변변치도 못한 이부자리를 깔고 누웠으니, 사뭇 뼈가 저려 올라오고 다리 팔 마디에서 오도독 소리가 나도록 온몸이 곧아오는 판에, 사지를 웅크릴 대로 웅크리고 안간힘을 꽂꽂 쓰면서 이를 악물다 못해 박박 갈면서 하는 말이 “요놈, 요 꽤심한 추위란 놈 같으니. 네가 지금은 이렇게 기승을 부리지마는 어디 내년 봄에 두고 보자” 하고 버르더라는 이야기가 전하지만, 이것이 옛날 남산골 ‘딸깍발이’의 성격을 단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이야기다. 사실로는 졌지마는 마음으로는 안 졌다는 앙큼한 자존심, 꼬장꼬장한 고지식,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겹불을 안 켜는 지조, 이 몇 가지가 그들의 생활신조였다.



우리말 연구에 일생을 바친 일석 이희승

‘딸깍발이’는 가난한 선비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배산임수로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는 북촌과 달리 남촌은 상대적으로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땅이 질었다. 가난하고 소외된 선비들이 거주하게 되었던 이유이다. 옛날 남산골에 살던 선비들이 가난하여 맑은 날에도 딸깍딸깍 소리를 내며 나막신을 신고 다닌 데서 ‘딸깍발이’라는 말이 유래한 것이다. 이곳에 살던 선비들은 비록 벼슬도 못하고 빈궁하게 지냈지만, 그 기개만큼은 대단했다. 수필은 ‘양큼한 자존심’, ‘꼬장꼬장한 고지식’, ‘얼어 죽어도 젖불은 안

뜬다는 지조’로 그들의 생활신조를 적실하게 표현했다.

“남산골 샌님 역적 나기 바란다”, “남산골 샌님 원(員) 하나 내지는 못해도 뿔 권리는 있다”라는 속담들 역시 남산골 샌님에 반영되어 있는 인식을 잘 보여준다. 전자는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어 벼슬에 오를 길이 막막하니 혹시 역모라도 일어나 그 참에 벼슬자리나 얻지 않을까 기대한다는 것이다. 엉뚱한 일을 바란다는 의미로, 다소 비아냥대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후자는 가난하고 소외되어 그 구성원 내에서 원(員) 하나 낼 세력도 없는 처지이지만, 그 특유의 고집과 타협하지 않는 지조로 남이 원이 되는 것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산골 샌님 특유의 이미지를 적절하게 보여주는 속담들이다.

가난하고 소외되었지만 청빈했던 선비의 공간으로서의 남산 이미지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청학동(靑鶴洞)’과 그곳에 살았던 ‘청학도인(靑鶴道人)’ 용재(容齋) 이행(李荇, 1478~1534)이라는 인물이다.

청학동은 현재 남산 북쪽 기슭 남산1호터널 입구 일대이다. 앞서 언급했던 녹천정에서 동쪽으로 있는 필동 골짜기의 둔덕 바위 위에 ‘청학동이상국용재서사유지(靑鶴洞李相國容齋書舍遺址)’라 새긴 암각 글씨가 있어 이곳이 ‘청학도인’이라 불렸던

이행의 집터임을 알 수 있다. 이행은 우의정, 대제학의 높은 벼슬자리에 있었지만 이곳에 공부방을 꾸미고 퇴궐 후에는 망건에 무명옷 차림으로 동산을 거닐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곳에 남산한옥마을이 들어서 있다.

이행과 보다 조금 앞선 시기를 살았던 성현(成俔, 1439~1504)은 『慵齋叢話(慵齋叢話)』에서 한양의 경치가 좋고 놀기 좋은 곳으로 청학동을 꼽았다.

한성 도중(都中)에 좋은 경치가 적기는 하나 그중에서 놀 만한 곳은 삼청동(三清洞)이 가장 좋고, 인왕동(仁王洞)이 다음이며, 쌍계동(雙溪洞)·백운동(白雲洞)·청학동(靑鶴洞)이 또 그다음이다.⁷⁾

청학동은 남학(南學, 사학(四學)의 하나)의 남쪽 끝에 있는데, 골이 깊고 푸른 내가 있어 놀 만한 곳이기는 하나 산에 나무가 없으니 이것이 한스러운 일이다.⁸⁾

성현의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 전기에 이미 청학동은 골이 깊고 푸른 내가 있는 빼어난 경치로 이름이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의 기록으로는,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이 청학동에 대해 “도성의 남촌 필동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 가운데로 한 줄기 산골 물이 흐르니 곧 남산의 산록이다. 곁에는 금어영 화약고가 있다”는 상세한 변증을 남겼으며, 김정호(金正浩, 1804~1866)의 『대동지지(大東地志)』(1864)에도 한양의 남산 남쪽(잠두산 북쪽)에 청학동이 있었다는 표기가 확인된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필자 미상의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에서는 이행의 서재가 목멱산 기슭 청학동에 있는데 집 뒤에 병풍바위와 반석이 있어서 그윽하고 고요하기가 사랑할 만하다고 하였다.

7) 成俔, 『慵齋叢話』 권1, “漢城都中, 佳境雖少, 而其中可遊處三清洞爲最, 仁王洞次之, 雙溪洞白雲洞靑鶴洞又其次也.”

8) 成俔, 『慵齋叢話』 권1, “靑鶴洞在南學之南洞, 洞深有清川可候, 然山童無樹木, 是可恨也.”



정수영, 〈백사회야유도(白社會野遊圖)〉, 1784년

이러한 기록들은 청학동의 아름답고 고요한 경관을 증언하며, 청학동이 조선 시대에 이미 하나의 독립된 문화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청학동을 이행이 살았던 곳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이와 함께 명(明)나라 사신인 당고(唐皐)와 사도가 이행의 서옥을 소재로 쓴 시를 실어 놓았다.

朝鮮城裏靑鶴洞	조선(朝鮮) 성 안 청학동에,
誰向此間起雲棟	누가 이곳 찾아 높은 집 지었나.
我隨使節始得聞	내 지금 사절(使節) 따라와서 처음으로 들으니,
靑鶴仙人作書甕	청학선인(靑鶴仙人)의 글독[書甕]이라네.
仙人偶爾寄市廛	선인이 우연히 시전(市廛)에도 나오지만,

有時騎鶴遊海天	때로 학을 타고 저 하늘가에 논다네.
問渠服食者何物	그의 의복 음식 무엇인가 물었더니,
紫雲裳衣玉潤泉	자색 구름 의상(衣裳)에 옥처럼 맑은 산골 샘물 마신다네.
洞門正在雲深處	동문(洞門)이 바로 저기 구름 깊은 곳에 있으니,
案上瑤篇不知數	책상 위 신선의 책 몇 권인지 모르겠네.
邇來蹤跡有人知	근래에 종적을 아는 사람 있어,
携入王門葆真去	왕문(王門)에 데리고 들어가 수양한다네.
仙居不與塵凡同	신선 사는 그곳이 인간 세상 같으랴,
青鶴有聲常唳空	청학이 소리 내어 공중에서 울고 있다네.
夜深猶來山月白	밤 깊어도 저 산에 달 밝아 있고,
春歸未改巖花紅	봄은 가도 바위 밑의 꽃은 전과같이 붉다네.
我懷仙洞不得往	선동(仙洞)을 그리워하며 가지는 못하니,
聊以新詩託心賞	새 시[新詩]나 지어 마음을 표시하네.
回首黃山六六峯	저 멀리 황산(黃山) 66봉으로 머리 돌리니,
白鶴蒼松動遐想	흰 학과 푸른 소나무가 초연한 먼 생각 일으키누나.

이 시에서 당시 청학동의 풍경과 용재의 인품이 어떠했는가를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는 높은 벼슬자리에 있으면서도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청학도인이라 하여 세상을 초연하게 마을 이름과 같이 학처럼 생활하려 했음을 볼 수 있다. 『동국여지비고』에는 용재가 길 양쪽에 소나무·전나무·복숭아나무·버드나무를 심고 관직에서 물러난 뒤 이곳 청학동에서 지팡이를 짚고 이 산 주위를 거닐었다고 한다.

앞서 잠시 보았던 강준함의 「한경잡영」에도 청학동을 제목으로 읊은 시가 포함되어 있다.(〈漢京雜詠·青鶴洞〉)

목멱산 북쪽에 있다(在木覓山北).

走獸不離山	금수는 산 떠나지 않고
棲鳥必歸林	숲에 깃든 새는 반드시 숲으로 돌아온다네.
士也讀古書	고서를 읽는 선비에게
豈無邱壑心	어찌 산수를 좋아하는 마음 없겠는가.
市井穰穰宜近利	시정은 변화하여 으레 이익을 가까이하니
衣冠自古居閑地	선비들은 예부터 한가로운 곳에 거처하였네.
試看國朝名宰相	국조의 명재상들의 거처를 한번 살펴보면
強半樓臺傍山翠	대부분 푸른 산 옆에 누대가 있었다네.
翼平故宅棲半峯	익평부원군 옛집은 산중턱에 있었고 ⁹⁾
孟氏幽居隣萬松	맹씨의 호젓한 거처 만송과 이웃했다네. ¹⁰⁾
(중략)	(중략)
縉紳如今足一慨	개탄스럽게도 지금의 진신들은
揔避山林入闕闥	모두 산림을 피하고 저잣거리에 들어와 살며
日出人間事錐刀	해 뜨면 인간 세상으로 나가 이익 좇는 것 일삼고
爭利爭名幾百輩	명리 다투는 자들이 수백 무리라네.
可惜南山青鶴洞	애석하도다, 남산 청학동에 있던
議政書屋今安在	의정의 서옥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¹¹⁾
翠崖丹壑寂無人	푸른 벼랑 붉은 골짜기 적막하여 사람 없으니
吾欲殘年去種菜	나는 만년에 그곳에 가서 푸성귀 심겠노라.

위 시는 이행이 살았던 청학동을 소재로 하여 명리를 중시하는 당시의 사대부들을 비판한 것이다. 위 시에서는 역대 조선의 인물들 중 도성 인근의 산에 살았던 인

9) 원주에 “익평부원군 권람은 남산의 북쪽 기슭에 살았으며, 집 이름을 후조당이라고 하였다(翼平府院君權攄居南山北麓, 稱後凋堂).”라고 하였음.

10) 원주에 “우의정 맹사성은 백악산 남쪽 기슭에 살았다(右議政孟思誠居白岳南麓).”고 하였음.

11) 원주에 “우의정 용재 이행의 서옥에 대해 천사 당고와 사도가 시를 지은 바 있다(右議政容齋李衍書屋, 有天使唐皐, 史道所題詩).”고 하였음.

물들을 나열한 뒤에 이행이 살았던 청학동을 마지막으로 제시하였는데, 중략된 부분에서 언급한 인물과 그와 관련된 장소는 이안눌의 비파정, 김상용의 청풍계, 이수광의 지봉 등이 있다. 강준흠은 시의 후반부에서 창작 당시에 번잡한 도성에서 살며 명리를 탐하는 사대부들을 비판하며 그 자신은 속세의 가치에 연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시를 마무리하였다.

이 시의 내용은 성시와 산이라는 속세와 탈속의 공간을 대비시키면서, 궁벽한 곳에서 한거하는 삶을 즐기지 못하고 성시에서 살며 명리를 탐하는 사대부들을 비판이다. 이 시에서 성시와 산은 명리에 집착하는 삶과 초연한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간의 대비를 통해 명리를 추구하는 사대부들의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여기에서 청학동이라는 장소는 이행이라는 인물과 함께 이행처럼 산에서 살았던 역대의 유명한 인물들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2장 변화한 도시적 유상공간 청계천

이름 그대로 서울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증구는 청계천(淸溪川)이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다. 한양이 조선 왕조의 도읍으로 정해진 이후, 청계천은 도성 안을 지리적으로 구분하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주거, 그리고 사회·경제·문화적인 면을 구분하는 상징적인 경계선으로도 작용했다.

조선 시대에 청계천은 ‘개천(開川)’이라고 불렸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양의 지리적 특성상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도성 한가운데로 물길이 모일 수밖에 없었고, 여름이면 자주 범람하는 청계천을 정비하기 위해 1411년(태종11) 12월 하천을 정비하기 위한 임시기구로 ‘개천도감(開渠都監)’을 설치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412년(태종12)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모두 52,800명의 인부를 투입하여 대대적인 공사를 실시하였다. ‘개천’이라는 말은 ‘내를 파내다’라는 의미로 자연상태의 하천을 정비하는 토목공사의 이름이었는데, 이때의 개천 공사를 계기로 지금의 청계천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된 것이다.

‘청계천’이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의 신문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며, 1927년



한양과 그 주변 지역을 그린 <성시전도(城市全圖)>(작자 미상, 개인 소장). 1780년대에 제작된 지도로 도성 안의 도로와 물길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그림 위쪽이 남쪽이다.

일제에 의해 조선하천령(朝鮮河川令)이 제정된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청계천’이라는 이름 자체는 경복궁 서북쪽 백운동 부근을 흐르는 ‘청풍계천(淸風溪川)’이 줄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지형 조건상 한양 분지의 중앙을 횡으로 관류하는 청계천변 저지대는 침수가 찾아 조선조 중기까지 개발이 유보된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이 저지의 남쪽에 위치하는 목멱산록의 넓은 토지 역시 개발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초기의 도시계획이 종로와 숭례문로를 축으로 하는 T자형으로 시행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성내 인구가 급격한 증가를 보인 17세기 후반부터 청계천 정비공사가 시작되었고, 이 하천변의 저지대 개발도 촉진되었다. 그 결과 18세기 이후에는 T자

의 하단부 우측에 속하는 저지대가 도성 내에서 가장 인구가 조밀한 상공업자의 주거지로 바뀌었다.

그리고 서대문에서 남대문을 지나 목멱산록에 이르는 ‘ㄴ’자형 구릉지는 청계천변보다 고도가 10~30미터 정도 높기 때문에 직업 구성이 다양한 주민들의 주거지로 발달하였다. 즉 육조를 비롯한 관아지구와 가까운 서대문 안쪽에는 하급관리와 무관, 서소문 안의 동평관(東平館), 태평관(太平館) 및 예빈시(禮賓寺) 등 아문의 주위에는 훈련도감 군병들의 주거지가 형성되었다.

이번 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고전문학 속 청계천의 모습은 조선 후기, 즉 성내 인구 증가에 따라 청계천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청계천이라는 공간이 변화한 도시적 유상공간으로 부상했던 때의 모습이다.

이제 고전문학에 나타난 서울 중구의 두 번째 모습으로 조선 후기 문학 속에서 재현되는 ‘청계천’ 및 그 주변이 어떠했는지, 특히 많이 언급되는 ‘광통교’와 ‘수표교’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광통교: 남북대로를 연결하는 큰 다리

다리는 기본적으로 물을 건너기 위한 수단이지만, 전통 시대의 다리는 마땅한 공공장소가 없었던 시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고, 길을 가던 사람들이 쉬어 가는 쉼터로서 생활 문화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다.

광통교(廣通橋)는 청계천에 놓인 다리 중 그 크기가 가장 컸으며 경복궁·육조거리·종루·승례문으로 이어지는 남북대로를 연결하여 당시 나라 안의 대로(大路)라고도 불렸다. 광통교는 광통방(廣通坊)에 있던 큰 다리였으므로 대광통교(大廣通橋)라고 하였으며, 줄여서 대광교(大廣橋) 혹은 광교(廣橋)라고도 불렸다. 또한 다리 주변에 시전(市廛)이 위치하고 있어 도성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다리이기도 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광통교의 모습을 살펴보자.

운종가 남쪽 성안에 있다. 모든 물이 여기에서 모이는데 개천이라 부르며 흥인문의 오간수문을 거쳐 한강으로 들어간다. 다리가 두 개 있는데, 대광통교와 소광통교이다(在雲從街南城內. 衆水皆會于此, 號曰開川, 由興仁門五間水門入漢江. 橋凡有二, 曰大廣通橋曰小廣通橋).

漢陽一半開川直	한양 땅 반절은 개천에 접해 있고
橋上行人往來織	다리에는 행인들 뱅뱅하게 오고 가네.
作何經營向何處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는가.
水流無停人不息	물은 쉼 없이 흐르고 사람들도 끊임없이 지나가네.
貴賤賢愚共一塗	귀하거나 천하거나 잘나거나 못나거나 모두 한길로 다니고,
北者向南南者北	북에서 온 사람 남으로 건너가고 남에서 온 사람 북으로 건너가네.
唯有橋邊兩石獸	오직 다리 가에 있는 두 개의 석수만이
今歲明年立如舊	올해나 내년에나 예전처럼 서 있을 테지.
人生在世皆有欲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모두 바라는 바 있어
服藥求仙還損壽	약을 먹고 신선 되려고 하나 도리어 수명 줄인다네.
安得身如費長房	어떻게 하면 비장방(費長房)처럼
別向壺中作宇宙	따로 호리병으로 우주를 만들 수 있을까.

〈漢京雜詠·廣通橋〉

시에 앞서 광통교에 대해 붙인 설명을 보면, 청계천의 물의 흐름과 조선 후기에 청계천이 개천이라고 불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강준함이 묘사하는 광통교는 행인들이 끊임없이 지나가고, 또한 다리 아래의 개천도 끊임없이 흐르는 곳이다. 그는 다리 가에 놓인 석수(石獸)만이 변함없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제시함으로써, 다리 위로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다리 밑으로 흐르는 개천이 영속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었다. 시의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장소의 속성을 인생의 유한함과 연결시켜, 모두 신선과 같이 영생을 살기를 바라지만 현실에서 이를 수 없



광통교는 육조거리-운종가-송례문으로 이어지는 도성 안 중심 통로이자 주변에 시전이 위치하고 있어 도성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다리였다.

음을 나타내면서 시상을 마무리하였다. 비장방(費長房)은 후한(後漢)의 술사(術士)로, 시장에서 약을 파는 선인(仙人) 호공(壺公)의 충애를 받아 그의 호리병 속으로 들어갔더니, 그 안에 일월(日月)이 걸려 있고 선경인 별천지(別天地)가 펼쳐져 있더라는 전설이 전한다(『후한서(後漢書)』 권 82下, 「방술열전(方術列傳) 下·費長房」).

작가는 광통교에서 다리 위로 다니는 행인들과 그 밑에 흐르는 개천을 통해 인생의 유한함을 느끼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는 생활 속에서 개인이 접하는 공간에 대한 느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국도(國都)로서의 서울이 아닌, 작가가 개인의 시전에서 평소에 접하는 서울의 모습을 보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통 시대의 다리가 교통의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보니 다리 근처에는 자연스럽게 물건을 사고파는 시전이 형성되었고, 여러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놀이가 생겨났다.

강이천(姜彝天, 1768~1801)은 「한경사(漢京詞)」에서 좋은 싸움닭을 구하기 위해 광통교로 몰려가는 풍경을 묘사했다.

鐵距花冠不愛錢	무쇠 발톱 화려한 벃에 돈을 아끼지 않고
買鷄多向廣通川	싸움닭을 살 땐 광통천으로 몰려간다네
非耽文彩非耽響	빛깔도 울음소리도 중요치 않으니
賭鬪隣坊勝十全 ¹²⁾	이웃 동네와 내기 때마다 이기기 위해서라네

「한경사」는 18세기 후반 서울의 풍속과 세태를 7언 절구의 짧은 편폭 속에 담아 낸 것으로, 총 106수의 연작시이다. 「한경사」에 묘사된 한양은 상품 화폐경제와 상업의 발달로 도시 문화가 번성하면서 새로운 활력으로 가득 찬 모습이다. 시인의 시선은 서울의 산수경관, 인정세태, 세시풍속, 가악풍류, 궁중행사, 민속연희 등 어느 하나로 고정되는 법이 없이 온갖 다양한 시정의 풍경들을 마치 스냅 사진을 찍듯이 가벼운 필치로 그려나가고 있다.

시에서 광통천은 청계천 중에서 광통교가 있던 곳을 가리킨다. 이 시는 좋은 싸움닭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광통교로 몰려가는 광경을 읊은 작품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의하면, 계씨(季氏)와 후씨(邱氏)가 닭싸움을 할 때에 계씨는 거자를 찢어서 닭의 깃털에 뿌리고, 후씨는 쇠로 발톱을 만들어 닭의 발에 끼웠다고 하니, 닭싸움의 역사는 2,500여 년이 넘는 듯하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닭싸움이 시작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고려 시대에는 이미 들어왔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대부들은 닭싸움을 왈짜들이나 하는 사행성 오락으로 간주하여 탐탁지 않게 여겼는데, 특히 조선 후기의 이익(李瀾)은 이유도 묻지 않고 한 마리가 고꾸라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잔인한 마음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닭싸움은 점점 민간의 오락으로 정착되어 갔다. 시인은 광통교 주변에

12) 십전(十全): 10번 치료하여 10번 낫게 한다는 뜻으로, 완전무결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투계가 백전백승한다는 의미이다.

서 상품(上品)의 싸움닭이 판매되고 있고, 또 닭의 소리나 빛깔이 아니라 오로지 승리할 수 있는 싸움닭을 찾고 있는 현장을 포착하고 있다. 광통교는 18세기 후반에 각종 행사가 개최되던 중심지이다. 이곳에서 공공연하게 싸움닭이 거래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행성 오락’인 닭싸움이 민간에서 널리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조수삼(趙秀三, 1762~1849)이 닭싸움을 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읊은 시의 일부로, 싸움닭의 모습과 훈련 과정, 닭싸움 장소와 싸움 광경 등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長安游俠兒	서울의 한량들은
家家養奮雞	집집마다 날랜 닭을 기르네
雞性似兒心	닭의 성질 아이 마음 같은데
心中錢戟齧	마음속엔 시퍼런 창이 들었네
金鐵雙距利	두 발톱엔 날카로운 쇠를 입혔고
紋繡兩翼齊	양 날개는 화려하게 수를 놓았네
羊溝勝人者	투계장에서 남을 이기려는 자는
狸膏頭上塗	닭 머리에 살랭이 기름 바르네
望之木雞似	바라보면 나무로 만든 닭 같은데도
且養十日兮	또 열흘 동안을 훈련시키네
何處可傳檄	어디에서 싸우자고 하는가
春風桃李蹊	봄바람 부는 복사꽃 오얏꽃 핀 곳이라네
手中三尺鷄	수중에 있는 세 척의 큰 닭은
兩兩各提携	양쪽이 모두 하나씩 끼고 있네
長鳴較先後	길게 우는 것으로 선후를 겨루고는
植立分東西	동쪽과 서쪽에 곳곳이 나누어 섰네
示間每虛啄	느슨함을 보일 때는 매양 헛되이 찹고
欲動頻側睇	움직이려 할 때는 자주 곁눈질하네
猛勢疾風雨	맹렬한 기세는 세찬 비바람 같아

碎羽飄塵泥	찢긴 깃털이 진흙 바닥에 흩날리네
乘機撲而蹴	승기를 타면 날개로 치고 발로 차고
躍身高復低	몸을 솟구쳐 높이 올랐다 다시 내리찍네
血戰過三時	하루 종일 피 튀기며 싸우다가
佯走環一堤	거짓으로 달아나 방죽을 도네
翻覆不相捨	엎치락뒤치락 서로 놓지 않으니
所爭知爲奚	왜 싸우는지 이유도 모르네
乍勝氣揚揚	잠깐 이기면 기세가 등등하여
鼓翅更一啼	날개를 파닥이며 다시 울어 젖히네

〈鬪鷄〉, 『秋齋集』 권5

한편 강이천이 「한경사」에서 묘사하는 광통교의 또 하나의 모습은 서화(書畵)가 소비되고 유통되는 공간이다.

日中橋柱掛丹青	한낮의 광통교 다리 기둥에 그림이 걸렸는데
累幅長絹可幃屏	여러 폭 긴 비단 그림은 병풍으로 만들 만하네
最有近來高院手	무엇보다 근래엔 솜씨 좋은 화원의 그림 있으니
多耽俗畵妙如生	살아 있는 듯 절묘한 속화를 많이들 탐내는구나

이 시는 광통교 아래에 속화(俗畵)가 전시되고 거래되는 상황을 읊은 것이다. 속화의 ‘속(俗)’은 사대부들의 문인화와 구별하기 위해 붙인 것이다. 사대부의 문인화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진수를 그림으로 형상화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았고, 채색을 하더라도 맑고 얹게 한다. 이에 비해 속화는 채색도 진하고 구체적인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속화는 조선 후기에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이는 서울의 도시화·상업화와 무관하지 않다. 알다시피 18세기 서울은 기방과 술집이 유행하고, 화훼·골동 등의 소비문화가 확산되었다. 특히 역관(譯官)을 중심으로 한 중인층은 도시 문화 형성의



광통교 서화사 전시 포스터(서울역사박물관)

첨병이었고, 이들은 속화를 구매하는 주요 고객이기도 하였다.

차비대령화원(差備待令畫員)은 왕실과 관련된 서사와 도화를 담당하기 위해 도화서에 임시로 차출되는 화원인데, 이들을 선발하는 시험을 녹취재(祿取才)라 한다. 순조 3년(1803)의 녹취재에서 ‘광통교매화(廣通橋賣畫)’라는 시험 문제가 추천되었다고 하니, 속화는 민간뿐만 아니라 궁중에서도 관심을 두었다고 하겠다.

시인은 광통교 아래에 각양의 그림들이 전시된 것을 읊으면서 살아 있는 듯 빼어난 그림들에 감탄하고 있으며, 궁중의 화원이 그린 것이라 하였다. 실제로 궁중의 화원이 그

린 것인지 그에 상응할 정도로 그림이 빼어나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속화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한산거사(漢山居士, 19세기)라는 필명을 쓰는 작자가 1844년에 창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장편 가사인 「한양가」도 광통교에 속화가 전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광통교(廣通橋) 아래 가게 각색 그림 걸렸구나
 보기 좋은 병풍차(屏風次)에 백자도(百子圖) 요지연(瑤池宴)과
 괘분양(郭汾陽) 행낙도(行樂圖)며 강남금릉(江南金陵) 경직도(耕織圖)며
 한가한 소상팔경(瀟湘八景) 산수(山水)도 기이하다
 다락벽(壁) 계견사호(鷄犬獅虎) 장지문[障子門] 어약용문(魚躍龍門)
 해학(海鶴) 반도(蟠桃) 십장생(十長生)과 벽장문차(壁幀門次) 매죽난국(梅竹蘭菊)
 횡축(橫軸)을 볼작시면 구운몽(九雲夢) 성진(性眞)이가

팔선녀(八仙女) 희롱하여 투화성주(投花成珠) 하는 모양
 주(周)나라 강태공(姜太公)이 궁팔십(窮八十) 노옹(老翁)으로
 사립(紗笠)을 숙여 쓰고 곧은 낚시 물에 넣고
 때 오기만 기다릴 제 주문왕(周文王) 착한 임금
 어진 사람 얻으려고 손수 와서 보는 거동
 한(漢)나라 상산사호(商山四皓) 갈건야복(葛巾野服) 도인(道人)모양
 네 늙은이 바둑 둘 제 제세안민(濟世安民) 경영(經營)일다
 남양(南陽)의 제갈공명(諸葛孔明) 초당(草堂)에 잠을 겨워
 형익도(荊益圖) 걸어 놓고 평생을 아자지(我自知)라
 한소열(漢昭烈) 유황숙(劉皇叔)이 삼고초려(三顧草廬) 하는 모양
 진처사(晉處士) 도연명(陶淵明)은 오두미(五斗米) 마다하고
 팽택령(彭澤令) 하직하고 무고송이(撫孤松而) 반환(盤桓)이라
 당학사(唐學士) 이태백(李太白)은 주사청루(酒肆靑樓) 취하여서
 천자호래(天子呼來) 불상선(不上船)을 역력히 그렸으며
 문에 붙일 신장(神將)들과 모대(帽帶)한 문비(門婢)들을
 진채(眞彩) 먹여 그렸으니 화려하기 측량없다.

「한양가」는 광통교 아래의 가게에서 가지각색의 그림을 걸어두고 판매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 펼쳐질 듯이 묘사했다. 그뿐만 아니라 백자도(百子圖)·곽분양행락도(郭汾陽行樂圖)·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경직도(耕織圖)·구운몽도(九雲夢圖)·십장생도(十長生圖) 등 그림의 종류와 그 그림에 표현된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렇듯 고전문학에서 조선 후기 광통교 부근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시전이 형성되고 놀이 문화가 발달했으며, 서울의 도시화·상업화로 화훼·골동 등의 소비 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속화가 유통되는 공간으로 재현되고 있다.

한편 밤의 광통교는 고즈넉하게 흐르는 물소리와 은은한 달빛을 배경으로 밤놀이를 즐기기에 제격이었다.

정조(正祖, 1776~1800)가 주로 세손 시절에 지은 작품을 모은 『춘저록(春邸錄)』에는 비 갠 후 광통교에서 달구경을 하는 아름다운 광경을 읊은 시가 있다.

去去來來第五橋	제 오교를 가고 또 가고 오고 또 오니
十分明月上元宵	십분 밝은 달 두둥실 상원의 밤이로세
誰家簾幕開新酒	누 집의 주렴 안에 새로 빛은 술 펼치었으며
何處樓臺弄碧簫	어느 곳 누대에선 푸른 통소를 불어대내고
可意雨從三夜霽	기분 좋아라 비는 삼일 밤 만에 활짝 개었고
耽遊時好一春饒	즐거운 놀이는 때 좋은 한 봄이 넉넉하구려
昇平百歲伊誰賜	백 년의 태평성대를 그 누가 내리었던고
童舞翁歌卽聖朝	아이들 춤추고 늙은이 노래하는 곧 우리 성조라오

〈國都八詠・通橋霽月〉

시는 국도팔영(國都八詠), 즉 한양의 여덟 가지 명승을 노래하면서 마지막으로 광통교의 맑게 갠 달밤을 묘사했다. 대보름날 광통교에 뜬 달은 밝기만 하고, 집집마다 새로 빛은 술이며 어딘지 모르는 누대에서 들려오는 통소 소리까지 어우러진 낭만적인 밤 풍경이다. 삼일 밤 만에 날이 갠으니 공중의 먼지가 모두 가라앉아 그 달빛이 얼마나 밝고 깨끗했는지 상상해볼 직하다. 정조는 장차 국왕이 될 세손의 지위에 있었던 만큼 노소(老小)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즐거운 태평성대와 그것을 가능케 한 조정의 치적(治績)을 송축하고 있다.

유만공(柳晩恭, 1793~1869)이 1843년에 창작한 세시풍속 관련 한시인 『세시풍요(歲時風謠)』에는 광통교 인근 부잣집의 밤놀이 풍경이 전해진다.

雲從街北廣通西	운종가 북쪽 광통교 서쪽
富屋宵遊秉燭齊	부잣집 밤놀이에 촛불이 가지런하네.
細細三絃歌曲譜	세세 삼현에 가곡보
房中之樂月中携	방중의 풍류를 달빛 아래 펼친다.



임득명, 〈가교보월〉, 1786년, 삼성출판박물관 소장

이 시는 윤종가와 광통교 부근의 부잣집 밤놀이에 촛불이 가지런하고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으며, 그러한 풍류에 달빛이 내리쬐고 있는 광경을 노래한다. 시의 문면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시는 기술직 중인의 유흥적인 생활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에는 “중촌(中村) 야회(夜會)를 촛유(燭遊)라 한다(中村夜會曰燭遊).”는 주가 붙어 있는데, 중촌은 윤종가와 광통교를 끼고 있는 기술직 중인과 부호들의 거주지이다. 조선 후기에 역관(譯官)을 중심으로 한 중인층이 중촌에 모여 살며 시에서 묘사된 것과 같은 연회를 즐겼던 모습이

서울 풍속의 하나로 기록될 정도였다는 점은, 서울의 중간 계층이 조선 후기 도시 유흥의 발달과 그 유흥문화의 주역이었음을 보여준다.

광통교 근처를 비롯한 청계천 변이 변화한 도시적 유상공간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면서, 이 부근에는 주가(酒家) 및 색주가(色酒家)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조선 후기 노채덕(盧采德)이란 인물의 이야기를 엮은 7언 100운(韻) 200구(句)의 장편 한시인 「탕자회심가(蕩子悔心歌)」에는 광통교 부근의 탁주막(濁酒幕)과 색주가가 다채롭게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 말기의 무신이자 외교가였던 신현(申櫟-초명은 申觀浩, 1811~1884)이 조선 후기 정조의 명에 의해 여러 신하들이 지어 바쳤던 〈성시전도시(城市全圖詩)〉를 본따서 지은 〈금직의 여러 신하가 지은 성시전도 응제 백운시에 화운하여 짓다(奉和 禁直諸臣城市全圖應製 百韻)〉에도 광통교의 색주가가 언급되고 있다.

可憐仁川賣蟹娘	가련타! 꽃게 파는 인천 아낙네는
蓬髮竹筐斜相倚	봉두난발 대광주리를 빗겨 안고
可憐思陵賣炭人	가련타! 숯 파는 사릉 사람은
瘦馬孤擔倦行止	비쩍 마른 말 끌고 나뭇짐 지고 걷기에 지쳤구나
可憐通橋色酒家	가련타! 광통교 색주가는
別字燈掛列卓匣	별자 쓴 등을 걸고 탁자를 늘어놓았네.
可憐銅峴賣藥翁	가련타! 구리개 약 파는 늙은이는
驢巾婆娑坐簾裏	망건 쓰고 어슬렁어슬렁 주렴 안에 머무네.

원래의 <성시전도시>는 국왕의 명으로 지어 올린 시이기 때문에 한양의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는 결이 다르다. 꽃게와 숯을 팔기 위해 인천과 남양주로부터 한양까지 온 고단한 상인들, 잘못된 글자[別字]가 적힌 등을 걸고 탁자를 늘어놓은 광통교 색주가, 현재의 읍지로 입구로 조선 시대에 약국이 집중적으로 분포했던 구리개[銅峴]의 약 파는 늙은이의 모습은 삶의 현장을 입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한양을 생존의 현장으로서 인정세태의 현실을 충실하게 보여주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화가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밤에는 삼현(三絃)을 곁들인 연회가 벌어졌으며 색주가가 즐비했던 광통교 주변에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없을 수 없을 듯하다. 장한중(張漢宗, 1768~1815)이 편찬한 『어수신화(禦睡新話)』에 「내사여모(乃寫汝母)」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이야기다.

서리 출신으로 북산 밑에 살았던 부자는 재산이 넉넉하여 스스로 풍류객으로 자처하고 매일 친구들을 불러 모아 노래와 춤으로 소일을 하는데, 의녀(醫女)나 침비(針婢)며 이름 있는 기생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음이 없었다.

한 가난뱅이는 날마다 이 집에 와서 편지를 대서하기도 하고, 혹 여러 가지 일들을 대행하기도 했다. 부자가 병세가 위중하여 여러 아들들이 모시고 있었는데, 부자는 너희들이 반드시 몰라서는 안 될 일이 있다며 종이와 붓이 가져오게 했다.

서울 부자는 먼저 ‘내의원(內醫院)’을 제목으로 삼아 그 아래에 ‘의녀’ 이름을 적게 했다. 의녀의 수는 ‘사오십 명’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상의원(尙衣院)’을 제목으로 삼아 ‘침선비(針線婢)’ ‘칠팔십 명’의 이름을 적었다. 다음으로는 ‘공조(工曹)’ ‘혜민서(惠民署)’ 등의 제목을 붙여 ‘수백 명’이 넘는 이름을 적었고, 또 ‘중부’ ‘서부’ 등 ‘오부’를 제목으로 삼아 ‘주탕(酒湯)’ ‘은창(隱娼)’의 이름 ‘몇 백 개’를 적게 했다. 또 ‘형조’ ‘경조부’를 제목으로 ‘하전(下典)’의 이름 수백 개를 적게 했다.

이렇게 나열하던 부자는 여기에 이르러 말을 멈추고 한참 있더니, 소속이 분명치 못한 여자 명단[未考居注秩]을 적게 했는데, 가운데 단에는 여자를 소개한 자를 적고, 그 아래에 여자 이름을 작은 글씨로 적게 했다. 이 역시 ‘수백 명’이었다.

그리고는 이제 팔도로 넘어가 도 아래에 읍명을 적게 하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여자 이름을 적게 했다. 부지기수(不知其數)였다.

가난뱅이는 이것을 내심 부러워했고, 5~6년 후 죽음에 이르러 아들을 불러 종이와 붓을 가지고 옆에 엮드리게 하고 하는 말이

“내가 상관한 창기들의 이름을 네가 마땅히 적어둘 일이다.”

한참 만에 비로소 부르기를

“광통교 가에서 날 돌아본 여자라.” 아들이 받아 적었다. 다시 한참이 지났다. “네 어미를 써라[乃寫汝母]. 이게 다다.”라고 하니, 들은 사람이 모두 허리를 꺾었다.

부자가 관계했다는 여자들의 수는 물론 과장일 것이다. 야담(野談) 혹은 소화(笑話)라고 할 수 있는 이 짧은 이야기는 소설적 과장을 더하여 부를 축적한 서리가 과도하게 유흥과 성(性)에 탐닉하는 행태를 풍자하고 있다. 게다가 그 행태를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선망하며 따라 하고자 하는 가난뱅이를 통해서 조선 후기의 일그러진 세태를 냉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이 글의 관심인 광통교 주변과 남녀의 사랑에 대한 관점으로 돌아가 보자. 가난뱅이가 아내 외에 관계한 여자로 꼽은 단 한 명의 여자는 바로 ‘광통교 가에서 날 돌아본 여자’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각종 상업으로 번성했던 광통교 부근에서 공공연하게 남녀가 추파를 던지고 실제 관계를 맺기에 이르기까지 했

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어날 법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에 조선 후기의 광통교 가 역시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옥(李錡, 1760~1815)의 전기체 소설 「심생전(沈生傳)」에는 운종가에 서 광통교를 거쳐 소공주동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응시하면서 걸어가는 남녀 주인공의 모습이 생동감 있게 묘사된다.

심생(沈生)은 서울의 양반이다. 약관의 나이에 용모가 매우 준수하고, 풍정(風情)이 넘쳤다.

어느 날 운종가(雲從街)에 나가 임금님의 거동을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건장한 여종이 자주색 명주(明紬) 보자기로 한 처녀를 덮어씌워 등에 업고, 머리를 땀은 여종은 주홍색 비단신을 들고 뒤를 따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림짐작으로 보자기 안의 몸을 재어 보니 어린 여자아이는 아니었다. 드디어 심생은 바짝 붙어 뒤를 쫓았다. 멀찍이 따르다가 소매로 스치며 지나가기도 하면서 눈은 한순간도 그 보자기를 떠나지 않았다. 걸음이 소광통교(小廣通橋)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앞에서 일어나 자주색 보자기를 반이나 들추었다. 아니나 다를까 처녀가 나타나는데 복숭아빛 발그레한 뺨에 버들가지 같은 가는 눈썹, 초록 저고리에 다홍치마, 연지분이 몹시 고와 설핏 보아도 절색이었다.

처녀도 보자기 속에서 어렴풋하게 아름다운 소년이 쪽빛 두루마기에 초립(草笠)을 쓰고, 좌우 이쪽저쪽으로 따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바야흐로 은근히 보내는 눈길에 주목하여 보자기 밖의 소년을 한참 주시하던 중에 보자기가 걷히고 버들 같은 눈과 별 같은 눈동자 네 개가 부딪쳤다.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보자기를 당겨 다시 덮어 쓰고 자리를 떴다.

심생이 어찌 그대로 놓치겠는가. 곧장 뒤를 쫓아갔다. 소공주동(小公主洞) 홍살문 안에 이르러 처녀는 중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¹³⁾

13) 李錡, 「沈生傳」, “沈生者, 京華士族也. 弱冠, 容貌甚俊韶, 風情騷蕩. 嘗從雲從街, 觀駕動而歸. 見一健婢以紫紬, 袱蒙一處子, 負而行. 姬鬟捧紅錦鞋, 從其後. 生自外量其軀, 非幼穉者也. 遂緊隨之.



신윤복의 혜원풍속도첩(蕙園風俗圖帖) 중 〈월하정인(月下情人)〉, 간송미술관 소장

이렇듯 조선 후기 문학에서 운종가와 광통교를 비롯한 한 당시 한양의 중심가는 연애의 공간으로 표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66년 이후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가 미상의 소설 『포의교집(布衣交集)』은 ‘포의지교(布衣之交)’를 지향하는 17세 하층 여성 초옥이 양반이지만 마흔이 넘도록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이생과 맺는 불륜 이야기이다. 1864년 6월부터 1866년 6월 사이에 남촌 죽동, 안동, 초동, 소죽동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이야기가 진

或尾之，或以袖掠以過，目未嘗不在於袂。到小廣通橋，忽有旋風起於前。吹紫袂褫其半，見有處子。桃臉柳眉，綠衣而紅裳，脂粉甚狼藉，瞥見猶絕代色。處子亦於袂中，依稀見美少年。衣藍衣，戴草笠，或左或右而行，方注秋波，隔袂視之。袂其褫，柳眼星眸，四目相擊。且驚且羞，斂袂復蒙之而去。生如何肯捨？直隨到小公主洞紅箭門內，處子入一中門而去。”

행되며, 도선암, 북한산의 승가사, 새문 등의 공간이 제시된다. 이처럼 단지 서울이 아니라 구체적인 동명이 거론되는 것은 서울이라는 공간이 분절적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분절된 공간은 특정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의교집』은 당대 한양 중심가의 도시적 분위기를 잘 보여주며, 특히 남녀 간의 유희적인 분위기가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 후기 문학 작품 중 현재의 중구 및 종로구에 해당되는 서울 중심가에서 벌어진 사랑 이야기의 완결판으로 『포의교집』을 꼽는 것에 무리가 없을 듯하다.



〈기산풍속도〉 중 ‘정월 망일에 답교하는 모양’

한편 광통교를 비롯한 청계천이 도시적 유상공간으로 발달함에 따라, 조선 후기 문학에서 이 주변은 전래하던 세시풍속의 메카로도 주목된다.

가장 유명했던 것은 답교(踏橋), 일명 다리밟기이다. 다리밟기는 고려 시대부터 유행했던 풍속으로, 정월 대보름날 밤 다리를 밟으면 다리병[脚病]을 앓지 않는다고 하여 서울과 지방 각지에서 성행하던 세시풍속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다리밟기를 하면 다리병을 앓지 않는다는 관념이 강한 것은 다리[脚]와 다리[橋]의 발음이 같은 데서 생긴 속신적 관습이 작용한 결과이다.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은 『경도잡지(京都雜志)』에서 “대광통교와 소광통교, 수표교가 가장 인기가 좋다. 이날 밤에는 으레 통금을 해제하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피리 소리와 북소리가 떠들썩하다.”라고 하여 다리밟기의 성행을 증언하기도 하였다.

서울에서 있던 다리는 주로 청계천에 있었고 그 숫자도 많지 않았는데, 도성 사

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몹시 혼잡하였다. 그래서 점잖은 양반들과 부녀자들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14일 저녁에 다리밟기를 하거나, 아니면 하루 뒤인 16일 저녁에 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가리켜 ‘양반 다리밟기’라고 한다.

조선 후기의 문신 강박(姜樸, 1690~1742)이 지은 세시기속시(歲時紀俗詩)에 답교놀이의 풍경이 전한다.

天街十二太平宵	태평성대의 밤 도성의 열두 다리에
月裏笙歌近更遙	달빛 속의 생황 소리 멀었다 가까웠다 하네
城外人多革橋去	성 밖 사람들은 대부분 혁교로 몰려가고
城中先踏廣通橋	성안 사람들은 광통교를 먼저 밟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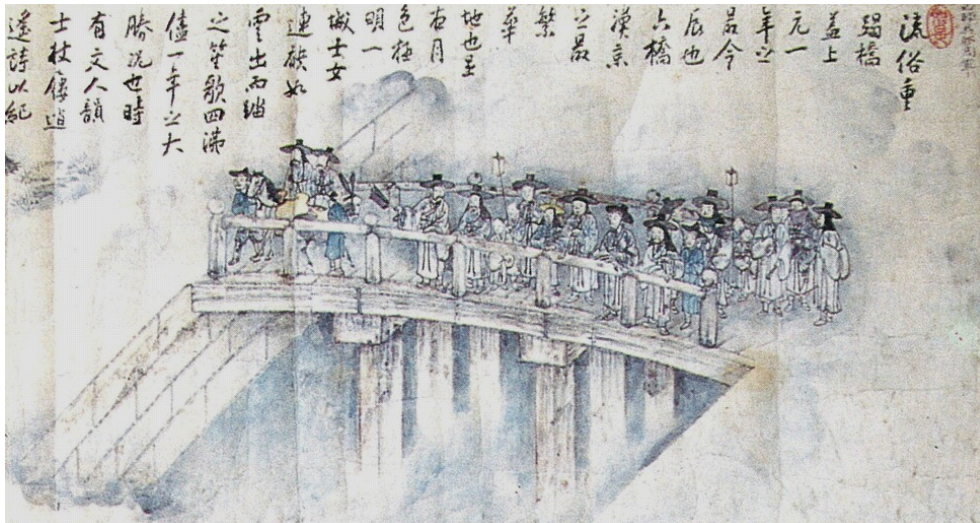
〈上元紀俗〉

청계천에 있던 모든 다리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벌어졌던 답교놀이의 규모를 보여준다. 혁교(革橋)는 독립문 남쪽, 현 서대문구 영천시장 입구에 있던 다리이다. 당시에는 이곳이 사대문 밖이었기에 성 밖 사람들이 이 다리를 밟는다고 표현한 것이다. 성안 답교놀이의 중심은 단연 청계천이었고, 사람들이 맨 처음 밟는 다리는 그중 가장 규모가 크고 변화했던 광통교였다.

유만공의 『세시풍요』에도 답교놀이가 묘사되고 있다.

川南川北路分條	시내 남쪽과 시내 북쪽에 길이 갈리니
白牆相望過水標	흰 담장 바라보며 수표교를 지나가네
盪折風巾人海裡	바람에 두건이 꺾이고 인산인해를 이루니
最難穿去廣通橋	광통교 뚫고 지나가기가 가장 어렵다네

청계천의 대표적인 다리로 수표교와 광통교가 언급되고 있다. ‘인산인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중에서도 광통교가 가장 뚫고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운집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오계주의 <상원야회도>(대보름 밤 모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조선 후기 세시풍속집 중 가장 방대한 홍석모(洪錫謨, 1781~1857)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역시 답교놀이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도성의 남녀들이 쏟아져 나와 열운가의 종각에서 저녁 종소리를 듣는다. 그런 뒤에 흠어져 여러 다리로 가서 왕래하는데 밤새도록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이것을 다리밟기[踏橋]라고 한다. 혹자는 “교(橋)는 우리나라 말로 각(脚)과 ‘다리’라는 뜻이 같으므로 속담에 이와 같이 하면 1년 내내 다리병(脚疾)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 대광통교·소광통교 및 수표교가 가장 붐비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피리 소리와 북소리로 시끌벅적하다.¹⁴⁾

저녁 종소리가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되어 밤새도록 행렬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성행했던 답교놀이의 풍경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알려졌던 답교놀이에 대한 속설

14) 洪錫謨, 上元, 『東國歲時記』, “都人士女傾城而出, 聽夕鍾於閣雲街鍾閣, 散至諸橋往來, 達夜不絕, 謂之踏橋. 或云: “橋方言與脚同釋音, 俗說如是, 則終年無脚疾.” 大小廣通橋及水標橋最盛 人海人城 簫鼓喧轟.”

을 기록하였고, 청계천에서도 대광통교·소광통교 및 수표교가 가장 붐비어 중심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연날리기도 광통교 주변에서 성행했던 풍속이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봄부터 물이 얼기 전인 늦가을까지의 청계천은 하천 역할을 하지만, 물이 얼어붙는 겨울이 되면 한양도성의 넓은 공터이자 놀이터로 변한다. 특히 천변은 바람이 잘 통하기 때문에 연날리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강이천의 「한경사」에 그 풍경이 전한다.

紙粘交竹放當風	종이 붙이고 댓살 엮걸어 바람에 띄우니
高妬鳶飛入碧空	솔개와 높이 다투며 푸른 하늘로 날아가네
八面圓機黃白縷	팔각 열레에 황백색 명주실 감고
六橋氷畔結人叢	얼어붙은 광통교 천변에 사람들 잔뜩 모였네

이 시는 한겨울 광통교 천변에 사람들이 모여 연날리기 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연날리기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손쉽게 즐기던 놀이였다. 일 반적으로 초겨울에 시작하여 추위가 가시기 전까지 즐기던 놀이로서 팽이치기와 함 께 겨울철을 대표하는 민속놀이이기도 하다. 여러 사람이 모여 높이를 겨루기도 하 고, 서로 실을 엮걸어서 연줄을 끊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기도 한다. 정월 보름에는 한 해의 액운을 막는 의미로 연에 자신의 사주, 혹은 액막이 글귀를 써두었다가 해 질녘에 실을 끊어 연을 날려 버리기도 하였다.

연날리기를 위해서는 댓살을 여러 방식으로 엮어 만든 연, 연에 매달아 하늘 높 이 띄우기 위한 연줄, 그리고 연줄을 감아두기 위한 열레가 필요하다. 위의 시에서 는 이 세 가지를 이용해 연을 날리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한양도성 안에서는 광통교와 수표교가 연날리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였다고 한다. 하천을 따라 바람이 잘 통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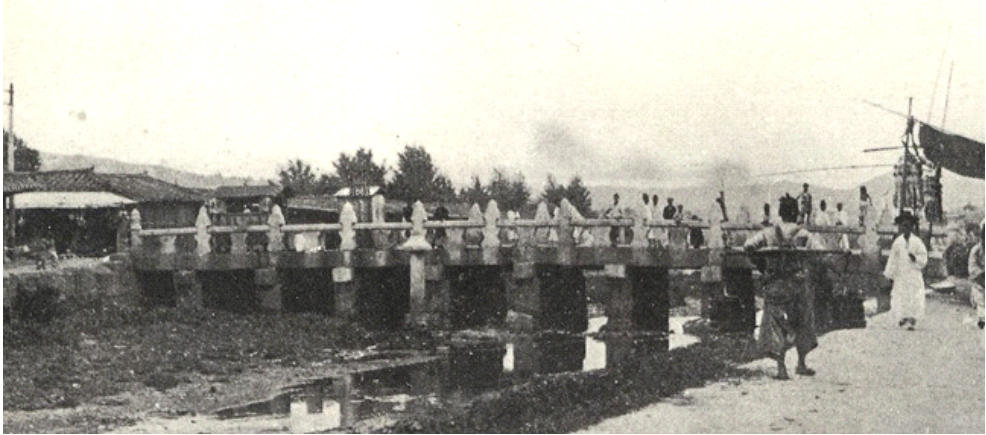
2. 고전소설과 한시에 자주 등장한 수표교

앞서 조선 후기 고전문학에서 재현된 광통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간간이 등장했듯이, 수표교(水標橋) 역시 광통교 다음가는 청계천을 대표하는 다리였다. 현재 원래의 수표교는 1959년 청계천 복개공사로 인해 장충단 공원의 장충단비 옆으로 옮겨져 있다. 다음 인용문은 수표교의 기능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장통교 동쪽에 있다. 다리 서쪽 물 가운데 석표(石標)를 세우고 척촌(尺村)의 수를 새겼는데, 빗물이 나면 거기에 의하여 깊고 얕음을 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위의 기록은 수표교의 위치, 용도를 적은 것이다. 수표교는 청계천 장통교 동쪽에 있었던 다리이다. 용도는 물을 건너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청계천의 물의 양을 재기 위한 것이었다. 즉, 다리 서쪽에 몇 자 몇 촌이 표시된 석표를 세우고 물의 높낮이를 잴던 것이다. 수표교와 관련해서는 허균(許筠, 1569~1618)이 지은 <장생전(蔣生傳)>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진다.

장생(蔣生)이란 사람은 어떠한 내력을 지닌 사람인 줄을 알 수가 없었다. 기축년(1589, 선조22) 무렵에 서울에 왕래하며 걸식하면서 살아갔다. 그의 이름을 물으면 자기 역시 알지 못한다 하였고,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거주했던 곳을 물으면, “아버지는 밀양(密陽)의 좌수(座首)였는데 내가 태어난 후 세 살이 되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께서 비첩(婢妾)의 속임수에 빠져 나를 농장(農莊) 종의 집으로 쫓아냈소. 15세에 종이 상민(常民)의 딸에게 장가들게 해주어 몇 해를 살다가 아내가 죽자 떠돌아다니며 호남(湖南)과 호서(湖西)의 수십 고을에 이르렀고 이제 서울까지 왔소.” 하였다. (중략) 임진년(1592, 선조25) 4월 초하룻날 값을 뒤에 주기로 하고 술 몇 말[斗]을 사와, 아주 취해 서는 길을 가로막으며 춤을 추고 노래 부르기를 그치지 않다가는 거의 밤이 되어 수표교(水標橋) 위에서 넘어졌다. 다음 날 해 뜰 지 늦어서야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는데, 죽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시체가 부패하여 벌레가 되더니 모두 날개가 돌아 전부 날아



19세기 말의 수표교와 장충단 공원에 옮겨진 현재의 수표교

가 버려 하룻밤에 다 없어지고 오직 옷과 버선만이 남아 있었다.¹⁵⁾

당시 수표교 주위는 상당한 변화가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장생은 밀양의 좌수 아들이었는데 세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가 비첩의 속임수에 빠져 농장 종의 집으로 내쫓기게 되었다. 장생은 15세가 되어 상민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지만

15) 許筠, 〈蔣生傳〉, 『惺所覆瓿藁』 권8, “蔣生不知何許人. 己丑年間, 往來都下, 以乞食爲事. 問其名則吾亦不知, 問其祖父居住則曰, 父爲密陽座首, 生我三歲而母沒, 父惑婢妾之譖, 黜我莊奴家. 十五, 奴爲娶民女, 數歲婦死, 因流至湖南西數十州, 今抵洛矣. (중략) 壬辰四月初吉, 餘酒數斛大醉, 攔街以舞, 唱歌不綴, 殆夜倒於水標橋上. 遲明, 人見之, 死已久矣. 屍爛爲蟲, 悉生翼飛去, 一夕皆盡, 唯衣襪在.”

몇 해를 살다가 아내가 죽자 호남, 호서 등을 떠돌다가 서울까지 올라오게 되었다. 그는 임진년에 술을 잔뜩 먹고 술에 취해 수표교 위에서 죽었는데 아침이 되니 벌레로 변해서 날아갔다는 것이다.

인용문의 내용 외에도 <장생전>을 보면 장생의 수려한 외모, 풍류, 흥내 내기, 정유재란 때 무인 홍세희(洪世熙)의 앞날을 예언한 이야기 등 흥미로운 내용들이 실려있다. <장생전>에서 수표교는 변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청계천의 대표 다리로서 장생의 신이한 죽음의 배경으로 역할하고 있다.

장생이라는 기이한 인물과 수표교라는 공간적 배경 설정은 조선 후기 박지원의 소설 <광문자전(廣文者傳)>으로 이어진다. 비천한 거지 두목 광문은 아이들이 수표교 다리 아래로 던져 버린 동료 거지의 시체를 남몰래 지고 가서 서문 밖에 묻어준다. 이를 목격한 집주인이 광문을 의롭게 여겨 약종상(藥種商)에 소개하고, 광문이 점원이 되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박지원은 소설에서 비천한 거지인 광문의 순진성과 거짓 없는 인격을 그렸다. 이를 통해 권모술수가 판을 치던 당시의 양반 사회를 은근히 풍자한다. <광문자전>에 등장하는 수표교는 당대 변화하고 유흥적인 도시적 유상공간을 대표했던 청계천변의 이면에 자리했던 가난한 서민들의 실상을 드러내준다.

한편 수표교의 모습을 가장 다채롭게 보여주는 작품은 이덕무(李德懋, 1741~1793)가 지은 다음의 시이다. 시의 제목은 <수표교에서 지은 시, 운자로 혜보(惠甫) 외에 여러 사람과 함께 지음【6수】(水標詩共惠甫諸人賦【六首】)>이다. 혜보는 유득공의 자(字)로, 이덕무는 유득공을 비롯한 여러 사람과 함께 수표교에서 유상하며 시를 지은 것이다.

翩翩宮隸茜袍紅 날 듯한 궁중의 종 꼭두서니 도포 붉은데
橋雪難禁飽袖風 다리 위에 눈은 오고 소매에 가득한 바람 금할 수 없네
刺眼元無如此艷 눈을 찌르는 고운 빛이 이 같은 것 없더니
瞥時經過水光空 잠깐 지나고 보니 물빛만 비었네

胭脂日脚女牆紅 연지빛 햇살에 여장이 붉은데
剪剪青門樹末風 청문의 나무 끝에 바람 깎을 듯하네
直望城根橫水鑰 성 밑 바라보니 갑문(閘門)이 비끼었고
鐵窗的歷漏寒空 철로 만든 창에 또렷이 찬 하늘이 내다보이네

煖帽風穿酒力消 따뜻한 모자에 바람 뚫고 오니 술기운 깨는데
迢迢白影是長橋 구불구불 흰 그림자 이것이 긴 다리일세
淒迷忽作汀洲勢 갑자기 싸늘하게 모래톱의 형세를 지으니
衰柳烟霜近似遙 늙은 버들에 안개와 서리 가까워도 먼 것 같네

潛居鬱鬱氣難消 잠적하게 사니 울울한 기운 사라지기 어렵더니
瀟灑繁華具此橋 깨끗하고 변화한 것이 모두 이 다리에 갖추었네
水月觀音無乃我 수월관음(水月觀音)이 내가 아니겠느냐
白衣縹緲踏烟遙 흰옷 입고 아득히 멀고 먼 안개를 밟아가네

燈火脩廊射兩邊 긴 행랑의 등불이 양편을 비추는데
虹橋暝踏一泠然 무지개다리 어둠 속에 밟으니 한결 서늘하네
願移西子湖中藕 원컨대 서자호의 연꽃을 옮기어
朝霧朱霞夕綠煙 아침에는 붉은 놀로 저녁에는 푸른 안개로 덮였으면

遠衣無縐北南邊 나그네 옷 주름 풀린 북쪽 남쪽에서
鞋響蹄聲輾轉然 가죽신 울림과 말굽 소리 비껴거리네
薄雪平鋪沙嘴濶 얇은 눈 평평히 깔리고 모래톱은 넓으니
鳬翁尤綠縠紋煙 오리는 비단 무늬 같은 연파 속에 더욱 푸르네
〈水標詩共惠甫諸人賦〉

첫 번째 수는 눈 오는 밤 달빛 아래의 아름다운 수표교를 형상화했다. 두 번째

수는 수표교에서 바라본 성곽의 아름다움을 읊은 것이다. 세 번째 수는 술에 취해 수표교를 건너오는 느낌을 노래한 것이다. 따뜻한 모자를 뚫고 들어오는 찬바람에 술기운이 깨는 듯하지만 미처 다 깨지 못해 갑자기 모래톱에 이른 듯하고, 주변의 버들과 안개, 서리가 가까운데도 멀게 느껴졌다는 내용이다. 네 번째 수는 수표교가 도시적 변화함과 동시에 깨끗함을 간직하고 있음을 노래하며 다리를 건너는 것을 깨끗한 공간으로 건너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다섯 번째 수는 해질녘과 밤에 수표교의 아름다움을 읊은 것으로, 물이 맑고 연꽃이 많기로 유명한 서자호(西子湖)의 연꽃까지 더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낸다. 여섯 번째 시는 눈 내린 날 수표교 아래 모래사장에 노니는 오리들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것이다. 모래톱에 얹고 평평하게 깔린 흰 눈의 빛깔이 배경이 되어 푸른 오리의 빛깔이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앞서 광통교를 비롯한 청계천이 도시적 유상공간으로 발달함에 따라, 조선 후기 문학에서 이 주변이 전래하던 세시풍속의 메카로도 주목되었다는 점을 살펴보면 수표교도 함께 언급했었다. 특히 수표교는 연싸움의 중심지로 유명했던 바, 그 자세한 기록이 있어 인용하며 본 장을 마치고자 한다.

아이들은 액(厄) 자를 종이에 써서 해가 질 때 줄을 끊어 날려 보낸다. 연은 뗏가지를 뼈대로 하고 종이를 풀로 발라 마치 작은 키처럼 만든다. 연의 종류로는 오색연(五色鳶), 기반연(基斑鳶), 묘안연(猫眼鳶), 작령연(鵲翎鳶), 어린연(魚鱗鳶), 용미연(龍尾鳶) 등 이름이 특이하고 색이 번성하다. 중국에서는 연[風箏] 날리기가 늦은 봄의 놀이인데 우리나라는 동천(冬天), 즉 겨울철부터 정월 보름까지만 즐긴다. 연 날리는 법은 한 곳으로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종횡으로 쏘고 흔들며 다른 연과 교차하여 줄을 많이 끊는 것을 즐긴다. 그래서 연줄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개 실을 합치고 아교를 문질러 백말 꼬리 같이 매끈하게 만든다. 혹은 누런 차자로 물을 들인다. 바람을 거슬러 뺨뺨 울리는 줄이 남의 줄을 잘 끊는다. 심한 경우는 연줄에 사금파리 가루나 구리 가루를 바르기도 한다. 그러나 연줄 싸움은 교차시키는 능력이 중요하다. 장안 소년 중에 연싸움을 잘하기로 소문이 나면 왕왕 지체 높은 부잣집에 불려가기도 한다. 매년 정월 13일이나 14일에는 수표교(水標橋) 주변 위아래로 연싸움을 보러온 구경꾼들이 담을 쌓



〈기산풍속도〉 중 '년날리는아희(연 날리는 아이)'

은 듯 모인다. 아이들은 연줄 싸움을 하다가 혹은 끊어진 연을 쫓아 담을 넘고 지붕에 올라서므로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고 놀란다. 보름이 지나면 다시는 연 날리는 일이 없다.¹⁶⁾

유득공은 『경도잡지』에서 단순한 연날리기가 아닌 연싸움 광경을 상세히 묘사한다. 연싸움에 사용되는 연의 모양과 다채로운 연들의 종류, 그리고 연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동원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전하고 있다. 연싸움을 잘하기로 소문이 나면 왕왕 지체 높은 부잣집에 불러갈 정도로 연싸움은 조선 후기 한양의

인기 스포츠였던 것이다. 이러한 연싸움은 수표교 주변에서 벌어졌고, 이를 구경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담을 쌓은 듯”하다고 묘사되고 있다.

16) 柳得恭, 「上元」, 『京都雜志』, “童子書厄字於紙鳶, 日暮斷送. 鳶制竹骨糊紙微似箕. 狀五色, 或甚斑·猫眼·鵲翎·魚鱗·龍尾, 名色特繁. 中國風箏, 爲晚春之戲, 東俗自冬天至于上元. 且其飛法, 不住定一處, 縱橫掃盪, 與他相交, 以多割爲快. 合絲淬膠淨如白馬尾, 或染梔黃. 凌風而抖者最善割. 甚者傳以磁末銅屑. 然在交法之能否. 都下少年, 有以善交鳶噪名者, 豪貴家往往延致. 每上元前一兩日, 水標橋沿河上下觀交鳶者, 簇如堵牆. 羣童候斷搶絲, 或追敗鳶踰牆越, 屋人多怖駭. 過上元後不復飛鳶.”

3장 생동하는 서민의 생활공간 칠패

칠패(七牌)는 현재 남대문시장을 가리키는 옛 이름이다. 송례문 옆에 있었던 상평창(常平倉)은 곡식의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곡식을 사들이고 내다 파는 일을 하던 곳이다. 상평(常平)이란 상시평준(常時平準)의 줄임말로, 풍년이 들어 곡가가 떨어지면 곡물을 사들여서 가격을 올리고, 흉년이 들어 곡가가 폭등하면 상평창의 곡물을 풀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제도이다. 그런데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되면서 공납(貢納)과 진상(進上)으로 거둬들인 곡물이나 특산물을 보관하던 기관인 선혜청(宣惠廳)의 창고인 선혜창(宣惠倉)으로 이름이 바뀐다. 상평창일 때는 곡물만 있어 난장(亂場)이 서지 않았으나, 선혜청 창고로 바뀌면서 많은 종류의 물건들이 거래될 수 있는 난장이 생겼는데 이를 일러 ‘새로 들어선 창고[宣惠倉] 안에 펼친 난장’이라는 뜻의 ‘신창내장(新倉內場)’이라 하여 지금의 남대문시장을 말하였으며 그 흔적이 남창동(南倉洞), 북창동(北倉洞)이라는 동네 이름으로 남아 있다.

17세기 후반 이후 도성 외부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시장도 확대되었다. 1660년에서 1670년 사이에 남대문에서 서소문 사이의 지역에 문외미전·문외상전·외어



남대문에서 서쪽으로 칠패로를 따라가다 보면 염천교사거리 한 귀퉁이에 ‘칠패시장터’ 표석이 있다.

물전·생선전 등이 설치됨으로써 종로 시전과 함께 서울의 중요한 상가로 번성하였는데, 이때 형성된 상가가 바로 칠패 시장이었다. 칠패라는 명칭은 우변포도청의 순라군 7패가 주둔하는 곳이라는 데서 유래되었다.

칠패 시장, 즉 지금의 남대문시장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18세기 무렵 뚜렷하게 자리를 잡았고, 고전문학 작품 속에도 등장하기 시작한다. 지금도 그렇듯이 시장은 예전에도 서민들의 생활공간이었다. 특히 칠패는 종로의 육의전(六矣廛)과 달리 자유 상인인 사상(私商)들이 활동하던 공간으로, 보다 서민적이고 활달한 모습으로 문학 속에서 재현되고 있다. 고전문학에 나타난 서울 중구의 세 번째 모습은 생동하는 서민의 생활공간, 칠패이다.

먼저 이옥이 그린 조선 후기 시장의 풍경을 살펴보자.

한성에는 큰 시장이 셋 있으니 동쪽에 ‘이현(梨峴)’, 서쪽에 ‘소의문(昭義門)’, 중앙에는 ‘운종가(雲從街)’가 있다. 모두 상점이 좌우로 마치 별처럼 늘어서 있으며 온갖 장인들

이며 장사치들이 각자 거처하는 곳이 있다. 사방에서 재화가 쌓여 구름 같이 수송하는데 물길을 이용한다. 백성들은 관대·의복·신발·음식을 이곳에서 얻는다. 이에 많은 눈들이 정신없이 움직이니 오직 이익을 바라서이고 많은 입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니 이익을 꾀해서이다. 어떤 사람은 팔고, 어떤 사람은 사며, 또 어떤 사람은 거간을 붙인다. 해가 뜨면 모였다가 해가 지면 파한다. 시장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은 어깨와 등이 부딪힐 정도이고 멈춰 서는 사람은 관을 똑바로 할 수 없을 정도이다.¹⁷⁾

이옥은 동쪽의 이현, 서쪽의 소의문, 중앙의 운종가를 한양의 큰 시장으로 꼽고 있다. 서쪽의 소의문은 서소문으로, 여기에 위치했던 큰 시장이 바로 칠패이다. 상점이 좌우로 별처럼 늘어섰다는 표현을 통해 상당히 번성했던 당시 시전 풍경을 전하고 있다. 이익을 꾀하기 위해 상인들의 눈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입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댄다는 묘사가 생생하다. 어깨와 등이 부딪치지 않으면 걸어 다닐 수조차 없고, 멈춰 서 있으면 사람에 치여 관을 똑바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던 곳이 바로 조선 후기의 시장이었던 것이다. 「한경사」의 저자 강이천은 한양의 시장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日出漢陽市	한양 저자에 해가 뜨자
百物如山積	온갖 물산 산처럼 쌓이네
耳中間何聲	귀에 무슨 소리 들리는가
聒聒相交易	물건을 사고파는 떠들썩한 소릴세
賣者擡其售	파는 자는 값을 올리고
買者低其直	사는 자는 값을 깎는구나

〈日出漢陽市〉

17) 李鈺, 「市奸記」, “漢城有三大市, 東曰‘梨峴’, 西曰‘昭義門’, 中曰‘雲從街’。皆列肆左右, 羅若星, 百工百賈, 各以其所居者至。四方積貨, 雲輸而水灌之。民得冠帶·衣履·飲食於是。於是, 萬目覷覷, 惟利是闕, 萬口咻咻, 惟利是謀。一人賣之, 一人買之, 又一人儻之。日出而會, 日入而罷。市之中, 行者憂肩背, 止者冠不正。”

시장의 하루는 일찍 시작된다. 해 뜨자마자 온갖 물산이 산처럼 쌓이는 곳이 한양의 저자이다.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자 값을 올리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자 값을 깎느라 떠들썩한 모습은 지금의 여느 시장 풍경과도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박제가(朴齊家, 1750~1805)의 <성시전도시(城市全圖詩)>에는 보다 자세한 묘사가 드러난다.

梨岷鍾樓及七牌	배오개, 종루와 칠패
是爲都城三大市	바로 도성의 3대 저자라
百工居業人摩肩	수많은 장인 생업하고 사람들 어깨 부딪치고
萬貨趨利車連軌	온갖 물건 이익을 쫓고 수레들 이어졌네
鳳城絳帽燕京絲	봉성의 웅모와 연경의 비단실
北關麻布韓山泉	북관의 마포와 한산의 모시라
米菽禾黍粟稷麥	쌀 콩 벼 기장 조 피 보리며
梗柎楮漆松梧梓	느릅나무 녹나무 닥나무 옷나무 소나무 오동나무 가래나무라
椒蒜薑葱薑芥藿	콩잎 마늘 생강 파 부차 겨자 버섯이오
葡萄棗栗橘梨柿	포도 대추 밤 굴 배 감이라
有剖而鱗貫而脰	갈라서 말린 생선포와 꿰어서 말린 꿩고기며
章舉石首鰈鱮鮓	문어 조기 가자미 청어 상어라
栢葉灑菓潤欲滴	잣나무 잎으로 과실을 닦으니 윤이 반질반질
繇核護卵明於舐	숨뭇치로 싼 달걀은 핏은 것보다 더 깨끗하네
賣腐篩筐高似塢	두부 파는 광주리는 탑처럼 높게 쌓여 있고
盛瓜網眼踈如麁	오이 담는 그물눈은 노루 눈처럼 성글다네
<城市全圖應令>	

앞에서 간단하게 언급했듯이, <성시전도시>는 1792년 4월 24일 정조가 규장각 문신들에게 한양의 모습을 그린 ‘성시전도’를 보고 장편의 시를 사흘 안에 써낼 것

을 명한 것이다. 시를 제출하자 정조는 등수를 매겼는데, 병조정랑(兵曹正郎) 신광하가 1등, 검서관(檢書官)이던 박제가는 2등이었다.

이옥과 마찬가지로 박제는 이현(梨峴), 종루(鍾樓), 칠패를 도성의 3대 저자로 꼽고 있다. 이현은 배오개, 즉 현재 종로구 인의동에 속하는 고개로 이곳에 번성했던 시전이 바로 지금의 동대문시장으로 발전한 것이다. 18세기 무렵, 도성의 3대 저자로 꼽히는 이곳들에서는, 생업을 꾸려나가는 장인들과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칠 정도로 붐빈다. 이익을 쫓아 온갖 물건들을 싣고 늘어선 수레들에는 봉성과 연경 등 해외에서 온 물건들 및 북관의 마포, 한산의 모시 등 국내의 특산품들로 가득하다. 갖가지 곡물들은 물론이고 나무들도 종류 별로 없는 것이 없다. 채소와 과일은 물론이요, 말린 생선과 꿩고기뿐만 아니라 생물인 생선들도 다양하다. 시전 상인들이 물건이 잘 팔리도록 각자가 파는 물품들을 정성껏 진열해 둔 모습을 세세하게 훑는 시인의 섬세한 시선은, 읽는 이로 하여금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8세기 시장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박제가의 〈성시전도시〉는 당시 도성의 3대 저사에서 사고파는 물건들을 세밀하게 나열하고 있다. 특히 “문어, 조기, 가자미, 청어, 상어”라고 구체적인 생선의 이름이 언급되는 시장이 바로 칠패였을 것이다.

유득공은 『경도잡지』의 「시포(市鋪)」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비단, 명주, 종이, 베 등의 여러 점포가 종가(鍾街, 현 종로)를 끼고 죽 늘어서 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대체로 장 보러 가는 사람은 새벽에는 이현(梨峴)과 소의문(昭義門, 西小門) 밖으로 모이고, 점심때는 종가(鍾街)로 모인다. 온 장안의 수요품 중에 동부에서는 채소가, 칠패(七牌)에서는 생선이 가장 풍부하다.¹⁸⁾

서소문과 남대문 사이에서 번성한 칠패 시장은 서울의 관문인 경강 지역과 가깝

18) 柳得恭, 「市鋪」, 『京都雜志』, “緞紬紙布諸大鋪, 挾鍾街而居, 餘皆散處. 凡趨市者, 晨集于梨峴及昭義門外, 午集于鍾街. 一城之所需者, 東部菜七牌魚爲盛.”

기 때문에 서해에서 들어오는 각종 어물과 미곡 등이 판매되었고, 나무가 있는 마포, 용산과 가까워서 특히 어물이 싱싱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리고 종로 시전이 점심때쯤 활기를 띠었던 것과 달리 주로 채소와 어물을 유통했던 이현과 칠패 시장은 새벽부터 영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강이천이 「한경사」에서 포착한 시장은 칠패임을 추정할 수 있다.

五更三點四門開	오경삼점에 사대문이 열리니
馬載車輸一簇來	말과 수레에 짐 싣고 사람들 몰려온다
無數魚塩無數菜	물고기와 소금이며 채소까지 넘쳐나는데
紛紛買趁巳前回	시끌벅적 물건 사러 갔던 이들 巳時 전에 돌아오네

오경삼점은 대략 새벽 4시를 전후한 시각으로, 이 시간에는 통행금지를 해지하는 파루가 친다. 파루가 치고 성문이 열리자 말과 수레에 짐을 실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새벽 풍경이다. 시에서 특히 물고기와 소금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수산물을 많이 유통했던 칠패를 묘사하고 있는 듯하다. 시끌벅적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사시(巳時), 즉 오전 10시경에는 시장이 파하는 당시의 칠패 시전을 묘사하고 있다.

한산거사의 「한양가」에도 칠패의 생선가게 풍경이 전한다.

우리나라 소산(所産)들로 부끄럽지 않건마는
 타국물화(他國物貨) 교합(交合)하니 백각전(百各廛) 장할시고
 칠패(七牌)의 생선전(生鮮廛)에 각색 생선 다 있구나
 민어(民魚) 석어(石魚) 석수어(石首魚)며 도미 준치 고도어(高刀魚)며
 낙지 소라 오적어(烏賊魚)며 조개 새우 전어(鱶魚)로다

시인은 조선 후기에 상업과 유통의 발달로 다른 나라의 물건들까지 유입되어 거래되고 있는 활발한 시전의 풍경을 먼저 전한다. 이어서 칠패의 생선가게를 특정하



알제 강점기 남대문시장

여 각양각색의 생선을 일일이 호명하며 그 다양한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칠패는 난전 상인들에 의해 개척된 시장이었으므로, 종로 시전에 비해 상거래 질서가 어지러웠다. 『시폐(市弊)』는 칠패가 각 관아의 고관의 수하에 있는 노복과 군영 세력자의 비호를 받는 병사들에 의해 점유되었고, 마포를 경유하는 서해안의 어물, 포천 송우리(松隅里)와 양주 누원을 경유하는 함경도의 어물 및 강화 특산품인 화문석까지 독점 취급하였다고 전한다.¹⁹⁾ 『시폐』는 비변사에서 서울 시전의 상소와 이에 대한 조치를 각전별로 나누어 기록한 것으로, 1753년(영조 29)에 작성되었다. 한창 칠패가 형성되기 시작하던 시기, 칠패의 활동 주체와 취급 물품들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 칠패는 관아의 고관에 수하에 있는 노복 및 군영 세력자들의 비호를 받는 병사들에 의해 점유되었으며, 서해안에서 들어오는 어물은 물

19) 『市弊』 2, 門外新商塵, 銀子塵, 陶磁塵, 苗席塵.

론이고, 함경도의 어물과 강화 특산품인 화문석까지 독점 취급할 정도로 막강한 세를 과시했던 것이다. 그리고 『각전기사(各慶記事)』의 다음과 같은 기사도 주목을 요한다.

근래 무뢰한 자들이 무리를 지어 남문 밖 칠패에서 함부로 난전을 열어 거리낌 없이 많은 어물을 파고 있다. 이들은 무리를 동교의 누원(樓院)[다락원, 의정부시 호원동]이나 남교의 동작진에 보내 남북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어물상을 유인하여 수백, 수천 마리의 어물을 사들인 다음 그것을 칠패로 옮기고 중도아(中都兒)를 모아 매일 난전을 벌인다. (중략) 그러므로 수각교, 회현동, 죽전동, 주자동, 어영청, 어의동, 배오개, 병문 등지의 산처럼 쌓인 각종 건염어 중에 칠패 난전이 취급하지 않는 것이 없다. (중략) 칠패 난전의 무리들은 모두 강노(強奴)와 한졸(悍卒)들이다.²⁰⁾

위의 기록은 칠패의 위치, 활동상, 활동 주체에 관해 밝히고 있다. 『각전기사』는 시전을 관장하던 평시서(平市署)에서 시전의 무분별한 난전권 행사와 관련한 분쟁 기록을 모아 엮은 책인데, 위의 기사는 건륭(建隆) 11년, 즉 1746년 무렵의 상황이다. 칠패 시장은 서울의 관문인 경강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서해에서 들어오는 각종 어물과 미곡 등이 판매되었는데, 특히 경강 여객주인이 시전 상인 몰래 외방에서 싣고 온 상품을 빼돌려 중도아(中都兒)에게 넘겨주면, 중도아들이 일반 시민에게 파는 시장이었다. 칠패가 형성되기 시작하던 초기의 모습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칠패 난전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난전 상인들에 의해 개척되어 종로의 육의전에 비해 상거래 질서가 어지러웠던 칠패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이 바로 이옥의 「이홍전(李泓傳)」이다.

서울의 서문에 큰 시장이 있다. 이곳은 가짜 물건 파는 자들의 소굴이었다. 가짜로 말하면 백동(白銅)을 가리켜 은(銀)이라 주장하고, 염소뿔을 두고 대모(玳瑁)라 우기며, 개가

20) 『各慶記事』, 地卷, 建隆 11년 11월.

죽을 가지고 초피(貂皮)로 꾸민다. 부자 형제간에 서로 물건을 흥정하는 형상을 지어 값의 고하를 다투고 왈자지껄한다. 시골 사람이 흥겨워 보고 진짜인가 싶어서 부르는 값을 주고 사면 판 놈은 꺾이 들어맞아서 일거에 이문을 열 곱 백 곱 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매치기도 그 사이에 끼어 있다. 남의 자루나 전대에 무엇이 든 것 같으면 예리한 칼로 찢어 빼간다. 소매치기를 당한 줄 알고 쫓아가면 요리조리 식혜 파는 골목으로 달아난다. 꼬불꼬불하고 좁은 골목이다. 거의 따라가 잡을라치면 대광주리를 짚어진 놈이 불쑥 “광주리 사려!”하고 뛰어나와 길을 막아버려 더 쫓지를 못하고 만다. 이 때문에 시장에 들어서는 사람은 돈을 전장에 진(陳) 지키듯 하고, 물건을 시집가는 여자 몸조심하듯 하지만 곧잘 속임수에 걸려드는 것이다.²¹⁾

「이흥전」은 서울에 사는 사기꾼 이흥의 사기행각을 삽화식으로 구성한 작품으로, 인용문은 이흥의 행각이 서술되기 전의 도입부이다. 여기에서 ‘서문의 큰 시장’은 바로 칠패 시장을 일컫는 것이다. 칠패 시장은 가짜 물건을 속여 파는 자들의 소굴이다. 부자 형제간에 서로 물건을 흥정하는 척하는 험잡도 벌어지고, 소매치기 범죄 역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터라 피할 방법이 없다. 시장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전장에 진(陳) 지키듯” 돈을 지키고, “시집가는 여자 몸조심하듯” 물건을 사리지만 곧잘 속임수에 걸려드는 곳이 바로 칠패 시장인 것이다.

조정에서 펴낸 기록들과 달리, 이옥의 묘사는 바로 눈앞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도입부처럼 생동하는 서민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칠패를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경제 범죄는 한양이 상업 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야비하고 비루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삶의 밑바닥이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서민의 삶 그 자체가 아닐까.

21) 李鈺, 「李泓傳」, “國之西門, 有大市, 市之售賈貨者, 藪焉。賈之類, 證白銅爲銀, 質羊角爲玳瑁, 文獮皮以爲貂。父子兄弟, 互相作交易狀, 爭高下, 賭呪啾啾, 鄉之氓, 睨之以爲且眞也, 從其直買之, 售者得其計, 則利必什佰。又有剽囊者, 錯出乎其間, 揣人囊橐中物, 以利刀割而取之。覺而逐, 則逶迤走賣醬巷。巷之狹且多折者也。幾及之, 有負筩子者, 叫買筩子而出, 路塞不得前。是故, 入市者, 固錢如陳, 審貨如嫁, 猶見墮於騙也。”

2부

한국문학의 담론장과 중구



1장 국권침탈 그리고 일그러진 근대

근대로의 서울 재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대체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중반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이다. 이 시기의 주요 지형도는, 첫째 19세기 말의 대한제국의 황성(皇城) 만들기, 둘째 1910년대에 행해진 일제의 용산 군사기지화, 셋째 조선총독부의 도시계획 등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설계로 인해 ‘서울’은 하루가 다르게 근대적 도시로 탈바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중구’ 또한 근대적 상업의 중심지로, 시민들을 매혹하는 현란한 소비 공간으로 재편된다.

1. 서울의 모더니티와 근대 소비도시의 탄생

‘서울의 근대화’에 아로새겨진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과 이에 수반된 분열증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영향은 서울에 터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전기와 조명의 보급은 낮과 밤의 구별을 없앴고, 전차와 철도, 전화는 물리적 거리를 좁혔으며, 사진과 영화는 과거와 현재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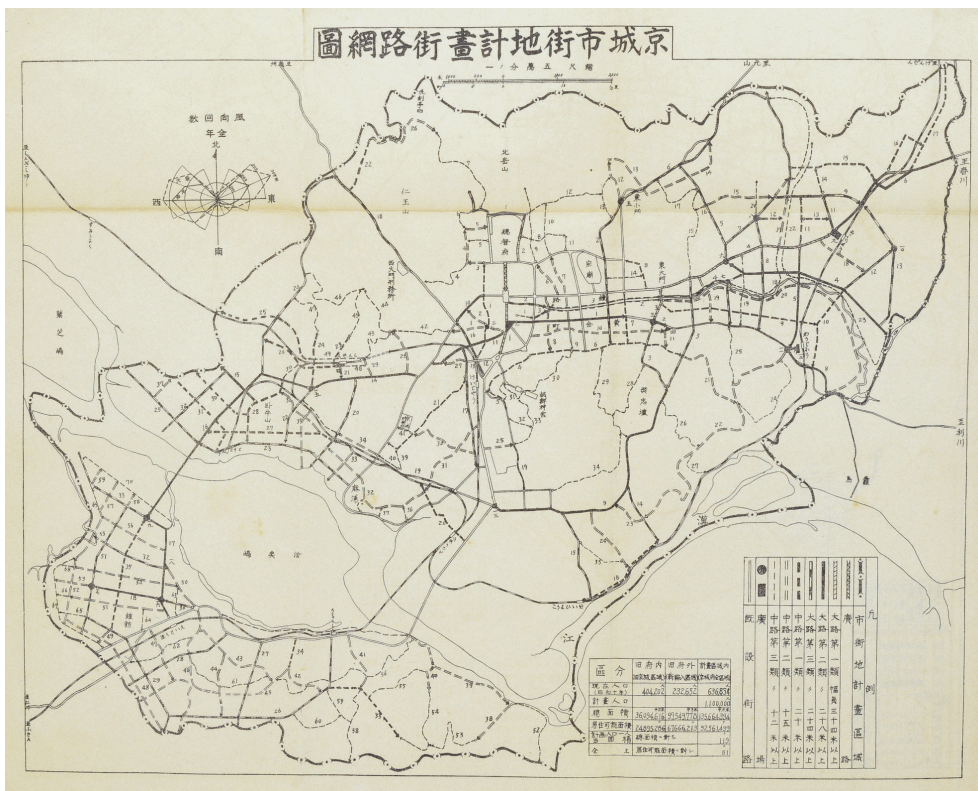
근대 문명의 기계적 소음에 노출된 도시인의 청각과 새로운 문명의 표면에 머문 시각, 이국의 문물에서 풍기는 냄새 등은 과거 한성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생활 세계를 연출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서울의 근대 도시화가 일제의 주도로 기획된 식민지 병참기지화와 긴밀히 맞물려 있었다는 점이다. 후술하겠지만 중구의 아래쪽에 해당하는 ‘용산’에 집적된 전쟁-기계는 그 존재만으로도 ‘서울’을 일상화된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렸다. 항시 죽음에 맞닿아 있다고 의식하게 만들거나 죽음을 상기하게 만드는 기계는, 비록 의식의 표면에 곧바로 떠오르지 않을지라도 시민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으며 순간적인 쾌락의 집중으로 그 ‘공포’를 잊을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의 주파수를 맞추게 하였다.

물론 유럽의 ‘빈’과 같은 예를 보더라도 도시화와 맞물리는 모더니티의 광범위한 확산과 파괴적 경향들의 반복은 다소 낙후된 지역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서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다른 사실은 이 이중도시가 언제든 중국 대륙을 침략하려는 ‘주둔군’의 존재로 이미 만성화된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같은 공간에서 전쟁 기계와 살을 맞대고 생활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또 있을까. 전쟁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큼이나 항존하고 있으며 서울은 그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토해내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당시 일본인들의 집산지였던 ‘남춘’이 그토록 급속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소비와 향락의 공간으로 편성된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러므로 김기림이 서울을 “그 첫걸음에서부터 불구한 모양”¹⁾이라고 술회한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도대체 나의 서울에는 그런 의미의 물질문명이나 기계문명이라도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저 19세기의 해어진 선로를 달리는 박람회(博覽會) 퇴물 같은 깨어진 전차를 보라. (중략) 승강기 하나, 「에스칼레이트」 하나 구경할 수 없는 서울—그러면서도 국제정국의 사나운 바람이란 바람은 모조리 받아들여야만 하는 벽찬 도시—낙관론(樂觀論)도 비관론(悲觀論)도 끌어낼

1) 김기림, 「우리 신문학과 근대의식」, 『인문평론』 1940.10., 『전집』2, 심설당, 1988, 45쪽.



〈경성시기지계획가로망도京城市街地計劃街路網圖〉. 1938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도시계획개요都市計劃概要』에 실려 있는 서울의 계획가로망도(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수 없는 기실은 말할 수 없이 딱한 도시”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일제의 서슬 퍼런 군국주의와 왜곡된 자본주의에 의해 변형된 흉물스러운 근대, 그것이 ‘서울’의 일반적인 이미지였으며, 특히나 서울의 화려하면서도 우울한 정조를 온몸으로 표현했던 ‘중구’의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서울은 자본주의적 보편성, 혹은 모더니티가 관철되는 도시였음은 부인할 수 없으며, 특히 ‘중구’로 집적되었던 ‘모더니티’의 현란한 물질적 풍요와 신기는 상당히 다채로웠다. 모더니티란 개념은 인간이 자본주의화된 공간과 시간, 자아와 타자, 인생의 가능성과 위험성 등 사회적, 경제적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실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심리적 실체는 현대적인 환경과 경험 속에서는 “지역과 민속성, 계층과 국민성, 종교와 이데올로기 등 모든 경계를 초월한다.”²⁾ 전차, 철



일제강점기 경성의 5대 백화점의 입지
(출처: <https://invisiblecity.tistory.com/1465>)

도, 극장, 영화관을 비롯하여 병원과 은행, 공원 등 자본주의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일반화된 도시의 ‘판타스마고리아’(phantasmagoria)³⁾가 집결된 도시였다는 점에서 서울의 모더니티는 세계 체제의 일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⁴⁾

근대 소비자들이 예컨대, 옷, 승용차, 음반, 녹화된 비디오, 가구 등을 구입하는 순간마다 그 안에는 상징적 의미가 작동한다. 그들이 구매한 것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실용적인 용도를 지닌 물질적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는, 그리고 구매 당시 소비자가 되고 싶어 했던 유형의 인간과 관련된 것을 보여주는 무엇이기도 하다.⁵⁾

이러한 착시 현상은 김기림이 서울 중구에 출현한 백화점을 “1931년도의 大京

2) M. 버만, 『현대성의 경험』, 윤호병·이만식 역, 현대미학사, 2004, 재개정판, 25~27쪽 참조.

3) 판타스마고리아란 주마등같이 변하는 광경을 지칭하는 단어로 일종의 환상, 환각, 착시의 세계를 일컫는다. 근대가 만들어낸 판타스마고리아는 백화점, 공원, 은행의 물질적 세계를 비롯하여 광고, 영화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문제는 판타스마고리아의 세계가 상품의 물신화 양상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특히 ‘소비’의 메커니즘과 맞물리면서, 판타스마고리아가 뿜어내는 광채는 더욱 선명해진다.

4) 박성현, 『1930년대 모더니즘 시의 도시체험과 물신성 수용양상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2009, 5쪽 참고

5) 로버트 보크, 『소비』, 양건열 역, 시공사, 2003, 83~84쪽 참고.

城의 주름 잡힌 얼굴 위에 假葬하고 나타난 「근대」의 「메이크업」으로 묘사한 데서 잘 나타난다. 게다가 그는 백화점을 ‘무형의 축수를 도시의 가정에 버리고 있는 魔物’에까지 비유한다.⁶⁾ 그에게 백화점은 서울의 속악한 현실을 가장하는 화장술이며 동시에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메피스토프’였던 것이다. 바로 여기에 서울의 중구, 곧 당시 ‘남촌’의 본 모습이 있는 것이다.⁷⁾

우선 소비도시로서의 면모는 ‘남촌’에서 만개한다. 그 지역은 “조선을 떠나 일본에 여행이 나온 늦김”이 들 정도였다. 일본인의 거대 자본이 들어오면서 남촌은 삼정(미카나이) 상점, 하라다 상점, 미스코시 백화점 등이 들어섰으며, 1920년대 말에는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룬 별천지”가 된다. 이러한 불야성을 이룬 본정의 모습은 경성이라는 도시를 그 이전의 것과는 확연하게 구분하는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된다.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본정을 구경해야만 서울 구경을 한 허영심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는 일화는 본정이 서울의 근대화 과정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자리를 짐작케 한다.⁸⁾

위 인용문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일제강점기의 서울 중구는 ‘조선 속의 작은 일본’이라는 이미지로 압축된다. “모든 봉건 유물은 쫓기고 자본주의의 제요소가 변화스럽게 등장”⁹⁾하는 곳이 서울이자 중구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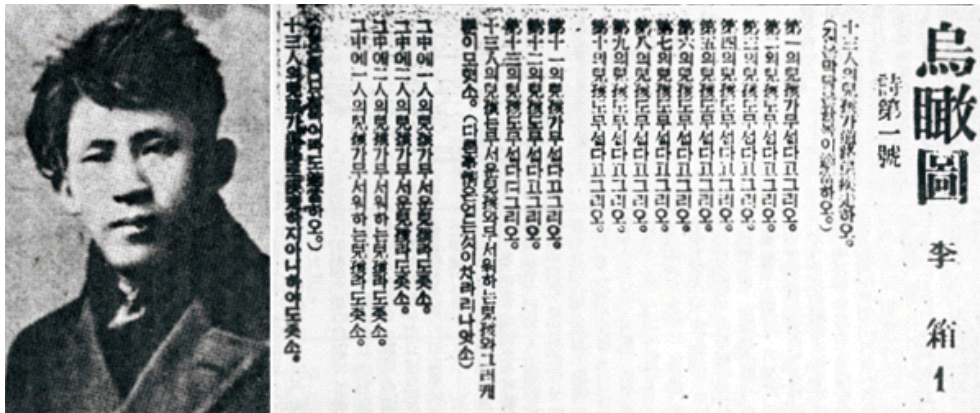
참고로 1906년에 ‘미스코시’(三越, 현 신세계백화점)가 충무로에 서울점을 낸 이후, 20년대 충무로 일대에는 ‘미나카이’(三中井)와 ‘조지야’(丁字屋), ‘히라다’(平

6) 김기림, 「都市風景1·2」, 〈조선일보〉1931.2.21.~2.24., 『전집』 5, 386쪽, 광고는 그 제품의 실제 사용가치와는 별개로 특수한 교환가치를 창출한다. 그 이미지 혹은 착시는 상품의 표면에 밀착되어 상품의 내적 가치로 전도된다. 근대의 ‘모던걸’이 무분별하게 서구를 추종하면서 ‘유행’을 만들어내는데,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의식은 상품에 밀착된 서구의 이미지를 소비함으로써 서구풍의 근대 여성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자가당착이다.

7) 박성현, 앞의 논문, 6쪽 참고.

8) 박성현·김관용, 『서울 중구의 문화예술인을 찾아서』, 서울중구문화원 중구향토사자료 제17집, 2017, 20쪽.

9) 유광렬, 「대경성의 점경」, 〈사해공론〉, 1935.10.



시인 이상과 <조선중앙일보> 1934년 7월 24일자에 발표된 '오감도' 시제1호.

田) 백화점이 들어섰다. 이중 미스코시는 1930년에 “국제도시 서울의 심장부에 새로 건물을 지어 선만(鮮滿) 최고백화점 개점”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재개장했다. 이 ‘미스코시’는 이상의 수작 『날개』의 대미가 장식된 장소로 지금까지도 우리의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다.

소비도시로서의 면모는 1902년 손탁호텔의 호텔식 다방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특히 지금과 같은 형태의 다방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것은 3·1만세운동 이후인데, 다방의 수요는 일본이나 서구로 유학을 다녀온 많은 젊은이로부터 생겨났다. 다방은 사람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곳으로, 이러한 프랑스식 살롱문화가 우리 생활 곳곳에 퍼졌고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유행으로 변졌다.

1923년을 전후로 하여 일본인에 의해 만들어진 후다미(二見)가 다방문화의 첫 테이프를 끊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감독이며 소설과 동화를 쓴 이경손이 1927년경에 만든 ‘카카듀’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 다방은 관훈동 입구 3층 벽돌집 아래 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1930년대에 이르자 당대 주요 문인과 예술인, 영화인들도 다방을 운영하면서 당대 문학·예술의 담론 생산자를 자처했다. 특히 소공동에 들어선 ‘낙랑(樂浪) 파라’는 1930년대를 대표하는 다방이었다. 주인은 동경미술학교 도안과를 나온 이순석으로, 후에 배우 김연실에게 다방을 넘기게 된다.

이상 또한 종로 1정목에 다방 ‘제비’를 개업했는데, 그의 건축 전문가로서의 면목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유명했다. 이후 인사동에 ‘쓰루(鶴)’라는 카페를 인수했으나 실패했고, 1935년에는 명치정에 ‘무기(麥)’를 직접 설계하여 지었으나 개업 직전에 넘어가고 말았다. 이 ‘무기’는 명동에 다방이 밀집하게 되는 출발점이었다고 한다.¹⁰⁾

2. 식민지 병참기지화와 ‘죽음’의 항존성

확실히 근대 대도시로서의 서울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언론을 통해 시시각각으로 공유되는 자본주의의 동시성이 실현되는 곳이기도 했다. 이것은 과거 ‘한성’의 지위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모더니티의 구현이었다. 신문, 잡지를 비롯한 출판 저널리즘과 라디오, 영화 등을 통해 ‘세계’를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¹¹⁾은 뉴욕이나 파리에서 유행하는 것이 거의 동시에 서울에도 유입되었다는 점을 설명한다. ‘저널리즘’과 ‘유행’이 ‘소비’의 지표라는 점에서 근대화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가정할 때, 당대 서울은 자본주의적 보편성과 동시성이 관철되는 도시였으며, 적어도 ‘세계의 근대’를 내면화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도시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서울의 5대 백화점 중 종로에 위치한 화신 백화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구’에 몰려 있었다는 사실도 참고하자.

최재서는 서울의 현대적 면모를 이렇게 피력한다. “현대의 매력은 역시 도회에

10) 고석규, 「신파의 거리」, 『서울학교양총서』 6.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7. 5, 312~313쪽 참고.

11) 세계에 접목된 서울의 유행에 대해서는 안석영의 다음 글을 참고하자. “지난 1931년의 여러 가지 유행은 매우 『스피드』적이어서 눈깜짝할 사이에 세계를 한박회식 도랐다. 『파자마』라는 침의를 미국 뉴욕 켈 아니 헐리웃드의 활동녀 배우들이 입고 대낮에 길거리를 나뒀다는 『뉴-스』를 바더볼 때에 벌써 세계에서 제일 적고 저주바든 가엾은 도시 『서울』에도 그와 조금도 다를 것 없는 침의를 입고 초가집 틈박우니로 흐느적거리고 다니는 왜장녀를 보았다.”(안석영, “모썸第三紀”, 〈조선일보〉 1932.1.20.)

있다. 현대생활의 매력성과 집단성과 준엄성과 직선성은 도회가 아니고서는 볼 수 없다”¹²⁾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은 김광균의 시 「와사등」이나 김기림의 시 「옥상정원」에서 나타나듯 자연의 상실, 군중의 고독, 소외, 이방인 의식 등을 배태시키는 공간이었고, 이는 특히 “콘크리트와 포석(鋪石)의 네모진 옥사(獄舍)”라는 비유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여전히 서울은 ‘이중 도시’이며 서울에 사는 시민들의 감정은 놀람과 충격, 환희와 우울의 양가감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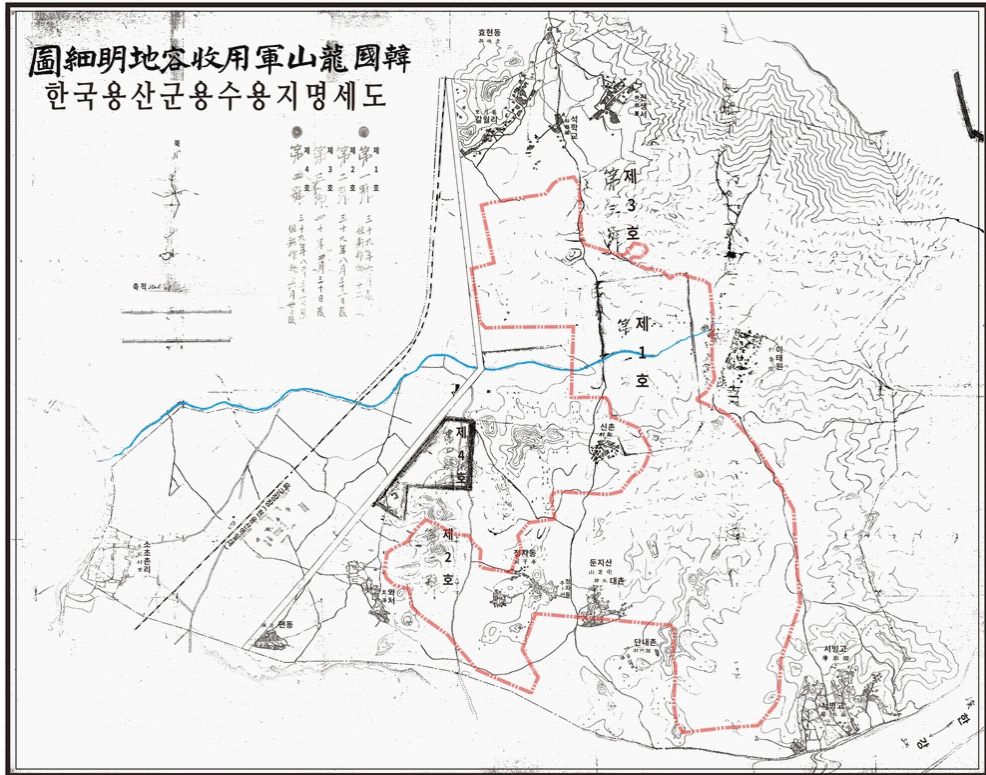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저널리즘’이 조선인에게 세계를 받아들이는 문이면서 동시에 자아를 세계화하는 통로였다는 점이다. 당대 문학의 사상적 흐름을 주도했던 〈조선일보〉의 학예면은 대부분 문인 출신 기자들의 글로 채워져 있었으며, 대부분 일본에서 유학을 한 탓에 일본어로 읽은 해외 문단 동향이나 이론들이 빠르게 한반도에 유입될 수 있었던 것이다.¹³⁾

그러나 서울의 근대화는 식민지의 수도라는 특수성이 함께 내재되어, 군국주의로 치닫는 일본의 정치, 경제 논리에 포섭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새로운 소비시장이면서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병참기지라는 서울의 식민도시로서의 특성은 시인 이상(李箱, 1910~1937)이 억압된 자의식과 싸우며 자신의 무의식을 표현하고자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근대화의 속도와 무게가 다른 제국주의 식민도시보다 더 압축적이며 더 첨예화된 서울, 그리고 이러한 근대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식민도시의 근대화의 ‘속도’와 ‘무게’에 비례했던 것이다.

그렇다. 다른 제국주의 식민도시와 서울의 다른 점은 근대화의 속도와 무게였다. 일반적으로 식민도시는 항구에 건설되며, 물자나 병참기지화가 용이하고 또한 토착 권력의 저항이 약한 곳에 건설되는 것인데 비해, ‘서울’은 △대한제국의 수도였고, △토착 권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으며, △항구라는 특성도 없었다. 일본이 서울을 식민도시, 그것도 식민지 수도로 인정했다는 것은 근대화의 속도와 무게에 있어서 하나의 예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식민도시로서의 서울의 문제

12) 고석규, 앞의 글, 309쪽 재인용.

13) 조영복, 『문인 기자 김기림과 1930년대 ‘활자-도서관’의 꿈』, 살림, 2007, 25쪽 참조



1906년 일본군이 작성한 <용산 군용 수용지 명세도>. 붉은 선으로 표시된 구역이 옛 미군 기지이다.(출처: 서울 용산구 용산문화원)

점은 경의선과 경부선, 경원선 등의 건설 과정에서 조선인에 대한 잔인한 폭력과 수탈로 나타나기도 했다. 일본은 제국주의적 팽창의 속도가 필요했고, 그 속도는 폭력을 통해 가속화되었으며, 시종 ‘건설’과 ‘파괴’로 점철되는 서울의 참혹한 모습을 남겨 하였다.¹⁴⁾

건설과 파괴가 일상화된 서울의 하부구조에는 과도한 소비와 향락, 퇴폐의 일상

14) 박성현, 앞의 논문 8쪽 참고. 근대 도시란 도시에 존재하는 전근대적 요소를 ‘파괴’하고, 그 위에 모더니티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건설과 파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보편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의 근대’를 인식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향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원론으로 환원된다. ‘행위 주체의 동일성’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건설과 파괴—은 당대 문인들이 표면적으로도 또한 무의식중으로도 공유했던 방법적 측면이다.

이 자리 잡고 있다. 파리의 영화 <몽파리>의 인물을 흉내 내는 “수십수백의 빨거버슨 여자들의 官能 충동의 變態的 판스”는 “잔인음탕한 현대인의 신경을 자극”¹⁵⁾하는 병폐를 낳기도 했다. 이러한 소비도시로서의 서울은 동시에 용산을 중심으로 한 병참기지화의 근거지라는 이중적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일본인의 집산지인 남촌을 넘으면 용산이 보였으며, 일본은 용산에 대규모 군대를 주둔시켜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 삼았다. ‘남촌’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근대적 환상의 바로 아래에 주둔한 군대는 서울의 급속한 근대화와 동시에 펼쳐진 미래지향적 욕망—해방의 이미지—을 위협하는 폭압적 상황을 현실화한다.¹⁶⁾

서울은 식민도시의 일반적인 모습인 ‘이중 도시’(dual city)¹⁷⁾ 곧 ‘토착세력의 전통’, ‘신흥세력의 근대’가 공존하는 특성과 아울러 ‘소비도시’, ‘전쟁도시’라는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때문에 조선인의 내면은 근대화에 삼입된 ‘먼 미래’(혹은 ‘포스트모던’)의 예표적(豫表的) 꿈을 꾸는 동시에 항시적 폭력과 불안, 억압의 ‘무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요컨대 서울의 복합적인 특성은 이미 삶의 조건으로 작용하여 근대와 전통, 꿈과 현실(폭력)이 상존하는 낯설고 이상한 이미지로 이어진다. 당대의 작가들이 근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복합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많은 논자들이 주목한 것처럼, 의식적, 무의식적 층위에서 ‘서울-도시’는 많은 작품의 주제와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문학적 담론 생산과 그 표징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¹⁸⁾

15) 안석영, 「몽파리裸女」, <조선일보> 1929.7.27.

16) 세계적인 대공황기로 접어들면서 미국에서는 전체 노동자의 30%가 실업자로 전락한다. 일본도 관동대지진(1923년)과 금공황(1927년), 세계적인 대공황의 여파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으로 이어지는 파시즘의 대두는 자본주의 파산의 징표인 듯했으며, 세계는 한 발 한 발 ‘세계대전’이라는 파국으로 치달는다. “전황! 불경괴! 해고 解雇! 긴축! 절약! 등등등! - 그리고 나면 인원정리! 해고! 결국 「프로레타리아」의 위협이다.”(안석영, 「低氣壓」(1), <조선일보> 1931.1.21.)와 “요사히 전황으로 각 학교마다 學費가 업서서 눈물을 먹음고 도라가는 학생이 만타.”(안석영, 「1931년이 오면」, <조선일보> 1930.11.27.)는 글은 당시의 절박한 상황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17) 김백영, 「러일전쟁 직후 서울의 식민도시화 과정」, 『지방사와 지방문화』 8권 2호, 2005, 136쪽 참조.

18) 박성현, 앞의 논문, 9쪽 참고.

3. 판타스마고리아의 문학적 형상화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는 감옥, 학교 등의 제도적 장치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했으며, 그리하여 서울의 근대화가 가속되면 될수록 그 화려한 이면에는 어둠이 짙게 깔리게 된다. 이를 받아들이는 문인들의 내면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다. ‘서울’과 ‘중구’는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속도로 재편되기에 이른다.

형님, 떠나던 날 밤에 배 속에서 어머니에게 글월을 드리고 그 이튿날 원산 내려서 기차로 서울에 왔습니다. 배 속과 기차 속에서 새로운 산천을 볼 때 기쁜 듯도 하고 슬픈 듯도 하여 뒤송송한 맘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언뜻언뜻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도는 것 같아서 남모르게 가슴을 쓸었습니다. 그러다가 남대문역에 내려서 전차에 오르니 모든 것이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같이 오는 친구는,

“저것이 남대문, 저것이 남산, 저리로 가면 본정—진고개, 예가 조선은행.”

하고 가르쳐 주는 때에 나는 호기심이 나서 슬금슬금 보면서도 결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 여보, 여태껏 서울을 못 보았소?”

하고 핀잔을 주는 듯해서 일종의 모욕을 느끼었습니다. 그러나 애써 가르쳐 주는 친구를 나무란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 그저 꿀꺽 참고 있었습니다.

서울 들어서던 날 나는 하숙을 계동 막바지 어떤 학생 하숙에 정하였습니다. 구린내 나던 그 하숙 장맛은 지금도 혀끝에 남아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 차츰 서울의 내막을 보는 때에 나는 비로소 내 상상과는 아주 판판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제일 눈에 서투른 것은 ‘할멈’과 ‘거지’였습니다.¹⁹⁾

당시 함경도에서 일자리를 찾아 상경한 주인공은 처음 보는 서울의 휘황한 모습

19) 최서해, 『전아사』, 한국소설문학대계(12), 동아출판사, 1995, 123쪽.



1920년대 초의 조선은행 앞 광장(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에 적잖이 놀란다. 특히 중구 일대에 이르러서는 “저것이 남대문, 저것이 남산, 저리로 가면 본정—진고개, 예가 조선은행.”이라 되뇌며 마치 뿔속에라도 새기려는 듯 하나하나 각인한다. 서울에 들어서던 날, 계동에 하숙을 정하고 처음 보는 대경성의 모습에 낯이라도 빼앗긴 듯했으나 차츰 서울의 일상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거짓이자 위악(僞惡)임을 깨닫게 된다. 그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 차츰 서울의 내막을 보는 때에 나는 비로소 내 상상과는 아주 판판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제일 눈에 서투른 것은 ‘할멈’과 ‘거지’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처럼 서울, 특히 첨단 문물이 집중된 장소인 ‘중구’는 판타스마고리아 그 자체였으며, 더욱이 일본인 집산지와 함께 소비와 향락의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남의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일본인들이 달갑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주객이 전도된, 식민지라는 폭압적인 상황은 그러한 분노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고가네마치, 혼마치를 위시해서 변화가를 걸어 보았는데 일본인들의 그 경박하게 시시덕거리는 꼴이 목불인견이라고 했다.²⁰⁾

지금의 충무로인 ‘혼마치’를 마치 제집인 양 장악하고 “경박하게 시시덕거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누군들 그 ‘꼴’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어쩌면, 그 광경은 환멸의 감정일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일본인들에 집중된 조선인들의 따가운 시선이 손에 잡힐 듯하다. 조선인들의 눈에 비친 일본인들의 위와 같은 모습은 상당히 많은 저널에서 다루고 있으며, 문학 작품에도 직간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문열은 『불멸』이라는 작품에서 이를 좀 더 깊게 다룬다. 여기서 우리는 단편적이지만 조선의 일상에 박힌 식민지 권력의 실상을 보게 된다. 작가에 따르면 일제는 건달패들을 풀어 교묘하게 조선인을 감시하고 그 정보를 수집해 상부에 보고하기도 했는데, 안중근 의사의 일화를 빌려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다.

세례 교인 안 다묵으로 청계동에 박혀 지내던 중근은 그날 오랜만에 몇몇 벗과 더불어 서울 구경을 나왔다. 만민공동회가 열린다는 독립공원에 갔다가 종현성당에 들른 뒤 일본인들이 몰려 산다는 진고개 쪽을 살펴보러 갔을 때였다. 저만치 이제 막 들어서기 시작하는 일본인들의 상점거리가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중근의 등 뒤에서 서투른 조선말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서라, 이 건방진 놈. 서지 않으면 베겠다!”

중근이 무심코 돌아보니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일본인이 말을 타고 오는 조선인 하나를 가로막고 지른 소리였다. 일본인치고는 키가 큰 데다 굵 높은 게다짜까지 끌고 있어 제법 거구로 보였는데, 하오리 자락 사이로 비죽이 드러나는 단검 손잡이가 꽤나 위협적이었다. 고삐를 당겨 말을 세운 조선인이 겁먹은 눈길로 그 일본인을 바라보았다.

“내려. 네놈은 말을 탈 자격이 없는 놈이다.”

일본인 건달이 다시 그렇게 소리치며 안장에 붙은 걸 떼어내듯 그 조선인을 말 등에서

20) 이병주, 『관부연락선』, 한국소설문학대계(52), 동아출판사, 1995, 364쪽.

끌어 내렸다. 겨우 땅바닥을 두 발로 디디고 몸을 가는 조선인이 허영게 질린 얼굴로 그 일본인을 쳐다보며 새된 소리를 질렀다.

“이보시오. 이 무슨 무례한 짓이요?”

나중에 혼마치(本町)로 불리며 일본인의 집단 주거지가 된 진고개 부근은 그때도 이미 많은 일본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대부분은 보잘것없는 밀천으로 가게를 연 장사꾼들이었지만, 개중에는 할 일 없이 장바닥을 어슬렁거리며 조선 낭인 흉내를 내는 건달패도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지사(志士)를 자처하며 일본의 머지않은 조선 침략에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였는데, 그 정보 가운데는 민기(民氣)를 떠본다 하여 일본의 침략에 대한 조선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있었다. 그 조선인은 재수 없게도 거기에 걸려든 듯했다.

“네놈이 감히 말을 타고 남의 동네를 짓밟다니 용서할 수 없다.”

일본 건달이 금세 칼이라도 빼들 듯한 기세로 그렇게 으르렁거리더니 갑자기 조선인에게서 말고삐를 잡아채려 했다. 그러나 허약해 보이는 조선인도 그것만은 쉽게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 두 손으로 매달리듯 하며 새된 목소리를 한층 높였다.

“나는 원래 나 있는 길을 지나간 것뿐이요. 남의 동네를 짓밟은 게 아니오!”²¹⁾

청년 안중근은 은거를 푼다. 청계동에 틀어박혀 있던 그는 오랜만에 몇몇 벗들과 서울 구경을 하게 된다. 만민공동회가 열리는 독립공원에 갔다가 현재 명동대성당인 ‘종현성당’을 거쳐 일본인들이 몰려 사는 ‘진고개’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런데 바로 그때, 거구의 일본인이 위협적으로 조선인을 몰아세우는 광경을 보게 된 것이다. 위 묘사에 따르면 진고개에 들어선 일본인들은 대부분 보잘것없는 밀천으로 가게를 연 장사꾼들이다. 하지만 개중에는 할 일이 없어 장바닥을 어슬렁거리며 조선 낭인 흉내를 내기도 하는 건달패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지사(志士)를 자처하며 일본의 머지않은 조선침략에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였는데, 그 정보 가운데는 민기(民氣)를 떠본다 하여 일본의 침략에 대한 조선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

21) 이문열, 『불멸』 1, 2010.

는 것도 있었”던 것이다. 안중근이 본 일본인은 그러한 건달패 중 하나였다.

이처럼 ‘서울’은 당대 문인들의 가시적 예표였으며, 자신들의 세계관을 양식화하는 토양이었다. 특히 문학적 담론이 형성되는 무의식의 기저였던 것이다. ‘서울’은 그것을 표면(의식)화한 경우, 모던 양식에 대한 수용 내지는 반발로 나타난다. 반면에 그것을 기저(무의식)에 둔 경우는, 도시화에 따르는 의식의 변화 양상을 투영하기도 한다. 서울에서 산다는 것은 이미 도시적 삶의 양태를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서울’의 이미지는 ‘중구’를 중심으로 근대문학에 의식적, 무의식적 층위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특히 병참기지화로 돌변하는 일제강점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러한 양상은 더욱 급격히 확대된다.

2장 전쟁의 비극을 딛고 일어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울’의 문학 담론은 일본 제국주의와 한반도, 그리고 조선총독부와 서울이라는 중층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다. 서울은 ‘이중 도시’라는 식민지 도시의 일반화된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동아시아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다시금 특수하게 직조된다. 근대문학을 배태한 ‘서울’의 담론적 특수성을 요약해보자.

첫째, 서울은 예외적인 식민지 수도였다. 일반적으로 식민지 수도는 항구도시에 건설되는 것이 보통이다. 영국의 경우, 인도 식민지화 과정에서 토착권력을 무력화하고 자국의 경제적 수송 경로를 용이하기 위해, 전통적인 수도 대신 교통망이 발달한 항구에 식민도시를 건설했다. 반면에 서울은 여전히 토착권력의 영향력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둘째, 서울의 급격한 도시화는 일종의 착시 현상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바로 현란한 근대문물—정확히는 일본식 근대—과 병존하는 ‘용산’이라는 일제 군사 주둔지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인 집산지였던 ‘남촌’을 중심으로 가속화된 소비·향락 문화에는, 무의식중에 ‘죽음 충동’이라는 트라우마가 짙게 깔려 있었다. 이러한 양상

은 중일전쟁을 시발로 가속화되었으나 일제의 2차 세계대전 패망으로 인해 급속한 단절을 겪고 서울을 비롯한 한반도에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된다.

1. 폐허 속의 실존의식

1945년 8월 15일의 해방은 일본 제국주의라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대타자의 죽음이었다. 서울은 그 ‘죽음’을 정확히 목격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서울은 좌우 이념의 극심한 대립이 첨예화된 공간으로 변모한다.²²⁾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처음에는 국지전의 양상을 보였지만, 내용 면에서는 강대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참여한 또 하나의 세계대전이었다. 한국전쟁은 세계대전 이후 급격히 악화된 미·소 냉전체제의 이념적 상징물인 휴전선을 고착화시켰으며, 또한 같은 민족 내부에서 첨예한 이념의 대결 구도로 정착되었다. 전쟁이 파괴한 모든 물질적인 피해와 더불어 이념의 경직화는 사회는 물론 개인의 삶의 영역에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이른 것이다.²³⁾

한국전쟁이 남과 북을 통틀어 우리 민족의 ‘가장 무서운 비극적 체험’²⁴⁾이라 할 때, 그것은 전쟁 기간에 감당해야 했던 죽음의 공포와 더불어 남북 분단에 따른 이데올로기의 경직화를 의미한다. 한국전쟁의 비극성은 현재의 우리에게도 ‘의식과 생활의 배후에서 생의 명암(明暗)을 지배하는 결정적 요인’²⁵⁾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22) 이와 관련해, 경성은 언제 서울로 명칭이 변경되었을까?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경성’에서 ‘서울’로 명칭이 공식적으로 바뀐 것은 미군정이 〈서울시헌장〉을 발표하고 한 달이 지난 1946년 9월 28일이다. 1949년에는 서울특별시로 전환되고 1962년부터 서울시는 국무총리 직속의 행정기구가 된다.” <https://www.seoul.go.kr/seoul/history.do> 참고.

23)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서울은 다시 폐허가 되고 만다. 전쟁 동안 150만 서울 시민 중 110만 명 이상이 서울을 떠났다가 돌아왔을 정도로 서울의 피해는 막심했다. 1953년 9월 전쟁이 끝난 후에야 새로운 도시 건설에 주력할 수 있었고, 제분·제당·방적 등 원조 물자를 이용한 제조업이 제일 먼저 재생되었다.” <https://www.seoul.go.kr/seoul/history.do> 참고.

24) 김재홍, 『한국전쟁과 현대사의 응전력』, 평민사, 1978. 11쪽.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서울 명동(1950년 10월경)

한국전쟁 직후의 문화예술이 전쟁 체험에 대한 ‘문학적 기호화 과정’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전쟁 체험이 당대 예술가들의 사유 속에서 생생하게 양각된 예술로 전이됨을 뜻했다. 본질상 전쟁은 죽음의 문제를 전면에 드러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전쟁은 죽음마저 소모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죽음의 내밀한 깊이를 사색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러한 비인간화된 죽음의 문제는 전후(戰後) 한국문학이 떠맡아야 하는 과제로 남았으며 특히 ‘명동시대’라는 거대한 실존적 멜랑콜리를 통해 나타났다.²⁶⁾

25) 김재홍, 앞의 책, 11쪽.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쟁이 한 세대의 비극으로써 종결되는 것이 아닌 이후 세대에게도 거의 무기한으로 연장되는 사건이라고 한 고은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은, 『1950년대, 청하, 1989.) 이와 관련해 김규동도 한국전쟁은 모든 국민에게 있어서 그랬던 것처럼 시인에게도 비참만을 약속하는 운명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김규동, 『現代詩와 思想』, 〈사상계〉, 1955.3.)

26) 박성현 · 김관용, 앞의 책, 24쪽.

한국전쟁은 기존의 거의 모든 문학적 담론을 파쇄하고 일상을 삶과 죽음이라는 실존적 문제에 직면하는 장(場)으로 만들어버렸다. 문학의 주제와 대상도 전쟁의 참상과 그 고발에 집중되었다. 더 정확히 말해 전쟁 체험은 문인들의 문학적 사유과정에서 생생하게 양각된 언어로 전이되고 있었다. 요컨대, 전쟁이 야기한 생존 자체의 문제와 남북 분단에 따른 실향, 고아 의식은 문인들의 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쟁 이전과 확연히 구별되는 문학 세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전쟁 중에 체험한 죽음의 공포는 상실, 결핍으로 대표되는 부재의식의 무의식적 사고의 근저를 이루고 전후 실존의식과 깊은 관련을 맺으며 문학적 기호화의 내적 추동력이 되었다. 때문에 우리는 서울과 중구를 매개로 한 한국전쟁의 문학적 지형도를 살펴볼 때, 한국전쟁이 야기한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실존적 의미로서의 죽음은 현상적 개체의 본질에 선행하는 조건으로 파악된다. 죽음을 기초로 한 인식론의 범주로서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죽음이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관한 질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전쟁 상황에서 인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한국전쟁은 우리에게 어떠한 죽음을 인식하는 태도를 가져왔는가. 여기서 우리는 먼저 전쟁의 본질에 대해 질문해야 할 것이다.

2. 전쟁의 폐허와 문학적 내면화 과정

전쟁은 적대자로 하여금 상대방의 의지를 완벽하게 와해하는 폭력 행위이며 이때 폭력 행위의 목표는 적을 무장해제시키거나 괴멸시켜버리는 것을 그 본질적 성격으로 한다.²⁷⁾ 한국전쟁의 본질도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 한국전쟁이 비록 정치

27)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김홍철 역, 삼성출판사, 1982. 53쪽.

적, 이데올로기적 목적이 아무리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한 적의 개념이 다른 전쟁의 양상과 달리 같은 민족 내부의 균열의 결과로서 모호해진다 할지라도 전쟁의 기본 성격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 목표 또한 뚜렷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전쟁은 내전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 이해관계는 일국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사실은 앞서 말한 전쟁의 본질적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쟁은 무장해제를 요구하여 동일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목표로 뭉친 집단의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폭력을 정당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쟁은 더욱 비극적인 전쟁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적을 무장해제 또는 괴멸시키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뚜렷이 경계가 그어진 일반적 전쟁 상황에서의 적과, 같은 민족과 같은 고향의 사람에게 총부리를 겨눠야 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의 괴리는 전쟁 자체를 의문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고은은 『1950년대』에서 한국전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쟁은 인간에게 어떤 방임을 요구하는지도 모른다. 옷을 훨훨 벗어던진 채 덮치라는 식의 여성적 매저키즘을 조성시키면서 전쟁이 인간 자체에 대해서 매우 이국적인 퇴폐 의식을 자극한다.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할 때 정예부대의 현역 군인을 제외한 모든 인간에게는 그것이 신의 불가피성과 같은 포괄적 전능자로 믿어 버리려는 인간의 무력한 반응이 나타난다. 전쟁은 자연만큼 인간에게 체념을 길러 준다. 자연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생기는 체념의 세계지만 그러나 전쟁은 갑작스럽게 체념을 엄습케 한다. 그럴 경우 이제까지의 생활과 불행에 대한 배신 행위로서 전쟁을 받아들이게 되는 급성의 전쟁 찬성, 전쟁의 과장된 허용의 위험도 초래한다.²⁸⁾

그렇다. 전쟁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무력한 반응’만을 이끌어낼 뿐이다. 휴전 후 명동에 집결된 문인들의 모습에서 이상하리만치 퇴폐와 멜랑콜리, 그리고 유약

28) 고은, 『1950년대』, 고은전집 제17권, 김영사, 2002, 74쪽. 시인 고은이 1971년 『세대世代』지에 ‘1950년대’라는 제목으로 1년 동안 열렬한 반응을 받으며 연재했던 작품이다.

한 실존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문학은 전쟁을 기록한다. 전쟁이 겨눈 상흔들의 시뻘건 핏덩이들 말이다. 그런데 서울수복 당시 중구는 북한군의 퇴각로였다. 입에 담기조차 싫은, 죽음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서울시청과 소공동을 중심으로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숱한 민간인들이 죽어갔다. 다시 고은의 말을 들어보자.

9월 28일 서울은 인공 치하 3개월로부터 벗어났다. 서울역사, 명동성당, 중앙청, 화신和信 따위의 건물들이 총탄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었고 그 나머지는 거의 벽돌더미나 잿더미로 된 폐허가 되었지만 그곳에서 인민군이 퇴각한 뒤의 한순간은 숨소리조차 삼켜야 하는 정적이 감돌았다. 그 시가전 총소리 뒤에도 남아서 들려오는 한낱의 풀벌레소리가 아니라면 그 정적은 일종의 허무라고 할 수 있다.²⁹⁾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대략 3개월이 지날 무렵, 서울은 북한군 치하에서 겨우 벗어났다. 서울 중심에 남은 건물들은 대략 ‘서울역사’와 ‘명동성당’, ‘중앙청’, ‘화신백화점’ 따위였다. 나머지 건물들은 잿더미가 된 ‘폐허’였다.

그러므로 ‘폐허!’—이것이 중요하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서울은 글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비명과 울음은 주체를 타자와 직면하게 만드니 차라리 낫다. 지옥의 경험만큼이나 한없이 두려운 것은 어둠 속에서 차오르는 죽음의 공포다. 그것은 고요조차 삼켜버린 적멸(寂滅)이다. 그 적멸에서 ‘나’는 타자와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며 무의식에 잠들어 있던 ‘죽음’을 일으켜 세운다. 따라서 한국전쟁은 폐허를 남기고자 했지만, 그것은 타자와의 공존이 가능한 폐허였음은 곧 밝혀지게 된다.

젊었을 땐 진짜 예수의 얼굴을 봤지. 한국전쟁 당시 나는 위생병이었소. 나는 피칠갑을 하고 죽어가는 젊은 청년들과 함께했소. 눈에 더러운 붕대를 돌렸거나 두개골이 함몰된

29) 고은, 『폐허의 영혼』, 고은 전집 제23권, 김영사, 2002, 432쪽.

그들의 물결은 끔찍했소. 죽어가는 자의 비명과 떨리는 손과 울먹이는 목소리가 아직도 늦은 밤이면 내 귓가에 메아리치오.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리석은 인류를 위해 희생했던 예수님의 얼굴이 전쟁터의 비극 속에 있었소. 그 젊은이들의 피가 나를 목사의 길로 인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위대한 장군님처럼 생각합니다. 복을 명령처럼 내 리는 사람으로 알지요. 때론 신도들의 열망이 성직자를 감염시킨다오. 아니지, 어찌면 그 반대인지 몰라. 물론 이건 변명이오. 하지만 평생이 응어리진 변명을 입 밖에 내지 않았소. 당신에게 털어놓는 까닭은 그 희미한 얼굴 속에 피범벅이 된 청년이 보였기 때 문이오. 응어리를 이렇게 털어내니 마음은 편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것 같아. 내뱉지 못하고 마음에 꺾꺾 묻어둔 변명이 암 덩어리로 변했으니 말이오. 나는 죽어가고 있고 목사로 살았으나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소. 예수님의 목소리를 독한 향생제처럼 전파한 사람이 바로 나니 말이오. 얼굴 없는 청년, 나는 목사가 아니라 여전히 전쟁터에 있는 위생병이오.³⁰⁾

한국전쟁 당시 위생병으로 복무했던 화자는 총칼과 포탄, 그리고 추위와 굶주림으로 팔다리가 잘려나간 군인들을 돌보고 있다. 그들은 “피칠갑을 하고 죽어가는 젊은 청년들”이었으며, “눈에 더러운 붕대를 들렀거나 두개골이 함몰된” 채로 사경을 헤맸다. 손만 뻗으면, 모래처럼 손에 쥐어지는 ‘죽음’은 ‘삶’보다 더욱 더 생생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삶’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화자는 ‘예수’를 만나게 되며 훗날 목사가 된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그는 한국전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 목사가 된 후에도 그는 항상 피칠갑된 청년들과 두개골이 함몰된 예수들을 본다. 그 ‘장소’에서 떠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나는 목사가 아니라 여전히 전쟁터에 있는 위생병이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닐까. 여전히 위생병으로 생명을 구해야 하는, 그 절박함이 목사의 삶을 이 끌어왔던 것이며, 오로지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었다.

30) 박진규, 『보광동 안개소년』, 자음과 모음, 2011, 125쪽.



1950년 9월 말경 벌어진 서울수복 전투에서 미국 해병대가 북한군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다.

내친김에 한국전쟁의 주요 분수령이 되었던 서울수복과 관련된 문학적 기록을 하나 더 살펴보자. 가족사에 새겨진 분단의 상처와 전쟁 시기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모습을 형상화한 소설가 김원일의 작품이다.

인왕산 전투에는 쌍방의 시체가 산을 덮었고, 그 결과 마포 쪽과 서대문계에는 이미 연합군이 들어왔다 했다. 이젠 이 생활도 끝이라며 김중호가 두 달 만에 다락에서 내려오니 허리만 펴고 앉아도 살 것만 같았다. 그는 마당을 거닐며 그동안 종잇장처럼 하얗게 바랜 얼굴에 가을별을 찍었고 뿔뿔기로 쇠약해진 다리힘을 올렸다. 26일 오후, 시내 중심부는 총성조차 멎고 인민군의 퇴로라 여겨지는 창경원과 혜화동 어름에서 이따금 산발적인 총소리가 들렸다. 종로와 중구 일대는 인민군이 빠져나가고 연합군이 진입해오기 직전의 공동 상태인지 몰랐다. 조바심을 더 참을 수 없던 김중호는 드디어 바깥으로

나가 동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저를 보고 함께 소공동 쪽으로 나가보자고 했을 때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제 불찰도 있었어요. 정말 그때 길거리에 인민군은 물론 보안대원이며 완장 찬 동맹원들 모습을 볼 수 없었고, 작은아버지가 하도 바깥세상을 궁금해 하시기에 저도 거리구경을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참는 김에 하루만 더 참으셨어도 가족과 헤어지는 불행은 없었겠지요. 이십칠일 하오에 이미 연합군이 서울 시내를 완전 평정했으니깐요. 김형준이 후식으로 나온 멜론 한쪽을 포크로 찌으며 말한다.³¹⁾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28일, 개전 초기 북한군에게 함락되었던 서울은 한국군과 미군에 의해 완전히 수복되었다. 당시 북한군 제18사단이 서울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병력 일부를 영등포에 남겨 놓고는 9월 25일 약 5천여 명의 주력을 의정부 방향으로 철수시켰다. 북한군은 서울과 의정부 간 방어를 위해 제31서울여단을 사단으로 증면, 투입했다. 제17기계화사단 제33연대도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9월 26일까지 한국군과 미군은 서울 시내의 절반 정도를 탈환했지만, 유엔군 총사령부는 이날 오후 2시 20분, 서울을 탈환했다는 유엔군 성명서 제9호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에서는 여전히 바리케이드를 둘러싼 치열한 시가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은 북한군의 저항을 뚫으며 서울 시가지에 돌입했고, 해병대 제6중대 1소대가 대대의 통제를 벗어나 부민관(지금의 서울시의회)과 동아일보사 앞까지 진출, 마침내 27일 새벽 중앙청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태극기를 게양했다.

위 인용문은 당시 상황을 담담하고도 메마른 어조로 보여준다. 26일의 시가전과 아수라장이 된 ‘소공동’을 비롯한 서울 중심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미 없이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회고가 담겨 있다. 서울 중구는 인민군이 빠져나가는 퇴로였고, 그만큼 삶과 죽음이 예측될 수 없는 사태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31) 김원일, 『슬픈 시간의 기억』, 문학과 지성사, 2001, 266쪽.

3. 재편되는 문단의 풍경과 중구

서울수복을 기점으로 다시 꿈틀거렸던 한국 문단에 대해 안도섭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한편 서울에 온 임화는 이태준들과 낙동강전선을 돌아온 후 문화연맹에서 활동한 것은 두 달이 채 못 된 기간이었다. 전의를 잃고 후퇴하는 인민군을 따라 서울을 허둥지둥 탈출하고 있었으니 이것도 운명이라 할 수 있을까. 국군과 유엔군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시가지에는 새벽부터 인민군이 버리고 간 군수물자 약탈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온 동민이 나서서 피륙과 식료품 등을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수라장을 이루었다. 정오 지나 골목길에 술렁이더니 미군이 들이닥쳐 소탕전을 벌이는 중이었다. 한동안 시가지에는 탄환이 콩 볶듯이 빗발쳤다.

이러한 총성도 멎고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던 서울은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었다.

박인환이 거리로 나오자 종로 네거리는 폐허가 되고 종각은 흔적도 없는데다 인경은 땅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뼈대만 앙상히 서 있는 빌딩 지하실은 시가전을 벌인 지 일주일도 지났는데도 매캐한 냄새가 풍기고 전신주는 까맣게 타 있었다.

중앙청의 시커먼 물골은 쳐다보기가 두렵고 태평로거리는 타다 남은 벽돌과 기왓장의 잿더미로 변해 보기에다 민망했다.

광화문 네거리의 비각은 허물어지고 멀찍이 바라본 서울역은 일그러진 성냥갑처럼 을씨년스러웠다.

명동성당 건물만이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도 우뚝 서 있었다. 전쟁의 석 달 동안 시가는 온통 잡초로 덮였으며 창과 지붕이 부서진 서울의 거리에 피난 갔던 시민과 문인들이 뜨문뜨문 모여들기 시작했다.

새로 신문을 찍어내는 경향신문에 박인환은 복귀하게 되고 명동의 목로주점에 이봉구와 자리를 같이하면서 회포어린 술잔을 나누었다.

“김영랑 시인이 서울수복 때 유탄에 쓰러졌다니 참 애석해.”

오랜만에 갖는 술자리인지라 이봉구는 감회에 젖으면서도 불의의 총탄에 쓰러진 시인

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시인 김영랑은 인민군이 물러가는 미아리에서 수복을 몇 시간 앞두고 날아오는 유탄에 맞아 쓰러졌던 것이다.

“김동리, 조연현이 문충에 모여 재건 운동을 편다던데요.”

“그럴 테지, 그들은 문단정치에 밝은 사람들이니까.”

국립도서관 건너 서점 2층에는 문총文總이 새로 자리를 잡고 재건 운동을 서두르고 있었다. 명동은 포화 속에 반 조각이 되어 버렸지만, 명동입구에서 문예서점, 명동극장, 국립극장 쪽만 남고 건너편의 많은 건물이 타서 허물어졌고 충무로로 통하는 명동 거리는 절반이 타버려 명동장, 돌체 등이 빈터만 쓸쓸히 눈에 띄었다.

문충에는 헤어졌던 얼굴들이 나타나고 수원 근처에 숨어 있던 김광주는 밀짚모자에 당목 중의 적삼을 입고 곰방대를 피우며 이곳에 나타났다.³²⁾

전쟁이 한창이어도 문학을 통해 맞서려는 의지는 꺾일 수 없는 모양이다. 비록 김영랑은 서울수복 몇 시간 전에 미아리 근처에서 유탄에 맞아 유명을 달리했고, 문화연맹에서 활동하던 임화와 이태준은 북한군을 따라 서울을 탈출했어도, 김동리와 조연현은 문충에 모여 재건 운동을 부르짖는 모습 속에서 남은 자들의 의지는 놀랍도록 선명하다.

이 무렵 종로로 나온 박인환은 시가전의 흔적들을 손으로 만져보면서 살아남았다는 회한보다도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에 마주한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러나 뚜렷한 목적지 없이 걷기 시작한다. 중앙청과 태평로 거리, 광화문 네거리, 그리고 서울역과 명동성당을 차례차례 답사한다. “중앙청의 시커먼 몰골은 쳐다보기가 두렵고 태평로거리는 타다 남은 벽돌과 기왓장의 잿더미로 변해 보기에도 민망했다. 광화문 네거리의 비각은 허물어지고 멀찍이 바라본 서울역은 일그러진 성냥갑처럼 을씨년스러웠다. 명동성당 건물만이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도 우뚝 서 있었다.”는 문장의 주체가 누구든, 그는 폐허가 된 서울, 그 참혹한 공간이 자신의 너털 너털한 심장과 같다고 생각했으리라.

32) 안도섭, 『명동 시대』, 글누림출판사, 2011, 231쪽.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삶과 문학은 다시금 꽃피우기 시작한다. 안도 섭의 술회처럼 “전쟁의 석 달 동안 시가는 온통 잡초로 덮였”으나, “창과 지붕이 부서진 서울의 거리에 피난 갔던 시민과 문인들이 뜨문뜨문 모여들기 시작했다.”³³⁾ “명동은 포화 속에 반 조각이 되어버렸지만, 명동입구에서 문예서점, 명동극장, 국립극장 쪽만 남고 건너편의 많은 건물이 타서 허물어졌고 충무로로 통하는 명동 거리는 절반이 타버려 명동장, 돌체 등이 빈터만 쓸쓸히 눈에 띄었”지만, 이른바 전후 문학은 생명을 명동의 매캐한 담배 연기와 함께 그 서막을 올렸다.

죽음을 인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 고유의 영역이며 또한 자신만의 것이다. 개개인의 삶은 죽음에 선행되어 존재하는 것³³⁾도 아니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죽음은 개개의 인간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삶에 대한 선결 조건으로서의 죽음을 파악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범주가 될 것이다. 또한 전쟁의 본질적 성격은 죽음의 문제를 전면에 드러낸다는 점에서,³⁴⁾ 요컨대 전쟁은 죽음마저 소모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죽음의 내밀한 깊이를 사색하지 못하게 하고 만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인간화된 죽음의 문제는 전후 문학이 떠맡아야 하는 과제로 남게 된다. 따라서 한국전쟁 이후의 문학 담론은 살아남아 삶을 견뎌야 하고 그 과정에서 죽음을 다름 아닌 ‘죽음’으로써 바라볼 수 있는 예술가들의 집산, 곧 ‘명동 시대’에서 폭발적으로 생성될 것이다.

그렇다고 미라의 말은 전적으로 긍정할 수도 없도록 명동 거리는 새로운 〈몽마르트르〉의 분위기가 서리어 있고 진한 화장에 외모로만 대답하여가는 명동의 여자들, 더욱이 외지에서 들어온 일종 외인부대와 같은 그들 속에도 새로운 노스탤지어의 가쁜 숨소리

33) 인간은 삶과 죽음의 연속성 내에서만 존재하는 시간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죽음과 삶의 순환성은 신화적 사고 내에서만 가능할 뿐 현실적인 생의 테두리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단지 타자의 죽음을 나의 미래의 어느 순간으로 환원하고 그 순간을 상상 속에서 내면화한다는 것이다.

34) 프로이트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보자. “전쟁은 죽음에 대한 이런 관습적 태도를 일소해 버린다. 죽음은 더 이상 부인되지 않는다. 우리는 죽음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정말로 죽고, 그것도 한 사람씩 죽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수만 명씩 죽는다. 그리고 죽음은 더 이상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프로이트, 『전쟁과 죽음에 대한 고찰』, 『문명 속의 불안』, 프로이트 전집 15, 열린책들, 1997 참조)

를 들을 수가 있다는데서 미라의 말을 긍정도 할 수 없고 부정도 할 수 없었다.

“나는 한 사람의 새로운 여학생으로서 명동 거리에서 살아볼 테야, 미라 미라는 나보다 고생도 많이 하고 체험도 많으니까 나도 좀 싱싱하게 이다음에 후회 않도록 살아나가야 할 터인데.”

시몬도 좀 흥분한 어조다. 시몬의 말에 미라는 다시 높은 소리로,

“생활이 그대를 속였다고 슬퍼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앞날을 위해 사는 것, 현재는 항상 슬픈 것이다. 이건 푸쉬킨의 시야, 험준한 무대 생활에서 고독한 때면 나는 이 시를 읊으며 지낸다.”

고 시 한 구절을 시몬에게 들려주었다. 각각 이불 속에 누었으나 설레이는 이상한 감정으로 세 사람은 눈을 뜬 채 밤을 새우고야 말았다.³⁵⁾

명동은 한국문학의 새로운 태동이다.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하면서도 그 폭력과 억압의 시간들을 견디고, 이어 닥쳐온 ‘폐허’를 마주하면서도 스스로를 지켜내는 예술가(혹은 문인)들의 존재는 전쟁 이전과 이후를 갈라내는 확연한 경계이기도 하다. 이제 한국문학은 명동시대와 더불어 실존을 만나게 된다. 그것이 단순한 포즈에 불과할지라도, 혹은 한국전쟁이 가져다준 필연적 결과라 할지라도, ‘실존’은 산업화시대까지 이어지는 한국문학의 주요 담론을 이끌어낸다.

왜 실존주의가 50년대 작가에게 그렇게도 무서운 힘을 발휘했는가를 파악하려면 그것은 실존주의의 문맥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실존’ ‘실존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사실과 그 일은 상관된다.

요컨대 실존주의는 현대의 존재론이다. ‘실존’이란 것을 처음으로 외친 것은 불행과 고독으로 점철된 19세기말의 키르케고르였다. 그는 약혼을 파기하고 그 당시의 기독교 신학과 철학을 가차 없이 비판하고 철저한 단독자를 실현한 철학자였다. 만약 그의 실존주의가 하이데거를 통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철학자이기보다 에세이스트, 소규모의

35) 이봉구, 『명동 엘레지』, 정통한국문학대계(30), 어문각, 1996, 129쪽.



명동에 설치된 증강현실 안내판

어두운 신학자로 끝났을 것이다. 이 점은 그를 니체의 부근에 있게 한다.

‘죽음이나 지옥을 나는 모조리 무시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무시할 수는 없다. 설령 내가 잠들어 있을 때라도 나는 나 자신을 잊어버릴 수 없다’라고 자아를 주장한 사실이 50년대 작가들에게는 감동적이었다. 그는 방대한 ‘철학의 대리석 궁전’이라고 할 수 있는 헤겔 철학에 대해서 철학에 압살된 인간의 자아, 실존을 강조함으로써 그것과 대결하고 있다.³⁶⁾

바로 여기가 서울의 문학 담론이 산출되는 좌표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문화의 총체가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또 다른 의미에서의 폐허를 경험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서울’의 향배를 실로 가늠조차 어렵게 했다. 전쟁은 작가와 예술가들을 다른 곳도 아닌 중구의 ‘명동’에 모이게 하였으며, 이 시기는 ‘명동시대’라 불릴 만큼 한국문학의 새로운 풍경들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한국전쟁은 명동을 지정학적으로 문학예술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명동은 작가와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곳이라는 점에서 한국전쟁이 재편하는 문학 담론의 가장 첨예한 ‘장소’였으며,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각 지역으로 흩어져 제각각 일에 골몰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한국전쟁 상황에서 유일하게 열려 있는 ‘장소’였다.

한국전쟁이 추동한 문학 담론은 바로 직후의 본격적 산업화시대와 맞물리면서 농민의 몰락, 전 국민의 노동자화, 도시 빈민의 출현 등 우리나라의 온갖 모순들이 집결된 문학으로 이어진다. 특히 중구의 문학과 관련해서는 ‘명동’이 주요한 담론의 좌표로 떠오르는데, 휴전 이후 서울로 돌아온 많은 문인과 예술가들이 자연스럽게 집결해 문학과 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진지하게 논하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36) 고은, 『1950년대』, 고은 전집(제17권), 김영사, 421쪽

로 ‘명동’은 서울의 축소판이자 모든 것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열기가 뜨거웠으며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했던 것이다.

한편 1950~60년대의 서울 중구는 소설의 소재로 자주 등장한다. 이미 서울의 특정 장소들은 관습화된 상징으로 굳어가면서 그 의미를 고정했는데, 화려한 소비 지역으로서의 면모가 확연했던 ‘충무로’나 ‘명동’, ‘소공동’을 비롯해 남대문시장, 인쇄골목, 영화의 거리 등 새롭게 부상하는 이름들이 회자되기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특히 한무숙 소설가의 문제작 『빛의 계단』(1960)에는 서울이 급격히 재편되고 재건되는 1950년대의 서울 중구의 ‘장소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소공동이라면 은행촌인지라 서병규 씨는 거기 지리에 밝다. 그러나 와 보고 놀란 것은 못 보던 집이 들어서 있는 점이었다. (441쪽)

서병규씨는 조선호텔 쪽으로 걸어가 바른편으로 발길을 꺾었다. 그리고 똑바로 미도파 앞 까지 가서 거기서 신호가 바뀔 때를 기다렸다.(442쪽)

성당의 창유리가 상기 하늘빛을 어리고 번들거린다. 그런 것은 아무 데도 보이지 않았지만 서병규씨는 웬지 까마귀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그는 눈을 들어 성당 언덕 숲을 한 번 둘러 본 후 다방 층계를 내려갔다. 다방 안은 담배 연기와 사람 입김으로 자욱하다.

이런 것을 음악적 분위기라고 하는 것일지 모르나, 컴컴한 조명하며 좀 불건강한 장소라고 서병규씨는 생각하며 얼핏 보아 비어 있을 것 같지 않은 자리를 물색했다.(444쪽)

그는 오랜만에 거리를 걷고 싶어졌다. 차를 기다리지 않고 걸어서 시청 앞까지 갔다. 차로만 지나 눈여겨본 일이 없는 탓도 있겠지만 지리가 많이 변해 있었다. 전에는 화원이 있었던 곳이 원통 광장으로 끼어 들어가 있고, 공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모양이었다. 가운데만 흰하치 인도 쪽은 인부들과 행인들로 복잡거렸다. 모처럼 거리를 걸어 보려는데 시달리는 것 같아, 임형인은 저도 모르게 미간이 접혀졌다. 그런 대로 소공동 쪽으로 방향

을 꺾으려는데.(456쪽)

「회현동으로.」차가 ‘샤리아르’에 닿자, 현관 너머로 밖을 보고 있던 호텔 종업원이 뛰어 나와 문을 열었다.(469쪽)

그날도 경전은 어슬해진 늦가을 거리를 병원 쪽으로 걸어가며 시어머니의 말을 되씹고 있었다. (….) 정신을 둘러보니 건널목에 와 있었다. 조선평텔 앞이었다.(473~474쪽)

어쩌다 점심을 밖에서 할 때는 그들은 대개 길 건너 중국인가에 있는 수교자 집으로 갔다. 그러나 정해는 그 앞을 지나 소공동으로 빠졌다. 그리고 앞장을 서서 한참을 가더니 어느 빌딩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야 경전은 그 옥상이 식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480~481쪽)

작품에 인용된 서울 중구의 장소들은 대체로 ‘남대문시장’, ‘회현동’, ‘원남동’, ‘덕수궁’, ‘소공동’, ‘조선평텔’, ‘미도파’, ‘장충단’, ‘퇴계로’ 등이다. 등장인물들은 굳이 서울 중구에서 자신이 움직이는 좌표들을 숨기지 않으며 오히려 자랑하듯 꺼내놓는다. 그만큼 중구의 장소성은 당대에 두드러진 표징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작품에 나타나는 ‘장소’들은 이른바 작가의식이 강렬하게 투영된 경험으로서의 ‘장소성’으로 확장할 수 있는바,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장소감’ 혹은 ‘장소애착’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³⁷⁾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서울 중구의 장소들은 대체로 작가들의 의식에 각인된 ‘장소감’과 ‘장소애착’의 결과라는 점을 잊지 말도록 하자.

37) 조미숙, 「『빛의 계단』에 나타난 1950년대 서울의 장소성」, 『통일인문학』 79, 2019. 229~230쪽 참고. 조미숙은 ‘장소감’에 대해 “인간이 장소를 자각하고 경험하고 장소 의미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으로서 한 대상이나 소환경에 대한 의식적인 애착 및 그것의 정체성”으로 말하고, ‘장소애착’에 대해서는 “어떤 대상이나 소환경에 대한 애착”이며 “사람들 간의 관계 및 사람과 물리적 환경과의 관계에 의해서 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말한다.

3장 산업화 시대의 문학적 형상화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난 우리나라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주도 아래 산업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본격적인 자본주의 사회로 급격히 재편되는데,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농촌의 몰락은 가속되고 산업의 주력인 노동자들이 대거 양산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에 부속하여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유교적인 전통적 가치관들도 청교도적이고 부르주아적인 색채를 강하게 띤 자본주의 도덕률에 맞춰 뿌리부터 바뀌기 시작한다.

특히 농촌의 몰락은 필연적으로 ‘도시의 확장’을 초래하고, 이 확장은 ‘변두리의 태동’과 맞물리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소외된 사람들(소시민, 노동자 등)을 결집하게 만든다. 서울은 당시 경기도에 속했던 지역들을 흡수하며 점점 더 경계를 넓혔고, 급기야 메트로폴리탄으로 거듭난다. 이러한 사건들은 김승옥을 필두로 하여 이호철, 조선작, 최인호, 황석영, 조세희 등 일군의 소설가의 작품 속에 강렬하게 반영되기에 이른다.

산업화시대는 극단화된 명암의 시대다. 소위 개발독재로 불리는 산업의 정치화

속에서 근대를 무서운 속도로 압축했던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군사정권 당시 자본주의화에 따른 모순과 위악은 민중의 저항에 부딪혔으며 중국에는 4·19 혁명으로 찬란하게 개화한다. 물론 한국문학도 이러한 사태들을 온몸으로 받아들였고, 이 과정에서 서울 중구는 혁명의 문학적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1. 새로운 생산수단과 산업화의 표징들

산업화시대의 문학담론을 고찰하기 전에,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지리적, 장소적 변경들이 문학담론에 어떻게 안착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자.

영국의 대표적인 풍자소설가 윌리엄 새커리는 철도로 인해 목가적이고 농경민적인 삶, 곧 황금시대가 지나갔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 (중략) 한 나라가 목가적이고 농경민적인 삶의 고요한 기쁨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상업과 공업의 혼잡과 흥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게 바람직한지 말이다. 그러나 황금시대는 지나갔음을 인정해야 한다. 철의 시대가 성공했다는 것은 두려워해야 할 만한 일이다. 증기기관과 철도는 현재를 위해 준비해둔 것이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계의 원리와 19세기의 철학이 퍼지고 뻗어갈 것이다. 세계는 하나의 새로운 추진력을 맞아들였다. 시대의 천재는 신세계의 도도한 강처럼 빠르고 거역할 수 없는 속력으로 흘러간다.³⁸⁾

한반도에 철도가 깔렸을 때를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감각적 지평 위로 미끄러진다. 이러한 양상은 1960~70년대의 본격적인 산업화시대를 맞이하여 민중의 삶이 완전한 분기점을 형성한 것과 비견될 정도다.

첫째, 전통적인 시간과 공간 개념이 해체됨에 따라 우선 대상의 인지 방식이 바

38) 박천홍, 앞의 책, 72쪽 재인용.

뛰게 된다. 예컨대, 기관차를 타는 시대의 사람들은 과거 걸어가면서 바라본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풍경을 접하기 마련이다. 풍경에 담긴 정보량 또한 걸어 다닐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 따라서 풍경은 더 이상 바라보는 사람의 내면에 깊이 각인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인상에만 남게 된다.³⁹⁾ 과도한 외적 자극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추동하며, 그는 풍경의 총체를 볼 수 없으며, 단지 그것을 선택하거나 파편화하여 받아들여지게 된다.⁴⁰⁾ 이러한 인지 방식의 파편화는 주체와 대상의 내적 교감을 불가능하게 하고 전통적으로 쌓아온 아우라를 해체한다. 즉, 풍경이 표면화되면서 풍경 또한 파편화된다는 것이다. 속도의 변화에 따른 대상의 인지 방식 변화는, 앞의 경우 외에도 대도시를 걸을 때나 빠르고 다양한 경제적, 직업적, 사회적 삶을 경험할 때도 나타난다. 짐멜은 이 같은 인지 방식의 변화가 야기하는 심리적 반응을 신경과민과 연관시켜 말하고 있다.⁴¹⁾ 이는 외적, 내적 자극들이 급속도로 그리고 끊임없이 바뀌면서, 급속도로 이미지들이 교체되는 경우 인간은 그만큼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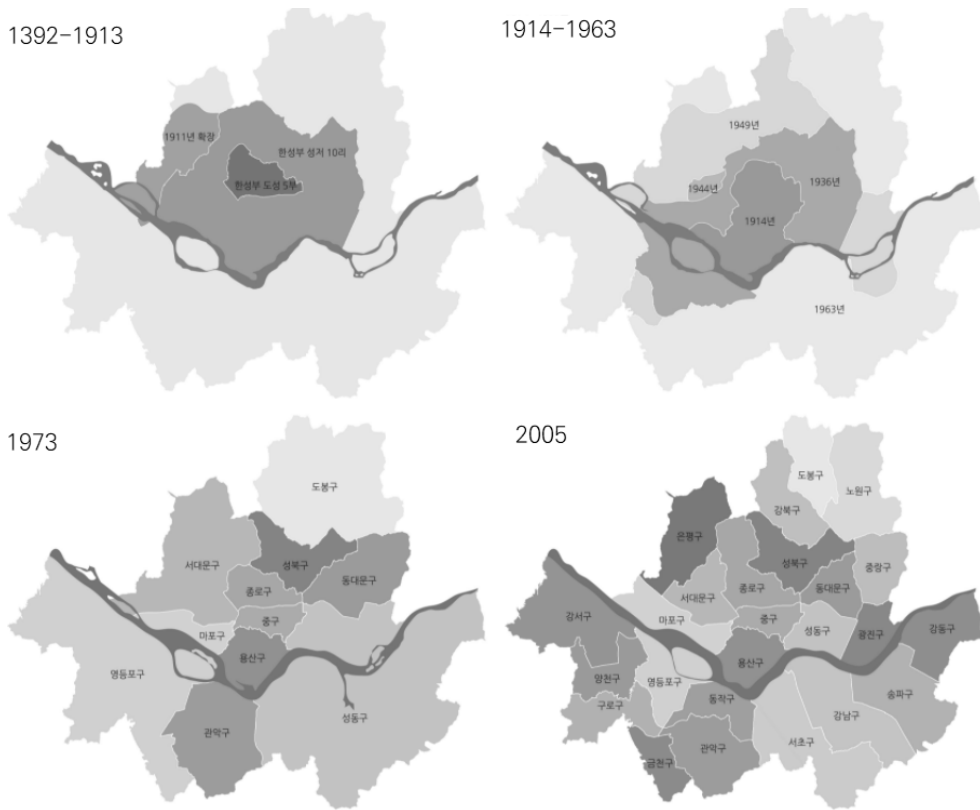
신경과민은 한편으로는 ‘둔감함’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속내 감추기 태도’로 이어지면서, 도시인의 중요한 심리적 상태—편집증적 분열—를 형성하게 된다. ‘둔감함’이란 “사물의 차이에 대한 마비 증체”⁴²⁾이다. 짐멜이 보기에 ‘둔감함’은 사람과

39) 일례로, 1899년 9월 18일, 노량진과 제물포 사이를 잇는 철도가 개통되고, 기관차가 첫 운행을 시작했을 때의 풍경을 보자. 이날 기관차에 올라탄 〈독립신문〉의 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소감을 적고 있다. “화륜거 구르는 소리는 우레 같아 천지가 진동하고 기관차의 굴뚝 연기는 반공에 솟아오르더라. (중략) 수레 속에 앉아 영창(映窓)으로 내다보니 산천초목이 모두 활동하여 달리는 것 같고 나는 새도 미처 따르지 못하더라. 대한 이수(里數)로 팔십 리 되는 인천을 순식간에 당도하였는데, 그곳 정거장에 배포한 범절은 형형색색 황홀찬란하여 진실로 대한 사람의 눈을 놀래더라.”(〈독립신문〉 1899.9.19, 박천홍, 앞의 책, 19쪽 재인용.) 증기기관차를 처음 대면한 기자는 ‘나는 새’마저 이겨버리는 그 속도감에 압도되고 있다. 속도는 팔십 리나 되는 거리를 ‘순식간’에 단축한다. 아울러 차창을 영창(映窓)으로 표현한 것도 흥미롭다. 걸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던 풍경이 기관차를 탔을 때는 마치 활동사진처럼 다가왔던 것이다. 이렇듯 근대는 속도를 느끼는 것에서 시작한다.

40) 김기림, 「시의 이해」, 『전집』 2, 253~254쪽.

41) 게오르그 짐멜,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 역, 새물결, 2005, 36쪽.

42) 게오르그 짐멜, 같은 책, 41쪽.



서울의 확장(출처: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1권, 2019)

사물이 몰려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고도의 신경전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의 결과다. 외적 자극이 과도하면 할수록, 그만큼 신경은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신경은 편집증으로 이어져 끝내는 마비된다. ‘속내 감추기’도 마찬가지로, 무수한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만일 개인이 “무수한 사람들과 설 새 없는 만남에 대해서 매번 내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면 사람들은 내적으로 완전히 해체되어 상상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⁴³⁾기 때문이다.

둘째, 전통적 공동체 사회의 유대관계를 해체하고, 그 관계를 개별화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인간은 인간 개체성을 강조하는 ‘정서적인 관계’보다는 의무를 강조

43) 게오르그 짐멜, 앞의 책, 43쪽.

하는 ‘이성적 관계’로 매여 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 사이의 이성적 관계는 “마치 숫자를 대하는 것처럼, 즉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업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뿐, 그 자체로는 무관한 요소들처럼”⁴⁴⁾ 다뤄지게 된다. 예컨대 배달원이나 고객, 심부름꾼, 혹은 의무적 인간관계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도시인들의 태도를 보자. 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긴밀한 유대감에 기초한 공동체의 그것보다 차갑고 또한 계산적이다. 부연하면, 우리가 말한 ‘개별화’는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도시적 삶을 전제로 한다. 도시적인 삶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체의 삶의 형식을 스스로 규정하고자 하는, 예컨대 니체와 같은 인간을 배제하는 ‘개별화’를 말한다.

셋째, 도시인은 가능하면 감정을 억제하는 ‘오성적 인간’으로 변모해 간다. ‘전통적으로 다정다감한 인간이 도시라는 새로운 외부세계에 적응해가면서 오성적인 인간으로 변모해 가고, 그 반대의 세계인 감성의 세계는 메마르게 된다’⁴⁵⁾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지 방식의 변화는 예술의 변화를 수반한다. 전통 예술과 테크놀로지는 서로 중첩되고 경쟁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장르적 변용 과정을 거친다. 그것은 몇 가지 예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회화의 경우를 보자. 회화는 사진과 경쟁하기 위해서, 상품의 생산방법을 닮아가기 시작한다. 화가는 생산의 속도를 높이고, 수작업으로 기계 복제를 흉내 내고, 인물의 전형적 특징만을 포착하는 개별 초상을 신속하게 제작하게 된다. 그리고 사진작가는 더 그림 같은 이미지를 찍기 위해 그림같이 아름다운 배경막을 앞에 세우고 소도구를 활용하고, 이미지를 손질하게 된다.⁴⁶⁾

따라서 문학 담론의 변화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철도가 놓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세계에 대한 우리의 감각적 수용 양상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산업화시대를 관통하는 우리들의 그것 또한 마찬가지일 것임이 분명하지 않겠는가. 그 변화는 특히 서사 구조에서 첨예하게 나타났다. ‘경험’이 가능했던 시기의 이야기는 총체성

44) 게오르그 짐멜, 앞의 책, 38쪽. 짐멜은 이러한 의무적, 이성적 관계의 원인을 화폐경제의 광범위한 확산에서 찾고 있다.

45) 김길웅, 「시간과 멜랑콜리: 1930년대의 근대도시 베를린과 경성에서의 산책 모티프를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제36집, 2007.6, 247쪽.

46) 수잔 벅 모스,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김정아 역, 문학동네, 2004, 182쪽 참조.

이 살아 있는 유기적인 서사 구조를 가진 반면, ‘체험’이 전면에 등장하는 시대에는 이것이 불가능해진다. 우리는 대상과 마주칠 때, 두 가지 방법을 겪게 된다. 하나는 경험으로, 지속과 반복을 통해 총체적인 인지가 가능한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체험으로, 그때그때의 단편적인 마주침을 통해 대상을 단편적으로 인식한다. 다시 말해, 경험의 자리에 체험이 들어서면서, 서사 구조는 ‘총체성의 붕괴’라는 불가피한 변화를 겪게 된다. 근대 이전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달의 수공업적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지속과 반복과 회상, 총체적인 서사 구조를 갖춘 전통적인 서사 양식이 가능했지만, 산업화가 가속화된 근대 이후에는 인간의 인지 방식이 바뀌면서 서사는 파편화된 구조를 띠게 되었다.

두 번째로, 대도시를 소재로 한 작품은 대체로 현실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과거를 기억의 방식으로 현재화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근대화가 총체성 상실을 수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동시에 아우라의 상실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근대의 예술에 있어서 아우라는 과거에 대한 기억의 환기를 통해서만 복원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근대에서 복원된 아우라에는 과거와 현재, 전통과 미래가 뒤섞이게 된다는 점이다.

새로운 생산수단의 형식은 처음에는 기존 형식의 지배를 받는다(마르크스). 집단 의식에 존재하는 새것과 옛것이 뒤섞인 이미지는 바로 이런 새로운 형식에 대응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소망 이미지이다. 거기에는 사회적 생산질서의 불완전성을 조명하는 동시에 극복하려는 집단적 시도가 담겨 있다. 또한 이러한 소망 이미지 속에서 때늦은 것에서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생겨난다—그러나 때늦은 것이란 최근의 과거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새로운 것에서 힘을 얻는 이미지 판타지를 원과거로 되돌린다. 이러한 꿈속에서 모든 시대는 다음 시대를 이미지로 이해하며, 이때 다음 시대는 원역사, 즉 계급 없는 사회의 요소들과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 집단 무의식에 저장된 원역사의 경험은 새로운 것과 상호침투하면서, 영구적 건물에서 일회적 유행에 이르기까지 천 가지 삶의 성좌에 흔적을 남기는 유토피아를 생산한다.⁴⁷⁾

위 인용문에 언급된 ‘소망 이미지’는 벤야민이 말했던 “예표적(豫表的) 꿈의 세계”와 일치한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직관적 이해’이며 테크놀로지가 발달된 근대 문물에서 만개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 벤야민은 한 시대가 시작할 때 미래에 대한 직관적 이해 즉 “너무 이른” 이해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근대 테크놀로지를 보면서 동시에 실현되지 않은 ‘먼 미래’를 직관한다. 그것은 과거를 보는 눈이며, 또한 현재에 잠재된 미래를 보는 눈이다. 이때 ‘먼 미래’란 ‘유토피아’ 혹은 ‘해방’을 의미한다. 벤야민은 근대 테크놀로지 속에서 온갖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집단 무의식의 환상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는데, 이 집단 무의식은 꿈을 꾸면서 자신의 역사적 한계를 넘어서 이미 현재에까지 도달해 있는 것이다. 19세기의 생산 수단과 삶의 형식은 (당시의) 현장에서 그리고 지배적인 생산 질서 안에서 존재했던 양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앞서 말했듯, 먼 미래로 향한다.⁴⁷⁾

이처럼 새로운 시대는 필연적으로 과거의 생산양식과 생활방식과의 결별이 수반되고, 그것은 ‘생산 질서의 불완전성’과 이어지며, 사람들의 내면에 불안의식을 초래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집단적 꿈꾸기’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시도한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현재에서 ‘먼 미래’를 보게 된다. 문제는 미래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꿈속에서 모든 시대는 다음 시대를 이미지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과거이며, 현실의 불안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신화의 세계’이다. 근대의 테크놀로지에 묻은 신화의 이미지는 바로 현재와 과거, 미래가 상호 교차되고 중첩되는 “천 가지 삶의 성좌”를 엮어내며, 유토피아의 흔적을 생산해낸다. 아울러 벤야민은 “새것의 출현에 수반되는 유토피아적 이미지는 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모든 시대가 다음 시대를 이미지로 목격하는 꿈속에서 이미지는 원역사의 요소들과 연결”⁴⁸⁾된다고 말한다. 결국 유토피아는 천상에서 내려와 사물화되고, 문인들은 이것을 각자의 시대에 원형식으로 복원한다.

47) 수잔 벅 모스,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김정아 역, 문학동네, 2004, 156쪽 재인용.

48) 벤야민, 『아케이드 프로젝트』 1, 조형준 역, 새물결, 2005, pp.51~53; 141~191 참조, 수잔 벅 모스, 위의 책, 15쪽 참조.

49) 수잔 벅 모스, 위의 책, 158쪽 재인용.

2. 시민적 삶의 터전으로서의 중구

상기된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서울 중구의 문학장 속으로 되돌아가자. 이때 우리는 바로 1960년대와 70년대를 관통하는 산업화시대에 마주한다. 어떤 면에서 이 시기는 세계가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장본인이지만, 그만큼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 중의 하나다. 전쟁은 수많은 실향민을 만들었고, 국가 재건을 이유로 농촌의 급속한 파괴와 도시빈민, 노동자의 양산은 도시의 또 다른 비(非)도시, 곧 ‘변두리’라는 지리를 만들어냈다. 서울 중구 관내 서울역을 비롯해 소공동의 휘황한 상권과 영화관의 집산지 충무로, 지금도 남아 있는 인쇄소, 공업사 등과 남대문시장 등 무수한 일터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당대 문학적 담론이 다른 모든 것을 집어삼키면서 고도로 성장하는 산업화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전쟁 이후 60년대와 70년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60년대와 70년대에 들어 가속화된 산업화를 통해 본격적 의미의 ‘근대 사회’ 속에 노출된 시인들은 ‘근대 사회’의 이중적인 모습—이는 경제적 급성장과 근대적인 산업체제의 확립, 도시의 확대와 대중문화의 확산, 사회구조의 변화와 생활 패턴의 다양화,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이 같은 산업화에 따른 사회체제와 생활양식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제반 문제는 당대 작가들의 정신적 배음(背音)을 형성하게 된다.

박정희 정권, 곧 ‘군부독재’라는 경직된 정치체제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발언은 자기검열을 거치거나 아예 삭제되었다. 하지만 당시의 작가와 예술가들은 생애적 차원에서 이러한 정치적 문제들을 직·간접적인 발언하기 시작했다. 특히 문학의 참여논쟁과 더불어 촉발된 문제들은 언어 미학적인 테두리보다는 정치적 무의식 속에서 노골적으로 혹은 은연중에 나타난다. 언어와 형식에 대한 실험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산업화 사회에서 자신들만의 미학을 확립할 수 있었던 동인(動因)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들은 관념의 세계를 감각적 언어를 통하여 구체화하는 작업이나, 언어 자체에 대한 지적 추구, 산업 사회에서 파생되는 인간 존재와 가치의

왜곡에 대한 지적 비판을 추구해 왔던 것이다.

확실히 급격한 산업화의 양상은 농촌의 가속화된 붕괴와 맞물리며 도시 노동자들을 양산했고, 이들 중 일부는 소시민으로, 다른 일부는 도시빈민을 형성하게 된다. ‘서울’은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를 재정비하는 등 지리적 좌표들을 또다시 갱신한다. 물론 그 배경에는 박정희 정권과 재벌들이 있고, 그들의 개발독재는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면서 작가와 예술가들의 심장에 각인된다. 거듭 말하지만, 당시 서울 증구는 산업화시대의 주요 문학을 만들어낸 일종의 생산 공간으로 작동한다. 요컨대, 서울 증구는 남대문시장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가던 실향민의 생활 터전인 것이다.

전후복구 시기에서 육십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와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서울로 몰려들었다. 처음에는 월남한 피난민들이 서울 중심부의 동대문 남대문 청계천 등지의 시장을 삶의 근거지로 삼아서 아직 주택가가 형성되지 않은 도심지의 언덕과 산등성이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육십년대로 넘어오면서는 고향을 떠난 이농민들이 외곽지역의 빈터를 차지하고 곳곳마다 마을을 형성했다. 이런 곳을 정착지라고 부르던 행정부처에서는 도시 번두리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자 무허가 판자촌을 강제 철거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또한 정착지 정비사업이라고 불렀다. 쫓겨난 도시빈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몰려가 다시 무허가 건물을 짓는 바람에 오히려 정착지가 서울 주변부로 확산되었다. 강제 철거는 철거반과 판자촌 주민 사이에 끊임없는 충돌을 불러오고 치안이 불안정 해지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도시빈민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았다.

미아리 월곡동 봉천동 신림동 사당동 시흥동 영등포의 외곽과 용산역 주변 등이 정착지였고, 해방촌이라든가 동대문 밖에서 왕십리에 이르기까지 서대문 밖과 마포와 만리동 신촌 일대, 금호동의 언덕반이 등은 전쟁 뒤에 급속하게 형성된 초기 정착지였다. 육십년대 말에 서울시는 강남에 중산층을 위한 새서울 계획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도시빈민들의 정착지를 서울에서 더 떨어진 경기도 일대의 외곽에 형성할 작정이었다.⁵⁰⁾



1970년대 청계천 판자촌.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도시빈민을 양산했다.

도시빈민의 발생은 서울의 본격적인 산업화와 이에 따른 도시정비사업과 맞물린다. 초기 도시빈민들은 월남한 피난민들이었는데, 위 진술과 같이 이들은 남대문과 청계천 등지의 시장을 삶의 근거지로 삼아서 아직 주택가가 형성되지 않은 도심지의 언덕과 산등성이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후 60년대와 70년대로 접어들면서 미아리, 월곡동, 봉천동, 신림동, 사당동, 시흥동, 영등포 등과 용산역 주변, 해방촌과 동대문 밖에서 왕십리, 서대문 밖과 마포와 만리동, 신촌, 금호동 등이 새로운 도시빈민촌을 형성했다. 황석영의 묘사에도 등장하듯, 서울 증구는 서울의 외연 확대의 시발(始發)이었으며, 도시빈민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⁵¹⁾

50) 황석영, 『강남몽』, 창작과비평사, 2010, 346쪽.

51) 서구의 고전적 자본주의 길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진 한국에서 경제성장의 양적 지표를 상승시키는 주요한 메커니즘으로 기능한 것은 농촌의 광범한 영세소농의 저극가 정책과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노동자의 저임금 정책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의 절대적 희생

3. 자유와 민주의 열망, 해방구로서의 중구

서울 중구는 4·19혁명, 1987년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오늘날의 촛불 혁명까지 아우르는 해방의 공간, 투쟁의 장소로 기억된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열망하는 민중의 열망이 남과 북을 가로지르며 동에서 서로 관통하는 용광로와 같은.

오후 3시의 태양 아래 서울신문사는 견잡을 수 없는 불길에 휩싸여 외롭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데모대의 환호 속에 그 어디에서도 소방차는 오지 않았다. 서울신문사가 검은 연기를 토해내기 시작하자 거기서 별로 멀지 않은 중앙청 쪽에서도 연기가 치솟았다. 서울신문사가 불타는 것을 본 다른 데모대가 그 악명 높은 반공회관에 몰려가 불을 지른 것이었다.

그즈음에 데모대들이 탄 소방차며 트럭, 지프차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로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전리품인 그 차들을 탄 데모대는 여러 데모 현장에 돌을 나르며 지원하거나, 아직 데모에 나서지 않은 고등학교를 돌며 피 묻은 옷을 깃발로 흔들어대면서 선동공작을 펼치고 있었다.

서울신문사의 불을 끄려는 것인지 어쩐지 남대문 쪽에서 소방차 두 대가 사이렌을 요란하게 울려대며 질주해오고 있었다.

「저것 때려 잡어!」

「공격해, 공격!」

이런 외침과 함께 데모대는 소방차를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데모대로 들끓어 넘치고 있는 태평로로 차를 몰고 들어온 것이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었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돌우박을 견디지 못하고 소방차는 곧 멈추어 섰다, 데모대가 와아 소리치며 차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이 구조적으로 강제되었다. 때문에 70년대 산업화 양상의 가장 큰 특징이자 병폐는 식민지 체제에서부터 왜곡되어온 자본주의화가 그 절정에 달했다는 것이었다.



4 · 19혁명 당시 시위대에 밀려 도망치는 경찰(출처: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탕탕탕탕……..」

난데없는 총성이 울렸다. 태평로 파출소에서 해대는 총질에 서너 명이 푹푹 쓰러졌다.

「저 새끼들 죽여라!」

데모대의 돌팔매질이 그곳으로 집중되었다. 더 견디지 못한 네댓 명의 경찰들이 파출소를 뛰어나와 도망치기 시작했다.

「저놈들 잡아라!」

「우우우-」

데모대가 경찰들을 뒤쫓기 시작했다. 유일표와 허진도 거세게 내달고 있었다. 그들은 이기붕의 집을 거쳐 이곳으로 옮겨온 지 한 시간쯤 되어 있었다.

경찰 둘이 잡히고, 서넛은 경남극장 옆의 특무대로 도망쳐 들어갔다.

「이 새끼들 죽여, 당장 죽여!」

「그래, 당장 해치워!」

두 경찰을 둘러싼 데모대가 살기등등하게 외쳐댔다. 그 섬뜩섬뜩한 살기 앞에서 두 경찰은 제복이 무색하게 푸들푸들 떨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초라하고 왜소해 보였다,

「이 사람은 무장 안 했으니까 손대면 안 돼..」

흥분한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가 뛰쳐나오며 무장을 하지 않은 경찰을 막아섰다.

「됐어 그럼. 이 새긴 죽여!」

「와아아!」

살기를 내뿜으며 데모대는 무장한 경찰에게로 와르르 달려들었다. 비명과 아우성과 욕설이 뒤범벅되는 수라장이 벌어졌다. 순식간에 무장경찰은 피투성이 시체로 변해버렸다. 유일표는 그 시체를 바라보며 자신이 비로소 데모다운 데모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다.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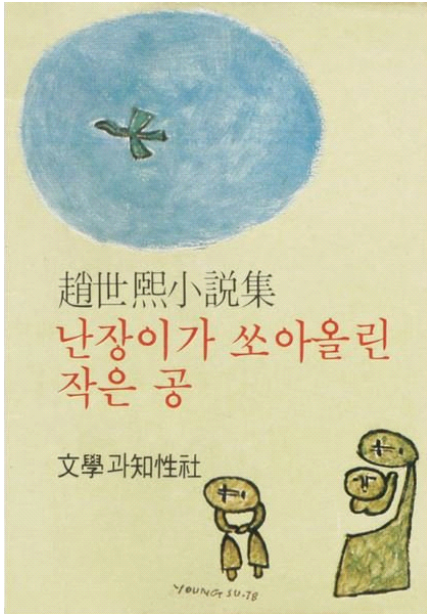
조정래는 서울 중구 일대에서 벌어진 4·19혁명 당시의 상황을 위와 같이 찰진하게 옮겨놓는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학생과 민중의 투쟁은, 김수영의 시처럼,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 것이다. 이 뜨거운 시퀀스에 여백은 없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두 여백을 가득 메웠기 때문이다.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 꿈틀대는 것처럼, 우리의 귓속을 맹렬하게 파고들지 않는다.

우리 현대사에서 민중의 뜻과 의지가 돌출되는, 뜨거운 장소는 바로 광화문 광장과 서울시의회 앞, 그리고 시청 광장을 비롯해 남대문과 서울역을 잇는 넓은 도로다. 산발적이던 촛불 혁명이 조직을 갖추고 거대한 흐름으로 변모했을 때도, 4·19혁명과 1987년 투쟁을 위시하여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수많은 민주 집회 등이 열린 해방구이다.

이 시기에 생산된 문학 담론들을 좀 더 예각해보자. 우리의 근대화가 일제에 의해 기형적으로 이식되고, 해방과 6·25전쟁을 거쳐 독재체제로 달려온 것은 그 속도에 따라 또 다른 기형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낳게 되는데, 해방 후 민중의 7~80%를 차지하던 농촌인구는 공장으로 재편성되고 그에 따른 이농 현상의 부작용이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산업화의 구조적 모순은 당대 작품들의 핵심적인 주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조세희는 그의 대표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연작 소설을 통해 이

52) 조정래, 『한강』 1, 해냄, 2007, 284쪽.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표지

리한 사회적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의 특징은 두 가지 극단적인 세계관의 대립을 통해 산업화의 모순을 집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즉, 난장이로 대표되는 가난한 노동자의 세계와 재벌로 대표되는 가진 자들의 악덕 세계의 대립이다. 비록 이 작품에서 제시되는 두 계층의 대립구도가 너무나 직선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작품은 당대를 살아낸 노동자들의 절망과 소외를 지적인 문체로 승화시킨 문학적 보고서에 해당한다.

농민들은 도시 변두리에 정착하지만 그것은 뿌리를 잃어버린 채 부유하는 생래적

인 습성을 다시 낳게 된다. 이로 인해 한국인들의 삶은 존재 기반에서부터 흔들리게 되었으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공동체적 유대감과 인간관계가 더욱 왜곡되기에 이른다. 산업화 시대의 기억이 이러한 고통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는 근대화의 장밋빛 미래가 절망스러운 환상으로 뒤바뀌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문학은 유달리 문학적 표현 방법의 확대가 고민되었고, 대상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났다.⁵³⁾ 이른바 80년대의 장르 해체의 기억이 70년대에서 이미 선취되고 있었다고 할 정도이다. 더 이상 순수주의라는 해묵은 논쟁은 찾아볼 수 없으며, ‘리얼리티’의 문제도 순수/참여의 이분법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버리고 새로운 입지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동안 문학에서 문외(文外)였던 ‘일상’이 탈영토화되어 문면(文面)으로 떠오른 것이다.

그런데 산업화시대에서 ‘일상’이 함의하는 바는 그리 간단치 않다. 정치적 현실

53)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253~277쪽 참조.

과 당위적인 현실이 하나의 대립쌍을 이루며, 다양한 층위를 억압했던 것을 보여준 ‘리얼리티’라는 단어는 ‘일상’을 수용함으로써 그 영역을 넓히고 무수한 매개 변수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매개 변수에 의해 70년대 문학은 방법과 대상의 변화에서 새로운 지층을 창조하고 또 그것에 의해 정립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일상’은 단순히 소재의 차원을 넘어선다. 이것이 김수영은 물론이고 당대 소설가들의 심급에 자리 잡은 ‘소시민’의 정체가 아닐까.

우리는 경제적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드러났던 민중의 소외와 정치적으로 유신이라는 암흑, 그리고 많은 민중과 지식인들의 저항을 기억하고 있다. 이 거대 담론(압제와 항거의 대립 구도)의 틈을 비집고 등장한 것이 일상성이라는 미시 담론이다. 이 ‘일상성’은 당대 문인들의 글쓰기 방법과 대상을 창조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정치에 대해 저항을 하되, 직접적인 발언이나 비꼼을 목표로 하지 않고, 거대 담론이 미처 바라보지 못한 ‘일상’의 부분에서 정치적, 문화적 저항의 방법을 새롭게 펼쳐나갔다. 이들이 보기에 현실은 외면적이고 정치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삶을 꼼꼼하게 바라봄으로써 얻어지는 성찰—이는 종교적 성찰과는 다르다—은 정치적 현실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이다. 산업화 시대를 관통하는 문학 담론의 새로움과 실험의식을 통한 저항법은 일상성을 그 무기로 삼았던 것이다.

3부

현대문학 속의 중구



1장 한반도 교통의 중심 서울역

서울 중구를 대표하는 상징적 장소는 어디일까? 전후(戰後) 문학의 아이콘에서 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한 ‘명동’과 영화의 메카 ‘충무로’, 판타스마고리아(환등상)의 중심지라 불려도 전혀 아쉬울 것 없는 ‘소공동’을 비롯해 청계천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모되는 ‘을지로’와 ‘남대문시장’, 그리고 서울의 정기를 가득 담은 ‘남산’도 손색이 없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서울역’은 사통팔달로 뻗은 한반도 교통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게다가 서울로 향하는 관문이자 요충지라는 점에서 중구의 가장 상징적 장소일 것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역은 국가 발전의 근간이자 토대이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문학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장소 중 하나이다.

‘서울역’ 하면 맨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는, 한반도 곳곳으로 뻗은 철도의 모태라는 것이다. 우리 몸으로 따지면 피를 공급하는 심장과도 같으며, 우리 몸의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교감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핵심적인 심급이다. 상상해보자. 그 길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을 만큼 한반도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철도를, 그 씩씩하고 건강한 기관들을. 현재 서울역에서 시종(始終)하는

선로는 ‘경부고속선’, ‘경전선’, ‘동해선 KTX’와 ‘경부선’, ‘경전선 ITX-새마을·무궁화호’ 대다수와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이다.

이제 우리에게 ‘서울역’은 서울의 중추역이면서도 한반도 전체 혈맥을 종합하고 집결하는 ‘심장’이 되었다. 그렇다면 서울역은 언제 개통되었을까. 경인선이 개통된 1899년 9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 조선은 늦게나마 철도 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을 세운다. 철도 건설의 필요성은 수백 년간 한강을 이용해서 물자를 운송했던 ‘수운’(水運) 시스템이 가속하는 근대화의 수요와 공급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선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수로가 아닌 육로로, 그것도 항구(제물포)와 직접 연결되는 대량 수송 수단이 절실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883년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인 제물포가 개항되었고, 이에 따라 경인선이 구상된 것이다.

다만, 문제는 조선의 심각한 재정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은 1891년 3월 무렵 경인선 철도 부설에 관심을 보인 미국 정부와 ‘철도창설조약’을 협상하기 시작한다. 바로 직전에 미국 정부는 1883년 6월 23일 독변교섭통상사무 민영목을 통해서 제물포와 한강의 수심 측량을 허가받은 바 있으며, 1887년 2월 9일에는 뉴욕 조선영사 프레이저(E. Frazar)를 통해 김윤식에게 「전등 및 철도 신설계획의 요청」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미국 정부와의 협상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후 조선 당국과 협상에 나선 사람은 주한미국전권공사인 기업가 제임스 모스(James R. Morse)였다. 그는 미국공사 알렌(Horace N. Allen)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인선 부설권을 획득하려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변수가 생긴다. 일본 정부가 철도 부설권을 얻고자 전면에서 나선 것이다. 1894년 8월 무단으로 ‘조일잠정합동조관’을 체결했다. 조선이 재정적 여유가 없으므로 일본 정부에서 경인선과 경부선 철도를 부설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청일 전쟁 직후의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1896년 아관파천 50일 만인 3월 29일 철도부설권은 모스에게 넘어간다.

조선과 미국이 체결한 「경인철도특허조관」에는 특허일로부터 12개월 내에 기공, 그 후 3년 안에 준공하며, 이를 위반할 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1925년 10월 신축된 경성역 역사. 현재는 문화역서울284라는 이름의 전시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있었다. 모스는 1897년 3월 22일 오전 9시 경인가도 상의 ‘우각현’(牛角峴, 지금의 도원역 부근)에서 기공식과 함께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순조롭게 진행되던 철도 건설이 일본의 공작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일본은 경인선 조선이 정치적으로 어지럽다는 거짓 소문을 미국에 흘렸고, 미국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자금난에 이어 기술적 난제까지 겹쳐진 공사는 결국 중단되었다. 1898년 5월 10일 공사 중인 경인철도가 170만 2452원 75전(당시 1백만 달러)에 일본의 ‘경인철도합자회사’에 양도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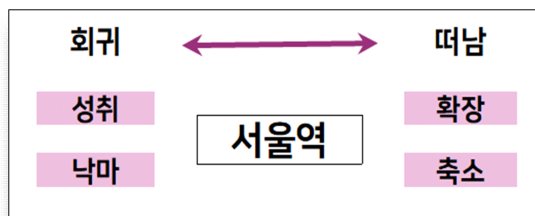
1899년 9월 18일이다. 그날은 인천역과 노량진역 간 33km에 이르는 구간이 개통되었다. 당시 개통된 역은 ‘인천’과 ‘축현’, ‘우각동’, ‘부평’, ‘소사’, ‘오류동’, ‘노량진’ 등 7개 역이었으며, 1900년 7월 8일에 노량진역과 서울역이 개통되면서 총 8개 역으로 연장되기에 이른다. 같은 해 11월 12일 서울역에서 완전개통식이 열려 경인선의 모습이 확정되었다. 이때 서울역은 지금과 같은 위용은 없었고, 10평 크기의 목조 바락크 건물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철로 위를 내달리는 기차의 모습은 신기하기만 했던 것이다.

중구 유동柳洞 2번지에서 살고 있는 한재준韓在俊 노인(80)은 ‘대여섯 살쯤 났을 때 쇠뿔고개에 올라서서 용마를 정거장에서 한양으로 달려가는 칙칙뽁뽁을 날마다 연 날리면서 구경했지요. 하지만 우리 같은 이는 그걸 한 번도 타보지 못했다우’라고 말해 주고 있다.¹⁾

물론 서울역은 서울의 관문이나 한반도의 사통팔달이 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았다.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경부선과 경원선, 용산선이 만나는 용산역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산역은 군사 목적으로 건설되었고, 도심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 서울의 관문이 되기에는 다소 부족했다. 이러한 이유로 도심과 가까운 기존의 남대문정거장을 서울역으로 개량하기로 했으며, 1922년 역사 건설이 시작된다. 1925년, 도쿄역에 이은 동양 제2의 규모로 지어진 서울역은 서울의 관문은 물론이고 만주 방면의 국제 열차를 취급하면서 한반도 철도 교통의, 글자 그대로 ‘중추’가 된다.

우리 국민에게 서울역은 예나 지금이나 ‘떠남’과 ‘회귀’라는 양가적인 이미지의 집결체로 각인되어 있다. 장소에서 장소로의 이동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띤 ‘기차’는, 당연히 그 중추적 역할로써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바, 그러한 역할에 따른 필연적인 이미지가 바로 떠남/회귀의 변증이다.

물론 전자는 진취적인 기상을 가진, 혹은 ‘확장성’의 매우 도전적인 이미지와 ‘낙향’이라는 우발적이고 우울하며 때로는 멜랑콜리한 이미지로 나뉘며, 후자는 (전자와 마찬가지로) ‘성취’라는 밝은 이미지와 ‘낙마’라는 실패의 어두운 이미지로 양분된다.



1) 고은, 『역사와 더불어 비애와 더불어』, 고은 전집(제18권), 김영사, 567쪽.

1. 근대에서 미래로, 현대시의 서울역

가. 최남선의 「경부철도가」(1908), 근대를 향한 빛과 속도

경인선 개통 당시 조선 사람들은 근세 풍수설과 조상숭배 사상, 도참설을 내세우며 반대 여론을 주도했다. 당시 풍경에 대해 고은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박정양朴定陽의 《미속습유美俗拾遺》와 도일 사절들이 말하는 기차가 1889년 주미서리공사駐美署理公使 이하영李夏榮에 의해 기차 모형으로 소개된 뒤 그 기차가 이 나라의 땅 위에 부설되기까지는 외국 철도기사의 살해 사건, 난동, 격렬한 반대를 무릅쓴 일이 많았다. 근세의 풍수설과 조상숭배 사상 또는 민간의 정신사에 자리 잡고 있던 도참설들은 이른바 지맥을 끊는다, 증어蒸魚는 망국의 흉조다라는 개화화통開化火筒 반대론을 수구계층의 지식인과 함께 민간 사회가 만들어냈다.

특히 철도부설 당시의 묘지 이장, 가읍家邑 철거, 농지환수 문제와 철도 십장과 인부들의 횡포 때문에 여러 가지 살상 사건이 잇달았다.²⁾

위 진술에서처럼 철도를 부설하면 이른바 지맥을 끊어 민족의 정기를 요절내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게 만든다(증어蒸魚)는 소문이 횡행했다. 이런 문제와 더불어 조상의 묘와 가읍의 철거, 농지환수 등의 문제나 철도 십장과 인부들의 횡포로 인한 살상 사건도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일단 경인선이 개통되자 경부선을 비롯해서 한반도의 철도망은 이 나라의 도로 문화에 대한 대경장大更張으로 뻗어 나갔다.”³⁾ 1920년 4월 19일자 신문에는 벌써 철도와 관련한 민족차별을 문제 삼은 기사도 쓰였다고 하니⁴⁾ 이미 조선인들에게 철도는 생활 조건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었다.

2) 고은, 앞의 책, 567쪽.

3) 고은, 앞의 책, 같은 곳.

철도는 당대 민중과 지식인들에게 어떻게 각인되었을까. 1908년 육당 최남선이 지은 「경부철도가」는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준다. 육당은 철도의 웅장한 응집력과 섬세한 화력(火力)를 경험하며 「경부철도가」를 짓게 되는데, 이 작품에는 철도로 대표되는 근대의 문화적 충격이 반영된다. 이 작품은 원제목은 「경부철도노래」로, 당시 유행하던 창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신문관에서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

이 작품에는 경부선의 시작인 서울역(당시 '남대문역')에서부터 종착역인 부산까지 수많은 역들이 차례로 열거되면서 그 지역과 관련된 풍물 등을 서술했다. 물론 은연중에 국토지리에 대한 교양과 지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드러나면서 민중의 계몽이라는 대의를 일러두고 있지만, 철도의 등장으로 조선인들에게 시작된 '감각의 충격적 변화'와 '시간 개념의 재편성' 등의 근대화에 따른 문제의식 또한 엿보인다. 작품의 첫 부분을 읽어보자.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소리에
남대문을 등지고 떠나가서
빨리 부는 바람의 형세 같으니
날개 가진 새라도 못 따르겠네

늙은이와 젊은이 섞여 앉았고
우리 내외 외국인 같이 탔으나
내외친소 다 같이 익혀 지내니
조그마한 땀 세상 절로 이뤘네

관왕묘⁵⁾와 연화봉 둘러보는 중



최남선이 펴낸 「경부철도노래」

4) 고은은 당시 기사를 이렇게 발췌하고 있다. “...만하 려객편의 불평이 비상한 중에도 경의선과 경부선은 외국인과 일본인만이 타는 고로 개량도 하고 친절하게도 하지만은 경원선과 호남선은 거의 조선 사람만 타닛가 개량도 아니 하고...”(고은, 앞의 책, 567쪽.)

5) 송례문 근처에 있던 남관왕묘를 말한다. 1979년에 동작구 사당동으로 이전했다.

어느 덧에 용산역 다달았도다/ 새로 이룬 저자는 모두 일본 집
이천여 명 일인이 여기 산다네

서관(西關)가는 경의선 예서 갈려서/ 일산수색 지나서 내려간다오
옆에 보는 푸른 물 용산나루니/ 경상 강원 옷물배 뛴는 곳일세

독서당(讀書堂)의 폐(廢)한 터 조상하면서/ 강에 빗긴 쇠다리 건너나오니
노량진역 지나서 게서부터는/ 한성(漢城) 지경(地境) 다하고 과천 땅이다.

조조양양 흐르는 한강물소리/ 아직까지 귀속에 쳐져있거늘
어느 틈에 영등포 이르러서는/ 인천차와 부산차 서로 갈리네

예서부터 인천이 오십여 리니/ 오류 소사 부평역 지나간다네
이 마음에 틈을 타 다시 갈 차로/ 이번에는 직로로 부산 가려네
(하략) — 최남선, 「경부철도가」 중에서

첫 번째 연은 서울역에서 시시각각으로 들리는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소리”와 “남대문을 등지고 떠나가서/ 빨리 부는 바람의 형세”로 휘몰아치는 기차의 속도를 찬미하고 있다. 육당은 “날개 가진 새라도 못 따르겠네”라는 다소 과장된 목소리로 서울역의 심장을 확실하게 움켜쥐는 것이다. 두 번째 연은 기차 내부 공간의 효과가 거론된다. “내외친소 다 같이 익혀 지내니/ 조그마한 판 세상 절로 이뤘네”라며 평등사상에 입각한 인류애가 엿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연부터는 이 작품의 소재이기도 한 경부선에 주요 거점들이 하나씩 거론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작품이 다른 것도 아닌 근대의 속도에 대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해야 한다. 기차에 앉아 차창 밖으로 관왕묘와 연화봉을 둘러보는 중에 어느새 용산역에 다다르고 만, 조선인들이 전에는 절대로 체험할 수 없었던 불가해한 속도 말이다.

이 작품은 총 67연, 전체 268행으로 구성된 연형체 창가로 각 행이 7·5조의 자수율로 이뤄졌다. 초기 창가들에 비해 무려 10여 배에 달하는 장편이다. 아마도 경부선을 가로지르는 각 역사의 풍물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문장들이 동원되어야 했겠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전에 볼 수 없었던 기차와 철도의 길이에 대한 예찬이 작동했으리라. 이처럼 ‘서울역’의 초기 풍경은 대단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의미는 맹렬하고 진취적이며 씩씩한 조선의 기상이었다.

많은 평자들이 밝힌 바 있는 것처럼, 이 「경부철도가」는 육당의 창가 사(史)에서 제2기에 속한다. 그의 초기 창가는 「소년대한(少年大韓)」, 「우리의 운동장」, 「신대한 소년(新大韓少年)」 등과 같은 작품으로 대개 2, 3절에 그치고 내용도 청소년의 계몽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육당은 「경부철도가」를 계기로 장형(長形)의 작품들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특히 1914년에 발표된 「세계일주가」는 한반도에 국한된 시야를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나. 함민복의 「서울역 그 식당」(1996), 모성의 따뜻한 손길

한편, 육당의 「경부철도가」가 발표된 지 90년 정도가 흐른 1996년 무렵, 함민복 시인은 서울역의 한 식당을 주제로 한 편의 따뜻하고 섬세한 풍경화를 만든다. 「서울역 그 식당」이라는 제목의 작품이다. 식당을 특정하지 않고, 맛과 요리 또한 특정하지 않아 서울역 주변에 함초롬하게 자리 잡은 모든 식당들이 시인의 표정 속에 녹아든다. 그의 언어는 읽으면 읽을수록 엄마의 포근한 손길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그리움이 나를 끌고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대가 일하는 전부를 보려고 구석에 앉았을 때
 어디론가 떠나는 기적소리 들려오고
 내가 들어온 것도 모르는 채 푸른 호수 끌어
 정수기에 물 담는 데 열중인 그대

그대 그림자가 지나간 땅마저 사랑한다고
 술 취한 고백을 하던 그날 밤처럼
 그냥 웃으면서 밥을 놓고 분주히 뒤돌아서는 그대
 아침, 뒤주에서 쌀 한 바가지 퍼 나오시던
 어머니처럼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며
 나는 마침 밥 먹으러 온 사람처럼 밥을 먹습니다
 나는 마치 밥 먹으러 온 사람처럼 밥을 먹고 나옵니다⁶⁾

이 작품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세계를 긍정적으로 읽어내는 함민복 시인의 언어 자체에 있다. 하지만 ‘서울역’이라는 공간이 주는 힘도 분명 있을 것이다. 시인이 ‘식당’으로 들어간 이유가, 아스라이 먼 곳에서 시인을 이끄는 ‘그리움’ 때문이라니, 서울역이 간직해온 ‘떠남’과 ‘되돌아옴’의 변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시인은 심장 저편에서 밀려오는 ‘그리움’을 느끼고 서울역 주변의 한 식당으로 들어간다. 그는 구석에 앉아 ‘그대’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본다. 사실, 시인이 서울역의 한 식당에 들어간 것은 “그대가 일하는 전부를 보려”함이었다. 그때마다 서울역에서는 “어디론가 떠나는 기적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그대는 “내가 들어온 것도 모르는 채 푸른 호수를 끌어/ 정수기에 물 담는 데 열중”이었다.

옛날, 시인은 “그대 그림자가 지나간 땅마저 사랑한다”고 술에 취해 고백한 적이 있었다. 분주하게 어둠을 수놓는 별빛처럼, 그 고백의 밤은 어쩌면 가장 뜨겁고 또 한 가장 역동적인 밤이었을지 모른다. “그냥 웃으면서 밥을 놓고 분주히 뒤돌아서”는 것이지만, 그대는 “아침, 뒤주에서 쌀 한 바가지 퍼 나오시던/ 어머니처럼 아름답을 뿐이다.

어머니처럼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며 시인은 “나는 마침 밥 먹으러 온 사람처럼 밥을 먹”는다. 그렇다. “나는 마치 밥 먹으러 온 사람처럼 밥을 먹고 나”오는 것이다. 서울역 그 식당은 따뜻한 밥을 쌓으며 깊고 깊은 사랑을 고백하는 어머니의 품 같다.

6) 함민복, 「서울역 그 식당」,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창작과비평사, 1996.

2. 근대라는 경이 혹은 생활의 역설, 현대소설의 서울역

가. 염상섭의 「표본실 청개구리」(1921), 자연주의 소설의 시작

소설에서도 서울역은 문학적 배경으로 자주 인용된다. 특히 철도가 가진 신비롭고 무한한 이동 능력은 ‘정신의 자유’와 상통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해소할 방편으로 등장한다. 먼저 염상섭의 초기작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살펴보자. 이 작품이 쓰인 1921년이라는 시점에서 ‘남대문역’은 ‘서울역’으로 읽어도 무방하다.

맥이 확 풀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어져 나왔다. 시체 같은 몸을 고민하고 난 병인처럼 사지를 축 늘어뜨려 놓고 누워 생각하였다.

‘하여간 이 방을 면하여야 하겠다.’

지긋지긋한 듯이 방 안을 휘익 돌아다본 뒤에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디든지 여행을 하려는 생각은 벌써 수삭 전부터의 계획이었지만 여름에 한 번 놀러 가본 신흥사(新興寺)에도 간다는 말뿐이요, 이때껏 실현은 못 되었다.

‘어디든지 가야 하겠다. 세계의 끝까지, 무한(無限)에, 영원히, 발끝 자라는 데까지, 무인도! 시베리아의 황량한 벌판! 몸에서 기름이 부지직부지직 타는 남양……! 아아.’

나는 그림엽서에서 본 울창한 산림, 야자수 밑에 앉은 나체의 만인(蠻人)을 생각하고 통쾌한 듯이 어깨를 으쓱하여 보았다. 단 일 분의 정거도 아니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힘있는 굳센 숨을 헐떡헐떡 쉬는 풀 스피드의 기차로 영원히 달리고 싶다. 만일 타면 현기가 나리라는 염려만 없었으면 비행기! 비행기! 하며 혼자 좋아하였을지도 몰랐었다.

내가 두어 달 동안이나 집을 못 떠나고 들어앉았는 것은 금전의 구매가 제일 원인이었지마는 사실 대문 밖에 나서려도 좀처럼 하여서는 쉽지 않았다.

그 이튿날 H가 와서 오늘은 꼭 떠날 터이니 동행을 하자고 평양 방문을 권할 때에는 지긋지긋한 경성의 잡답을 등지고 떠나서 다른 기분을 얻으려는 욕구와 장단을 불구하고 하여간 기차를 타게 될 호기심에 끌리어서,



경성역 준공 전까지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한 남대문정거장

“응, 가지 가지.”

하며 덮어놓고 동의는 하였으나 인제 정말 떠날 때가 되어서는 떠나고 싶은지 그만두어야 좋을지 자기의 심종을 몰라서, 어떻게 된 셈도 모르고 H에게 끌려 남대문역까지 하여간 나왔다.

열차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나 승객은 입장하는 중이었다.

나는 급히 표를 사가지고 재촉하는 H를 따라갔다. 시간이라는 세력이 호불호(好不好), 금불금(肯不肯)을 불문하고 모든 것을 불가항력하에서 독단하여 끌고 가게 된 것은 나는 오히려 다행히 알고 되어 가는 대로 되라고 생각하며 하나씩 풀려 나가는 행렬 뒤에 섰었다. 그러나 검역증명서(檢疫證明書)가 없다고 개찰구에서 H와 힐난이 되는 것을 보고 나는 행렬에서 벗어나서 또다시 아니 가겠다고 하였다.

심사가 난 H는 마음대로 하라고 뿌리치며 혼자 출장 주사실로 향하다가 돌쳐와서 같이 끌고 들어갔다.

백 축이나 되는 전등 밑에서 히스테리컬한 간호부가 주사침을 들고 덤벼들 제 나는 반

쫄 걷어 올렸던 셔츠를 내리며 돌아서 마주 섰다. 그러나 간호부의 핀잔과 재촉에 마지 못하여 눈을 딱 감고 한 대 맞은 후 황황히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차에 올랐다. 차에 올라앉아서도 공연히 후회를 하고 앉았었으나 강렬한 위스키의 힘과 격심한 전신의 동요, 반발, 차바퀴 달리는 소리, 암흑을 돌파하는 속력, 주사 맞은 어깨의 침통(沈痛)…… 모든 관능을 일시에 용약(踊躍)게 하는 자극의 와중에서 모든 것을 잊고 새벽에는 쿵쿵 자 리만큼 마음이 가라앉았다. 덕택으로 오늘 밤에는 메스도 번쩍거리지 않고 면도도 뛰어 나오지 않았다. 동이 틀락 말락 하여서 우리들은 평양역에 내렸다.7)

위 인용문은 우리나라 자연주의 소설을 개화시킨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 한 대목이다. 이 작품에서 ‘서울역’은 일제강점기 경성으로 가장 빠르게 도달하고 한반도 구석구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로서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인지 근대화를 가늠하는 속도의 상징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이 ‘속도’의 상징이 기차가 가진 장소의 축지(縮地), 곧 시간의 단축에 있다는 작가의 인식이다. “시간이라는 세력이 호불호(好不好), 긍불긍(肯不肯)을 불문하고 모든 것을 불가항력하에서 독단하여 끌고 가게 된 것을 나는 오히려 다행히 알고 되어 가는 대로 되라고 생각하며 하나씩 풀려 나가는 행렬 뒤에 섰었다.”라는 문장을 보면, 시간이 단지 덧없이 지나가는 세월의 흐름이 아니라, 엄연한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모든 것을 불가항력하에서 독단으로 끌고 가는 ‘세력’으로 묘사



경성에도 스페인독감이 유행하던 1919년 <매일신보> 삼화(12월 26일자). ‘선물을 사 가기도 분주한데 악성감기 예방 마스크 때문에 숨이 더 헐떡헐떡한다.’ 마스크를 ‘입코땡개’라고 병기했다.

7) 염상섭, 『표본실의 청개구리』, 한국소설문학대계(5), 동아출판사, 1995, 676쪽.

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등장인물들이 일제 당국의 검역지침 때문에 기차에 오르지 못하는 대목인데, 그들은 역내의 출장주사실에서 주사를 맞은 후에 기차에 오를 수 있었고 무사히 평양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 대목만을 보면, 당시에 도장소의 축지술이 가져온 무서운 결과가 작동했던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마비된 오늘날과 무척 유사하다.

이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단편소설이기는 하지만, 분량을 기준으로 하면 중편 소설로 분류되기도 한다. 염상섭의 첫 단편으로 1921년 8월부터 10월까지 『개벽 開闢』(14~16호)에 연재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이지만 초기 근대의 백가쟁명식 장르 혼재가 두드러지는 작품이기도 하다.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고찰한 바처럼, 이 작품은 3·1만세운동 직후의 패배주의적 경향과 우울에 침체된 지식인의 고뇌가 고스란히 나타난 수작이다.

나. 이익상의 『어린이의 예어』 · 최서해의 『전아사』, 경이로운 서울의 관문

이외에도 이익상의 『어린이의 예어』(1926)나 최서해의 『전아사』(1927)에도 단편적이지만 서울역의 존재감이 뚜렷하게 등장한다.

광필은 찜질하는 칠월 더운 날 석양에 자기의 방 동편 툇마루에서 상의를 벗고 부채질을 하며 종일토록 흘린 땀을 들이고 있었다. 이웃집 기와지붕은 쇠를 녹일 듯한 광선을 비스듬히 받아서 반짝거리며 따가운 숨을 한없이 토한다. 뒤돌 좁은 그늘이 덮인 사이로 숨어 들어오는 바람에 검붉은 얼굴을 쏘이며 괴로운 가슴에도 흠뻑 받아서 겨우 정신을 진정하였다.

광필은 삼 년 전에 진달래꽃이 피고 개나리꽃이 누릴 때에, 경이의 눈을 뜨고 남대문역에 내렸었다. 자기의 시골에서는 매우 똑똑하다는 평을 듣던 그도 경성에 올라온 뒤로 업승이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았었다. 입학시기가 조금 늦었을 때였지마는, 어느 명사의 소개로 좌청우축 하다시피 하여 어느 중학교에 입학하였었다. 입학 그것만이 그의 장래

의 모든 것을 결정한 것처럼 어린 가슴을 뛰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삼 년 전의 단꿈처럼 생각하는 광필은 오늘까지의 모든 것으로 장래를 저 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하면 무엇을 하노? 데데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모처럼 오늘까지 해오던 것을 그만두는 것은 장래를 위하여 일신상 큰 결점처럼 생각하였다. 그리고 자기를 서울까지 보내놓고 그리고 장래의 모든 것을 스스로 담당할 것을 약속하여놓고 모르는 체하는 사촌 원망을 하는 생각도 날마다 깊어갔었다.⁸⁾

광필은 3년 전에 고향을 떠나 경성에 올라온다. 서울역(남대문역)에 도착하였을 때, 광필의 눈에는 경성의 휘황찬란한 근대 풍경이 각인된다. 그는 이를 ‘경이’라는 단어를 통해 집약시킨다. 광필은 “경이의 눈을 뜨고 남대문역에 내렸”던 것이다. 나름대로 지역의 수재였던 ‘광필’이지만, 서울에 올라온 뒤로는 업승이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게 된다.

광필이 보았던 서울역 풍경은 최서해의 『전아사』에도 예외 없이 등장한다. 그러나 최서해의 서울역은 ‘할멈’과 ‘거지’로 대변되는 도시의 어두운 이면도 포함된다.

형님,

떠나던 날 밤에 배 속에서 어머니에게 글월을 드리고 그 이튿날 원산 내려서 기차로 서울에 왔습니다. 배 속과 기차 속에서 새로운 산천을 볼 때 기쁜 듯도 하고 슬픈 듯도 하여 뒤송송한 맘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언뜻언뜻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도는 것 같아서 남모르게 가슴을 쓸었습니다. 그러다가 남대문역에 내려서 전차에 오르면 모든 것이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같이 오는 친구는,

“저것이 남대문, 저것이 남산, 저리로 가면 본정— ---진고개, 예가 조선은행.”

하고 가르쳐 주는 때에 나는 호기심이 나서 슬금슬금 보면서도 곁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 여보, 여태껏 서울을 못 보았소?”

8) 이익상, 『어린이의 예어』, 『이익상 단편소설 전집』, 현대문학, 2009, 213쪽.

하고 핀잔을 주는 듯해서 일종의 모욕을 느끼었습니다. 그러나 애써 가르쳐 주는 친구를 나무란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 그저 꿀꺽 참고 있었습니다.

서울 들어서던 날 나는 하숙을 계동 막바지 어떤 학생 하숙에 정하였습니다. 구린내 나던 그 하숙 장맛은 지금도 혀끝에 남아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 차츰 서울의 내막을 보는 때에 나는 비로소 내 상상과는 아주 판판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제일 눈에 서투른 것은 ‘할멈’과 ‘거지’였습니다.

형님,

우리 함경도에야 어디 거지가 있습니까? 또 할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골목골목이 거지여서 나같이 혈벗은 사람은 괜찮지만 양복조각이나 입은 신사는 그 거지 성화에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할멈이라는 것은 계집 하인인데 늙은것은 ‘할멈’이요 젊은것은 ‘어멈’이라 하여 꼭 하대를 합니다. 소위 자유와 평등을 주장한다는 이들도 이렇게 하인을 두고 애, 재 하대를 합니다. 나는 그것을 볼 때면 어머니 생각이 불현듯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혈수할수없으면 그 모양이 될 것입니다.⁹⁾

이 작품은 1927년 1월 잡지 <동광>에 발표한 단편소설로, 제목으로도 쓰인 ‘전아사’는 ‘잔치를 베풀어 환영하는 말’이라는 뜻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화자가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 겪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형님’에게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는 서간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

주인공은 남대문역에 내린다. 그런데 모든 것이 어리둥절할 정도다. 전차에 올라서 바깥 풍경을 보니, 남대문은 물론이고 남산, 본정, 진고개, 조선은행 등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문물이 즐비하다.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종로의 계동에 하숙을 정한다. 며칠 경성의 이목들을 살피는데, 뜻밖에도 고향인 함경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거지와 할멈(계집 하인)이 수두룩하다는 걸 깨닫는다. 경성에도 자본주의적 환등상들이 그 어두운 이면들을 꼭꼭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 미루어, 최서해의 서울 역은 자본주의 위악(僞惡)으로 진입하는 지옥의 문이었을 것이다.

9) 최서해, 『전아사』, 한국소설문학대계(12), 동아출판사, 1995, 123쪽.

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태원의 『사상의 월야』, 생활의 역설

서울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도 생존이 걸린 일터였다. 이러한 생활상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중의 삶을 빼어나게 그리고 있는 현진건의 수작 『운수 좋은 날』의 중요한 창작 모티프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운수 좋은 날』(1924)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비극적 아이러니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인력거꾼 김침지는 그날따라 아귀가 척척 맞으면서 유난히 별이가 좋아 싱글벙글한다. 이 예사롭지 못한 날은, 어찌면 일 년에 한두 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날이다. 흥정도 잘 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웃돈도 생기고 있다. 아침나절, 제발 오늘은 나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자꾸만 귀에 거슬리지만, 이만한 별이를 내팽개칠 수도 없다. 술참이 나가는 약값도 치러야 하니, 김침지는 눈을 질끈 감아버린다.

그 학생은 다짜고짜로,

“남대문정거장까지 얼마요.”

라고 물었다. 아마도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이로 동기방학을 이용하여 귀향하려 함이라. 오늘 가기로 작정은 하였건만 비는 오고, 짐은 있고 해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마침 김침지를 보고 뛰어나왔음이라. 그렇지 않으면 왜 구두를 채 신지 못해서 질질 끌고, 비록 고구라 양복일망정 노박이로 비를 맞으며 김침지를 뒤쫓아 나왔으랴.

“남대문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벽거리고 가기가 싫었음일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고만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음이다. 그리고 집을 나올 제 아내의 부탁이 마음이 켜기었다— 앞집 마마님한테서 부르러 왔을 제 병인은 그 뻘만 남은 얼굴에 유일의 샘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 애걸하는 빛을 띄우며,



일제강점기의 인력거꾼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리고 숨을 걸그렁걸그렁하였다. 그때에 김침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아따, 젠장맛을 년, 별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 맞붙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하고 훌쩍 뛰어나오려니까 환자는 붙잡을 듯이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 말라도 그래, 그러면 일찍이 들어와요.”

하고, 목메인 소리가 뒤를 따랐다. 정거장까지 가잔 말을 들은 순간에 경련적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직한 눈 올 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침지의 눈앞에 어른어른하였다.

“그래 남대문정거장까지 얼마란 말이지요?”

하고 학생은 초조한 듯이 인력거꾼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자말같이,

“인천 차가 열한 점에 있고 그 다음에는 새로 두 점이든가.”

라고 중얼거린다.

“일 원 오십 전만 줍시요.”

이 말이 저도 모를 사이에 불쑥 김침지의 입에서 떨어졌다. 제 입으로 부르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돈 액수에 놀랐다. 한꺼번에 이런 금액을 불러라도 본 지가 그 얼마 만인가! 그러자 그 돈벌 용기가 병자에 대한 염려를 사르고 말았다. 설마 오늘 내로 어떡랴 싶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일 제이의 행운을 곱친 것보다도 오히려 갑절이 많은 이 행운을 놓칠 수 없다 하였다.

“일 원 오십 전은 너무 과한데.”

이런 말을 하며 학생은 고개를 기웃하였다.

“아니올시다. 잇수로 치면 여기서 거기가 시오 리가 넘는답니다. 또 이런 진날은 좀 더 주셔야지요.”

하고 빙글빙글 웃는 차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넘쳐흘렀다.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빨리 가요.”

관대한 어린 손님은 이런 말을 남기고 총총히 웃도 입고 짐도 챙기려 갈 데로 갔다.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선 김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거뿔하였다. 달음질을 한다느니보다 거의 나는 듯하였다. 바퀴도 어떻게 속히 도는지 구른다느니보다 마치 얼음을 지쳐 나가는 스케이트 모양으로 미끄러져 가는 듯하였다. 언 땅에 비가 내려 미끄럽기도 하였지만.¹⁰⁾

서울역은 작품에 등장할 때마다 그 의미가 새롭게 돌아나는 문학적 ‘장소’다. 현진건의 수작 『운수 좋은 날』에서 인력거꾼 김 침지가 ‘운수 좋게도’ 일 원 오십 전의 큰돈을 맛보게 해준 ‘남대문정거장.’ 김 침지는 ‘남대문정거장’까지 가겠다는 장거리 손님과 실랑이도 없이 흥정을 마친다. 그리고 손님을 태우고 달리기 시작한다.

이상하게 가쁜한 두 다리는 달음질을 한다기보다는 거의 나는 듯한 정도다. 바퀴도 구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얼음을 지켜 나가는 스케이트 모양으로 미끄러”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장거리도 단숨에 축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아프다고 애절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든다. 어떤 예감이 심장 한 구석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의 발은 멈추지 않는다. 예사롭지 않지만 오랜만에 기분 좋은 돈이다.

1941년 <매일신보>에 연재된 이태원의 장편 『사상의 월야』도 예사롭지 않다. 작가의 자전적 소설 형식을 취한 작품은 1930년대 후반부터 유행한 가족사소설, 혹은 세태소설에 속한다. 주된 내용은 주인공 이송빈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에 집중되어 있다. 전반부에는 서울로 상경하는 과정이 고백체의 목소리로 전개되고 이후에는 좌절된 꿈과 그것을 다시 일으키려는 의지로서의 도쿄행을 선택하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남녀 간의 사랑을 주요 모티프로 삼게 되는데, 이는 제목과

10) 현진건, 『운수 좋은 날』, 한국소설문학대계(7), 동아출판사, 1995, 483쪽

도 연관이 깊다. 작가가 어릴 때부터 보았던 ‘달’과, 사랑을 통해 보는 ‘달’은 감상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으로서의 달인데, 도쿄행을 택한 주인공이 그곳에서 마주친 달은 과학적 사고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사상으로서의 달이다. 주인공 이송빈은 당연히 사랑을 버리고 신사상을 향해 나아간다. 주제의식이 단순 명료한 만큼 이 작품은 조선의 달과 도쿄의 달로 대칭하는 ‘개연성’이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서정적이고 감상적인 사상을 버리고 지성적이고 이지적인 사상으로의 변모를 추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아래 인용문은 주인공 이송빈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

“서울!”

송빈이는 차시간표를 하나 사 가지고 정거장 하나를 지날 때마다 정거장 이름 하나씩을 그었다. 어스름해서야 송빈이의 연필은 용산(龍山)까지 그었다.

그때는 경의선(京義線)도 용산을 돌아서 오던 때라, 용산 다음이 남대문(南大門)이다. 송빈이는 가슴이 뛰었다. 사람들은 수선스레 짐을 챙겼고 기차도 별로 휘우뚱거리며 소리소리 지르며 속력을 냈다. 차창 밖은 전깃불이 바다처럼 핏빛 돌았다.

“인전 서울이다!”

송빈이는 돈 이십 원 넣은 것을 다시금 더듬어 만져보며 여러 사람 틈에 끼어 차를 내려 구름다리를 넘어서 남대문역을 나섰다.

정거장 밖에는 맨 불이요 맨 사람이다. 송빈이가 정신을 차리기에는 너무 휘황한 불들이요, 너무 들끓는 사람들이다. 어릿어릿 섰으려니까 이내 인객꾼 하나가 달려든다. 송빈이는 인객꾼한테만은 속을 것 같지 않은 데다 자세히 쳐다보니 서너 살밖에 더 먹지 않은 젊은이다. 송빈이는 이내 이 인객꾼을 따라 섰다. 전차도 송빈이는 처음 보는 것인데, 응 응 소리를 내며 동네 가운데를 달아나는 것이 이상스럽다. 얼른 타보고 싶은데 인객꾼 아이는 건기만 한다.

얼마 걷지 않아 큰 성문이 나선다. 인객꾼은 그것이 남대문이라고 가리킨다. 이 남대문을 왼편으로 돌아 골목 안에 들어섰더니 나지막한 기와집인 여관이다. 문을 열어 주는 방이란 열여섯 살인 송빈이의 키로도 다리를 뻗으면 아래웃목이 닿을 듯하다. 전등은

벽을 뚫고 두 방 사이에도 달았다. 송빈이는 얼른 일어나 숙박료부터 읽어보니 일숙박 이식(一宿泊 二食)에 일등에 일원 오십 전, 이등에 일원 이십 전, 삼등에 팔십 전이다. 인객꾼이 이내 숙박계(宿泊届) 용지를 가지고 들어왔다. 송빈이는 원산서 많이 써 보던 것이라 하나도 틀지 않게 써냈다. 그리고

“삼등으로 해 주슈.”

하였다. 사환은 그러라고 하며 나가더니, 주인이 문을 열고 상반신만 들여밀면서

“밥값은 어떻게 허료?” 한다.

“삼등으로 말했는데요?”

“아니……그런 게 아니라 짐이 아무것도 없군 그래.”

“네.”

“그러니까 말이지, 밥값을 며칠이구 묵을 만치 선심을 하란 말야……돈이란 잘못된단
않기두 쉬운 거구……”

송빈이는 얼른 십 원을 꺼내 들었다.

“그럼 벌이구 모래구 저 떠날 땐 거슬러 주세야 해요?”

“아무렴.”¹¹⁾

우리의 주인공은 용산을 지나면서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용산 다음이 서울역(남대문역)이기 때문이다. 용산을 지나면서부터 “사람들은 수선스레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차도 속력을 냈는데, 이송빈이 보니 “차창 밖은 전깃불이 바다처럼 펑펑 돌았다.” 역에 당도하니 정거장 밖에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난생처음 보는 광경이다. 주인공이 정신을 차리기에는 너무나 휘황한 불이고, 너무나 들끓는 사람들이다. 옷매무새를 고칠 틈도 없이 그는 인객꾼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가고 있다. 처음 보는 전차에 넋을 잃었다가 남대문의 웅장한 자태에 또 놀라기도 한다.

다만, 1921년도에 발표된 민태원의 단편, 「어느 소녀」에서 남대문역이 “경성 남대문역에 도착한 것은 저녁이었다. 남대문 밖 넓은 길에는 전기등이 꿈속 같고 수

11) 이태준, 『사상의 월야』, 『이태준 작품선』, 글누림출판사, 2011, 135쪽.

십 채의 인력거는 사방으로 흩어져가는데 묵단이는 이상한 집을 파고 그사이를 달음질하여 지나왔다.”¹²⁾ 꿈속처럼 낭만적인 면모도 있던 것에 비하면 이송빈의 태도는 대조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당시 서울역을 처음 본 사람들에게 이러한 반응은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 박영규의 『길 위의 황제』(2011), 기억의 쓸쓸한 소실

시계를 앞으로 돌리자. 2011년 발간된 박영규의 장편소설 『길 위의 황제』에 등장하는 서울역이다. 이 작품은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두 번째 황제였던 ‘순종’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으며, 우리가 몰랐던 혹은 애써 눈감으려 했던 마지막 조선의 풍경과 일제강점기의 폭압적인 상황이 담겨 있다.

사이토가 취임을 위해 남대문역에 도착했을 때, 선비 강우규가 환갑을 넘긴 백발의 몸으로 폭탄을 투척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이토는 목숨을 잃지 않았으나 그를 에워쌌던 경찰 37명이 죽거나 다쳤고, 강우규는 용케 현장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강우규는 오래지 않아 붙잡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교수형에 처해졌다.

사이토는 하세가와에 비해 음흉하고 말재주가 매우 뛰어난 자였다. 강우규 사건만 하더라도 그렇다. 하세가와 같으면 길길이 날뛰며 전국에 헌병을 풀어 이 잡듯 뒤지며 분풀이를 해댔을 것이지만 사이토는 흥분한 기색조차 없었다. 오히려 그는 헌병들을 경찰로 대치하고,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민심을 다독거리는 유화정책을 썼다. 거기다 많은 조선인을 경찰로 채용하고 그들 조선인 경찰로 하여금 은밀히 강우규를 잡아들이도록 하여 교수형에 처했다.¹³⁾

이 작품에서 서울역(남대문역)은 조선 독립운동의 현장으로 등장한다. 인용문의

12) 민태원, 『어느 소녀』, 『민태원 선집』, 현대문학, 2010, 49쪽.

13) 박영규, 『길 위의 황제』, 살림출판사, 2011, 243쪽.

첫 문단은 당시 조선 독립을 염원하던 뜨거운 열기가 작가의 예리한 시선으로 포착되어 있다. 1919년 9월 2일 남대문역에서 사이토 마코토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암살에 실패, 이후 체포되어 사형을 당했던 강우규 열사의 사건이 서술되어 있다. 한국 근대사에도 서울역은 민주화 운동이 격렬하게 진행된 장소로 각인되어



강우규 의거 당시 남대문역 인파

있는데, 이는 예나 지금이나 어긋남이 없다. 요컨대, 서울역은 국권 회복의 근본적인 조건, 곧 조선과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등 이념에 맞닿게 된다.

이 작품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다. 작가가 밝히고 있듯, 순종은 “황제였지만 한 번도 황제였던 적이 없는 사람”이고, 또한 “궁궐에 살았지만 한 번도 군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며, “왕이었지만 평민의 삶을 더 부러워했을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는 1926년 4월 25일 궁에서 쓸쓸히 숨을 거둔다. 평생 자식 하나 남기지 않았는데, 그의 죽음을 두고 당시의 한 기관지는 “책임으로는 조선 5백 년의 최대 죄인이요, 인간으로는 일개 가련한 처지였다”고 평했다. 고종과 명성황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일본에 국권이 침탈당한 상태에서 왕위에 올라 한평생을 허수아비 왕으로 산 인물로서, 그는 그렇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진 것이다.

2장 서울을 품은 모성, 남산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중구의 상징은 ‘남산’이다. 현재 남산은 중구와 용산구에 걸쳐 있다. 북쪽은 우리가 살펴보는 ‘중구’에 해당하며, 남쪽은 ‘용산구’에 해당한다. 남산이 우리 문학 담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의 그 무엇보다도 크다. 남산은 밝고 상서로운 산이니만큼 서울 전체를 가로지르고 아우르는 뜨겁고 깊은 모정(母情)의 상징이다.

일제강점기 조선 침략을 대표하는 조선총독부와 해방 이후 군사독재정권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국가안전기획부(중앙정보부) 6국이 위치해 ‘남산’은 한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문학의 소재로도 많이 등장하였다(그 기억은 역사에 뚜렷이 남아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상처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다).¹⁴⁾ 하지만 여전히 남산은 서울의, 우리나라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다.

14) 일례로 “남산에 간다”라는 말은 국가 정보기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는다는 말과 동의어였다. 아이러니한 것은 국가안전기획부가 내곡동으로 이전하면서 남은 건물들이 문학예술 관련 장소로 변모되

남산의 높이는 해발 262m로, 한자 표기는 남녘 남(南), 뫼 산(山)을 서서 남산(南山)으로 표기한다. 뜻은 단순한데, 한양 남쪽에 있는 앞산이다. 경복궁에서 바라 보면 앞에 남산이 우뚝 서 있기에 그렇게 붙여진 것이라 한다. 사실,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든 남산과 정상의 N타워가 보이는 만큼, 남산은 글자 그대로 서울의 상징적인 산인 것은 분명하다.

남산의 이름에 얽힌 이야기들을 살펴보자. 남산은 목멱산(木覓山), 인경산(引慶山)으로 불리거나, ‘마뫼’, ‘부어고개’ 등으로 불렸다. 목멱산이란 나무(木)를 찾는다(覓)는 뜻이다. 풍수지리상 서울은 오행 중에서 나무의 기운이 빠져 있어서 그 기운을 찾고자 했다는 것이다. 또한 나무가 뻗뻗하게 차 있다는 뜻의 목밀(木密) 산이었는데, 중국 사신이 ‘밀’을 ‘멱’자로 부르고 난 뒤부터는 내리 목멱산으로 불렸다는 얘기도 있다.¹⁵⁾

인경산은 해가 잘 드는 남산의 풍경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밝은 산’ 혹은 ‘상서로운 산’이라는 뜻을 가졌다. ‘마뫼’와 ‘부어고개’는 고유어로, 전자는 남쪽을 뜻하는 ‘마’와 산의 ‘뫼’가 합쳐진 남산(南山)의 고유한 풀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밝음을 뜻하는 ‘부어’와 ‘고개’가 합쳐진 말인데, 훗날 ‘부어’가 ‘벼’로 바뀌고 ‘고개’를 뜻하는 ‘티’가 합쳐져 ‘버티고개’로 변했다는 설도 있다.¹⁶⁾

내친김에 남산과 관련된 설화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남산의 생김새에 관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달리는 말이 안장을 벗어 놓은 것 같은 모양새를 갖고 있는데, 특히나 남산의 서쪽 봉우리는 누에머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잠두봉(蠶頭峯)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장충단과 회현동 쪽에서 바라보면 그 모양이 얼추 보인다고 한다.¹⁷⁾

남산에는 무수히 많은 문학적 장소들이 존재한다. 이들 장소들은 문학과 직간접

었다는 점이다. 구 안기부장 공관은 <문학의 집, 서울>로, 안기부 체육관은 <남산창작센터>로 쓰이고 있으며, 구 중정-안기부 건물은 <서울유스호스텔>로 바뀌었다.

15) 최준식, 『신 서울 기행』, 열매출판사, 2004(개정판), 31쪽 참고.

16) 최준식, 앞의 책, 32쪽 참고.

17) 최준식, 앞의 책, 33쪽 참고.



안산에서 바라본 남산 전경(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적으로 관련되는데, 남산 자락에 소담스럽게 자리한 ‘김소월 시비’(남산도서관 근처), ‘조지훈 시비’(남산공원길 근처)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남산서울타워’를 중심으로, ‘남산도서관’, ‘안중근 의사 기념관’,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주한독일문화원’, ‘남산과학관’, ‘석호정’, ‘예장공원’, ‘백범공원’, ‘와룡묘’, ‘야외식물원’, ‘유아숲체험장’, ‘고유소나무림 탐방로’, ‘소나무힐링숲’, ‘게이트볼장’, ‘전망대’ 등 이름을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장소들이 포진해 있다. 물론 남산이 밝고 성스러운 공간만은 아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조선 지배의 침병이었던 ‘조선총독부’나 민족의 열을 쪼먹는 ‘조선신궁’¹⁸⁾ 등 일제강점기의 흔적들을 비롯해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치 공작의 대명사였던 국가안전기획부의 몇몇 건물이 남아 있다.

사야를 좀 더 넓혀보자. 나중에 자세히 소개할 것이지만, 예장동의 ‘문학의 집,

18) 현재 남산식물원 일대다. 1920년부터 공사비 156만 엔을 들여 총 면적 12만 7900여 평, 경내 면적 7천 평이 소모되었다.

서울', '산림문화관'과 장충동 2가의 '한국현대문학관', 필동1가의 '신석주미문학연구소', 충무로 2가의 '한국문학협회', 을지로 6가의 '한국여성문예원', 세종로의 '이효석문학재단' 등 우수한 문학 단체들도 보인다.

매년 다채로운 문학 행사가 열리는 것도 남산의 장소적 특징 중의 하나다. 11월과 12월, 충무아트홀에서는 한국여성문예원 주최로 '서울문학축제'와 '중구민 시낭송대회'가 열린다. 5월에는 YTN과 서정문학이 주최하는 '남산문학대회'가 남산서울타워 1층에서 열리기도 하는데, 초·중·고·대학생과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문학의 집 서울'에서는 문학 단체들이 주관하는 백일장을 비롯해, 각종 문학 관련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처럼 남산은 서울의 중요한 문학적 공간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1. 삶의 원초적 자기부정과 욕망, 현대시의 남산

가. 신동엽의 「서울」, 대지의 원초적 숨결과 목소리

우리에게 남산은 모성이다. 산의 깊이가 완만하고 부드러운 것이 그 첫째 이유겠지만, 서울 시민들이 쉬어가는 곳이면서 서울의 대부분을 조망할 수 있는 높은 곳을 품은 것이 둘째 이유라 하겠다. 특히 시인에게 '남산'은 황동규 시인이 "피난 갔다 와서 회현동에 살게 된 이층 적산가옥은 꽤 넓었고 내가 주로 쓰던 이층에서 창을 열면 남산이 바짝 다가오곤 했다. 거기서 나는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시절을 보냈고, 문학에 첫걸음을 내딛었다"¹⁹⁾고 고백했던 것처럼, 드넓고 넉넉하며 우람한 대모(太母)의 이미지에 닿아 있다.

신동엽 시인은 「창가에서」라는 시를 통해 이런 남산의 풍경을 "부연 안개 너머로 남산 전등 불빛이 빛무리져 보인다"고 노래하기도 했다.

19) 황동규, 『'자존심'의 고향, 젖은 손으로 돌아보라』, 문학동네, 2001, 54쪽.

창가에 서면 앞집 담 너머로 버들잎 푸르다. 뉘 집 굴뚝에선가 저녁 짓는 연기 퍼져
오고, 이슬비는 온 종일 도시 위 절름거리고 있다. 석간을 돌리는 소년은
지금쯤 어느 골목장이를 서둘고 있을까.

바람에 잘못 쫓긴 이슬방울 하나가 내 코 잔등에 와 앉는다. 부연 안개 너머로 남산
전등 불빛이 빛무리져 보인다. 무얼 보내신 이가 있을까. 그리고 무언 정말 땅으로만
가는 것일까. 정말 땅은 우리 모두의 열반일까.

창가에 서면 두부 한 모 사가지고 종종걸음 치는 아낙의 치맛자락이 나의 먼 시간
속으로 묻힌다.²⁰⁾

위 작품은 1967년 4월, <자유공론>에 발표한 시다. 4·19혁명이 좌절된 이후
급격히 몰락하는 한반도의 민주주의를 보면서 시인은 마음 깊은 곳에서 절망했으리
라. 뉘 집 굴뚝에서 저녁 짓는 연기가 퍼지고, 이슬비는 온종일 서울의 골목골목을
절름거리며 적시고 있다. 그때 바람에 잘못 쫓긴 이슬방울 하나가 시인의 콧잔등에
닿는다. 그것은, 어쩌면 시인의 마음 둘 곳 없는 처지와도 같을 것이다. 부연 안개
너머로 빛무리진 전등 불빛이 남산을 애처롭게 비추고 있다. 마음을 가뉘버린 절망
은 죽음의 다른 말일지 모르겠다. 잠시 남산으로 향했던 눈을 거두고 생각에 잠긴
다. “정말 땅으로만 가는 것일까. 정말 땅은 우리 모두의 열반일까”라고. 그러나 남
산은 정말 모르는 듯 고요할 뿐이다. 나의 먼 시간 속에 묻힐 뿐이다.

신동엽 시인의 또 다른 작품을 읽어보자.

초가을, 머리에 손가락 빗질하며
남산(南山)에 올랐다.

20) 신동엽, 『신동엽 전집』, 창작과비평사, 1975, 68쪽.



남산 팔각정 앞에서 펼쳐지는 전통 공연을 관람하는 시민들

팔각정(八角亭)에서 장안을 굽어보다가
갑자기 보리씨가 부리고 싶어졌다.
저 고층 건물들을 갈아엎고 그 광활한 땅에
보리를 심으면 그 이랑이랑마다 얼마나 싱싱한
곡식들이 사시사철 물결칠 것이라.

서울 사람들은
벼락이 무서워
피뢰탑(避雷塔)을 높이 올리고 산다.

내일이라도 한강 다리만 끊어 놓으면
열흘도 못가 굶어죽을
특별시민(特別市民)들은
과연 맹목기능자(盲目技能者)이어선가

도열병약(稻熱病藥) 광고며, 비료 광고를
신문에 내놓고 점잖다.

그날이 오기까지는 끝이 없을 것이다.

송례문 대신에 김포의 공항
화창한 반도의 가을 하늘
월남으로 떠나는 북소리
아랫도리서 목구멍까지 열어놓고
섬나라에 굶실거리는 은행 소리

조국아 그것은 우리가 아니었다.
우리는 여기 천연히 밭 갈고 있지 아니한가.

서울아, 너는 조국이 아니었다.
오백년 전부터도,
떼내버리고 싶었던 맹장

그러나 나는 서울을 사랑한다
지금쯤 어디에선가, 고향을 잃은
누군가의 누나가, 19세기적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포도송이 같은 눈동자로, 고무신 공장에
다니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수동 뒷거리
휴지 줍는 돌만이들의 부은 눈길
빛나오면, 서울을 사랑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는.²¹⁾

이 작품은 〈상황〉 1969년 창간호에 실린 시다. 「서울」이라는 인상적인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초가을, 머리에 손가락 빗질하며” 올랐던 남산은 바로 서울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시인은 팔각정에서 시내를 굽어보다가, ‘보리씨를 뿌리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힌다. 서울이라는 메트로폴리탄의 심장에, 그리고 강철과 콘크리트 빌딩이 즐비하게 늘어선 자본주의 숲에, 다른 것도 아닌 ‘보리씨’를 심겠다는 것이다. 그의 의지는 뚜렷하다. 고층 건물들을 갈아엎고 그 광활한 땅에 보리를 심어 “그 이랑이랑마다 얼마나 싱싱한/ 곡식들이 사시사철 물결”치게 하는 것이다.

벼락이 무서워 피뢰침을 높이 올리고 살아야만 걱정이 반감되는 시민들은, 그러나 한강 다리만 끊어 놓으면 열흘도 못가 굶어 죽게 될 ‘맹목기능자’와 같이 미약한 존재들이다. 서울에 늘어선 최첨단들은 섬나라에 굶실거리고, 북아메리카 눈치에 월남 파병을 결정한 위악(僞惡)일 뿐이다. 시인이 “조국아 그것은 우리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시인은 여전히 서울을 사랑한다고 선언한다. “지금쯤 어디에선가, 고향을 잃은/ 누군가의 누나가, 19세기적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포도송이 같은 눈동자로, 고무신 공장에/ 다니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싱싱하고 구체적인 삶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동엽 시인의 욕망은 남산만이 가질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뿐만 아니라 예부터 이어져 내려온 충분한 상징에서 비롯된다.

나. 김신용의 「그 여름의 잔영(殘影)」(1988), 처절한 자기부정과 욕망

1990년대 이후 소설에서 남산의 모습은 대체로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다.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모습과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를 겪었던 세대들이 겪었던 공동체의 붕괴가 맞물리는 모양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흔적이 희미한 세대들에

21) 신동엽, 「서울」, 『신동엽 전집』, 창작과비평사, 1975, 90~91쪽.

게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그들의 남산은 ‘지금-여기’라는 당대 이미지에 집중한 것이다. “강현은 그렇게 말하면서 베란다에 기대 한강 쪽을 내다보고 있는 내 곁에 와서 섰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한강과 한강 너머에 불빛으로 번쩍이는 도시의 밤 풍경을 계속 내다보고 있었고, 강현 역시 말없이 서서 조각달이 떠 있는 밤의 정취를 쳐다보고 있었다. 밤에 보는 서울의 풍경은 말없이 아름답다: 번쩍이는 불빛들: 노란색. 창백한 파란색. 붉은색. 넓은 강을 끼고 남북으로 갈라진 도시: 한강은 도시의 밤을 장식하는 장신구 역할을 하며 검은 빛으로 흐르고 있고, 교량들은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다. 멀리 보이는 남산 타워. 별빛처럼 깜박이며 점멸하고 있는 타워 꼭대기 불빛. 어둠 속 허공에서 붉은색으로 꺼졌다 켜졌다 하며 이 도시의 위기를 알리는 비상 경고등, 도시가 내지르는 비명에 찬 절규.”²²⁾라는 문장에서 표현된, ‘도시의 위기’라는 문구는 남산의 현재 이미지를 적절히 대변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시문학도 그러한 경향이 보인다. 신동엽 시인처럼, 김신용 시인도 남산을 주요 모티프로 삼아 자신의 상상력을 전개했던 바, 그의 등단작인 「그 여름의 잔영(殘影)」에는 그에게 닥쳐온 현실이, 그 찢긴한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땅거미가 집을 지을 무렵이면 나는
 남대문시장 바닥을 작은 땅거미처럼 기어들었다
 구걸도 매혈도 하지 못한 날
 문 닫힌 가게 앞에 버려진 과일 나부랭이를 주어먹으며
 그 밤의 잠자리를 찾아 청과물 골목을 기웃거렸다 남몰래
 버려진 과일들은 쓰레기와 함께 썩고 있었고
 썩고 있는 사과의 썩지 않은 부분의 살을 베어 물며
 결코 채워질 것 같지 않은 공복을 메우며
 나는 썩고 싶었다
 과일의 무르익은 속살 꺼렇게 물들이는 벌레처럼

22) 김운하, 『언더그라운드』, 문학과지성사, 1998, 233쪽.

썩어

이 도시의 달콤한 과즙을 핥고 싶었다

채혈의 주사기처럼 내 구결의 손은 언제나

서울의 혈관을 파고들어

사람의 뜨거운 피맛을 보고 싶었다

그러나 걸발을 담을 비닐봉지는 너무 투명해

내 녀의 뼈가 들여다보일 것 같아 부끄러워

문을 두드려 보지도 못하고 돌아서 나오는 주택가 골목

밖의 세상은

유리 햇살 속, 반짝이는 상하(常夏)의 나라

너무 푸르려 눈부신 하늘을 우러르며 나는

자꾸만 어질머리를 앓았다

피를 팔아서라도 저 빛 고운 과일 하나 품고 싶었지만

이미 빈혈증이 되어버린 부랑의 알몸이 배회하는

그 여름의 남산공원, 서울역 광장

땅거미가 집을 지을 무렵이면 속절없이

작은 땅거미가 되어 스며들던 청과물 골목

그 고운 과일들의 빛깔로 여름은 무르익어 있었고

거지든 도둑이든 오만가지 빛깔로 무르익고 싶었다

텅 빈 몸 그 달디단 과육으로 채우고 싶었다

그러나 남몰래

내가 주워드는 것은 썩어있는 과일들뿐

그 여름도 썩어 어느덧 가을의 냉마가 덮혀와도

나는 끝내

썩은 과일의 썩지 않은 부분의 살만 이 아프게 베어물고 있었고....²³⁾

23) 김신용, 「그 여름의 잔영(殘影)」, 『현대시사상』1, 고려원, 1988.

김신용 시인에게 남산 일대는 궁핍하기 비할 바 없던 생활의 터전이었다. 버려진 텅마와 같은 삶을 위해, 그는 남산 일대를 떠나지 않고 버티고 버텼던 것이다. 그가 “땅거미가 집을 지을 무렵이면 나는/ 남대문시장 바닥을 작은 땅거미처럼 기어 들었다”고 고백하는데, 실로 상상도 못할 가난이 그를 움아냈던 것이다. 구걸도 매혈도 하지 못한 날에는 시장바닥을 뒤구는 과일 나부랭이를 주워 먹었으며, 그 밤에는 노숙할 잠자리를 찾아 청과물 골목을 기웃거리기도 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며 씹었던 과일들이, 시인의 공복만큼이나 쓸쓸한 어둠에 뒤덮여 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노골적으로 차단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시간들을 정직하게 살펴보고 가감 없이 그대로 말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재단한다. 그는 행려병자도 단호한 욕망이 있음을 숨기지 않는다. 비록 곁밥을 담은 비닐봉지는 너무나도 투명해서 스스로의 녀의 뼈가 죄다 노출될 것 같은 부끄러움도 있지만, 그는 “서울의 혈관을 파고들어/ 사람의 뜨거운 피맛을 보고 싶”을 뿐이다.

그러나 그가 생활하는 곳에서 그는 온전한 이방인이다. “유리 햇살 속 반짝이는 상하(常夏)의 나라”에서 그는 “자꾸만 어질머리를 잃”는다. 매혈이라도 하여, “저 빛고운 과일 하나 품고 싶”지만, “이미 빈혈증이 되어버린 부랑의 알몸”은 어찌할 수 없다. 그는 이 빈곤을 벗어나는 꿈을 꾸면서 그 여름의 남산공원을 걷는 것이다.

다. 김중훈의 「남산 위 자물쇠」(2019), 젊은이들의 특별한 사랑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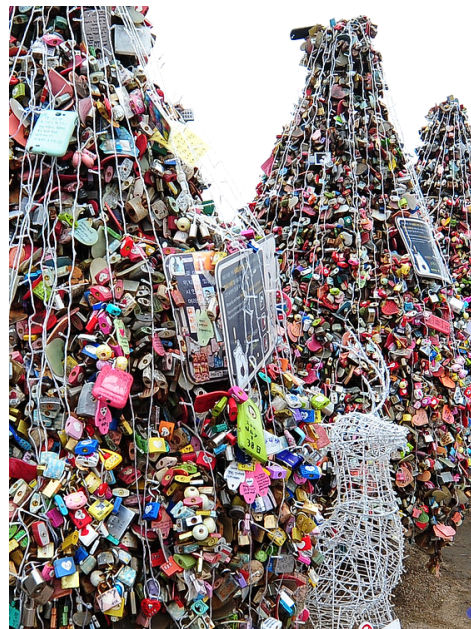
남산과 관련된 김신용의 시편들이 통렬한 자기반성과 성찰, 그리고 자기부정의 욕망에 기대어 있다면, 김중훈의 「남산 위 자물쇠」는 현대 사회를 거침없이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사랑 방식을 노래한다.

겨울 산과 봄 냇물

체크무늬 남방과 복숭아향 샴푸

포옹과 입맞춤

노을빛 공원과 밤의 전망대를 잇는
 난간에 걸린 자물통의 행렬들
 싸움과 포기
 '헤어져'와 묵묵부답
 팔각정 마당 비둘기만큼 많이
 남산타워만큼 까마득히
 연인들이 채우는 이 순간과 관리인이 끄를 저 순간을
 포갠 남산 위 자물통
 중국의 태산에도 있다는 연인들의 습관
 세상 어디에도 있을
 라운드 티로 갈아입어도
 라벤더향 삼푸로 바꾸어도
 양탄자 무늬 속 홍보석같이
 먼지로 뒤덮인 시간을 터는
 순간의 영원을 기원하는
 사랑의 형식
 사랑의 징표로 남은 남산 위 자물쇠
 남산 위 저 소나무 대신 남산 위 자물쇠
 체크무늬 남방을 꺼내 입어도
 복숭아향 삼푸로 다시 감아도
 누가 풀어도 풀리지 않을
 누가 잘라도 잘리지 않을
 사랑의 바깥을 잠근
 은빛 쇠못치²⁴⁾



사랑을 약속한 연인들의 징표

24) 김종훈, 「남산 위 자물쇠」, 〈웹진시인광장〉 2019년 5월호.

시인이 노래하듯, 자물쇠는 이미 남산 정상을 장식하는 사랑의 콘텐츠다. 정상에 오른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듯, “노을빛 공원과 밤의 전망대를 잇는” “난간에 걸린 자물통의 행렬”은 “팔각정 마당 비둘기만큼 많”고, “남산타워만큼 까마득”하다. 이 자물통들이 빼곡한 이유는 ‘자물쇠’가 가진 ‘잠금’에 대한 알레고리와 자신들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자 하는 연인들의 욕망이 서로 상호 작용한 결과다. 자물쇠는 “순간의 영원을 기원하는 / 사랑의 형식”이자 “사랑의 징표”이며, “남산 위 저 소나무 대신” 천년만년 우리에게 남게 될 물신이기 때문이다.

시인은 이 자물통들의 더미가 낯설지 않은 현상이라 말한다. 중국 태산에도 있는 연인들의 습관인 바, “세상 어디에도 있을 / 라운드 티로 갈아입어도 / 라벤더향 샴푸로 바꾸어도 / 양탄자 무늬 속 홍보석같이 / 먼지로 뒤덮인 시간을 터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는 “체크무늬 남방을 꺼내 입어도 / 복숭아향 샴푸로 다시 감아도 / 누가 풀어도 풀리지 않을 / 누가 잘라도 잘리지 않을 / 사랑의 바깥을 잠근” “은빛 쇠못치”로 표현하는데, 젊은이들의 사랑방식을 절묘하게 이끌어내고 있다.

2. 역사적 팝진성과 판타지의 동시성, 현대소설의 남산

가. 조정래의 『태백산맥』(1986)과 『아리랑』(1994), 역사와 이념의 문장들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1983년 9월부터 쓰인 원고지 15,700매 분량의 대하소설이다.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까지의 그 치열했던 이념 대립과 그 과정에서 희생된 민중의 한(恨)을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으며, 출판 당시 국가로부터 좌파 이데올로기에 치우쳐버린 이적물로 매도당했다. 그러나 한국현대사에 대한 탁월한 통찰에 입각한 서사의 전개는 여전히 독자의 손에 땀을 쥐게 할 정도로 매우 팝진하다. 아래 인용문은 서울에 몰려 있는 친일반역 세력들에 대한 일종의 요약서이다.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았고, 책을 탐하던 그가 새로운 지식을 얻을 때면 얼굴이 상기되곤 했던 사범학생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김범우는 손승호에게도, 이학송에게도 아무 할

말이 없었다. 손승호의 경우는 그의 말마따나 관념이 아니라 체험이었고, 이학송의 경우는 그 나름의 논리에 빈틈이라고는 없었던 것이다. 이제 제삼의 입장이란 있을 수 없다는 그 말은 무서운 데가 있었다. 그 말은 다른 말을 용납하지 않으면서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김범우는 자신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한강다리가 폭파됐는데 서울은 어찌 되겠습니까?」

손승호가 이학송에게 물었다.

「이승만이 어지간히 다급했던 모양인데, 글썄요, 인민군 입장에서는 좋고도 나쁘게 된 게 아닌가 싶소. 전국에서 집합해서 드글거리고 있는 친일반역세력들의 발을 일시에 묶게 된 것은 좋을 것이고, 얼마 동안이라도 전진이 중단된 것은 나쁘고, 그렇지 않겠소?」
「그런데, 서울에 몰려 있는 친일반역세력들은 얼마나 되고, 그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요?」

「손형이 아주 심각한 문제에 관심을 두는군요. 글썄요, 나도 오래전부터 서울에 몰린 친일반역세력이 대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보고는 했었소. 한마디로 서울은 친일반역자들의 도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거요. 서울의 구조를 따져보고, 사건들을 점검해보면 그 답은 금방 나오게 되어 있소. 서울은 조선시대부터 수도였으니 정치 도시고 양반도시고 소비도시였소. 그 양반님네들이 경복궁 가까운 팔판동·제동·가회동·안국동·인사동까지 자리 잡아 양반 동네를 이루었고, 그 아래 종로통을 중심으로 그들의 소비 생활을 받치고 있는 상인들이 자리잡았소. 그런데 일정시대가 되잖았소. 일본놈들은 경복궁 안에다 총독부 건물을 들어앉히고는, 옛날 양반들과 맞대거리라도 하겠다는 듯 북악산과 맞바라보고 있는 남산 아래 필동·회현동부터 시작해서 반원을 그리며 원효로·만리동·효자동까지 진을 쳤고, 그들의 상권은 을지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소. 필동에서 효자동까지 적산가옥이 그리 많은 게 그 까닭이요. 그런데, 일본놈들은 조선시대가 무색하게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실시했고, 그 바람에 양반님네들은 나라 팔아먹고 대신 얻은 감투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생활을 거의가 했소. 거기다가 출세욕을 가진 지방 지주나, 그 자식들이 또 하나 부자촌을 만들었는데, 그게 명륜동이고 혜화동이요. 그들이 서울 양반 동네 옆으로 자기네들 집을 이어붙인 게 재미있소. 순경이나 여러 종류의 하급관리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을 것이고, 해방되기 직전까지 그 인구가 대략 오십



1910년대 남산과 본정 전경(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오만 정도였는데, 해방이 되고 사십칠 년 중반까지 그 배 이상이 늘어나고 말았소. 귀환 동포, 지방의 상경자 등도 있지만, 그 절대적인 수는 오십만이 넘는 월남자들이었소. 우리가 친일반역자들을 백삼십만에서 백오십만으로 추산하는데, 이북에 퍼져 있던 친일반역자들은 그때 모두 몰려내려온 셈이요. 물론 그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몇 퍼센트는 있소. 자아, 이렇게 볼 때 현재 서울 인구 백사십만 중에서 친일반역자 아닌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소. 어림잡아 친일반역자들이 반을 넘지 않을까 싶소. 그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건 앞으로 두고 볼 일이요.」

이학송이 물잔을 들었다.

「예, 중대한 문제로군요.」

손승호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난 좀 가볼 데가 있는데, 우리 또 만나기로 합시다.」

이학송이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손승호가 말했다. 자기와 이학송 사이를 손승호가 비집고 끼어든 것 같아 김범우는 서

먹한 듯한 묘한 기분을 느꼈다.²⁵⁾

반면, 『아리랑』의 ‘남산’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일제의 상징격인 ‘조선총독부’와도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

조선총독부는 북악산이 맞바라보이는 남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 총독부는 서양 식인 세 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중앙 건물은 두 개의 원통형 조망대 비슷한 것을 건물 높이까지 치솟게 세워 현관을 육중하게 장식하고 있었고, 그 좌우로 규모가 약간씩 작은 쌍둥이 건물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 세 개의 건물은 모두 2층짜리였다. 그러나 급경사를 이룬 지붕이 높은 데다 창문까지 달려 있어서 그 건물들은 3층처럼 높고 커 보일 뿐만 아니라 입체적으로 우람해 보이기도 했다. 그 세 개의 건물은 얼핏 보면 각기 독립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양쪽의 쌍둥이 건물은 가운데 부분에서 각기 통로로 중앙 건물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건 각 건물들의 독립적 실용성과 종합적 효용성을 십분 살려내면서 외양으로는 입체적 웅장미가 드러나게 한 설계 같았다. 그러나 어떤 눈 밝은 사람이 남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그 건물을 내려다보면 전체 형상이 <王>자를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었다. 조선총독부와 그 건물의 <王>자 형상,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중국 황제는 자기 앞에 해마다 조공을 바치는 왕을 여럿 거느리고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본 천황은 발아래 조선을 속국으로 거느린 것이고, 천황의 칙령을 받은 조선 총독은 바로 조선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이었던 것이다. 남산 중턱에 자리잡은 그런 형상의 총독부 건물은 멀리 북악산 아래 평지에 자리 잡고 있는 내려다보듯 하고 있었다. 물론 거기서는 경복궁만 내려다보이는 것이 아니었다. 좌로 덕수궁이며 우로 창경궁과 종묘가 한꺼번에 내려다보였다. 그 조선총독부 아래 남산 자락의 필동 일대에는 헌병사령관이 총독부 경무총감을 겸임하면서 무단통치를 총지휘하는 경무국 건물을 비롯해서 다른 관청 건물들이 큼지막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건물들은 대개 2층이었지만 돌이나 벽돌로 지은 데다가 지붕이 높고 현과 부분에는 두드러지게 서양식으로 치장을

25) 조정래, 『태백산맥』 6권, 해냄출판사, 2001, 295쪽.

해 조선 사람들의 초가집은 더 말할 것도 없었고 어지간한 규모의 기와집들도 그런 건물들이 풍기는 위압감에 꼼짝없이 눌릴 수밖에 없었다. 경무국 가까이 있는 한 건물에서는 며칠째 은밀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²⁶⁾

조정래의 또 다른 역작 『아리랑』은 일제강점기 당시 전라북도 김제시를 배경으로 한다. 물론 구한말로부터 광복 때까지 역사를 담고 있지만, 보다 중추를 이루는 시대는 일제강점기다. 특히 일제의 수탈과 우민화교육에 대해 무척이나 핏진하고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일제에 협력한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고발 또한 담겨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위 인용문에서 남산은 조선총독부가 자리 잡은 곳이다. 그런데 그 장소가 우리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곳이다. 왜냐하면, 남산 꼭대기에서 그 건물을 내려다보면 “전체 형상이 <王>자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선총독부 아래 남산 자락의 ‘필동 일대’에는 “헌병사령관이 총독부 경무총감을 겸임하면서 무단통치를 총지휘하는 경무국 건물”을 비롯해 “다른 관청 건물들이 큼지막하게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그야말로, 조선 침략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조선 침탈이 자행되는 출발점이라는 말이다.

이와 더불어 이병주의 장편소설 『지리산』에도 남산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의 남산은 한국전쟁 당시 치열했던 서울의 전투 장면과 함께 묘사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이 귓전을 스쳤다. 서울역 근처에서 인민군을 싣고 가던 트럭이 비행기 폭격으로 박살이 났다는 얘기였다.

남산 쪽에서 검은 연기가 오르고 있었다. 방금 폭격을 받은 때문이 아닐까 하는 짐작이 들었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으며 태양은 인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동안에 서울은 잿더미가 될

26) 조정래, 『아리랑』 5권, 해냄출판사, 2001, 336쪽.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2차대전 후 일본 동경과 대판이 얼마나 무참한 꼴로 되어 있었던가. 동경과 대판을 폐허로 만든 그 경력자, 그 실력자가 서울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태영은 플라타너스 나무 그늘에 멈춰 서서 남산을 보고 북악을 보았다.²⁷⁾

나. 하성란의 『깃발』(2006), 판타지로 재탄생한 남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남산’은 서울 시민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소설에서는 ‘남산’이 환상의 세계로 이입되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하성란 소설이나 하일지 소설에서도 그러한 징후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

먼저 하성란의 작품을 보자. 하성란은 인간을 향한 깊은 성찰과 응시를 섬세한 필체로 담아내는 작가다.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고, 199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풀」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녀의 소설은 지나치게 사소한 일상에 몰두한 만큼 사회에 대한 거시적 입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인간 심리와 사물에 대한 미시적 묘사를 전개하면서 특유의 섬세한 문체로 곱팡내 나는 쓰레기 더미 속에 숨어 있는 존재의 꽃을 찾아간다”는 1999년 동인문학상 심사평을 통해 우리는 하성란 소설의 개성과 미덕을 잘 읽을 수 있다.²⁸⁾

이러한 성향의 하성란 소설가는 ‘힐튼호텔’의 이국적이고 다면적인 상징성을 통해 남산의 판타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무척 세밀한 묘사가 돋보이는 단편소설 「깃

27) 이병주, 『지리산』 6권, 기린원, 1989, 170쪽.

28) 출판사 리뷰도 인상 깊다. “거제도가 고향인 부친이 서울에 올라와 일군 가족의 만떨이기도 한 그녀는, 부친의 사업 실패로 인문계 고교 진학을 포기하고, 여상을 졸업한 뒤 4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청춘의 초반부를 보냈다. 뒤늦게 서울예전 문예창작과에 진학해 소설을 쓰면서 ‘언젠가는 그 소설의 울림이 세상의 한복판에 가 닿는다고 믿는 삶’을 꿈꿨다. 습작 시절, 신춘문예 시기가 되면 열병을 앓듯 글을 쓰고 응모를 하고 좌절을 맛보는 시기를 몇 년 간 계속 겪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96년 그녀가 스물아홉이던 해, 첫 아이를 얻은 상태에서 당선 소식을 받았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 늘 한국 단편소설의 중심부를 지키고 있다.” (출처: <http://www.yes24.com/Product/Goods/74924?OzSrank=1>)



1983년 서울 남산 자락에 들어선 후 오랫동안 남산 경관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힐튼호텔

발』에는 ‘패션쇼’로 대칭되는 현실의 균열을 읽게 된다. 이 소설은 단편이니만큼 줄거리 또한 압축적이다. 자동차 세일즈맨은 팔아야 할 외제승용차를 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짝사랑하던 광고모델한테서 환심을 사는 데도 실패해 결국 전봇대 디딤쇠에 옷가지를 걸어놓고 맨 꼭대기에는 팬티를 걸어놓고 사라진다.

이 단편에서 광고모델과 외제승용차는 자본주의적 물신성의 한 표상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전봇대 꼭대기에 깃발처럼 걸린 팬티는 소극적이지만 페티시즘에 대한 저항으로 읽을 수 있다.

작품의 한 대목을 보자.

서울역에 내려 힐튼호텔까지 택시를 탔다. 남산순환도로는 데이트를 하는 연인들로 가득했다. 젊은 운전사는 창밖을 흘끔거리느라 자꾸 중앙선을 넘었다. 십일층 객실로 올라가기 전에 화장실이라도 들를 참으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 지하 일층까지 내려갔다. 열린 문 안에서 새어나온 조명불빛이 맞은편 벽 위에 어울거리고 있었다. 크리스털

볼룸이라고 쓰인 넓은 홀 입구에는 ‘이강자 추동의상 발표회’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쇼가 시작된 지 한참 지난 모양이었다. 매표를 위해 준비해놓은 책상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문가에 선 채 홀 안을 훑쳐보았다. 흰 테이블보를 두른 둥근 탁자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식사를 하면서 쇼를 보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모델들이 음악에 맞춰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모델들은 T자 모양의 무대 맨 앞에 와서 잠깐 걸음을 멈추고 포즈를 취하고는 다시 뒤돌아서서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다. 모델들은 모두 짙은 눈화장을 하고 있었다. 십 년 전이던가, 우리나라에 왔던 키메라라는 이름의 가수가 한 화장과 비슷했다. 가을옷이 끝나고 가죽과 모피를 소재로 한 겨울 옷들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짙은 화장을 했지만 난 이번에도 그 여자를 단박에 알아보았다. 여자는 하얀 여우털로 만든 발목까지 내려오는 코트를 입고 있었다. 언젠가 고객에게 들은 말이 기억났다. 여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털 빛깔이 금세 추해진다고 했다. 그래서 털 빛깔이 바뀌지 않도록 빠른 시간 안에 도살해야 하기 때문에 감전사시키는 방법을 쓴다고 했다. 여우털 코트를 입은 여자의 표정은 파란 조명 아래에서 고혹스러웠다. 나는 가까이서 있던 행사요원에게 여자의 이름을 물어보았다. 여자의 이름은 이민재였다. 모르세요? 요즘 한창 뜨는 모델인데. 행사요원이 덧붙였다.²⁹⁾

이처럼 힐튼호텔도 문학 담론의 주요 공간이기도 하다. 서울힐튼은 서울의 비즈니스, 문화, 역사 쇼핑의 중심부인 남대문로 5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이 호텔의 정확한 이름은 ‘밀레니엄 힐튼 서울’이다. 1977년 12월 중순, 대우그룹의 계열사인 동우개발이 힐튼 인터내셔널과 호텔 위탁 경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립되었다. 1979년 3월 공사에 착공하여 1983년 12월 7일에 개관했다. 이후 1995년 4월, 동우개발에서 대우개발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1999년 12월 1일 싱가포르계 투자 전문회사인 씨디엘호텔코리아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현재 힐튼호텔은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다. 2021년 10월, 부동산 투자 회사 이지스자산운용이 씨디엘호텔코리아로부터 이 호텔을 사들이기로 하고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이지스

29) 하성란, 「깃발」, 『옆집 여자』, 창작과비평사, 1999, 51쪽.

측은 “현재 호텔 건물을 철거한 뒤 호텔·오피스·상업 시설 등을 갖춘 복합 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³⁰⁾

다. 하일지의 『경마장 가는 길』(1990) · 『새』(1999), 허구와 현실의 모호함

하성란 소설가와는 달리 하일지 소설가는 피비우스 띠처럼 환상과 현실이 집요하게 연결되고 반복되는 『새』(1999)라는 작품을 통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남산’의 관습적 이미지들을 찢어버린다. 먼저 하일지의 작품 세계를 고찰해보자.

1990년 11월에 출간된 하일지의 『경마장 가는 길』은 현실과 환상을 넘나들며 집요하게 붕괴된 ‘리얼리티’를 보여준다. 소설가는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평단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며 극찬과 혹평을 동시에 받는다. 특히 그의 작품으로 인해 촉발된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은 한국 문학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왔다.

이 소설의 핵심 문장이자 하일지 소설가가 추구하는 소설 미학은 다음과 같다. “나는 이 서울이야말로 송두리째 하나의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³¹⁾ 그렇다. 현실이 콘크리트처럼 완강하게 닫혀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비현실적인 환상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 가령,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지하철을 타고 직장 출근하고 엇비슷한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전혀 깨질 수 없을 듯한 그 완강한 ‘반복’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물론 그 ‘균열’이란 ‘나’의 정신에서 시작하는 것이겠지만 그 ‘정신’은 이미 현실을 벗어난 채 스스로를 잠식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이따끔 내가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알이 기록해 두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하나의 소설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 그걸 있는 그대로 기록해 두면 대단히 신비한 느낌을 자아내게 하는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 되리라고 생각해.”³²⁾

30) ‘1970~90년대 서울 풍경 바꾼 주역, 힐튼 호텔 설계한 원로 건축가 김종성’ 〈조선일보〉 2021.12.11일자 참조.

31) 하일지, 『경마장 가는 길』, 민음사, 1990, 218쪽.

32) 하일지, 앞의 책, 219쪽.

위의 문장이 말하는 것처럼,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세계들이 오히려 가장 허구적일 수 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때론 급박하게 돌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 발 물러서서 넌지시 바라보면 그 견고한 현실에 그림자처럼 매달려 있는 무언가를 느끼게 된다. 허무와 멜랑콜리 사이에 달라붙어 있는 그것은 어쩌면 소설과도 같은 환상일지 모르겠다. 이런 측면에서 허구란 현실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지속되는 ‘남산’은 환상의 진입로가 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 ‘환상’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경마장 가는 길』은 현실과 허구의 대립이 아니라 현실(세계)과 현실(자아)의 대립을 통해 허구를 이끌어내는 특이한 작품이다. 여기서 바로 ‘남산’이 등장하는데 다음 문장들을 보자.

J는 어디로 갈까 하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R이 생각이 났다는 뜻이 말했다.

“우리 남산엘 가보기로 하지.”

“남산예요? 남산엔 왜요?”

“왜는 왜니? 내가 아는 데는 거기뿐이고, 게다가 우리가 전에 연애했던 시절에 자주 갔던 데니까 한번 가보고 싶어지는 거지.”

“그렇지만 내가 남산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남산을 못 찾다니? 서울에서 남산만큼 찾기 쉬운 데가 어디 있다고. 서울 어디서나 남산을 뵈히 보이는데. 바로 저기가 남산이 아니냐?”

R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남산을 가리켜 보이며 말했다.

“제 말은 남산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J의 목소리는 약간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남산으로 가는 길은 내가 잘 알지.”

R은 다소 여유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탄 차는 R이 지시해주는 대로 우선 제3한강교를 건너 한남동 쪽으로 달렸다. J는 무엇인가 몹시 불안해하는 눈치였다. R은 그녀의 옆에 앉아 길을 지시해주며 서울에서는 그래도 남산만 한 데가 없다는 이야기며 그들이 처음 연애에 불붙어 있을 때 밤에 남산에 가서 J의 뼈가 으스러지도록 껴안았던



하일지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장선우 감독의 영화 <경마장 가는 길> 포스터

이야기며 그리고 약수터 가에서 처음으로 그녀의 젖꼭지에 입술을 댔던 따위의 이야기를 농담처럼 말했다. R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J는 사뭇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 표정도 나타내지 않고, 길만 바라보고 있었다.

국립극장 앞을 지나 남산으로 오르는 길과 남산을 빙 돌아 남대문 쪽으로 빠지게 되는 갈림길에 가까워지고 있었을 때 R은 그녀에게 남산 꼭대기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곧 왼쪽으로 차를 꺾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던지 그만 오른쪽 길로 접어들어 버렸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 순간 R이 이렇게 소리쳤다. 그러자 J는 깜짝 놀라며 “어디요? 어디요?”

하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남산 꼭대기로 올라가자고 했잖니. 남산 꼭대기로 올라가려면 왼쪽으로 갔어야지. 그러나 상관없다. 어디서 돌릴 수 있을 거야. 좀 가다 보면 쉴 만한 데도 있어.”

R이 말했다. J는 오른쪽 길을 따라 장충단공원 쪽으로 돌아 송의음악당 뒤편 길로 접어들었다. R은 이 길이 봄이 되면 얼마나 많은 꽃이 피는가, 그러나 서울의 어디보다도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J는 길이 휘어질 때마다 몹시 불안해했다. 그리고 이내 피로한 기색을 드러냈다. 게다가 R이 말했던 것과는 달리 차를 돌릴 만한 장소도 없었고 주차해둘 만한데도 마땅치 않았다. J는 사뭇 아무 말 하지 않고 운전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그래서 R은 그녀에게 다소 미안해져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만 같이 느꼈던지

“여기가 그 유명한 안기부라는 데지? 너의 둘째 오빠 지금 여기 일하고 있겠네?”

하고 정보기관이 있는 뒷길을 달릴 때 철조망이 쳐진 데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는 그

러나 역시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들이 탄 차는 결국 그 길의 끝, 말하자면 남산 야외음악당 쪽으로 빠져나와 버렸고, 대로에서 J가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초조해했기 때문에 R이 상세히 길 지시를 하여 그들은 국립도서관 앞에 있는 소월시비 앞에다 차를 세우기에 이르렀다.³³⁾

R은 ‘남산’에 가자고 말한다. J는 하필 남산이냐고 묻는데, R은 자기가 아는 데는 ‘남산’ 말고는 없다고 재차 말한다. 그런데 J는 “그렇지만 내가 남산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라고 짜증이 섞인 말투로 대답한다. R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남산을 가리키며 “남산을 못 찾다니? 서울에서 남산만큼 찾기 쉬운 데가 어디 있다고. 서울 어디서나 남산을 뵈히 보이는데. 바로 저기가 남산이 아니냐?”고 재차 말한다. 마치 이발소에 걸린 흔한 풍경화처럼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J는 남산을 못 찾는다고 말했던 것이다. 물론 ‘남산’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길을 모른다는 뜻이었지만, R에게는 웬지 모를 적막감을 주는 대답이었다.

남산으로 향하면서 R은 옛날 J와의 연애담을 입에 올린다. 하지만 J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묵묵할 뿐이다. R은 J에게 계속 길을 알려주지만 J는 귀담아듣지 않는지 R이 일러준 길과 계속 어긋난다. 하일지 소설가는 이러한 분위기를 마치 카메라에 담아내고 있는 듯 건조하게 묘사한다. “J는 오른쪽 길을 따라 장충단공원 쪽으로 돌아 승의 음악당 뒤편 길로 접어들었다. R은 이 길이 봄이 되면 얼마나 많은 꽃이 피는가, 그러나 서울의 어디보다도 사람들이 봄비지 않는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J는 길이 휘어질 때마다 몹시 불안해했다. 그리고 이내 피로한 기색을 드러냈다. 게다가 R이 말했던 것과는 달리 차를 돌릴만한 장소도 없었고 주차해둘 만한데도 마땅치 않았다. J는 사뭇 아무 말하지 않고 운전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남산’이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 있는 일종의 결계와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도 그럴 것이, R의 기억에 잠겨 있는 ‘남산’과 J의 그것은 전혀 다른 색채와 표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남산이라는 기표는 그들에게는 서로 다른 기의

33) 하일지, 앞의 책, 187쪽.

를 가진 존재이며, 이러한 사태는 독자들의 시선에 균열을 내며 환상을 만들어낸다.

『경마장 가는 길』의 성공 이후 하일지는 소위 ‘경마장’이라는 상징성을 더욱 확대하여 『경마장은 네거리에서』, 『경마장을 위하여』, 『경마장의 오리나무』, 『경마장에서 생긴 일』 등 ‘경마장’ 시리즈를 연이어 발표했다. 그리고 1999년 7월에는 우리가 살펴볼 장편소설 『새』를 발표하게 된다. 이 소설은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를 삼켜버린 IMF의 혹독한 시련을 기반으로 한 알레고리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현실 속에 환상이 뒤범벅이 된 채, 그리고 시간도 공간도 그 논리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 전개되고 있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예상 외로 간단하다. 40대 중반에 접어든 주인공 ‘A’는 무려 16년을 다니던 증권회사에서 해직통지서를 받는다. 그는 도쿄호텔 엘리베이터에서 까마귀로 보이는 ‘검은 새’와 마주치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겪게 된다. 마침내 가족을 찾게 되지만, 이미 가족들의 곁에는 다른 ‘A’가 그의 행세를 하고 자신이 진짜라고 아무리 우겨도 그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된다. 결국 지하철 노숙자들 틈에 끼는 신세가 되지만, 여기서도 A는 놀라운 일을 겪는다. 대부분의 노숙자들의 삶이 A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A는 검은 새가 되고 또 다른 퇴출 직장인의 뒤를 따라간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복도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섰던 A는 마침내 되돌아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리고 1층을 눌렀다. 소리 없이 하강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는 이제 A 혼자뿐이었다.

A는 약간 걱정스러워졌다. 함께 온 장님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으니까 말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홀가분하기도 했다. 끊임없이 A 주변을 맴돌며 치근덕거리던 장님이 이제 사라져버렸고, A는 이제 그 아름다운 젊은 부인이 잠자고 있을 달빛 가득히 쏟아지고 있는 침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말이다.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멎었다. 이어 문이 열렸는데 그 순간 A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흠칫 몸을 떨었다. 그도 그럴 것이 조금 전, 그가 장님을 따라 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와는 달리 엘리베이터 밖은 어느새 환하게 날이 밝아 있었고, 홀 저편 유리문을 통해 보이는

건물 밖에는 수많은 차들이 질주하고 있는 눈에 익은 거리가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A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찬찬히 살펴보니 유리문을 통해 내다보이는 건물 바깥풍경은 그러고 보니 남대문에서 남산으로 오르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가 들어와 있는 건물은 다른 아닌 도교호텔 빌딩이었다.

「아!」

그 순간 A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잠시 후에야 A는 정신을 차리고 좀 더 찬찬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틀림없었다. 저 멀리 남산이 보이고, 케이블카가 남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들어와 있는 도교호텔 빌딩 안은 공휴일이라서 그런지 조용했다.

A는 서둘러 건물 밖으로 달려나갔다. 길거리에는 언제나처럼 수많은 차들이 질주하고 있었고, 저만치 보이는 남대문시장 입구 쪽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리고 남대문 저편 광화문 쪽으로 난 길로는 서양 수도사들의 망토같이 고깔이 달린 흰옷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가고 있었다. 시위를 하려고 몰려가는 데모대처럼 말이다.

그 너무나도 일상적인 서울의 풍경 앞에서 A는 갑자기 울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달빛 가득히 쏟아지고 있는 침상에 누워 혼자 자고 있을 젊은 부인의 모습이 이제 그에게는 허공에 떠 있는 구름처럼 도저히 손에 잡을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A는 자신의 실종을 알게 된다.

A의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일상은 너무나 선명하여 아무런 뉘앙스도 느껴지지 않는 칼라사진 같았다. 그런 길거리를 한동안 바라보고 섰던 A는 문득 무슨 생각을 했는지 도교호텔 빌딩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다. 푸른 달빛이 쏟아지고 있는 침상에 누워 혼자 잠들어 있을 그 아름다운 부인의 이마에 작별의 키스라도 하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다시 남천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다. 그가 탄 엘리베이터가 1층과 27층 사이를 수없이 오르내렸지만 문이 열릴 때마다 번번이 A 앞에 나타나는 것은 27층의 복도와 1층의 로비뿐이었다.³⁴⁾

34) 하일지, 『새』, 민음사, 1999, 237쪽.

주인공 ‘A’는, 그가 갑작스럽게 겪어야 했던 모든 이상한 일들의 시퀀스가 다 소진되었다는 착각에 빠진다. 그는 마침내 되돌아왔고 엘리베이터를 탔으며 1층을 눌렀다. 함께 온 장님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려 씩씩한 기분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마음이다. 그가 탄 엘리베이터는 현실로 직하강하고 있으니 지금은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A는 순간 너무나 놀라고 만다. 시간이 또 엉켜버렸기 때문이다. 조금 전, 그가 장님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와는 달리 엘리베이터 밖은 어느새 환하게 날이 밝아 있었고, 홀 저편 유리문을 통해 보이는 건물 밖에는 수많은 차들이 질주하고 있는 눈에 익은 거리가 나타났다. 그 풍경의 정체는 “남대문에서 남산으로 오르는 길”이다. 그리고 그가 들어와 있는 건물은 ‘도쿄호텔’이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저 멀리 남산이 보이고, 케이블카가 남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A는 건물 밖으로 달려나간다. 수많은 차들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고, 너무나도 일상적인 서울의 풍경—“저만치 보이는 남대문시장 입구 쪽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리고 남대문 저편 광화문 쪽으로 난 길로는 서양 수도사들의 망토같이 고깔이 달린 흰옷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가고 있었다. 시위를 하려고 몰려가는 데모대처럼 말이다.”—은 소름이 돋도록 확실하다. 그가 아무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곳을 벗어나려 해도 불가능했다. 엘리베이터는 오로지 1층과 27층 사이를 수없이 오르내릴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갑자기 깨닫는다. 다시는 ‘남천’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환상이라는 미로에 갇혀 더 이상 현실로 통하는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작품에서도 남산은 일상 속의 또 다른 일상, 혹은 현실의 불가해한 이면으로 그려진다. A가 보았던 남산의 풍경들은 결코 전과 동일한 풍광을 연출하지 않는다. 현실은 균열되었고 환상은 이제 다른 시퀀스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3장 역사를 이어온 삶의 터전, 남대문시장

승례문과 서울역이 맞닿는 곳에 우리나라 최대의 시장이 있다. 바로 ‘남대문시장’이다. 약 2만여 평에 달하는 대지에 빼곡하게 들어선 1만여 개의 점포는 실로 방대해 그 세세한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다. 시장 종사자 수는 상인들을 포함해 약 5만 명에 달한다. 1일 방문객 수도 30만에 육박하며, 외국인 방문객은 무려 1만여 명이다. 하루 1천 7백 대의 차량이 시장을 드나들고, 하루에 반출되는 물동량만 따져도 1천 7백여 톤이다.

규모가 이쯤 되니 남대문시장을 전국 각지의 물품들이 집결되고 빠져나가는 중앙집산지라 명명해도 과언은 아니겠다. “남대문시장에 없으면 서울 어디에도 없다”고 혀를 내두르거나 “남대문시장엔 고양이뽕 빼고 다 있다”고 농담을 해도 그 말의 진위를 의심할 사람은 없겠다.

남대문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의 역사를 집약하고 있다고 해도 자연스러울 정도다. 600여 년의 시간이 고농축으로 압축되어 있으니, 어느 하나 소홀하게 대할 수 있을까. 남대문시장은 조선 태종 14년인 1414년 조정이 감독하는 시전 형태로 출



일제강점기의 남대문 주변 항공사진(1940년대,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발했다. 나라에서 몇몇 상인들에게 일종의 ‘정부 임대전’ 형식으로 자리를 내어준 것이 남대문시장의 시초다. 선조 41년인 1608년에는 대동미(大同米)와 포(布), 전(錢)의 출납을 맡아보는 선혜청이 지금의 남창동 일대에 설치되면서 지방 특산물 등도 매매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객사(客舍), 주막, 도매상, 중개상이 법석대는 시전으로 규모는 더 확장되었다. 1897년에는 최초의 근대적 상설시장으로 인정받아 상거래의 기틀을 잡기 시작했다.

1922년 조사에 따르면 남대문시장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77%였고, 수산물 5%, 기타 17%였다. 같은 해 시장의 경영권이 일본인 회사인 <중앙물산주식회사>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명칭도 <중앙물산시장>으로 바뀌었다. 광복 후에는 ‘남대문시장상인연합회’가 꾸려졌으며 1964년 건물주와 상인들이 공동 출자한 주식회사 형태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요컨대, 남대문시장은 실제 물리적 장소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지니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역사와 이념의 장소로서의 가치다.

6월 10일 그날, 남대문 앞의 가투는 최루탄과 화염병이 무섭게 쏟아진 치열한 격전이 었다.³⁵⁾

둘째는 생활 터전으로서의 절박함이다.

“아무튼지간에 보리떡 한 보따리를 해 이고 한 달을 걸었다 카든가 보름을 걸었다 카든가, 서울에 가기는 갔는데 목수 김두만을 어이서 찾을 기든고 ?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다마는 수일간을 찾아 헤매다가 굶고 지쳐가지고 남대문 밖에서 해장작걸이 나 자빠져 있었다는 게지. 참말이지 모자 상봉을 옛적 얘기책으로 들었네마는 바로 두만어 매 모자 상봉이 얘기책 그대로다 그거라.”³⁶⁾

나는 꼬마들 몇 명과 어울려 다니면서 남대문시장을 사는 터전으로 삼았다.³⁷⁾

남대문 근처의 공터에 우리 작업장이 있었는데 폐품을 주워다가 분류해서 넘기는 일을 각자 분담해서 해 나가고 있었다.³⁸⁾

포근한 봄 날씨 속에서 남대문시장 바닥을 거닐고 있으면 왠지 내 삶이 서러워지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회복기의 정신병자처럼 허물허물 웃음을 뿌리다가, 어깨를 으쓱 해 보기도 했다.³⁹⁾

셋째는 부의 상징이다.

35) 현기영, 『누란』, 창작과비평사, 2009, 224쪽.

36) 박경리, 『토지(5)』, 솔, 1993, 76쪽.

37) 황석영, 『어둠의 자식들』, 현암사, 1980, 19쪽.

38) 황석영, 『어둠의 자식들』, 현암사, 1980, 23쪽.

39) 김원우, 「이목구비(耳目口鼻)」, 『인생공부』, 민음사, 1983, 101쪽.

안정된 직장이 있었고, 분단 46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남대문시장에 점포 두 개를 소유하고 있었다.⁴⁰⁾

이처럼 남대문시장의 장소성은 서울의 다른 장소에 비해 역사와 전통이 남다르다. 남대문시장은 명소가 아닌 곳이 드물 지경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보 1호의 웅장한 승례문을 중심으로 아래로는 서울역이 있고, 위로는 시청과 서울시의 회가 있으며, 소공동의 찬란한 아케이드를 넘고, 덕수궁 돌담길을 끼고 돌면 가을의 정취로 가득한 정동길도 보인다. 남산으로 발길을 돌리면 백범광장과 안중근의사 기념관이 지척이며 최근에 조성된 남산 둘레길도 있다.

이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심장인 ‘한국은행’과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우편 관리센터 ‘중앙우체국’은 물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아시아 최고의 관광명소인 명동에 닿는다. 한국전쟁 직후 길을 잃은 예술가들이 모여 문학과 미술, 음악과 연극을 토론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외에도 젊은이들에게 아주 힙한 충무로와 을지로가 도보권 내에 있으니 남대문시장은 분명 서울의 명소이자 우리가 유구하게 지켜나가야 할 장소임에 틀림이 없다.

1. 인간에 대한 통찰과 물신숭배의 양가성, 현대시의 남대문시장

가. 김종삼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1982), 순하고 명량한 사람들의 고향

먼저 남대문시장의 이미지를 가장 절실하고 투명하게 되살린 시를 만나보자. 1982년도에 발표된 이 시의 제목은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인데, 제목만 봐서는 좀처럼 내용을 짐작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시는 좀 특별하다. 한국전쟁 직후 폐허의 명동을 한국문학 생성의 장(場)으로 이끈 주역 중 한 명인 김종삼 시인이 쓴 작품

40) 조창인, 『가시고기』, 밝은세상, 2000, 38쪽.

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 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녘 남대문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 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⁴¹⁾



김종삼 시인(1921~1984)

김종삼 시인은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라는 문장을 통해, 자신을 객관화하며 시에 대한 물음으로 돌입한다. 시가 뭐냐는 질문에, 한평생 시인으로 살아온 그도 “나는 시인이 못 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한다. 그는 그 행간에 스며든 노을빛 여백을 끄집어내기 위해 무교동과 종로, 명동과 남산, 서울역을 걷는다. 발걸음을 재촉하는 거리의 어스름이 짙어져도 도무지 그 답은 요원하다.

어느 저물녘에 시인은 남대문시장 안에서 빈대떡에 막걸리 한잔을 먹고 있었다. 그 넉넉하고 여유로운 맛이, 이를테면 시가 가진 생략과 직관과 닮았다는 생각을 한

41)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196쪽.

다. 아직도 시가 무엇인지, 내 자신이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 없는 시의 정체에 대해 골몰하는데 불현듯 답이 생각났다. 바로 사람들이다! 엄청난 고생을 했어도, 스스로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결백하며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시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명명될 사람들이 여기, 남대문시장 안에 있다고!

적어도 김종삼 시인에게 남대문시장은 순대를 삶아 나는 구수한 냄새처럼 ‘결’이고 ‘다리’이며 ‘생활’이자 ‘희망’인 것이다. 요컨대, ‘남대문시장’은 희망의 따듯함을 걸어 올리는 우물과도 같다는 말이다. 시인은 남대문시장에서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오래된 미래’를 보았던 것이며 그 장소에 붙박인 사람들의 눈빛에서 가장 밝은 표정을 읽었던 것이다.

나. 오규원의 「‘자바자바’ 셔츠」(1987), 물신숭배의 알레고리

오규원 시인이 본 남대문시장의 풍경은, 김종삼 시인과는 사뭇 다르다. 그는 정겨운 사람 냄새로 가득 찬 시장이 아닌, 돈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은 물신(物神)의 남대문시장을 보는 것이다. 그에게 남대문시장은 물신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꽉 찬 위악(僞惡)의 장소였다.

자아바, 자아바/ 쿵(발을 구른다)

고올라, 자바/ 짹(손뼉을 친다)

아무 놈이나/ 쿵, 짹

자아바, 자아바/ 쿵(발을 구른다)

고올라, 자바/ 짹(손뼉을 친다)

여기는 남대문시장 오후의/ 난장이다 티를 파는 이씨는

리어카 위에 올라 육탁(肉鐸)을 친다
 하루의 햇빛은 쿵 할 때마다 흩어지고
 짹 손뼉에 악마구리처럼 물려오고
 여자들은 제각기 두 발로 와서
 이(李)씨의 가랑이 밑에 허리를
 구부린다 엘리제 카사미아 캐논 히포
 아놀드 파마 새미나 마리안느를
 두 손으로 잡는다 건방진 여자들
 한 손으로 제 얼굴까지 바싹 끌어당긴다

상가의 건물은 금강(金剛)의 영혼으로
 여자들의 어깨를 짚고
 여자들은 우뚝 선 이(李)씨 무릎 아래 엎디어



남대문시장의 포장마차 행렬(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자아바, 쿵/ (잡는다)
 고올라, 자바/ 짹짹
 (골라 잡는다)/ 고올라, 고올라
 (젹싸게 고른다)/ 자바자바
 (끌어 당긴다)

여기는 서울의 난장이다/ 이(李)씨는 잡히는 대로 티를
 구석으로 팽개친다

자바자바/ 그놈/ 골라 자바/ 그놈

이 시는 1987년에 간행된 『가끔은 주목받는 생이고 싶다』에 수록된 문제적 작품으로 시인 특유의 날카로운 페이스스가 담겨 있다. 그는 남대문시장에서 호객행

위를 하는 상인들의, 그 경쾌한 리듬을 듣는다. “자아바, 자아바/ 쿵(발을 구른다)/ 고올라, 자바/ 짹(손뼉을 친다)”라는 문장은 마치 우리가 시장에 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생생하다.

남대문시장 오후의 난장이다. “티를 하는 이씨는/ 리어카 위에 올라 육탁(肉鐸)을” 치고 있다. 박수 소리가 우렁чал 때마다 사람들은 제각기 두 발로 와서 이씨의 가랑이 밑에 허리를 구부린다. “엘리제 카사미아 캐논 히포/ 아놀드 파마 새미나 마리안느” 등 값싸고 좋은 물건을 골라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 광경이 불편하다. 시인은 물신화된 우리 사회의 그 섬뜩한 이면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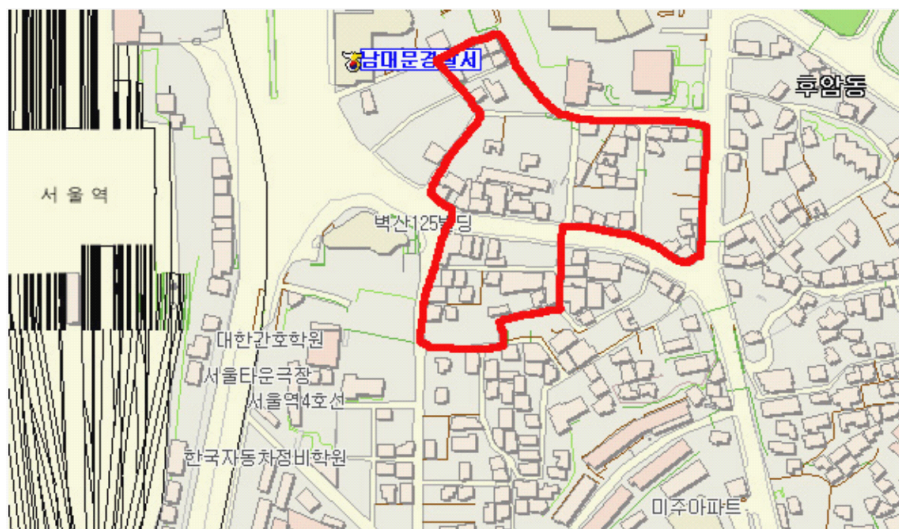
다. 김신용의 「양동시편」(1988), 철저한 자기부정의 시

김신용 시인에게 남대문시장은 자신의 삶이 통렬하게 부정되는, 그러나 바로 거기서 자신의 밑바닥을 일으켜 세우는 욕망의 장소이다. 시인은 남대문시장을 배회하면서 스스로를 가장 먼 곳까지 밀어내는 동시에, 뱃속에 고인 내면의 악취와 욕망들을 토해냈다.

백다귀집을 아시는지요
지금은 헐리고 없어진 양동 골목에 있었지요
구정물이 똑똑 듣는 주인 할머니는
새벽이면 남대문시장바닥에서 주워온
돼지뼈를 고아서 술국밥으로 파는 술집이었지요
뉘 입에선지 모르지만 그냥 백다귀집으로 불리우는
그런 술집이지만요
어쩌다 살점이라도 뜯고 싶은 사람이 들렀다가는
찌그러진 그릇과 곰팡내 나는 술청 안을
파리와 바퀴벌레들이 거미줄의 현을 고르며 유유히
흙친 자리를 도리어 더럽힐 것 같은

걸레 한 움큼 할머니의 꿀을 보고는 질겁을 하고
 뒤돌아서는 그런 술집이지만요
 첫새벽 할머니는 백다귀를 부연 뱃물이 우러나오도록
 고아서 종일도록 부연 뱃물이 희게 맑아질 때까지
 맑아진 뱃물이 다시 투명해질 때까지
 밤새도록 폭 고아서 아침이 오면
 어찌다 붙은 살점까지도 국물이 되어버린
 그 백다귀를 핥기 위해
 뼈만 앙상한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들지요
 날품팔이지게꾼부랑자조록꾼두쟁이시라이꾼날라리똥치꼬지꾼
 오로지 몸을 버려야 오늘을 살아남을 그런 사람들에게
 몸 보하는 디는 요 국물이 제일이랑께 하며
 언제나 반겨 맞아주는 할머니를 보면요
 양동이 이 땅의 조그만 종기일 때부터
 굶아 난치의 환부가 되어버린 오늘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백다귀를 고으며 늙어온 할머니의
 뱃국물을 할짝이며
 우리는 얼마나 그 국물이 되고 싶었던지
 백다귀 하나로 펄펄 끓는 국물 속에 얼마나
 분신하고 싶었던지, 지금은 힐튼 호텔의 휘황한 불빛이
 머큐롬처럼 쏟아져 내리고, 포크레인이 환부를 굶어내고
 거기 군처럼 꿈틀거리던 사람들 뽀뽀이 흩어졌지만
 그러나 사라지지 않은 어둠 속, 이 땅
 어디엔가 반드시 살아 있을 양동의
 그 백다귀집을 아시는지요⁴²⁾

42) 김신용, 「양동시편」, 〈현대시사상〉 1집, 고려원, 1988.



남대문로5가(양동) 쪽방 지도(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쪽방 사람들』, 2002)

위 시에서 언급되는 ‘양동’(陽洞)은 한자 그대로 별이 좋다며 붙여진 이름이다. 서울역 앞 남대문경찰서 뒤쪽 언덕에 위치한 쪽방촌이다. 쪼개고 또 쪼개 만들어져 ‘쪽방’이라고 불리는, 비록 한 평 남짓한 비좁은 공간이지만 삶은 존재하고, 희로애락도 있는 법이다.

시인은 그 양동 언저리에서 자리한 ‘뽕다귀집’에 앉아 있다. 힐튼호텔의 휘황한 불빛과는 무척 대조적인, 구정물이 푹푹 듣는 주인 할머니가 새벽마다 남대문 시장 바닥에서 돼지 뼈를 주워 와서는 술국밥으로 만들어 파는 술집이다. 간판도 변변치 않은 허름한 집이라 이름도 역시 근본은 없다. 누군가 먼저 시원찮게 부른 것이 이름이 된 것. 이 술집을 찾는 사람들도 주인 할머니와 다름없이 동전 몇 푼에 짚은 돼지 냄새와 쓰디쓴 소주에 머리끝까지 담가지고 싶은 사람일 것. 만일 살점이라도 뜯고 싶은 사람들이 들렀다가는 “걸레 한 움큼 할머니의 꼴을 보고는 질겁”할 것이다.

그러나 첫새벽 길을 나서는 할머니의 걸음은 무겁고도 경쾌하다. 술집을 찾는 “날뽕팔이지게꾼부랑자쪼록꾼뚜쟁이시라이꾼날라리똥치꼬지꾼”들에게 아쉽더라도 넉넉한 고깃국물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돼지뼈는 커다란 양동이에서 끓는다. “뿌연 뽕물이 우러나오도록” 끓이고, “고아서 종일토록 뿌연 뽕물이 희게 맑아질 때까지/

맑아진 뱃물이 다시 투명해질 때까지” 밤새도록 폭 끓이는 것이다. 오로지 몸을 버려야 오늘을 살아남을 그런 사람들에게 할머니는 매몰차지만 깊은 속내를 숨기지 않으며 말한다. “몸 보하는 디는 요 궁물이 제일이랑께 하며/ 언제나 반겨 맞아주”는 것이다. “양동이 이 땅의 조그만 종기일 때부터/ 끓아 난치의 환부가 되어버린 오늘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뽕다귀를 고으며 늙어온 할머니의/ 뱃국물을 할짝이며/ 우리는 얼마나 그 국물이 되고 싶었던지.” 시인은 느지막에야 고백한다. “뽕다귀 하나로 펄펄 끓는 국물 속에 얼마나/ 분신하고 싶었던지”라며 말이다.

이 시의 백미는 마지막에 있다. 늙은 할머니의 뽕다귀집은 재개발로 사라져버렸지만, 그러나 이 땅, 이 어둠 속 어딘가에는 반드시 살아 있다는 놀라운 선언을 우리는 듣는다. 우리는 이미 그 술집 한 구석에 자리를 차지하고, 돼지뼈에서 뿌연 뱃물이 우리나라오는 냄새를 황홀하게 맡는 것이다.

라. 서정희의 「남대문시장」(2020), 600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의 기록

김종삼과 김신용의 시가 남대문시장 속에서 직접 보고 들으며 체험한 역사라면, 서정희의 「남대문시장」은 남대문시장의 찬란한 이력을 담고 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흥청거림 속에
 사람 냄새 일상의 냄새
 샤넬 향수보다 진하고 값지다.
 일상의 생활필수품 죄다 한 자리에 모아
 날마다 큰 잔치 연다.
 신분, 지체 남녀노소 고하를 막론하고
 치열하고 경이로운 삶의 바탕
 통속으로 일괄하는 현장이다.

목판 위에 누워 있는 생선

푸른 바다가 일렁이고
풍요로운 들을 낀
싱싱한 채소가 나뭇이 대령하고
지구 어디에도 없는 작선하는 돼지머리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로 큰절 받고 미소로 화답한다.
태고와 현대의 문명이 오순도순 어깨동무하고
주거니 받거니 흥정 속에 인정이 무르익는다.

돌아보면 태종 14년(서기 1414년)에 태어나
자그마치 600여 년을 웃도는 역사를 고스란히 품에 보듬고
대한민국 심장 서울 한복판에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 재래시장
밤낮없이 밀려오고 밀려가는 인파를 타고



각종 수입품, 개성 있는 생활잡화, 인테리어 및 장식용 소품을 취급하는 남대문시장 내 대도종합상가

날마다 40만여 명이 드나드는 역사의 장
 모나고 거친 일상 등글게 돌아가며
 아쉬운 것 모자라는 것 채워주고 또 채워주며
 다사다난한 하루가 또 하루를 물어 나르는
 펄펄 살아 있는 우리의 자랑 남대문시장.⁴³⁾

시인이 노래하듯, 남대문시장은 “자그마치 600여 년을 웃도는 역사를 고스란히 품에 보듬고/ 대한민국 심장 서울 한복판에/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 재래시장”이다. 태종 14년에 발아(發芽)하고, 지금까지 반백년을 훌쩍 넘는 시간을 곳곳하게 버틴 그 과묵함과 우직함에 시인은 찬사를 보내는 것이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흥청거림 속에/ 사람 냄새 일상의 냄새/ 샤넬 향수보다 진하고 값지다./ 일상의 생활필수품 죄다 한 자리에 모아/ 날마다 큰 잔치 연다./ 신분, 지체 남녀노소 고하를 막론하고/ 치열하고 경이로운 삶의 바탕/ 통속으로 일괄하는 현장이”라는 문장은 확실히 남대문시장의 이름값을 밝히는 문장이 아닐까.

2. ‘그래도 삶은 지속된다’, 현대소설의 남대문시장

가. 김민숙의 『남대문』(1978), 사람살이의 직관적 통찰

김민숙 소설가의 눈에 비친 ‘남대문시장’은 생활의 일터로서 무척 분주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는 1978년 9월, 신동아에 단편 「남대문」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활동적이고 생기로운 이미지를 구체화한다.

준식은 잠시 멈추어 서서 남대문을 바라다봤다. 남대문의 오른쪽 뒤편으로 보이는 남대

43) 서정희, 「남대문시장」, 〈문예운동〉, 2020. 5., 문예운동사, 70~71쪽.

문시장에서는 벌써 음모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꼭 반역을 모의하는 장병들의 작은 집단처럼 꾸물댄다. 요컨대 남대문시장만이 벌써 잠을 깬 것이다.

준식은 걸음을 재게 걷는다. 빨리 가봤자 뵈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쯤서 남대문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항상 마음이 급해지곤 하는 것이다. 하나는 잡아야 할 텐데…….

도규호텔 앞에는 청소부들이 나와 길을 쓸고 있다. 비 쓰는 소리가 귀에 상쾌하다.

지하도를 건너오자 벌써 가게들의 셔터 올리는 소리들이 들들들 하고 요란하게 들려온다.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준식은 자기의 등짝에서 누군가 태엽을 감아주는 것 같아 괜히 어깨를 한 번 움찔한다. 이걸 아무래도 지하도에서 장난감을 파는 상인이 로봇의 등에 달린 태엽을 감아주는 걸 너무 오래 구경한 탓일 거다. 태엽을 감기만 하면 그놈의 로봇은 꼭 저 셔터 올리는 소리로 들들거리면서도 뚜벅뚜벅 걷고, 한 바퀴씩 물구나무 서기를 하곤 했던 것이다.

천 6백 원씩이나 하니 이틀 하숙비다 싶어서 사진 못했지만 언제든 다섯 건만 올리면 사리라고 마음먹은 터였다.

청과물시장 골목 안에는 벌써 야채를 싣고 온 트럭들로 붐벼 경적소리가 시끄러웠다. 물건을 사들이러 온 사람, 리어카꾼, 지게꾼 등이 제각끔 바쁘게 설쳐대는 사이로 준식은 마치 구경꾼인 양 유유히 둘러보며 걸어들어갔다.

이 생활 3년에 준식은 한 번 보기만 하면 일자리를 구하는 얼굴을 대번에 가려낸다. 보통이를 들었건 안 들었건, 남대문시장 근처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놓치는 법이 없다. 그 저 먼빛으로 슬쩍 스치기만 해도 대번에 아, 저건 오늘 올라온 놈이군, 저건 일하던 집에서 뛰쳐나온 놈이군, 하고 구별이 가는 것이다.

한 달이 멀다 하고 옮겨다니는 단골이야 굳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제 발로 다방에까지 와주니까 이 시장 안에서는 대개 새로 올라오는 상송들을 많이 잡는 게 수였다.

그런데 어저께는 시장 초입에서 벌써 야채를 사들이던 중국 사람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것이다. 그것도 두 명씩이나.

일단 주문을 받으면 일은 다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혹시 애들을 못 잡는다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붙여주면 구문의 반은 먹는 거니까.

준식의 일이란 건 바로 인간 복덕방이라고나 할 종류의 것이다. 남대문 근처에도 관인
직업소개소가 많이 있었지만 어떤 일인지 별다른 기술이나 배운 거 없이 직업을 구하
는, 특히 중국 음식점이나 식당 같은 곳으로 도는 사람들은 대개 다 이쪽으로 몰리는 것
이다. 또 시골에서 갓 올라와서 직업소개소 같은 데는 문턱도 넘어설 줄 모르고 남산이
나 서울역, 서부역 따위에서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은 으레 준식이네 쪽으로 모여들기
마련이었다. 개중에는 남대문시장에 나가 있으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다.

주로 중국 음식점이 대상이기 때문에 중국 식품을 팔던 북창시장에서 시작한 이 장사는
요즈음 들어 차이나타운이 없어지면서 남대문으로 장소를 옮긴 것이다. 이 남대문시장
에만도 준식이 같은 사람들이 2백여 명이나 있다.⁴⁴⁾

주인공 준식은 이른 새벽에 남대문 앞을 지난다. 잠시 멈춰 서서 남대문을 바라
보고, 내친김에 오른쪽 뒤편으로 몸을 돌린다. 벌써 잠에서 깨어난 남대문시장이 있
다. 준식의 눈에 남대문시장은 마치 “반역을 모의하는 장병들의 작은 집단”처럼 보
인다. 왜냐하면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으로 가지고 특정한 행동을 하며,
또한 타자들과 어울려 특정한 실랑이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준식은 다시 걸음을
빠르게 옮긴다.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모의하는 장병들처럼 접근하기 쉽지 않은 장
소에는 까닭 모를 조바심과 공포가 어우러져 있다.

준식은 청과물시장으로 진입한다. 그는 옷깃을 다시 여미고 뭔가를 다짐하는 듯
큰 숨을 내쉰다. 청과물시장 골목 안에는 벌써 야채를 싣고 온 트럭이 뿔뿔하고 있다.
시끄러운 경적소리를 뒤로하고, 물건을 사러온 사람과 물건을 배달하는 리어카꾼이
나 지게꾼들이 바쁘게 설쳐댄다. 준식은 마치 구경꾼인 양 유유히 둘러본다. 그리고
는 그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새긴다. 그는 사람을
한번 보고는 단번에 그의 이력을 술술 읊어낼 수 있을 만큼 특이했다. 이러한 습관
아닌 습관이 몸에 배게 된 것은 소위 직업 소개꾼으로 분류되는 ‘인간 복덕방’ 생활

44) 김민숙, 『남대문』, 정통한국문학대계(68), 어문각, 1996, 81쪽.

을 3년이나 했기 때문이다.

준식의 타킷은 “별다른 기술이나 배운 거 없이 직업을 구하는, 특히 중국 음식점이나 식당 같은 곳으로 도는 사람들”이다. 또한 “시골에서 갓 올라와서 직업소개소 같은 데는 문턱도 넘어설 줄 모르고 남산이나 서울역, 서부역 따위에서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이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음을 준식은 경험으로 안다.

남대문시장이 600년이 넘도록 이어올 수 있는 이유도 어쩌면 여기에 있을 것이다. 물건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그러한 ‘장소’가 만들어지면 바로 거래를 둘러싼 갖가지 사업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다. 김민숙 소설가의 통찰은 사람살이의 이러한 생리에 집중되었으며, 이를 현실감 있는 생생한 문장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나. 현기영의 『위기의 사내』(1991), 자유와 민주주의의 거리

현기영 소설가의 단편 「위기의 사내」는 1987년 6월 항쟁에 녹아든 작가 자신의 자전적 서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작가의 내면이 충실하게 녹아 있는 작품이다. 물론 1987년 6월 항쟁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까닭에 역사의 보고(기록)로도 읽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이 작품에서 치열한 작가 정신을 읽게 된다.

버스는 한 정거장도 채 못 가서 다시 시위현장에 걸려든다. 신세계백화점 앞이다. 앞 버스들이 회차하는 걸 보고 기웅은 친구와 함께 차에서 내려 버린다. 타닥타닥, 다발탄 터지는 소리. 최루탄이 유리창을 뚫고 쳐들어갔는지, 버스 한 대가 차창으로 모락모락 가스 연기를 뿜어내고, 승객들이 허겁지겁 양쪽 출구로 쏟아져 나온다. 기웅은 거기서 우연히 젊은 시인 세 명을 만났지만 독가스에 눈물겨워 서로 인사 수작이 변변치 못하다. 그중에 재질이 돋보이기는 역시 김의경, 요새 읽은 그의 시 중에는, 부잣집 아이가 2천 원을 훔쳤을 때는 그것은 범죄가 아니라 장난거리로 취급되고 이를 훔은 가난한 아이가

그것을 훔쳤을 땐 도둑이 되어 형무소에 간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기웅은 한때 대학 선배랍시고 그 앞에서 이것저것 아는 체 목에 힘주곤 했었다. 그러나 요 이 년 사이에 후배는 필화를 입어 학교에서 해직당하고 옥고까지 치른 빈틈없는 투사가 되었고 선배는 전보다 더 쪼그라들었다. 회식 자리에서 같은 곡이라도 ‘늙은 투사의 노래’와 ‘늙은 선생의 노래’, 후배와 선배가 선택하는 가사가 다르다. 쌍방 간에 팽팽한 힘의 균형을 이룬 가운데 싸움이 진행되는 듯하더니, 얼마 후 다른 전경대가 뒤에서 나타나 시위대의 후미를 덥석 물어 버린다. 시위 군중이 일시에 무너지면서 산지사방으로 튀어 달아나고 그 와중에 기웅은 기자도 시인도 잃은 채 학생시위대 속에 휩쓸려 남대문시장 안으로 피신한다. 시장 안에서 이 골목 저 골목에 학생들이 잔뜩 몰려서 눈물을 쏟으며 잠시 숨을 돌린다. 시장은 철시되어 가게마다 셔터를 내리고 노점 가판대들도 비닐천을 덮고 고무줄로 열기설기 묶어 놓고 있지만 여기저기에 학생들을 위해 떠놓은 양동이 물이 있어 이곳 상인들의 시국관을 짐작할 만하다. 그런대로 몇 군데 좌판이 벌어져 아낙네들이 눈물, 콧물을 연상 훔치며 허기진 학생들에게 떡, 김밥, 과일 따위를 팔고 있다. 하기는, 병정들 주둔한 곳에 주모 아줌마가 없을 수 없지. 그러나 전경대는 악착같기도 시장 안까지 쫓아 들어왔다. 골목 입구에 각목을 들고 서 있던 돌파조 학생들이 후퇴하라고 소리치고, 뒤미처 시장 안으로 최루탄이 무섭게 터진다. 학생들은 서두르지 않고 “질서, 질서” 연호하면서 거기에 발맞춰 침착하게 후퇴한다.

학생들 속에 끼여 덩달아 뛰어가던 기웅은 더 이상 따라갈 기력을 잃고 셋길로 빠져 버린다. 얼마나 독가스를 들이마셨는지 목구멍도, 가슴속에도 화상 입은 듯 화끈거린다. 혹시 기관지나 폐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젠 더 이상 최루가스 마시기가 두렵다. 느닷없이 술 생각이 난다. 아무래도 맥주 두어 병 듬뿍 들어가야 몸에 전 최루가스를 씻어 낼 수 있을 것 같다.

회현동 큰길로 나오니, 거기도 이제 막 큰 싸움이 거쳐갔는지 시위대는 보이지 않고 전경 1개 중대가 돌멩이와 최루탄 분말이 어지럽게 널린 아스팔트 위에 퍼질러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멈춰 섰던 버스들도 이때다 싶어 재빨리 달아난다. 기웅은 골목 어귀에 마침 문 열고 있는 간이식당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간다.⁴⁵⁾



남대문시장에 떨어진 최루탄을 피해 흩어지는 시위대와 시민들(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87년의 6월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제5공화국의 말기다. 소위 체육관 대통령으로 불리며 광주민중항쟁을 비롯해 국민을 억압했던 전두환 정권은 1986년을 기점으로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대통령을 뽑고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총칼도 무색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개헌 요구는 국민을 결집했으며 학생과 재야세력 등 민주화 운동 세력과 야당조차 한 묶음으로 만들었다. 전두환 정권의 탄압이 거세면 거셀수록 국민은 물러서지 않고 대오를 더욱 단호하게 했다.

급기야 1987년 1월 14일 자행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전두환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면서 ‘직선제 개헌’과 ‘정권 타도’를 외치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조사한 검찰의 발표가 조작됐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우리가 6월 민주항

45) 현기영, 『위기의 사내』, 한국소설문학대계(72), 동아출판사, 1995, 397쪽.

쟁으로 부르는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의 도화선인데, 이를 계기로 ‘호헌반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만들어졌고, 국본은 대규모 국민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노태우가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6월 10일 정오, 성공회 대성당의 종루에서 42번의 종이 울렸다. 해방된 지 42년 만에 민주주의 새날의 시작을 상징하는 종소리였다. 이를 기점으로 서울 곳곳에서는 시위가 시작되었다. 당일 오후 6시, 성공회 대성당 안의 참가자들은 예정대로 식순에 따라 국민대회를 진행했고, 퇴근길에 소위 넥타이 부대라고 불리는 회사원들이 거리로 쏟아졌다. 차량에서는 우레와 같은 경적이 울렸고, 학생들은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했다.

1987년 6월의 민주항쟁은 18일에 최루탄 추방 대회, 26일에 국민평화대행진으로 이어지면서 마침내 전두환 정권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겠다는 ‘6·29선언’을 이끌어냈고, 7월과 8월의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현기영의 『위기의 사내』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인용한 부분은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전경과 대치하는 시위대의 모습을 재현한다. 남대문시장으로 피신한 시위대와 ‘주모 아줌마’로 일컫는 상인들의 정겨운 모습은 특히나 인상적이다.

다. 성석제의 『소풍』(2006), 본의 아니게 잊어버리고 살아온 것

성석제는 탁월한 이야기꾼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수많은 작품들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웃겼으며, 마음 한구석에 진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엽편(葉片)이라 불려도 될 이 산문집에는 작가가 경험했던 음식과 맛에 얽힌 추억 속에서 사람 사는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다. 그는 음식을 만들고 먹고 나누고 기억하는 행위가 곧 일상을 떠나 마음의 고삐를 풀어놓고 한가로운 순간을 음미하는 소풍과 같다고 말한다. 음식은 “추억의 예술이며 오감이 총동원되는 총체예술”이며, “필연코 한 개인의 본질적인 조건에까지 뿌리가 닿아 있다”는 보기 드문 세계관은 곧 우리 세대가 잃어버린 사람살이를 되살려온 성석제 작가의식으로 향한다. 특히 남대문시장 골목에 대한 집요한 탐구는 가히 우리 시대 문장의 백미라 해도 손색이 없다.

서울하고도 남대문시장 골목에 먹을 게 많다는 걸 알게 된 건 카메라를 사러 갔던 육칠 년 전이다. 사진작가인 후배가 따라가 주었는데 카메라나 렌즈 때문에 남대문시장 수입 상가를 자주 출입하는 그가 카메라를 고르기 전에 데리고 간 곳이 시장의 좁아터진 골목 안에 있는 갈치조림집이었다.攤 데서는 맛보기 힘든 짭조름하고 매콤한 맛을 보고 나오다 보니 골목을 들어가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무엇이 내 눈에 들어왔다. 네모난 어항처럼 식당 바깥으로 돌출된 유리 상자에 찢어놓은 삶은 닭고기가 노적거리처럼 쌓여 있는 것이었다. 분명히 골목으로 들어갈 때는 그 닭고기가 유리 상자 안에 없었다. 밥을 먹고 나오는 사이에 누군가 찢어놓은 것 같았다. 막 밥을 먹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허기를 느꼈다. 물론 배가 고파서 그런 건 아니었다, 아, 저거 먹을 걸 하는 후회 때문도 아니고. 그 허기는 입김이 허열게 피어오르는 추운 날, 군불을 땀 안방 아랫목을 생각하면서 kotnail이 시큰해지는 그런 정서와 닿아 있는 것 같았다. 당장 입고 있는 털옷이나 끼고 있는 가죽장갑과는 상관없는 본질적인 그 무엇, 잃어버렸던 것, 본의 아니게 잊어버리고 살아온 것, 한때 신세를 지긴 했으나 값을 무엇이 있는 건 아닌 그런 것들.

찢어놓은 닭고기는 닭곰탕에 들어갈 것이었다. 그 식당 위쪽에 닭곰탕 전문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으니까 그런 줄 알았다. 마침 문이 열리고 이쑤시개를 물고 나오는 손님이 있어 식당 안을 슬쩍 들여다볼 수 있었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손님들이 꽤 많았다. 양은냄비에 닭뼈를 우려낸 육수를 붓고 그 위에 찢어놓은 닭고기를 넣은 뒤에 파 같은 양념을 해서 먹는데 몇몇 식탁에는 소주병이 놓여 있었다.⁴⁶⁾

남대문시장에 먹거리가 많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물류가 집결하고 전국 각지로 흩어지는 시장이니 당연한 게 아닌가. 그런데 작가는 카메라를 사러 갔던 육칠 년 전에야 “남대문시장 골목에 먹을 게 많다”는 걸 알았다고 의문스럽게도 농을 친다. 사실 남산으로 향하는 남대문시장 남쪽이나 승례문이 보이는 동쪽 부근에는 음식 거리가 있다. 안 먹어 봤으면 모르겠으나 한 번 먹어본 사

46) 성석제, 『소풍』, 창작과비평사, 2006, 46쪽.

람들은 잊지 않고 꼭 다시 찾아오는 장소다.

사진작가인 후배와 같이 가서는, 카메라를 고르기 전에 시장의 좁아터진 골목 안에 있는 갈치조림집에 들러 허기를 달래기 시작했다. “판 데서는 맛보기 힘든 짭조름하고 매콤한 맛을 보고 나”왔는데, 골목을 들어가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 무엇이 작가의 눈에 들어왔다. “네모난 어항처럼 식당 바깥으로 돌출된 유리 상자에 찢어놓은 삶은 닭고기가 노적거리처럼 쌓여 있는” 것이다. 골목으로 들어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그 잠깐 사이 산처럼 쌓여버린 것. 막 밥을 먹고 나왔는데도 작가는 기묘한 허기를 느꼈다.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일까. 아니다. 그것은 “입김이 허영게 피어오르는 추운 날, 군불을 땀 안방 아랫목을 생각하면서 콧날이 시큰해지는 그런 정서” 때문이다. “본의 아니게 잊어버리고 살아온 것, 한때 신세를 지긴 했으나 값을 무엇이 있는 건 아닌 그런 것들”이 바로 노적거리처럼 쌓여 있다. “양은냄비에 닭뼈를 우려낸 육수를 붓고 그 위에 찢어놓은 닭고기를 넣은 뒤에 파 같은 양념을 해서 먹는데 몇몇 식탁에는 소주병이 놓여 있”는 그 사소하고 갑작스러운 풍경이, 갑자기 사무쳐온다. 이처럼 성석제 소설가는 물론 시장을 다녀온 모든 사람에게 남대문시장은 그런 허기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정겨운 장소임이 틀림없다.



남대문시장의 많은 상인과 주변 직장인들이 찾는 갈치조림 골목 (위)과 닭곰탕(아래)

4장 영화와 인쇄산업의 중심 충무로

예나 지금이나 충무로는 서울의 강렬한 소비지역 중의 하나다. 물론 ‘영화’와 ‘인쇄’라는 두 주요 산업이 특화된 채로 여전히 성업 중이기는 하지만 충무로는 명동과 더불어 ‘소비’라는 단어를 삭제하면 큰 의미를 잃게 된다. “본정 들어가는 어구와 남대문통 일대에 늘어 서있는 여러 상점의 일루미네손과 네온사인은 맘 경성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⁴⁷⁾고 술회하는 이익상의 문장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청일 전쟁 이후 이 일대는 일본 상인의 상업 중심지로 가장 변화한 일본인 거리였다.

윤동주 시인은 「종시」라는 수필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본정(本町)’에 대해 “전등이 낮처럼 밝고, 사람이 물밀리듯 밀리고 전차란 놈이 웅웅 소리를 지르며 지르며 연달아 달”린다고 쓴다.

시골서는 제노라고하는 양반이었던 모양인데 처음 서울 구경을 하고 돌아가서 며칠 동

47) 이익상, 『그들은 어대로』, 이익상 문학전집(3), 신아출판사, 2011, 26쪽.

안 배운 서울 말씨를 서둘러 써가며 서울거리를 손으로 형용하고 말로서 떠버려 옮겨 놓드란데, 정거장에 턱 나리니 앞에 색이 창연한 남대문이 반기는 듯 가로 막혀 있고, 총독부(總督府)집이 크고 창경원에 백가지 금수(禽獸)가 봄죽했고, 덕수궁의 옛 궁전이 회포를 자아냈고, 화신 승강기는 머리가 항- 했고, 본정(本町)엔 전등이 낮처럼 밝은데 사람이 물밀리듯 밀리고 전차란 놈이 웅웅 소리를 지르며 지르며 연달아 달리고- 서울이 자기 하나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우쭐했는데 이것쯤은 있을 듯한 일이다.⁴⁸⁾

김남천도 『경영』에서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충무로를 서술한다.

“이 부근에야 무어 뻔뻔한 게 있나요. 종로나 본정으로 나가야지. 그럼 내 자동차로든 가 전차로든가 모시구 나가께, 어디서 시간 약속하고 기다리시구료.”⁴⁹⁾

위 말을 조금 바꾸면, 종로나 본정(지금의 충무로)에 나가야지 변변한 게 있다는 말이 된다. 당시 사람들에게 두 지역이 서울의 중심 상권이었던 것이다. 특히 충무로는 어느 때나 경기가 좋다고 인식되기도 한다. “어느 때나 경기 좋은 본정은 사람 물결로 와글와글 그들은 무슨 분주한 일이나 있는 듯 긴장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⁵⁰⁾고 썼던 함대훈의 「첫사랑」도, “상점의 문들이 거의 닫혔으나 본정통 쪽은 아직도 환하다.”고 썼던 방영웅의 『분례기』도, 또한 “가끔 백화점 순례에 충실한 명희는 발을 옮겨 {본정을} 돌아 어느 백화점 기-다란 층계를 밟는다.”⁵¹⁾고 썼던 이선희의 『가등』도 참고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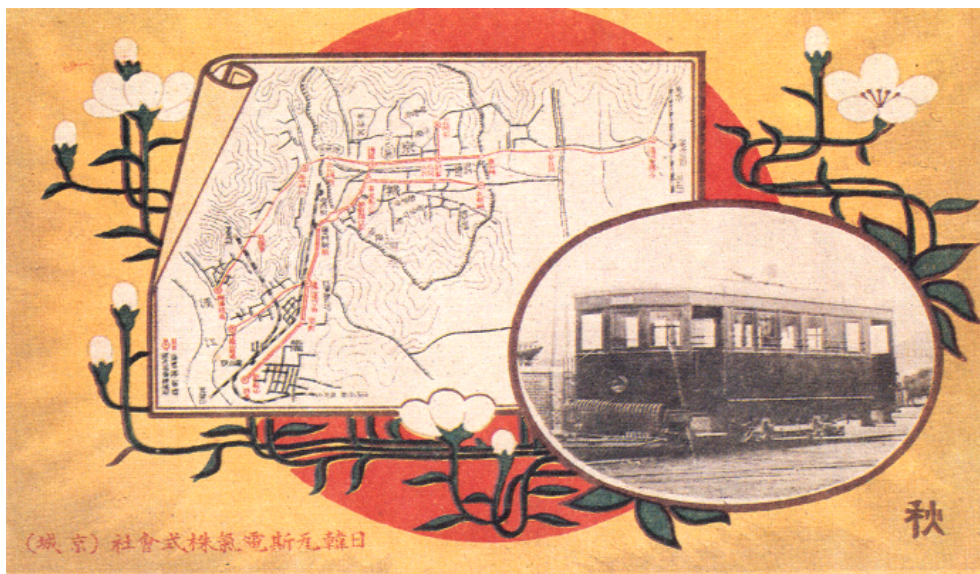
이뿐만 아니다. 박태원도 『길은 어둡고』(1935)에서 “그러나 이미 이렇게까지 된 이제에 이르러, 남자와 헤어질 마음은 도리어 없어지고, 그 칠십오 원이, 만약 그렇게 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면, 그 돈을 가져, 남자와 둘이서 단 한 이레라도, 마치

48) 윤동주, 「終始」,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정음사, 1955, 193쪽.

49) 김남천, 『경영』, 한국소설문학대계(13), 동아출판사, 1995, 381쪽.

50) 함대훈, 「첫사랑」, 〈조광〉 1호, 조선일보사, 1935, 394쪽.

51) 이선희, 「가등」, 『이선희 소설 선집』, 현대문학, 2009, 17쪽.



일제강점기 전차와 전차노선도

축복받은 애인끼리나 같이, 손을 맞잡아, 본정(本町)으로, 백화점으로, 또 극장으로, 모든 시름을 잊고, 가장 호화스럽게 돌아다녀 보았으면, 하고, 그러한 생각만 일어나는 것은 어인 까닭일까.”⁵²⁾라고 썼으며, 채만식도 『탁류』(1937~1938)에서 “그 대신 거의 매일 밤, 초봉이를 데리고 본정으로든지 종로든지 산보도 나가고, 나갔다가 눈에 띄는 것이면 옷감이든지 집안 세간이든지 곧잘 사주곤 했다.”⁵³⁾라고 쓴 걸 보면 충무로의 화려한 소비 풍경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정통을 통해 유형적, 무형적으로 재현되고 있는, 식민지 권력의 ‘어둡고 패권적인’ 차원과는 다른 한편에서, 본정통은 일본인에게는 물론이고 많은 조선인에게조차 일종의 선망의 공간이었고 꼭 가보고 싶은 ‘밝고 활기찬’ 공간이었다. 그곳은 스펙터클로 다가

52) 박태원, 『길은 어둡고』, 한국소설문학대계(19), 동아출판사, 1995, 276쪽.

53) 채만식, 『탁류』, 한국소설문학대계(14), 동아출판사, 1995, 315쪽.

오는 서양식 건축물과 새로운 근대 문물을 구경할 수 있으며 또한 체험할 수 있는 장소였다. 1899년 4월 이후 근대적 교통수단으로서 전차가 경성에 등장하게 되며, 본정통 입구 앞을 지나는 전차를 타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경성으로 몰려오기도 했다. 특히 1920년대의 문화 정치와 함께 경성의 식민지 수도화가 완성되면서 백화점, 영화관, 카페 등으로 대표되는 근대적 소비문화 시설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는데, 그 첨병이 본정통이었다.⁵⁴⁾

한편 신경림 시인은 동국대학 재학 시절 충무로 4가 이층집에서 하숙했던 기억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는 『바람의 풍경』(2000)이라는 산문집에서 그때의 기억을 아래와 같이 술회한다.

칠팔 년이 지나 대학으로 진학하여 내가 있는 집도 여전히 외조모와 작은외숙의 그 충무로 4가 이층집이었다. 아침이면 외숙이 도시락을 싸들고 집을 나가는 것도 여전했고 밤이 되면 해소병으로 숨 쉴 적마다 가래 끓는 소리를 내는 외조모가 끓인 물을 담은 유단보를 들고 층계를 올라오는 것도 변함이 없었다. 불기 없는 다다미방에서는 여전히 냉기가 돌았고 길을 향해 난 창문들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큰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다만 외숙은 그사이 고시에 합격해서 지방법원의 판사가 되어 있었지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도시락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을지로 4가까지 걸어가서 전차를 타고 출근했다. 외숙은 저녁에도 일정한 시간에 빈 도시락을 들고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아 있고는 했다. 취미라고는 법률책 읽는 것 이외에는 없는 양반이어서, 나와는 아침저녁으로 겸상을 해서 밥을 먹고 밤에는 장지문을 사이에 두고 이웃한 방에서 잠을 자면서도 나누는 말은 한두 마디가 고작이었다. 내가 서울 생활을 한없이 지루해했던 것은 기숙하고 있던 외갓집의 따분한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⁵⁵⁾

54) 전종한, 「도시 본정통의 장소 기억」,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3, 66쪽.

55) 신경림, 『바람의 풍경』, 문이당, 2000, 78쪽.

시인이 소환한 추억은 충무로의 겨울 풍경이다. 너무도 섬세하여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다. “불기 없는 다다미방에서는 여전히 냉기가 돌았고 길을 향해 난 창문들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큰소리를 내며 흔들렸다”는 문장에는 뭔가 가파르고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서늘함이 배어 있다. 아울러 신경림 시인의 기억은 학우들과의 소회까지 이어진다. 그는 이렇게 술회한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의 친구들과도 어울렸다. 대학 일학년에서 대학원 학생까지 층이 다양했는데 모두들 내가 공부하는 문학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략)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에 모였다. 장소는 역시 충무로 4가에 있던 모니카라는 다방으로, 많으면 일고여덟 명, 적으면 네다섯 명이 모여 지난 일주일 동안 읽은 책 이야기를 하다가 다 모였다 싶으면 인현시장 안에 들어가 비지 안주를 해서 막걸리를 마셨다.”⁵⁶⁾

그 무렵 장만영 시인은 중구 소공동에서 ‘하루방’을 경영했었는데, 충무로로 옮겨 ‘비엔나’라는 다방을 새로 열었다. 다방 정면에는 조병화의 유화가 걸려 있었고 김기림, 김경린, 선우휘, 김광균 등이 모였다. 1949년에는 동화백화점(지금의 신세계백화점) 뒤에 ‘일엽(一葉)’이라는 다방을 운영했다.⁵⁷⁾ 1940년대와 1950년대의 ‘다방’이란 단지 차를 마시는 장소가 아니다. 문학인들과 예술가들이 모여 문학이나 그림, 영화를 논하고 때로는 전시회나 기념회, 추모회, 강습회 등을 여는, 오늘날로 치자면 일종의 문화센터였다.

당시 문인들은 대부분 백수건달인 데다 전화가 없어서 그들은 날마다 다방으로 나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시인 장만영이 경영한 ‘하루방’에는 김기림, 김광균, 김용호, 박인환, 이봉구, 김병욱, 김수영이 자주 모였고, 건너편 골목의 ‘휘가로’에는 전봉래, 박태진이 죽치고 앉아 있었으며 때로는 김병욱, 최재덕, 양병식, 김수영이 모습을 보였다.⁵⁸⁾

56) 신경림, 앞의 책, 83쪽.

57) <경향신문> 1949.10. 5. ‘문화인동정’ 참고.

58) 최하림, 『김수영 평전』, 실천문학사, 2001. 104쪽,

그럼 충무로가 영화의 발상지로서 면모를 드러낸 것은 언제부터일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06년이라는 시간의 굴곡이 눈에 확 들어온다. 이 해에는 경성부 진고개 부근의 송도좌에서 영화가 상영됐기 때문이다. 이를 효시로 하여 1910년 경성부 황금정(현 외환은행 본점)에 ‘경성고등연예관’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영화관으로 인기를 모았다. 이후 1914년 경성부 황금정에 ‘제2대정관’이, 1916년에는 경성부 본정에 ‘경성극장’이 들어섰다. 그다음 해인 1917년에는 경성부 명치좌에 ‘낭화관’과 지금의 충무로 5가에 ‘조일좌’, 후에 경성촬영소가 된 초동에 ‘수좌(壽座)’가 설립되었다. 1922년에는 현재 중앙시네마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중앙관’이 설립되었으며 1935년에는 광복 후 수도극장, 현재 스카라극장으로 가장 오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약초극장이 등장하며 한국 영화의 중심지가 되었다.⁵⁹⁾

물론 충무로가 한국 영화계를 상징하는 고유명사가 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일이다. 1960~70년대에는 많은 한국 영화 제작사가 충무로에 있었고, 당시 충무로와 종로 일대에 몰려 있던 단성사, 피카디리, 대한극장, 서울극장, 국도극장, 명보극장, 스카리극장 등이 그 주역이었다. 이 때문에 영화 제작사와 함께 일하는 현상소, 기획사, 인쇄소들도 이곳에서 함께 자리를 잡았다.

우리나라에서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한 이후로 약 100여 년 동안 충무로와 그 일대는 많은 영화적 유산과 창작자들, 그리고 거기에 묻혀버린 이야기들까지 한국영화사에 없어서는 안 될 흔적을 남겼다. 이를테면 충무로는 그동안 한국 영화의 모든 것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집적된 그야말로 영화의 메카였다. 그러나 역사가 말해주듯, 이 ‘천국’은 행복과 황홀경으로 만들어진 천국은 아니다. 그곳은 20세기 한반도의 아픔과 열악했던 한국 영화의 현실이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충무로는 또 하나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인쇄산업과 문화다. “충무로 일대 인쇄정보산업진흥지구”라든가, “인쇄문화의 메카 충무로”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 그만큼 충무로는 인쇄문화의 중심이라는 말이다. 충무로의 인쇄문화는 우리가 ‘문화’라고 부를 만큼 역사가 깊다. 1403년, 현재 남산스퀘어빌딩 자리(충무로

59) 박경룡·정중화, 『영화의 메카 충무로』, 중구문화원, 2005, 121~122쪽 참고.



한류 열풍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을 이루는 한국 영화의 성공은 충무로 시대부터 쌓여온 역량의 결과물이다.

역 5번 출구)에 설치된 ‘주자소’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600여 년 동안 인쇄문화를 이어왔다. 주자소는 활자를 주조하고 책을 찍어내는 업무를 담당하던 관청이다. 이와 더불어 중구의 ‘주자동’이나 ‘필동’, ‘묵정동’의 지명도 각기 조선시대 인쇄출판문화의 흔적과 관련이 있다. 주자동은 주자소의 입지에서 유래했고, 필동과 묵정동도 붓과 먹을 파는 상점이 밀집된 지역에서 연원한다. 이뿐만 아니다. 명동역 3번 출구 숭의여자대학 제1별관 정문은 조선시대 서적 교정, 축문 작성, 인장 전각 등을 담당하던 ‘교서관’이 있던 자리다. 근대 활판인쇄기를 처음 도입한 박문국(1883), 최초의 민간인쇄소 광인사(1884)가 세워진 곳도 충무로와 맞닿은 을지로 2가였다.

이후 1910년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 영화관인 ‘경성고등연애관’을 시작으로 ‘경성극장’, ‘낭화관’, ‘중앙관’ 등이 을지로에 등장하면서 영화전단지를 위한 인쇄소들이 을지로 영화관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197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중구의 인쇄문화는 충무로, 인현동, 필동 등지로 확장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IMF 사태를 겪으면서 직격탄을 맞았고, PC와 노트북, 스마트폰 등 개인 정보통신수단의 급속한 보급으로 종이에 의존하던 인쇄 방식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충무로의 인쇄문화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서사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그 변화의 물결은 끝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⁶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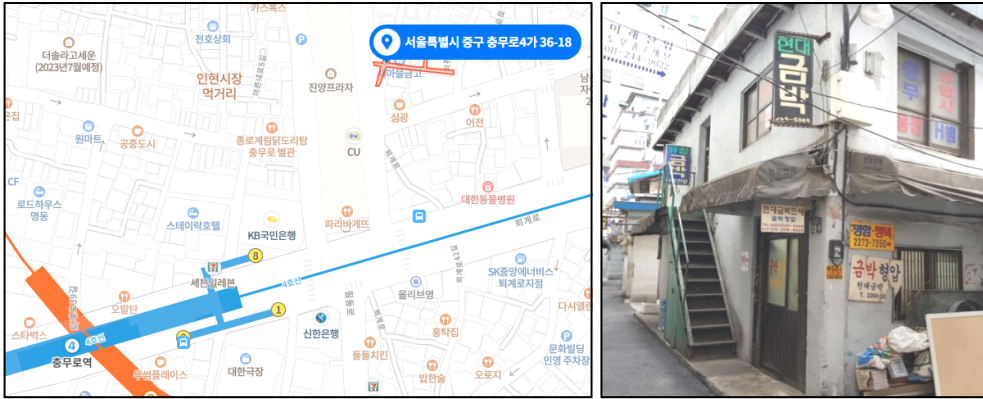
1. 모더니즘의 성지, 현대시의 충무로

가. 김수영의 「아메리카·타임지」(1948), 한국현대시의 새로운 모더니즘

김수영과 충무로의 인연도 깊다. 충무로역 8번 출구에서 내려서 진양상가를 끼고 돌아 첫 번째 골목으로 우회전하면, 한때 시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유명한 빈대떡집 ‘유명옥’ 자리가 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4가 36-19’로, 지금은 ‘현대금박인쇄소’로 바뀌었다.

유명옥이 한국시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못 크다. 왜냐하면, 1940년대 후반부터 김수영 시인과 더불어 박인환과 양병식, 김차영, 김규동, 김경희, 김병옥 등이 모여 소위 ‘모더니즘 시운동’을 시작한 곳이며, 이들의 문학관을 담은 『신시론』 1집(1948)과 2집 격인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1949)이 구상된 곳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유명옥은 박인환의 ‘마리서사’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마리서사에 모여 시를 논하던 시인들은 유명옥까지 걸어와 빈대떡에 막걸리를 마셨

60) “청년 물리는 인쇄·디자인 메카로 … 부활 꾀하는 충무로 인쇄골목”(연합뉴스, 2018.9.20) 참고. “줄곧 상승세를 타던 을지로 인쇄골목은 1990년대 중반 최고 호황기를 맞는다. 하지만 얼마 후 1997년 외환위기로 허리가 꺾이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고객 회사들이 부도를 맞거나 지출을 줄이면서 인쇄물량이 급감했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억원 대 고가의 외제 기계를 구입한 인쇄업자들의 리스로 부담이 폭등했다. 또한 1997년 말 책자용 홍보 인쇄물을 종전 4종에서 2종만 허가하는 등 선거법이 개정되고, PC와 노트북과 같은 개인 정보통신수단의 급속한 보급도 인쇄골목에 직격탄이 됐다. 인현동의 역사를 기록한 책 ‘세상을 찍어내는 인쇄골목 인현동’(서울역사박물관)은 “과거 인쇄물이 차지했던 독점적인 정보 기록과 전달 매체로서의 지위를 개인 정보통신수단이 빠르게 잠식해갔다”며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 선거 홍보물 규제, 기술변화에 따른 인쇄물 수요 감소는 지금도 여전히 인현동 인쇄골목의 정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180917074700004>)



유명옥의 좌표(좌)와 현재 모습(우)

다고 한다. 김현경 여사의 회고를 들어보자.

김수영 시인의 식구들은 충무로 4가에 자리를 잡았어요. 김 시인의 어머니가 불탄 적산 가옥을 하나 얻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집에서 설령탕 장사를 시작했어요. ‘유명옥’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어요. 김 시인의 어머니는 인물이 반듯한 분이었는데 빈대떡도 부치고 막걸리도 팔고 했어요. 징병을 피한 시동생이 있었는데 소머리를 다듬고 삶는 등 설령탕 만드는 일을 많이 거들었어요. 장사가 아주 잘되었어요. 한국전쟁 때 그 집이 폭격을 맞아 없어졌어요. 만약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크게 되었을 거예요. 그때 김수영 시인은 종로 가에 있는 고모님 댁에 있었어요. 고모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세를 한 칸 주어 집이 좁았어요. 김 시인은 거기에서 잠만 자고 식사는 충무로 4가에 와서 하는 생활을 했어요.⁶¹⁾

이 시기에 김수영 시인은 두 편의 시를 발표한다. 발표 지면은 ‘『신시론』 2집’ 격인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으로 「공자의 생활난」과 「아메리카·타임지」가

61) 김응교, 「마리서사·유명옥·국립도서관 - 김수영 시의 장소에 대한 연구」, 『외국문학연구』 73, 2019, 154~155쪽, 재인용.

우여곡절 끝에 실린다. 훗날 이 작품에 대해 시인은 “좌우간 나는 이 사회집에 실린 두 편의 작품도 그 후 곧 나의 작품 목록으로부터 깨끗이 지워버렸다”고 진술한 바도 있지만, 김수영 초기 시 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작품임은 틀림없다.

흘러가는 물결처럼/ 지나인(支那人)의 의복
나는 또 하나의 해협을 찾았던 것이 어리석었다

기회와 유적(油滴) 그리고 능금/ 올바로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나는 수없이 길을 걸어왔다/ 그리하여 응결한 물이 떨어진다
바위를 문다

와사(瓦斯)의 정치가여/ 너는 활자처럼 고움다
내가 옛날 아메리카에서 돌아오던 길
뱃전에 머리 대고 올던 것은 여인을 위해서가 아니다

오늘 또 활자를 본다/ 한없이 긴 활자의 연속을 보고/ 와사의 정치가들을 응시한다⁶²⁾

「아메리카·타임지」는 본래 1947년에 씌어졌고, 1948년 12월 15일 「자유신문」에 실렸던 작품인데, 신시론 2집 격인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에 재수록된 것이다. 이 시에 대한 일화도 유명하다. 당시 김수영은 박인환과의 불협화음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 김수영과 친하던 김병옥은 신시론 동인에 대해 ‘포즈에 젖은 사이비 모더니스트’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결국 동인에서 탈퇴하고 만다. 이때 김수영도 탈퇴를 결심, 『신시론』 2집에 발표하려 했던 다섯 편의 작품을 되돌려 받으려 했지만, 세 편만 돌려받고 앞서 언급한 두 편이 실리게 된 것이다. 훗날 김병옥은 김수영에게 「아메리카·타임지」를 극찬한다.

62) 김수영, 「아메리카·타임지」, 『김수영 전집1』, 민음사, 1981 수록.

나. 홍일표의 「길 위의에서의 명상」(2007), 끊어진 길 혹은 다시 시작된 길

홍일표 시인에게 충무로는 걷기를 위한 지역이다. 적어도 시인에게 ‘걷다’라는 동사는 ‘살피다’와 이어지며, 또한 ‘어루만지다’, ‘관통하다’, ‘자세히 보다’와 대칭되는 단어다.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걷다 보면 자연스레 속도를 늦추게 되고, 감속된 만큼 주위 풍경이 보다 세밀하게 노출된다. 시인이 이 ‘걷기’로 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내 발바닥과 길이 직접 내통한다”는 사실이다. 이 얼마나 뜨겁고 황홀한 일일까. 걷는 듯, 시를 천천히 음미해보자.

남산 한옥마을에서 인사동까지 걷는다
지하철도 버스도 다 버리고
걷는다. 내 발바닥과 길이 직접 내통한다
가장 낮은 곳에서 뜨겁게 만난다
타박타박, 기웃기웃 걷다보면
충무로를 지나 명보극장, 을지로에 이른다
을지로 3가에서 잠시 멈칫거리다가
왼쪽으로 방향을 튼다
길이 꺾일 때 잠시 생각도 꺾여진다
일방통행으로 치닫는 생각이 자주 꺾여야
길눈이 밝아진다
아직도 어둡기만 한
소의 길눈,
두리번거리며 종로 3가역, 지하도를 거쳐 1번 출구로 나온다
탐골공원 방향으로 나와
길가 노점상들을 바라보며 걷다가
깜박 길을 놓친다
길이 나를 잊은 것인지



옛 명보극장의 명맥을 잇고 있는 명보아트시네마

내가 길을 잊은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렇게 외줄기 생각만 따라가다가
 어느새 내 생의 절반이 지났다
 탑골공원 앞에서 철컹, 다시 길이 발바닥에 붙는다
 흩어지는 사념의 끝머리에
 소주병과 함께 쓰러져 있는 노숙자
 행인들의 시선 대신
 한 마리 파리가 그를 열심히 어루만지며 핏는다⁶³⁾

충무로에 위치한 남산 한옥마을에서 인사동까지, 시인은 걷는다. 지하철도 버스도 다 버리고, 오로지 발바닥을 땅에 밀착한 채로, 혹은 길과 직접 내통하면서. ‘걷

63) 홍일표, 「길 위에서의 명상」, 『살바도르 달리 風の 낮달』, 천년의시작, 2007 수록.

기'란 가장 낮은 곳에 이르러서야 하늘을 만나는 그런 역설의 순간이다. “모든 것은 낮아서 바다가 되고, 하늘은 거기에 내려와 있”다는 화엄의 가르침에도 닿는다.

시인은 걷는다. “타박타박, 기웃기웃 걷다보면/ 충무로를 지나 명보극장, 을지로에 이”르고, 여기에서 시인은 잠시 멈췄다가 왼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다. 길이 꺾일 때 잠시 생각도 꺾어진다”는 문장은 그러므로 시인의 낮고 험거운 마음을 은연중에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생각의 주름들이 꺾일수록 길은 더 반듯하고 탄탄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시인은 “일방통행으로 치닫는 생각이 자주 꺾여야/ 길눈이 밝아진다”고 쓰는 것이다.

충무로에서 걷기 시작해 을지로 3가까지 이르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은 소요되지 않는다. 큰길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인현시장 골목을 관통하며 가면 15분 남짓 소요된다. 그리고 조금 더 북쪽으로 이동하면 종로 3가역이 나오고 탑골공원도 눈에 들어온다. 거기까지 가서야 시인은 “깜박 길을 놓친다”고 쓴다. 길이 나를 잊은 건지, 아니면 내가 길을 잊은 건지 알 수는 없다. 그렇게 외줄기 생각만 따라가다가 어느새 내 생의 절반이 지나버렸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다. 아직도 어둡기만 한 “생의 길눈”이, 어쩌면 나의 모든 생을 압축하는 것이 아닐까. 시인은 문득 “소주병과 함께 쓰러져 있는 노숙자”에게 그 절실한 뒤척임을 듣게 된다.

다. 허연의 「삽화」(2011), 쓸쓸한 삶의 뒤안을 걷다

허연 시인의 충무로도 고즈넉하고 쓸쓸한 풍경이다. 충무로의 사계를 생각하면 풍요롭고 활기찬 색이 떠오를 것이나, 저녁 무렵의 충무로를 경험한 사람은 ‘가을색’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떠올릴 것이다. 허연 시인은 일을 마치고 충무로 골목을 걷기 시작한다. 옆구리에 사각의 봉투를 낀 채로, 계속 걸음을 미루는 것처럼.

알약들처럼 빗방울이 성긴 저녁. 옹케 젖지 않은 자들의 안도 속에 하루가 접히고 있었다.

퇴근 무렵. 아버지가 당신의 결혼사진을 들고 찾아왔다. 자꾸 빛이 바랜다며 어떻게 할 수 없겠냐고 비닐봉지에 싸온 사진을 내밀었다.

사진 속 어머니의 드레스는 이제 완벽한 황토색이었다. 친일파와 빨갱이 집안의 결합. 하객보다 기관원이 더 많았다는 집안 내력을 생각하며, 결혼일로 사진을 보며... 나는 꼬리곰탕을 후후 불었다.

속으로 “살아계실 때 잘 좀 하시지”라고 투덜땀지만, 반주까지 걸친 다혈질의 아버지에게 그 말은 차마 꺼내지 못했다.

비는 다음 날에도 계속됐고, 나는 비닐에 싸인 빛바랜 사진을 옆구리에 끼고 충무로 골목길을 헤맸다.

오늘도 뭔가 포기하지 않은 새들만 비를 맞는다.⁶⁴⁾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충무로의 골목은, 특히 퇴근 시간 이후의 인적이 드문 골목들은 빛이 닿지 않는 먼바다처럼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낮 시간대의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노동자들은 방전된 듯 갑자기 정지한다. 그리고 화면 속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사람들은 옷을 갈아입고 집을 향하거나 곱창이나 전어회, 혹은 순댓국이나 부추전을 안주 삼아 막걸리 한잔 들이키기 위해 시장통 선술집을 찾는 것이다.

허연 시인이 충무로에 나온 시각은 어둠이 눅눅하게 들러붙은 저녁이다. 이미 빗방울이 알약들처럼 성기고 있는데, 용케도 젖지 않은 자들은 안도하며 하루를 마감하기 시작한다. 북쪽을 향해 걷다가 몸을 돌려 다시 동쪽으로 움직인다. 완만하게 이어진 대로변을 걷다가 명보극장 어디쯤에서 방향을 돌린다. 인쇄소는 불 꺼진 지

64) 허연, 「삼화」, 『현대문학』, 2011년 5월호 수록

오래고 공구 상사들도 문을 닫기 시작하는데, 충무로 골목이 꿈속 저편인 듯 시인을 부르는 것이다.

그가 충무로 골목을 배회하는 것은 퇴근 직전에 찾아온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는 결혼사진을 들고 오셨는데, 자꾸만 빛이 바랜다고 어떻게 할 수 없겠냐고 말씀하셨다. 사진 속 어머니는 예의 눈부신 하얀 드레스를 입지 않았다. 황토색으로 변색된 까닭에 결혼식은 무채색에 더 가까웠다. 친일파와 빨갱이 집안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내력 때문인지 하객보다 기관원들이 더 많았다. “살아계실 때 잘 좀 하시기”라고 속으로는 투덜거렸지만,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스멀스멀 올라오다가 허끝에서 사라진다.

알약 같은 빗방울들은 다음 날에도 내렸다. 숙취처럼 어질지 못했으므로 빛바랜 사진을 수선하기 적당한 사진관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사진 속의 빛들이 갈 곳을 잃고 완전한 암전 속으로 빠져들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시인은 자꾸만 골목을 배회한다.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절대적 증거. 그러므로 그는 ‘포기하지 않은 새’처럼 비를 맞으며 그 일에 골몰하는 것이다.

라. 전장석의 「눈 내리는 충무로 인쇄골목」(2021), 인쇄골목에 내리는 첫눈

전장석 시인의 충무로는 구체적이다. 그만큼 현장성이 짙진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서정시 본연의 ‘세계의 주관화’라는 이념은 버리지 않고 있다. 물론 문장의 무게 중심이 현실 쪽으로 기울수록 리얼리즘에 기반한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작품은 사람들을 묘사하되 그들이 가진 웃음과 낭만은 충분히 담고 있으며, 시의 동기가 되는 ‘첫눈’을 이야기하되 결코 생활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 전장석 시인이 그려내는 ‘충무로 인쇄골목’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자.

첫눈이 왔을 뿐인데/ 쇠출기가 고양이 발걸음처럼 느릿느릿해지고

첫눈이 왔을 뿐인데/ 갑자기 허기가 저 순댓국에 소주를 시킨다

어쩌다 첫눈이 왔을 뿐인데/ 흐린 창밖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오래 서성이고

첫눈이 오자 인쇄골목 사람들은/ 그동안 망설이던 기차를 타고

고향의 설원을 향해 달리는 꿈을 쫓다

늙은 쇠출기가 밤새 콜록이던 골목골목에/ 아픈 상처를 더듬는/ 눈은

낡은 입간판을 어루만지고 천막 위에/ 흰 천막을 덮는다

그곳에 맨 처음인 듯 쓰여진/ 눈의 마지막 문장에다 마침표를 찍으려/ 들뜬 사람들의

분명한 발자국이 지워지고 다시 찍히고 있다

어쩌다 첫눈이 왔을 뿐인데/ 늙은 암코양이

밤새 낡은 쇠출기 위에서 내려올 줄 모르고

좌우 막힘없이 몸놀림 가볍던 지게차는/ 눈송이 하나에도 무거운지

흔곤하게 잠들어 있다⁶⁵⁾

첫눈이 내린다. 눈은 중력에 저항하며 느리게 떨어진다. 마치 허공에 남아 있으려는 듯하다. 충무로 인쇄골목에도 눈은 내린다. 싹틔줄처럼 얹혀 있는 이 골목에, 내년을 준비하는 모든 계획들에, 그 인간의 시간에 눈은 내리고 있다. 늦은 밤인데도 거의 모든 인쇄소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 ‘성호문화사’라는 이름이 붙은 곳도, “합지·톰슨”이라고 큼지막이 써 붙인 곳도, 스티커, 다이어리, 달력, 메모, 봉투라고 써 붙인 곳도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하다. 소위 연말 대목이다. 잠시 시간을 멈추고 골목에 나와 담배를 태우며 설탕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머릿속

65) 전장석, 「눈 내리는 충무로 인쇄골목」, 『서울, 딜쿠샤』, 상상인, 2021, 58쪽.

에는 납품을 맞춰야 한다는 즐거운 비명이 가득할 것이다.

눈이 내린다. 첫눈이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저 앞이 막다른 길처럼 보여도 다시 좌우로 비스듬히 길이 나 있는 골목에 순백의 눈이 내리는 것이다. 단지 “첫눈이 왔을 뿐인데/ 쇠출기가 고양이 발걸음처럼 느릿느릿해지고// 첫눈이 왔을 뿐인데/ 갑자기 허기가 저 순댓국에 소주를 시킨다.” 맞다. 어쩌다 온 첫눈인데, “흐린 창밖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오래 서성”인다. 그리운 사람들, 기억을 공유하는 아득한 이름들이 첫눈에 실려 내린다.

첫눈이 오자 인쇄골목 사람들은 꿈을 꾸기 시작한다. 백일몽이어도 좋겠다. 반복되는 길고 지루한 작업의 틈새를 찢고 그는 “그동안 망설이던 기차를 타고/ 고향의 설원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 백일몽이라도 그는 자신이 꿈꿔왔던 장소들로 갈 수 있다면 망설이지 않는다. 첫눈이 내린다. 오래된 쇠출기가 밤새 젖은 기침을 콜록이는 골목골목에 “아픈 상처를 더듬는/ 눈”이 내리고, “낡은 입간판을 어루만지고 천막 위에/ 흰 천막을 덮는다.” 그리고 “좌우 막힘없이 몸놀림 가볍던 지게차”도 “눈송이 하나에도 무거운지/ 혼곤하게 잠”에 빠지기 시작한다.

2. 진고개에서 영화와 인쇄의 거리로, 현대소설의 충무로

가. 이병주의 『관부연락선』(1968~1970), 일제강점기 충무로의 인상

이병주의 이 장편은 ‘관부연락선’이란 상징을 통해, 일제강점기 고통이 극에 달했던 조선 민중의 아픔과 광복 전후의 민족적 시련을 찡찡하게 그려낸 역작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일제강점기는 물론이고 광복 이후에도 중도적 입장을 견지했던 한 지식인이 그의 이념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시대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은 이병주 소설가가 1968년 4월부터 1970년 3월까지 『월간중앙』에 연재하였다. 시간적 배경은 1940년 초부터 한국전쟁까지로, 소설의 구성은 주로 주

인공 유태립의 ‘수기’와 그의 친구이자 후배인 이형식의 ‘회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인공 유태립은 관부연락선을 타고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 그는 일본인 E와 원주신(元周臣)이란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을 ‘관부연락선’이라는 수기로 기록하는데, 그러던 중 중일전쟁을 치르기 위해 일본인 학병으로 끌려간다. 얼마 후 광복을 맞이한 그는 조선으로 돌아오고, 이형식의 소개로 좌익이 주도권을 쥔 중학교 교사가 된다. 그곳에서 중도적 입장을 취하면서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급격해지고 첨예해진다. 끝내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마는데, 그는 좌우 쌍방으로부터 시달림을 받다가 지리산의 빨치산 부대에 납치되어 실종자가 된다. 작가 이병주는 유태립의 실종을 통해 이념의 대립에 일방적으로 희생당한 지식인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형상화했던 것이다.

이 작품에서도 일제강점기의 충무로가 등장하는데, 그 모습이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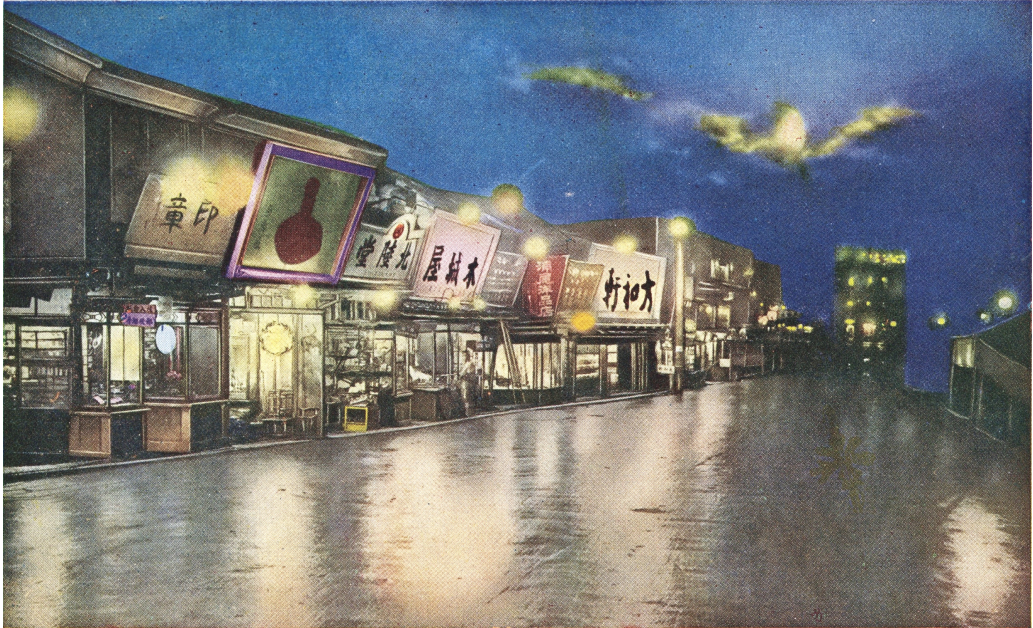
“나는 독립운동을 오기와 악으로 한 거지 되리라고 믿고 한 것이 아니다. 어떤 때가 와도 나 하나 있으면 우리 집안의 체면은 선다. 운동가들을 은근히 도와준 네 아버지의 공으로도 집안의 체면은 서게 되어 있다. 너는 잠자코 있거라. 잘 입고 잘 놀고 네 뜻대로 기쁘게 살아라. 그러면 우리 집안은 되는 것이다. 네가 꼭 그런 마음을 먹고 일을 저지르겠다면 나는 네 아버지와 상의를 해서 아무 데도 못 가도록 묶어 놓도록 해야겠다…….”

나는 귀찮아졌다. 그래 알겠노라고 하고 내 편에서 일어나 서버렸다. 오촌숙은 거듭 엉뚱한 소리를 되풀이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아버지는 언제나 아침에나 오촌숙과 내가 뒷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가 의아해하는 눈치였지만 캐묻지도 않았다. 내 아버지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아들의 일에 관해 꼬치꼬치 캐묻지 않는 그 태도일 것이다.

1주일쯤 고향에 머물고 있었더니 E에게서 장문의 전보가 왔다. 앞으로 나흘을 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며 서울에 있는 도서관에선 전연 수확이 없었다는 사연이었다. 곧 회전(回電)을 했다. 부산의 그 여관으로 내려오라고. 그리고 부랴부랴 행장을 꾸려 나는 고향을 떠났다.

거리에서 조선인 여학생인 듯싶은 소녀에게 길을 물었더니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가



본정1정목의 야경(일제강점기 사진엽서)

더라고 했다. 우연한 기회, 경성제대(京城帝大)에 다닌다고 하는 일본인 학생과 자리를 같이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고만장한 식민 이론에 아연했다고 했다.

고풍인 조선인 주택가를 걸으면서 이국정서를 느껴 보긴 했는데 그 굳게 닫혀진 대문은 단단히 적의를 보이고 있더라고 했다. 고가네마치, 혼마치를 위시해서 변화가를 걸어 보았는데 일본인들의 그 경박하게 시시덕거리는 꼴이 목불인견이라고 했다.

이상이 E의 경성에 관한 인상이었다. E는 더는 말하려 하지 않았다. 경성에 관한 E의 감상은 여간 착잡한 것이 아니었던 모양이다.⁶⁶⁾

인용한 부분은 주인공이 느낀 충무로 지역에 대한 인상이다. 그는 고풍적인 조선인 주택가를 걸으면서 이국정서를 느꼈는데, 굳게 닫힌 대문에서 이상한 적의도 감지하게 된다. 또한 고가네마치와 혼마치를 위시한 변화가를 걸어보았는데 일본인

66) 이병주, 『관부연락선』, 한국소설문학대계(52), 동아출판사, 1995, 364쪽

들이 경박하게 시시덕거리는 꼴이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고 술회한다.

나. 박완서의 『나목』(1970), 서울수복의 빛과 어둠

박완서의 소설은 삶에 대한 찡찡한 묘사로 가득하다. 그는 스스로를 발가벗기되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생활에 가감을 두지 않지만, 그렇다고 되돌아가지는 않는다. 그의 문장은 박완서 자신의 생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지금-여기’라는 사실주의 이념이 그의 문장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증언하듯, 그의 첫 소설 『나목』(1970)은 서울이 재차 수복된 후 생존을 위해 지금의 신세계백화점에 있던 미군 PX부에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 소설 『목마른 계절』(1978)은 9·28 수복에 이르기까지의 ‘인민군 치하’ 90일의 경험에 대한 서사다.

작가는 『나목』의 주인공 이경에게 일종의 사명을 준다. 그것은 살아야 한다는, 혹은 ‘삶’이라는 필연적인 굴레다. 이경은 계동의 옛날 집과 피엑스 일대의 명동 사이를 끊임없이 방황하는데, 그러나 그 ‘방황’은 정처-없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경험하고 관찰하며 사유할 수밖에 없는 것과 함께 삶을 매 순간 속아내고 성찰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전쟁 상황에서 탈주하는 그녀의 생존 방식이다. 이것이 박완서가 이경에게 부여한 이념이자 의지가 아닐까.

모두 바쁘게 어둠 속으로 인사도 없이 사라져 갔다. 김장철을 앞둔 을씨년스러운 날은 황혼을 생략하고 벌써 두터운 어둠에 싸여 있었다.

출입문이 면한 뒷골목은 외등 하나 없고 단 하나 맞은켄 냄비우동집의 희미한 유리문이 오히려 주위의 어둠을 한층 칠흑으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종종걸음으로 어두운 모퉁이를 재빨리 벗어나 환한 상가로 나섰다. PX를 중심으로 갑자기 발달한 미군 상대의 잡다한 선물가게들이나 군단의 마크를 수놓은 빨강고노란 인조 마플러, 담뱃대, 소쿠리, 낫그릇, 별로 신기할 것도 없는 그런 가게 앞에서 나는 기웃거리며 될 수 있는 대로 걸음을 늦추었다가 어두운 모퉁이에서는 숨이 가쁘도록 종종걸음을 쳤다.

그러나 변화가인 총무로에도 어두운 모퉁이, 불빛 없이 우뚝 선 거대한 괴물 같은 건물들이 너무도 많았다. 주인 없는 집이 아니면 중앙 우체국처럼 다 타버리고 윗구멍이 뿔뿔인 채 벽만 서 있는 집들, 이런 어두운 모퉁이에서 나는 문득문득 무섭을 탔다.

어둡다는 생각에 아직도 전쟁 중이란 생각이 덮쳐오고 양키들 말마따나 갓땀 양구, 갓땀 철원, 문산 그런 곳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너무도 가깝다는 생각은 때때로 나를 진저리치도록 무섭게 했다.

나는 그런 곳에서 좀 더 멀리 있고 싶었다. 적어도 대구나 부산쯤, 전쟁에서 멀고 집집마다 불빛이 있고 거리마다 사람이 넘치는 곳에 있고 싶었다.

나의 빨랐다 느렸다 하는 걸음은 을지로를 지나 화신 앞에서부터는 줄창 땀박질이 되고 말았다.

외등이라든가 구멍가게라든가 그런 아무런 표적도 없는 죽은 듯이 어두운 비슷한 한식기와집 사이로 미로처럼 꼬불탕한 긴 골목을 무섭다는 생각에 가위눌리듯이 짓눌리면서 달음박질쳤다.

이경은 “종종걸음으로 어두운 모퉁이를 재빨리 벗어나 환한 상가로 나”선 것이다. PX를 중심으로 갑자기 발달한 미군 상대의 잡다한 선물가게들이나 별 잡다한 물품을 놓은 가게 앞을 지나며 “될 수 있는 대로 걸음을 늦추었다가, 어두운 모퉁이에서는 숨이 가쁘도록 종종걸음을 쳤다.” 이경의 속도는 심리적이면서도 다분히 의도적이다. 그녀는 어둠에 갇히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었던 것이다.

그런 이경에서 변화가인 총무로는 빛의 거리만은 아니었다. 항시적으로 명암이 공존하는, 이중의 공간이었다. 총무로에도 어두운 모퉁이, 불빛 없이 우뚝 선 거대한 괴물 같은 건물들이 즐비했다. 집들은 주인을 잃은 채로 구석에 물러나 있었고, 아니면 중앙우체국처럼 다 타버리고 윗구멍이 뿔뿔인 채 벽만 서 있었다. 그것은 그 자체로 공포다.

이경이 종잡을 수 없는 걸음은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공간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규칙적이다. 하지만 을지로를 지나 화신 백화점 앞에서는 줄창 땀박질이 되었다. 외등도 없고 구멍가게도 없는, “그런 아무런 표적도 없는 죽은 듯이 어두운 비슷한 한

기와집 사이로 미로처럼 꼬불꼬불한 긴 골목”이 끝도 없이 이어졌던 것이다. 이처럼 종로통의 죽음에 가까운 길은 어둠에 비하면 충무로는 그나마 양반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걸음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에 맞섰다.

다. 조성기의 『우리 시대의 소설가』(1991), 산업화시대의 잃어버린 풍경

조성기 소설가의 눈에 비친 충무로는 국적과 정체가 불분명한 그야말로 혼돈의 공간이다. 강만우의 시선을 통해 그는 자신이 10년이나 넘게 살던 대학로에 대해 “이곳은 소설가가 살 만한 동네가 아니다.”라고 단정한다. 그렇다고 다른 데로 거처를 옮기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동네로 옮겨 봐야 비슷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소설가가 살 만한 동네가 아니다. 그렇다고 소설가 강만우(姜萬祐) 씨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다른 동네로 옮겨 봐도 결국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말 것이 아닌가 우려되지만 할 뿐이다.

언젠가 만우 씨는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보고, 남산에 올라가서 벤치 같은 데 앉아 쉬었다 갈까 하고, 남산으로 오르는 길을 찾아 동국대 정문 앞으로 해서 필동이라는 동네로 들어서 보았는데, 이전에는 고즈넉하기 이를 데 없던 그 동리가, 만우 씨가 소설가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때 와서 살고 싶었던 그 동리가, 갖가지 중소기업 공장들, 수공업 공장들로 잠식당해 있는 몰골을 보고 얼마나 우울해졌던지. 그야말로 잠식(蠶食),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어 들어가는 형국이었다. 근데 그 누에는 뽕잎을 가장 자리부터 차근차근 갉아먹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다. 미친 누에처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기분 내키는 대로 꿈틀꿈틀 건너뛰면서 갉아먹고 있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옥이 두어 채 이어지다가 무슨 제품 공장, 또 한 집 건너 무슨 인쇄 공장, 이런 식이었다. 남산의 신선한 바람이 고여 있어야 마땅한 좁은 골목길은 공장 봉고차들이 왔다갔다하느라고 사람 지나다닐 틈도 없을 지경이고, 공장들에서 풍겨 나온 냄새들이 합성된 이상한 악취가 콧구멍을 쿡쿡 쥐어박아 만우 씨는 미간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남산으로



주택가와 상가, 공장이 무질서하게 뒤섞여 있던 필동의 모습은 최근 상당히 정리되었다.

올라가는 고전적인 삽상한 길 같은 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 만우 씨는 생각했다. 이제 한국 어느 구석에도 전통적인 주택가를 찾아보기는 힘들겠다고. 그리고 정보에서 남산을 보존하려면, 외관상의 문제만 다룰 것이 아니라 남산 밑에 보이지 않게 뽀여 있는 골목길들부터 정화하여 원래의 주택가 골목으로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⁶⁷⁾

강만우가 내심 비슷하다고 말한 까닭은 언젠가 받았던 ‘필동’에 대한 극명히 다른 인상 때문이다. 그는 한참 전에 대한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보고 남산에 오르는 길에 잠시 들린 ‘필동’의 고즈넉한 풍경을 보게 된다.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지 “소설가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때 와서 살고 싶”다고 결심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곳이 갖가지 중소기업 공장들과 수공업 공장들로 잠식당한 물골을 보고 그만 우울해져 버렸다.

남산의 신선한 바람이 불고 우물처럼 깊이 고여 있어야 할 골목에는 공장 봉고

67) 조성기, 『우리 시대의 소설가』, 한국소설문학대계(80), 동아출판사, 1995, 209쪽.

차들이 사람 지나다닐 틈도 없이 드나들고, 공장에서 풍겨온 냄새들이 합성된 이상한 악취에 숨을 쉬지 못할 지경이 되었던 것이다. 남산으로 올라가는 고전적인 삽상한 길은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사태가 이러하니, 그가 “이곳은 소설가가 살 만한 동네가 아니다.”라고 고백한 이유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소설가는 충무로 일대에 창연했던 정취들을 그리워한다. 이를 강만우의 입을 빌려 이렇게 선언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남산을 보존하려면, 외관상의 문제만 다룰 것이 아니라 남산 밑에 보이지 않게 뻗어 있는 골목길들부터 정화하여 원래의 주택가 골목으로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라. 김원우의 『집승의 시간』(1986) · 백영옥의 『청첩장 살인사건』(2011)과 인쇄골목

김원우와 백영옥의 작품에는 충무로의 또 다른 얼굴, 인쇄문화의 산실로서의 면모가 담겨 있다. 두 작품의 주인공 모두 충무로 인쇄골목을 구석구석 돌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처리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몰랐던 골목의 풍경들과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도 한다.

을지로를 건넜다. 영화 골목이라고 불리는 충무로의 어느 한쪽 구석에 ‘시그널’ 인쇄물의 단골 거래처가 있었다. 영락교회로 들어서는 신작로가 바로 코앞에 닿아 와 있었다. 영락교회 앞길은 그 투박한 모양새가 가로수로서는 제격인 버즘나무들이(그 소위 플라타너스 말이다) 하늘을 가리고 있어서 언제라도 걸을 만한 곳이었다. 밀린 인쇄비를 갚기 위해, 인쇄물을 맡기고 찾기 위해, 오프셋인쇄의 원판을 교정 보러 가기 위해 나는 그 즈음 그 길을 자주 걸어다니는 편이었다. 앞에서도 이미 드러난 대로 나는 혼자 걷기를 좋아했고,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이어 가는 버릇이 있었다. 특히나 나무 밑을, 풀밭길을, 인적이 드문 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이어 갈 때, 나는 내 생애의 어떤 희열과 용기와 의욕을 느낀다. 그날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다. 양이는 언제쯤 ‘시그널’에 나타날까? 지금 그녀가 내게로 또박또박 다가오고 있다. 공연 날이 가까워 오고 있으니 말이다. 그녀는 조만간 길에 붙은 포스터를 볼 것이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

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되면 우선 쑥스러워하자. 그것이 그녀의 참새 가슴에 대한 나의 도리이다. 짐승들처럼 길에서 매식(買食)이나 해대는 지방 토종 돼지들이(그들의 먹성은 지방 토종 돼지와 버금간다!) 우글거리는 세포의 집으로는 제발 그녀를 끌어들이지 말기로 약속하자. ‘강당교회’는 매주일 다니고 있을까?⁶⁸⁾

김원우의 『짐승의 시간』은 작가의 첫 번째 장편소설로, 김원우 문학의 원형을 보여주는, 젊은 시절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10월 유신으로 상징되는 소통 부재의 1970년대를 ‘연극’이라는 수단으로 헤쳐 나가는 극작가 ‘나’와 단원들의 굶주리고도 비루한 삶을 그려내고 있다.

샘플로 쓸 청첩장도 다시 디자인했다. 인쇄소와 제지사가 많은 총무로를 구석구석 돌아다녔다. 종이를 자르는 재단기계는 목을 치던 커다란 단두대를 연상시켰다. 자기 몸의 서너 배는 될 법한 종이를 실은 채 내달리는 삼발이 차는 총무로 인쇄골목의 시간을 흑백영화 속 과거로 되돌려놓은 듯했다. 나 같은 젊은 디자이너 따윈 상대도 안 해주는 보수적인 총무로 사람들 때문에 곤혹스러운 적도 있었다. 그래도 하루 종일 방산시장과 동대문종합상가에서 청첩장에 쓸 리본과 부속품들을 골랐다.

2003년과 2004년, 싸라기눈처럼 날리는 종이 먼지 속에서 열심히 일했다. 유일한 친구였던 J가 한국을 떠났으니 시간이 남아돌았고, 달리 할 일도 없었다. 운도 좋았다. 내가 만든 디자인 청첩장이 유명 웨딩잡지의 청첩장 특집기사에 크게 실린 것이다.

홍보회사에 다니는 고객의 청첩장을 만든 인연으로, 그녀가 일하는 브랜드의 VIP 고객들의 파티 초대장을 만드는 일도 따냈다. 그렇게 시가와 몰트위스키를 수입하는 P기업과 계약했다. 나는 매해 그들이 여는 갈라 디너의 VIP 초대장을 디자인했다. 대부분 폴 클로맹이라는 프랑스인 사장이 주최하는 초대장이었다.

일을 마치고 두유 한 잔을 마셨다.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우유 대신 두유로 바꾼 지석 달이 넘었다. 하지만 콩 특유의 텁텁하고 비릿한 맛은 쉽게 적응되지 않았다. 대신

68) 김원우, 『짐승의 시간』, 한국소설문학대계(76), 동아출판사, 1995, 211쪽.

저녁은 부드러운 샤브샤브를 먹기로 했다. 접시 위에 얇게 썬 고베 쇠고기를 펼치자 붉은색 고기 사이로 열게 낀 지방이 남극의 꽃처럼 보였다, 냉장고 안에 넣어두었던 차가운 육수가 끓는 동안, 의자에 앉아 오늘의 인사말을 쓰기 시작했다.⁶⁹⁾

반면 백영옥의 작품은 탁월한 말하기 형식을 통해 저마다의 명함이나 프로필 뒤로 내쫓기듯 숨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그의 단편 속 인물들은 저마다의 직업이나 직책 뒤에 죽은 듯이 숨어 있다가 그 정체성을 버텨온 심리적 장막이 사라지자마자 공황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이다. 예의 「청첩장 살인사건」은 매일 정성 들여 누군가의 결혼식 청첩장을 만들면서도 그 어떤 결혼식에도 초대받지 못한 주인공의 이야기다.

마. 김영하의 「너의 의미」(2003) · 윤정규의 『얼굴 없는 전쟁』(2001)과 영화산업

충무로를 소재로 하여 영화의 서사를 이끌어내는 작품은 수도 없이 많다. 충무로가 한국 영화의 메카로 자리 잡은 이상, 이 ‘서사’들에는 반드시 ‘충무로’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물론 단순한 장소로서의 충무로가 아니라, 영화의 흐름을 충동하고 주도하는 절대적 상징으로서 충무로인 것이다. 다만, 영화의 서사에서 충무로는 단독적이고 자족적인 공간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너의 의미」는 우리나라 최고의 소설가라는 별칭이 조금도 아깝지 않은 김영하 소설가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데뷔작을 준비하는 한 영화감독의 이야기로, 그는 제작사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도 영화를 빌미로 신인 모델이나 배우를 잠자리로 끌어들이는 속칭 삼류 감독이다. 그런데 시나리오를 부탁했던 소설가 조운숙과 이상한 관계에 빠진다. 그에게 조운숙은 새로운 스타일의 잠자리 상대이자 영화 완성에 필요한 도구이지만 조운숙은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매달린다.

69) 백영옥, 「청첩장 살인사건」, 『아주 보통의 연애』, 문학동네, 2011, 93쪽.

저 여자가 날 사랑한다는 건 정말 믿을 수없는 일이다. 그건 안 되는 거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는 여자와 시나리오를 쓸 생각이 전혀 없다. 그 시나리오가 잘되겠는가? 나의 모든 의사표시는 사랑의 맥락에서만 해석될 것이다. 시나리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녀는 울겠지? 시나리오의 어떤 점이 좋다고 하면 그걸 확대해석해서 하루 종일 행복해하겠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번 영화로 입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총무로에서 내게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써줄 사람은 저 조윤숙밖에 없다. 오직 그녀만이 아직 내 정체를 모르고 있다, 아니 그런데 그녀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내가 쓰레기라는 것을. 지금까지 읽어온 사람들이라면 모두 동의할 것이다. 그녀는 내 목덜미에 묻은 립스틱도 보았고 내 입에서 튀어나가는 그 교양 제로의 말투도 들었고 양아치를 방불케 하는 내 패션 감각도 잘 알고 있다. 누가 보아도 난 그저 한심한 총무로 낭인이다. 이곳저곳 영화판을 기웃거리며 귀동냥이나 하고 가끔 신인들 뮤직비디오나 찍고 왕년의 연출부 시절 무용담이나 떠들고 다니면서 어리숙한 초짜 여배우들이나 따먹는, 그게 일상인 나를 사랑한다니. 아무리 순진해도 그건 좀 심했다. 남자 여자가 하룻밤 잘 수는 있지. 그렇다고 영기는 건 곤란하다.⁷⁰⁾

반면, 윤정규의 『얼굴 없는 전쟁』은 과거 총무로에서 ‘신의 손’으로 불리던 분장사 김덕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는 자신의 별칭만큼이나 영화 속 캐릭터를 완벽하게 창조해내는 솜씨를 가졌고, 그 탁월한 기술 때문에 수많은 감독과 배우들이 경쟁적으로 모시려고 애를 쓸 정도다. 하지만 성공에는 타락이 따를 수밖에. 그는 점점 자만과 허영의 늪에 빠지고, 자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미끼로 많은 여배우 지망생들과 동거하고 돈까지 갈취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김덕중의 서사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돌변한다. 그 혼한 윤리로 등장인물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편집의 정신착란을 통해 주인공을 더 나락으로 내몬다. 그는 자신이 분장한 영화 속 인물만을 기억하고 현실의 배우와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심지어는 동거녀들에게 낙태까지 강요한다. 총무로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그는 통

70) 김영하, 「너의 의미」, 『제27회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문학사상, 2003, 213쪽.

장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을 잘게 쪼개 쓰면서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살아간다.

그는 총무로 영화판의 수많은 분장사 가운데 한사람이었다. 그 스스로 자신의 솜씨에 대해 크게 긍지를 가져본 일이 없었다. 그냥 분장사로 밥을 벌어먹고 있다는 겸손한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그를 고용한 영화감독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봐! 김덕중, 자넨 분명 보통 재주가 아니야. 자넨 영화의 캐릭터를 완전히 살려냈어. 아니 만들어낸 거야. 아주 잘했어. 덕분에 멋진 영화도 만들고 돈도 벌게 됐어. 내 섭섭찮게 보너스를 주지.”

“자네 분장술은 분명히 뛰어나. 신이 준 손이라고 해도 좋을 거야. 자넨 수많은 보통 배우를 위대하거나 사랑스러운 주인공으로 만들었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자네가 만든 주인공들은 영화의 주인공으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 사회의 주인공으로 인기를 얻었고 돈도 웬만큼씩 벌었어. 주인공이 가는 곳이면 반드시 환호성과 박수가 쏟아졌어. 모두가 자네 공이야.”

그는 한동안 이런 칭찬을 분장비용을 아끼려는 감독들의 지나가는 말로 들어넘겼다. 칭찬에 인색한 영화감독들이 과찬을 할 때는 다른 저의가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말로 보너스를 주는가 하면 그를 고용한 거의 모든 감독이 칭찬을 아끼지 않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칭찬이 거듭되면서 그는 혼자 있을 때나 골목길을 걸어가다 문득문득 자기 손을 내려다보며 “신이 준 손?” 하고 혼잣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감독들의 칭찬 소리가 귓바퀴에 왕왕 울리면서 신의 손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는 배우들을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인물로 변조해내는 솜씨를 더없는 자랑으로 여겼다. 세월이 쌓이면서 자만심은 커져갔고 아무리 자랑을 해도 부끄럽지 않았다. 게다가 총무로 영화판에는 그의 부끄러움 없음에 맞장구를 쳐주듯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는 신기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감독은 감독대로 또 배우는 배우대로 그를 분장사로 고용하기 위해 순서를 다투었다. 차례를 앞당기기 위해 뒷돈을 디미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뒷돈을 내미는 것은 주로 배우들이었고 주연배우로 뛰고 싶은 사람, 특히 조연급 여배우들은 뒷돈 위에 몸까지 얹



2000년대 이후 많은 영화사가 강남과 마포 등지로 옮겨갔다.

어 그에게로 돌진해왔다. 실로 뜻하지 않은 횡재를 만난 것이었다. 그는 그 횡재를 마다하지 않았다. 길고 짧은 계산을 면밀히 한 뒤 차례로 접수했다.⁷¹⁾

앞서 언급했듯, 김영하와 윤정규의 작품에 등장하는 충무로는 ‘영화’라는 자족적 세계가 강렬하게 투영된 폐쇄적 장소다. 때문에

소설 속의 충무로는 구체적인 지명보다는 영화나 영화인들을 둘러싼 사건이 좀 더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바로 이 과정에서 ‘충무로’는 자신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상징성을 획득하게 된다.

바. 조진국의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2008), 반려동물에 대한 향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극진한 민족도 많지 않을 것이다. 1980년대 무렵부터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한 애견 샵은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충무로 4·5가와 퇴계로 일대를 점령하다시피 했다.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것에 대한 인식도 있었던 까닭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일대는 애완견(묘)을 위한 거의 모든 것이 있던 지역이었다.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기억도 소설에 반영되었다.

몇 년 전 고양이를 기른 적이 있다. 철장이 쳐진 유리방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영민하고 사색 어린 눈망울에 반해서 덜컥 사버렸다. 충무로 애완동물 가게에서 집까지 오는 길에 찬찬히 살펴보니 사팔뜨기였다. 마치 새벽 숲에 걸린 달을 창가에서 올려다보는 것

71) 윤정규, 『얼굴없는 전쟁』, 창작과 비평사, 2001, 162쪽.

같은 오묘한 눈이어서 ‘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하지만 달은 일 년도 채 못돼서 친구에게 맡겨졌다. 발정기가 되면 우는 아이 소리를 낸다, 변 냄새가 지독하다, 털이 많이 날린다 등의 변명을 덧붙였지만 무엇보다 고양이의 냉랭함에 끝까지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데다 결코 다정한 편이 되지 못하는 나와 고양이의 동거가 실패로 돌아갈 것은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었다. 다만 나만 그걸 모르고 겁 없이 덤볐고, 맘속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걸 알았지만 오기가 나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젠 친구의 고양이가 되었지만, 달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었다. 잊고 싶다고 해서 잊히는 건 아니었다. 넘치는 음식 앞에서도 생각이 없으면 고개를 돌리는 우아함이라든가, 손짓 한 번에는 절대 꼬리를 흔들지 않는 도도함, 몇 시간이나 미동 없이 창밖을 바라보던 고고한 자태는 언제 떠올려도 매력적이었다.⁷²⁾

위에 인용한 부분은 작가 조진국 자신의 경험에 녹아든 반려동물 ‘달’에 대한 오롯한 추억으로 가득하다. 화자는 충무로 애완동물 가게를 지나는데 철장이 쳐진 유리방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영민하고 사색 어린 눈망울의 고양이를 보게 된다. 그런 데 집에 오는 길에 고양이 눈이 사팔뜨기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눈이 “새벽 숲에 걸린 달을 창가에서 올려다보는 것 같은 오묘한 눈이어서” 그 고양이에겐 ‘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된다.

하지만 ‘달’과 화자의 동거는 끝내 파국으로 치닫는다. 발정기가 되면 우는 아이 소리를 냈던 ‘달’을, 변 냄새가 지독하고 털조차 많이 날리던 ‘달’을, 그리고 자신의 영역에 결코 화자를 허락하지 않았던 ‘달’을 친구에게 맡겨버렸기 때문이다. 화자는 ‘달’에게 느꼈던 불편했던 이물감을 숨기지 않고 독자에게 모두 털어냈다. 하지만 그는 ‘달’을 완전히 잊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달’의 우아함과 ‘도도함’은 물론이고 몇 시간이나 미동 없이 창밖을 바라보던 ‘고고함’은 화자의 뇌리에 깊게 각인되었던 것이다.

72) 조진국,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 해냄출판사, 2008, 182쪽.

5장 명동, 폐허를 딛고 일어서다

명동이란 이름은 조선시대 이 지역을 가리키던 ‘명례방’(明禮坊)에서 유래한다. 당시 명례방에는 종고개인 ‘종현’(鍾峴), 진고개인 ‘이현’(泥峴), 구리개인 동현(銅峴) 등 여러 고개가 속해 있었다. 종현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주둔하여 승례문에 있던 종을 걸어둔 데서 유래한 지명으로 1898년에는 명동성당이 들어섰다. 진고개는 땅이 질어서 붙은 이름이고, 구리개는 흙이 구릿빛을 띠고 있어서 지어진 이름으로 두 고개 모두 약방이 즐비했다.

명동 일대는 평범한 선비들이 모여 살았던 주택가였다. 그러다 일제강점기에 ‘혼마치’(本町)라고 불린 충무로와 함께 일본인들의 대표적인 거주지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특히 경성부청사, 조선은행을 비롯해 미스코시, 미나카이, 조지야, 히라다 등 백화점이 집중되어 명동은 서울의 상업 중심지로 손색이 없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따라 최고의 변화가로서 자리매김하면서 첨단 유행의 발신지가 된다.

먼저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눈에 비친 ‘명동’을 살펴보자. 조선을 방문했던 일본인이 쓴 『경성 명소 이야기』라는 책은 이 부근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경성의 중심부. 조선총독부 신청사와 경성부청, 조선은행, 중앙우체국 등이 보인다.

남대문을 통과하여 아카시아 가로수의 보도를 따라 조선은행 앞 광장으로 향했다. 2천 평일까.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삼각형에 가까운 광장이었다. 정면의 한 변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나가면서도 보이는데, 메이지색(明治色)이 풍부한 빨간 벽돌의 중앙우체국이다. 좌측의 한 변은 커다란 화강암을 쌓아올린 장중한 영국풍의 조선은행 본점이다. 우측의 한 변에는 마찬가지로 화강암 외장(外裝)이 호장(豪壯)한 감을 주는 조선저축은행과 고딕 부흥조(復興調)의 장식을 입힌 미스코시(三越) 경성지점이 줄을 잇고 있다. 중앙우편국의 좌측으로 중국총영사관에 들어가는 골목의 왼쪽 모퉁이에는 파리의 몽마르트 거리로부터 운반해 온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되어지는 크림색의 사쿠라바가 있었다. 작고 아름다운 레스토랑이었는데, 나중에 중화요리점으로 바뀐 뒤부터는 외장도 별로 잘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⁷³⁾

73) 정재정, 「덕수궁 주변 근대화의 자취」, 『서울학교양총서』 6,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명동은 현란한 소비지역으로서의 면모만이 아니라, 종교적 엄숙과 예술적 진지함도 공존하는 곳이다. 현재 명동성당이 건립된 터가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인 김범우 토마스의 집이 있던 자리다. 서양 학문 연구에서 시작한 조선의 천주교가 비로소 종교로서 본격 발전한 곳이 명동인 셈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전례가 거행됐고 김범우가 순교한 뒤 천주교 조선대목구 측이 명례방 언덕의 김범우 집터를 사서 성당을 지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명동성당이다.

또한 1936년 10월 명치좌(明治座)라는 이름으로 개관해 주로 영화를 상영했던 명동예술극장이 명동 거리 한복판에 웅장하게 버티고 서 있다. 광복 이후에는 국제극장, 국립극장 등 다양한 명칭으로 변경됐는데, 우리나라 근현대 문화예술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한편 명동은 한국전쟁 이후 문학과 예술의 산실로 각광받는다. 당시 명동은 명동국립극장을 중심으로 한 연극인들의 ‘아지터’였고, ‘동방싸롱’이나 ‘갈채’, ‘청동’ 같은 다방은 갈 곳 없는 문인들과 예술가들의 집합소였다. 한국전쟁의 폐허를 시와 소설, 미술이나 음악과 같은 예술로 이겨내고자 하는 일군의 시대정신들이 모였던 것이다. 이 시기부터 명동은 ‘예술’이 생산되는 가장 뜨거운 장소였으며, 그들을 위무하고 달래주는 열정과 낭만의 거대한 성소였다. 명동의 다방에서는 음악회와 전시회 등이 열렸다. 시낭송회나 문학토론회 등의 문학행사도 빼놓을 수 없었다.

1. 바보가 성자가 되는 곳, 현대시의 명동

가. 박인환의 「목마와 숙녀」, 한국전쟁의 상실감과 폐이소스

한국전쟁 직후, 폐허의 명동을 짙은 엘레지(悲歌)로 물들인 시인이 있다. 1950년대를 떠올리면 우선 가수 박인희의 청아한 목소리에 얹힌 조용한 멜로디가 들린

1997.5, 272-273쪽 재인용

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들의 밤을 잊지 못하지……” 이 문장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박인환 시인이다. 그만큼 문인이나 예술가는 물론 대중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는 노래다.

이 시와 노래가 탄생한 배경에는 역시 박인환 특유의 천재적 기질과 발상이 작용하고 있다. 1956년 3월 초, 아직 이른 봄이지만 여전히 겨울바람은 남아 명동 곳곳에 박혀 있다. 오늘도 이진섭과 박인환은 명동의 동방살롱 앞 빈대떡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한참 흥이 고조되는데, 박인환은 동석한 가수 나애심에게 노래를 한 곡 청한다. 그녀는 “마땅한 노래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지만, 이때 박인환이 즉석에서 시를 쓰고 옆에 있던 이진섭이 즉흥으로 곡을 붙이기 시작한다. 〈명동의 상송〉으로 불리는 「세월이 가면」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젊은 예술가들의 마지막 종착역처럼 고독하고 먼 향수에 젖어 있었던 골목골목”⁷⁴⁾에 들리던 노래. 그 쓸쓸함과 외로움이 사무치는 명동거리를 이 노래보다 더 절실하게 표현한 것이 있을까. 명동의 박인환은 시를 썼고 술을 마셨으며 또한 예술의 치열함과 낭만을 지켰던 것이다.⁷⁵⁾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박인환은 종군기자로서 전쟁에 뛰어들다. 그리고 이 시기의 경험을 담은 「검은 신이여」 등의 시편을 탈고한다. 1952년에는 경향신문을 그만두고 ‘대한해운공사’에 취직했다. 1955년에는 화물선 남해호의 사무장의 자격으로 미국에 가게 되는데, 이때 쓴 시가 「태평양에서」, 「이국항구(異國港口)」 등 12편의 『아메리카 시초(詩抄)』다.

박인환은 영화에도 관심이 대단했다. 그래선지 “〈제3의 사나이〉의 조셉 코튼 역을 하고 싶다”고 서슴없이 말했다는 일화도 있다. 한번은 캐롤 리드가 1955년에 만든 〈제3의 사나이〉의 시사회가 열린 일이 있는데, 스릴러 장르인 이 영화의 필름이 3분의 2쯤 풀려가자 박인환이 벌떡 일어서서 “이겁니다! 이것이 영화예요. 백철 씨 아시겠습니까?”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영화관 뒤쪽에 앉아 있던 백철은 이 난

74) 조병화, 「나를 부르는 소리」, 『박인환 전집』, 문학세계사, 1986. 231쪽.

75) 1956년에 나애심이 음반을 냈으며, 1959년에는 현인, 1968년에는 현미, 그리고 1972년 조용필의 노래로 발매된 바 있다. 그런데 1976년 박인환이 크게 히트시키면서 그녀의 대표곡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른바 ‘명동의 상송’으로 많은 이들에게 추억되고 있다.

데없는 소환에 어안이 병병해 입만 벌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⁷⁶⁾

김광균도 박인환을 ‘백학’(白鶴)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백학으로 상징되는 순백의 고고함, 시인의 눈에 비친 젊고 순수한 청년은 단지 유행이 아닌, 폐허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우리 시의 가능성이었다. 시인은 말한다. “사람이 때가 묻지 않았고, 수줍은 데도 있었으나, 예리한 대목과 엉뚱한 데도 있어서 연령의 벽을 넘어서 둘의 공통되는 시대감각이랄까 그런 것이 있었다. 시에 대한 열기는 만만치 않아서 이쪽이 차라리 압도당할 듯해서 소설가, 시인이 정치판에서 하도 떠들던 시대라, 나는 조그만 백학을 발견한 느낌조차 들었다.”⁷⁷⁾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거저 방울 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벼웁게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초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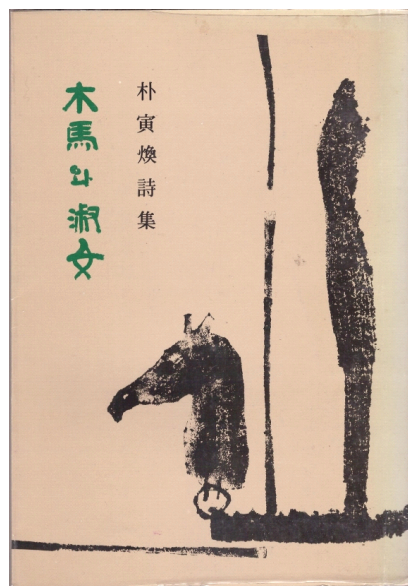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박인환의 시집 『목마와 숙녀』 표지

76) 최하림, ‘문단이면서’ 9, 경향신문 1983. 4. 2일자 참고. 이 부분은 최하림이 전하는 일화를 재구성하였다.

77) 김광균, 앞의 글, 217쪽.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작가의 눈을 바라다보아야 한다
 ……등대에……
 불이 보이지 않아도
 거저 간직한 페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목마 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거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 개의 바위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거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 소리는 귤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 바람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메어 우는데

시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목마와 숙녀」는 1955년에 간행된 『박인환 시선집』에 수록된 시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31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사실이다. 시집을 간행한 이듬해인 1956년 3월 20일, 시인은 이상의 죽음을 기리며 무려 4일간 폭음을 했는데, 그만 알코올성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했다. 1976년에 그의 20주기를 맞이해 시집 『목마와 숙녀』를 간행했다.

박인환은 명동 시대를 대표하는 술한 엘레지[悲歌]를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다. 그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명동’의 술한 시와 예술을 뒤로한 채 ‘상심한 별’이 되어 모든 이의 가슴에 가볍게 부서지고 만 것이다.

나. 한하운의 「명동 거리 1」, 명동에서의 처절한 생존기

한하운의 명동은 그야말로 유랑에 대한 슬픔과 절망으로 꽉 차 있다. 일제강점기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까지 덮쳐와 명동은 그야말로 폐허 중의 폐허였다. 그 불모의 땅에서 살아간다는 건 맨 정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한하운 시인은 살아남는다. 살아서 자신의 처절한 생존기를 쓰는 것이다.

진기(眞價)를 잃어버린 상품들이 진열장 속에 귀양 산다……

사람들은 모두들 덩과 에누리로 화류병(花柳病)을 사고판다.

본적도 주소도 없는 사생아들의 고향……

간음과 횡령과 싸움으로 밀천을 하는 상가.

신사 숙녀 들의 영양 충당시키기 위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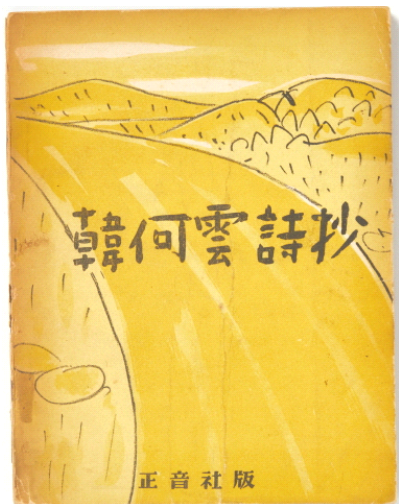
날마다 갈아 붙는 메뉴 위에 비타민 광고가 식욕을 현혹한다.

캠핑 주사 대신에 교수형을 요리하는 집집이 쓰레기 속엔

닭의 모가지 생선 대가리들의 방사하는 인광(磷光) 인광.⁷⁸⁾

위 작품은 ‘명동거리’를 주제로 한 세 편의 시 중 첫 번째 작품이다. “진기를 잃어버린 상품들이 진열장 속에 귀양 산다……”고 시인은 쓴다. 시인의 눈에 비친 화려한 아케이드 너머의 상품들은, 이미 자신의 고유한 사용가치를 잃어버린 불구의 모습이다. 현대미학과 산업의 집중이라는 ‘광고’조차도 상품의 고유한 쓸모나 아우

78) 한하운, 「명동거리 1」, 『한하운 전집』, 문학과지성사, 2010, 55쪽.



『한하운 시초』 표지

라보다는 어떻게 하면 많이 팔릴까를 고민하며 윤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란한 수사를 동원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유명한 잠언은 이제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바뀐다. 오죽했으면 시인은 명동을 “본적도 주소도 없는 사생아들의 고향……”이라고 토로하는 것일까.

시인에게 명동은 “벽 없는 공동침실의 입구”(『명동거리 3』)로 표상되는데, 특히, “신사 숙녀들의 영양 충당시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갈아 붙는 메뉴 위에 비타민 광고가 식욕을

현혹”하는 곳이며, “닭의 모가지 생선 대가리들의 방사하는 인광 인광”이 가득한 곳으로 비유된다.

그러나 그는 ‘명동의 거리’에서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숙명을 결코 잊지 않는다. 죽음보다 더 큰 ‘시’를 쓰고 사람들에게 읽혀주며 살아간다는 것의 장엄한 본능을 노래했다. “나는/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어// 푸른 하늘/ 푸른 들/ 날아다니며// 푸른 노래/ 푸른 울음/ 울어 예으리// 나는/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리”(『파랑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명동의 거리가 그에게 모질지만 아름다운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다.

한하운 시인은 “어쩔 수 없는 이 썩어가는 목숨을 발버둥 치며—불면 꺼질 것만 같은 아슬아슬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목숨을 건져보려고— 빛을 찾아서 시를 쓴다”⁷⁹⁾고 했다. 당대의 다른 시인들이 예술적 본능이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시를 쓴 것과는 달리, 한하운은 그야말로 ‘삶의 본능’에 의해서 시를 쓴 것이다. 그리고 ‘명동’은, 그가 생존을 위해 시를 팔며 구걸을 했던 유일한 터전이었다.

한편, 한하운 시인에게는 무척 극적인 등단기가 있다. 명동에서 걸인 생활을 하

79) 한하운, 『한하운 전집』, 문학과지성사, 2010. 500쪽.

던 그가 1949년 4월, 서울신문이 발행하는 잡지 <신천지>에 ‘라(癩) 시인 한하운 시초(詩抄)’가 실린 것이다. 여기에는 「전라도 길」, 「별」, 「목숨」 등 13편의 주옥같은 시가 실렸다. 그리고 한 달 후인 5월 정음사에서 『한하운 시초』가 출간된다. 이 시집은 70쪽의 얇은 분량이었는데, 이례적으로 모조 100g의 고급용지를 사용했고, <신천지>에 실린 13편의 시에 새로 12편을 추가해 모두 25편의 시가 수록된다.

특히, 당대 최고의 화가 중의 한 사람인 정현웅(1911~1976)이 표지를 장정하여 그 예술적 가치를 높였으며, 당시 화가를 꿈꾸던 고은을 시인의 길로 바꾸기도 했다는 일화도 있다. 군산중학교의 학생이었던 고은은 『한하운 시초』를 길에서 우연히 주웠는데, “밤새워 읽고 또 읽으며, 한하운처럼 문둥병 환자가 되고, 떠돌이 시인이 될 것을 맹세하고 펄펄 울었다”⁸⁰⁾고 한다.

다. 정호승의 「명동성당」(2009), 마지막 첫눈을 기다리는 성자

정호승의 「명동성당」은 읽기만 해도 차분해진다. 어려운 단어도 없다. 쉬운 문장을 아무런 장식 없이 던져버린 시다. 하지만 여운이 깊다. 차분해지다가 마음을 가둔 자물쇠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도 든다.

바보가 성자가 되는 곳
 성자가 바보가 되는 곳
 돌맹이도 촛불이 되는 곳
 촛불이 다시 빵이 되는 곳

홀연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
 돌아왔다가 고요히 다시 떠날 수 있는 곳
 죽은 꽃의 시체가 열매 맺는 곳

80) 김종호, 「오후 여담」, 문화일보 2016.8.18일자 재인용.

죽은 꽃의 향기가 가장 멀리 향기로운 곳

서울은 휴지와 같고
이 시대에 이미 계절은 없어
나 죽기 전에 먼저 죽었으나
하얀 눈길을 낙타 타고 오는 사나이
명동성당이 된 그 사나이를 따라
나 실기 전에 먼저 살았으나

어머니를 잃은 어머니가 찾아오는 곳
아버지를 잃은 아버지가 찾아와 무릎 꿇는
곳
종을 잃은 종소리가 영원히
울려 퍼지는 곳⁸¹⁾



1987년 6월 항쟁 당시의 명동성당

명동성당이 자리한 고즈넉한 언덕은 한국 천주교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다. 이곳은 한국 교회 공동체가 처음으로 탄생한 곳이자 여러 순교자의 유해가 모셔진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김범우 토마스의 집이 있었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천주교 전례가 거행되기도 했다. 2천 년 교회사 안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천주교를 받아들인 것이다.

김범우 토마스는 이 집에서 이승훈 베드로, 정약전 안드레아 등과 함께 천주교 서적을 연구하고 자체적으로 공소예절을 드린다. 조선 관료들이 이를 적발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명문가 자제라는 이유로 훈방 조치했지만, 중인 계급이었던 김범우는 고문을 받고 귀양을 가다가 사망했다. 이후 조불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해인

81) 정호승, 「명동성당」, 『실천문학』 여름호, 2009, 112쪽.

1886년부터 조선에서 천주교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고 나서 새로 성당을 짓기 시작한 것이 이 명동성당이다.⁸²⁾

명동성당은 197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명동성당에서는 1976년 3·1 민주 구국선언이 발표됐고 특히 그 유명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1971년 성탄 자정미사 강론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조작을 폭로했던 1987년 5·18 7주기 추모 미사가 거행됐고 6월 항쟁 당시에는 대학생 농성단의 은신처로 역할을 다했으며, 6월 항쟁 이후에는 항쟁 희생자들을 기리는 각종 미사들이 집전되었다.⁸³⁾

정호승 시인은 명동성당으로 오르는 계단을 딛고 서 있다. 아주 오래전에 들렸을, 종탑의 맑고 투명한 소리를 불러내며,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은 그런 명쾌한 질문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살펴본다. 바보가 성자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성자도 바보가 되는 이 명동성당에서, 돌맹이도 촛불이 되고, 그 촛불은 다시 빵이 되는 일상화된 기적을 생각한다. 죽은 꽃의 시체가 열매를 맺으며, 또한 죽은 꽃의 향기가 가장 멀리 향기로운 곳에서 과연 삶과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멀리서 어머니를 어머니가 찾아오고 있다. 아주 멀리서 아버지를 잃은 아버지가 찾아와서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다.

시인은 이외에도 명동성당에 대한 시를 발표한다. 「고해성사 안내문」(2020), 「마지막 첫눈」(2013), 김수환 추기경의 기도하는 손」(2004) 등이 그것이다. 이중 「마지막 첫눈」의 백미를 읽어보자.

별들이 첫눈으로 내린다
가장 빛날 때가 가장 침묵할 때이던 별들이
드디어 마지막 첫눈으로 내린다
커피전문점 어두운 창가에 앉아

82) 위키백과, 명동성당 참고.

83) 앞의 글 참고.

다시 찾아올 성자를 기다리며

첫눈으로 내리는 흰 별들을 바라본다⁸⁴⁾

첫눈은 최초이지 마지막이 아니다. 그러나 시인은 굳이 첫눈에 ‘마지막’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무슨 까닭일까. “가장 빛날 때가 가장 침묵할 때”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첫눈’이라는 단어에 각인된 설렘과 수줍음이 마지막까지 남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까. 이유야 어떻든 별들이 첫눈으로 내리는 그 아득한 풍경을 뒤로하고 시인이 기다리는 성자는 문밖에 있다. 마지막 첫눈과 함께 말이다.

이처럼 시인의 시는 어느 하나 가볍게 흘릴 수 없다. 그의 문장은 울음 속에서 더욱 빛나는 ‘울음’이기 때문이다.

2. 현대소설에 등장하는 명동

가. 사회의 가난한 약자들이 마지막 기댈 곳, 명동성당

우리 현대사에서 ‘명동성당’은 민주주의의 성지로 일컬어진다. 독재와 대등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해방구가 명동성당이었기 때문이다. 종교적 엄숙함은 자유와 민주에 대한 신의 가르침과 같았고, 그 가르침은 결국 ‘평등’의 이념으로 직결되었다. 백골단으로 불리던 전경이나 시위 진압대들은 명동성당만큼은 침범하지 못했다. 성당의 마당에서 민중가요가 아무리 크고 멀리 퍼져나가도, 일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비좁게 앉아 구호를 외치고 독재 타로를 울부짖어도 그곳은 신이 보듬어 안은 약자들의 성역이었다.

표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명동성

84) 정호승, 「마지막 첫눈」, 『여행』, 창작과비평사, 2013, 28쪽. 일부만 인용한다.

당 지하 광주항쟁 사진 전시실에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사가지고 와 그 당시 금서 제1호였던 그 책을 밤새워 읽으며 얼마나 비장한 감동에 젖어 눈물을 흘렸던가.⁸⁵⁾

그 성역에서 사람들은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금서를 읽는다. 황석영의 이 기념비적인 저작은 전두환 정권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폭로함으로써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되는데, 당시 금서 제1호였을 만큼 정권에는 글자 그대로의 눈엣가시였다. 이 책을 가방에 넣고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였다. 하지만 명동성당에서는 사상과 생각의 자유가 누구에게나 허용되었으며 표현의 자유 또한 보장되었다. 조성기 소설가가 쓴 것처럼 명동성당 지하에서는 <광주항쟁 사진 전시>가 있었으며, 황석영의 책을 읽을 수 있었다. 한수산 소설가가 증언하듯, 명동성당은 “1987년의 6월 항쟁에서 명동성당은 권력에 맞서 싸우는 마지막 보루였다.”⁸⁶⁾ 특히, “사회의 가난한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이 되어갔”⁸⁷⁾던 것이다.

박태순 소설가도 『밤길의 사람들』을 통해 1987년 6월 항쟁 당시 명동성당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마치 알지 못한 자력에 끌리기라도 하듯 그들은 밤마다 명동으로 모여드는 것이었다.”

“을지로 쪽에서 와아와아 하다가 신세계 쪽으로 돌고 퇴계로 쪽으로 술래잡이를 하다가 다시 충무로 쪽으로 제일백화점 앞으로, 그리하여 명동성당 쪽으로 원무의 무대를 바싹 좁혀 놓곤 했다.”

“상계동 철거민으로 명동성당 마당에서 천막 생활을 하는 사람들 고생 많았지요.”⁸⁸⁾

이 작품은 1987년 6월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어떤 확고하고 분명하며 생생한

85) 조성기, 「우리시대의 법정」, 『통도사 가는 길』, 민음사, 1992, 210쪽.

86) 한수산, 『용서를 위하여』, 해냄출판사, 2010, 293쪽.

87) 한수산, 앞의 책, 같은 곳.

88) 박태순, 『밤길의 사람들』, 한국소설문학대계(50), 동아출판사, 1995, 497~498, 502쪽.

‘열기’에 관한 서사다. “호헌철폐 독재타도”라는 구호에 집약되는 그 열기는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켰고 눈물 흘리게 만들었으며 밤길로 내몰았다. 4·19나 부마항쟁, 그 이전 농민 봉기에 필적할 함성과 흥분이 그 밤길을 채웠던 것이다. 그 한가운데 바로 명동성당이 있었다. 조태일, 이창동, 신경숙 소설가가 본 것도 다르지 않았다.

① 6월 항쟁 때, 명동과 서울역 앞에서 맡았던 최루가스가 지금도 온몸에서 찢득찢득 묻어나는 것만 같다.⁸⁹⁾

② 그 시각쯤 명동성당 구내에는 어림잡아 천 명 가까운 숫자의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⁹⁰⁾

③ 그때 명동성당에선 노동자들이 단식투쟁을 하고 있었으므로 퇴계로를 건너온 데모대는 명동 쪽으로 몰렸다.⁹¹⁾

명동성당은 종교적 참회의, 혹은 부활의 장소만이 아니다. 시대와 호흡하고, 시대와 함께 울고 웃는 민중의 가장 뜨거운 벗이다.

나. 부유하는 소비도시의 이미지

거리는 회색의 빛 속에 온통 부엌에 잠겨 있었다. 일몰 후의 공허한 공간을 무수한 입자들이 자욱이 떠돌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들은 어둠에 함몰되기 직전의 마지막 밝음이었
고, 도시의 거리를 부유하는 한낮의 열기와 미진들이었으며, 이윽고는 그 많은 광고탑
과 간판과 진열장으로부터 서서히 살아오르고 있는 불빛들에 쫓겨 이 시대의 욕지거
림 음험한 뒷골목으로나 찾아질 그런 도색적인 욕망 같은 것이었다.⁹²⁾

89) 조태일, 「그리운 쪽으로 고개를」, 『조태일 전집』, 창작과비평사, 2009, 168쪽.

90) 이창동, 「진짜 사나이」, 『녹천에는 똥이 많다』, 문학과지성사, 1992, 16쪽.

91) 신경숙, 「깊은 숨을 쉴 때마다」, 『오래전 집을 떠날 때』, 창작과비평사, 1996, 292쪽.

92) 이동하, 「도시의 늪」, 〈현대문학〉(286), 1978, 159쪽.

위 인용문에서 이동하 소설가가 적절히 표현한 것처럼, ‘명동’은 한반도 최대의 소비지역이라는 별칭답게 어둠에 함몰되기 직전의 ‘마지막 밝음’으로 타오르고 있다. 도시의 거리를 부유하는 한낮의 열기와 미진들은 이제 곧 완전히 소진되고, 이윽고 그 많은 ‘광고탑’과 ‘간판’, ‘진열장’에서는 또 하나의 불빛들이 서서히 살아오를 것이다. 그것은 분명 “욕지기처럼 음험한 뒷골목으로나 찾아질 그런 도색적인 욕망 같은 것”이다.

우리가 명동을 생각하면 맨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는 ‘현란함’이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오로지 소비만을 위한 세계가 바로 ‘명동’에 각인된 것이다. 사람들로 넘쳐나는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부딪치는 일은 다반사다. 그들은 명동을 부유하고 있으나, 그들이 딛고 선 자리는 명동이 아니었다. 명동이 뿌려놓은 판타스마고리아에 갇힌 채 자신의 거울에만 골몰할 뿐이다.

확실히 명동은 ‘명동성당’과는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다. 명동의 장소성은 무엇보다 소비와 향락에 기울어 있다.

① 광훈도 그런 부류의 한 사람으로 명동 골목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사였다.⁹³⁾

② 전날 밤에 유학 준비 중인 친구 녀석 하나를 명동에 데리고 나가 당시로서는 최고급 술인 생맥주를 왕창 퍼 먹이고 첫 시험인 외국어 시간만 어떻게 때워달라고 사정을 했다.⁹⁴⁾

③ 언젠가 딸과 함께 돈가스를 먹으러 갔던 남산 길과 일본어 간판으로 가득 찬 명동, 고향의 발두령, 중세 유럽풍의 고풍스러운 벽돌길 드문드문 선인장이 자라고 있는 사막, 그리고 현실 속의 그녀가 살고 있는 방배동 아파트 단지 등이 한데 뒤섞인 골목길을 몇 차례 헤맨 끝에 그녀는 마차에서 내릴 수 있었다.⁹⁵⁾

93) 정한숙, 『그리고 30년』, 정통한국문학대계(21), 어문각, 1996, 222쪽.

94) 황석영, 『강남몽』, 창작과비평사, 2010, 196쪽.

95) 김현영, 「얼룩말은 나의 발톱」, 『하루의 인생』, 자음과모음, 2012, 41쪽.



1989년 명동의 축제 모습(출처: 서울사진아카이브)

④ 서울 시내 일류 귀부인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양장점은 명동 어디고, 지압을 겸한 전신 마사지까지 해주는 미장원은 어디고, 외제를 구할 수 있는 양품점은 어디고, 신을 만한 수제화를 만드는 살롱은 어디고, 이런 것들에 마담 뚜는 통달해 있었고, 이런 지식을 지나가는 말처럼 자연스럽게 초희에게 불어넣었다.⁹⁶⁾

⑤ 명동에는 그런 것들 말고도 미군 장교하고 살림을 차린 고급 양부인이 주 고객인 중후하고도 화려한 보석상도 있었다.⁹⁷⁾

⑥ “들어봐. 이번에 내가 서울 명동에도 매장 내잖아. 명동에 자리 얻는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나? 그런데 역시 명동 건물주들은 다르더라. 임대료도 임대료지만 어떤 품목을 어떤 브랜드로 영업하느냐를 더 우선적으로 보는 거야. 명동거리에서 일이층 상가는 그 건물의 얼굴인데 자기네 일층에 들어오는 매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건물 이미지가 죽

96) 박완서, 『휘청거리는 오후』, 세계사, 2003, 439쪽.

97) 박완서, 「그 남자네 집」, 『친절한 복희씨』, 문학과지성사, 2007, 68쪽.

는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내 이번 브랜드에는 곧바로 오케이 하더라. 그러니 너도 옆 집 내보내고 한번 해봐.”⁹⁸⁾

⑦ 발길은 카이저호프(Kaiserhof)나 하이마트로제(Heimatlose)와 같은 독일식 이름이 붙은 생맥주 집으로 향하기도 했고 명동 뒷골목에 있는 무섭도록 맵고 뜨거운 순두부집에서 생굴을 넣은 순두부를 먹고 비실비실 크로이첼로 향하기도 했다.⁹⁹⁾

⑧ 단지 형석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제당회사만 잘돼봐라, 필구에겐 종로 복판이나 명동 어귀에 큰 세탁소를 차려주고, 동연에게도 집 한 채쯤 사주지 않으리, 하고 괜스레 뻑적지근한 욕심만으로, 고작 이런 것이 이즈음 들어서의 형석의 고향의식이라는 것의 속알맹이었다.¹⁰⁰⁾

위 인용문만 보더라도 명동은 생활의 터전이 아니라, 그 ‘터전’을 사는 사람들에게 거는 ‘마법-소(所)’이다.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정교하고 세심하고 정갈하게 부풀려 한때의 유행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명동에게 부여된 지상과제라는 말이다. 그러니 명동에 대해 반감을 지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유행’의 허상을 쫓는 자들을 비판하기 마련이다. “그들은 마치 소돔의 성에서 유독 우리만은 십자군이라는 듯이 명동 다방에서도 어깨를 펴고 앉는 육사 생도보다 더 과장되게 군인같이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보였다.”¹⁰¹⁾는 문장은 어쩌면 위선과 위악으로 가득한 ‘명동’에 대한 비판일지 모른다. 혹은 이렇기도 하다. “도대체 이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자들이 그거 명동 들락거리는 문화인들이라는 놈들임에 틀림없다구.”¹⁰²⁾

그런데 ‘소비’와 ‘향락’은 반드시 그 대립쌍으로 ‘상실’과 ‘허무’를 수반하는 바, 이러한 페이소스는 작가의 의식에 직접적으로 각인되어 문학적으로 표현된다. 바로 이 부분에서 명동에 대한 자기반성의 문장, 곧 “진실에 대한 욕망과 향수, 명동”¹⁰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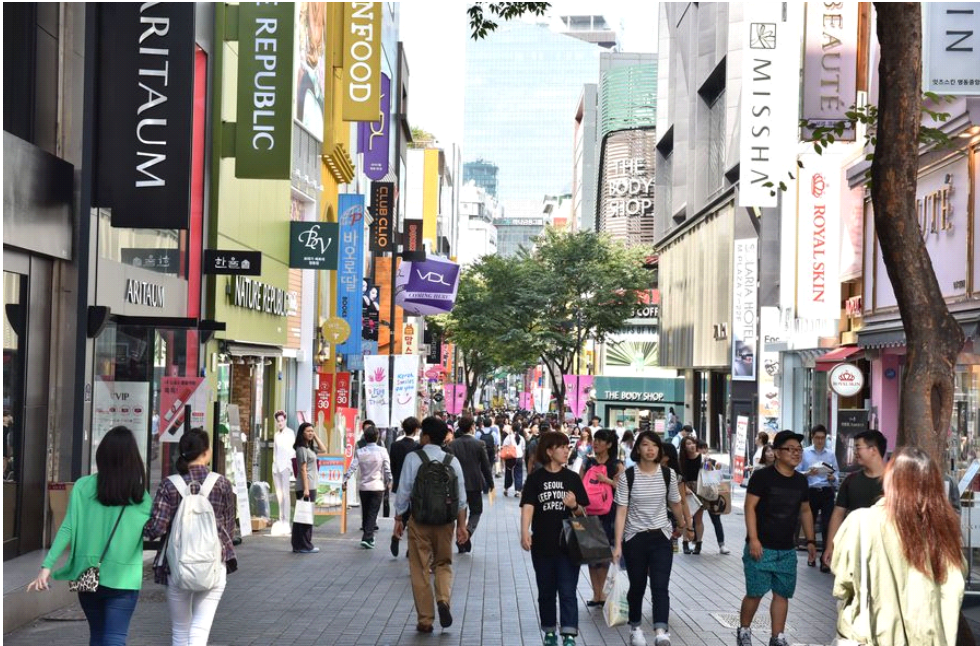
98) 김정현, 『고향사진관』, 은행나무, 2008, 119쪽.

99) 김승희, 『33세의 팽세』, 문학사상사, 2007, 315쪽.

100) 이호철, 「탈각」, 『이산타령 친족타령』, 창작과 비평사, 2001, 237쪽.

101) 최인호, 『무서운 복수』, 한국소설문학대계(58), 동아출판사, 1995, 132쪽.

102) 박태순, 『어느 사학도의 젊은 시절』, 고려서적, 1980, 251쪽.



패션과 뷰티 산업이 집결된 명동의 거리 풍경

이라는 표제가 가능해진다.

- ⑨ 어디를 어떻게 헤매었는지 어느덧 명동 으스스한 폐허 밑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¹⁰⁴⁾
- ⑩ 그러나 늙지 않고 멋진 차림으로 明洞 거리를 활보하는 내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다지 유쾌할 것은 없다.¹⁰⁵⁾
- ⑪ 당시, 사십 내외의 나이로 밤이면 명동거리를 어정댄 경험을 갖는 세대에 있어서 그 후의 명동은 아무리 유행의 첨단을 달리고 풍성거려도, 그것은 그의 거리일 수 없는 낯선 남의 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¹⁰⁶⁾

103) 김승희, 『33세의 팍세』, 문학사상사, 2007, 315쪽.

104) 선우 휘, 『테러리스트』, 정통한국문학대계(17), 어문각, 1996, 374쪽.

105) 박경리, 『기다리는 불안』, 현암사, 1966, 196쪽.

106) 선우 휘, 『나도밤나무』, 정통한국문학대계(17), 어문각, 1996, 377쪽.

두 번째로 명동은 아케이드와 같은 ‘마법의 공간’이라는, 판타스마고리아가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공간이다. 판타스마고리아는 백화점의 아케이드에 진열된 상품에서 그 참모습을 볼 수 있다. 백화점은 그 상품의 사용가치, 곧 쓸모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다. 백화점이 집중하는 것은 상품이 의사(擬似)-아우라aura를 만들어내게끔 조작하는 것이다. 아케이드의 휘황찬란한 빛의 굴절이 그 예에 해당한다. 이 마법 속에서 상품은 무척 성스러운 그 무엇으로 탈바꿈한다.

⑫ 명동 골목은 언제 보아도 친근감이 가는 곳이었다.¹⁰⁷⁾

⑬ 명동의 네온불빛이 황홀했어.¹⁰⁸⁾

⑭ 산책의 끝이 항상 명동성당인 것은 순전히, 그곳에서라면 돈 한 푼 내지 않고 쉴 수 있기 때문이었다.¹⁰⁹⁾

⑮ 비 오는 명동거리의 쇼윈도를 우산 너머로 흘깃 한 번 쳐다보는 것 같은.¹¹⁰⁾

⑯ 더욱이 조그마한 도회 명동 거리의 달밤은 어찌할 수 없도록 좋은 것이야 어릴 때 보던 어머니의 분 바른 얼굴과 같기도 명동의 달밤은 그리우면서도 서러운 것이다.¹¹¹⁾

⑰ 명동 바람을 며칠 안 쐈더니 살에서 곰팡내가 나는 것 같아서, 맥주를 마시러 옷을 맞추러, 구두를 사려고, 사람 구경을 하려고, 사랑을 주우려고, 사랑을 흘리려고, 명동으로 모여들고 있다.¹¹²⁾

⑱ 간혹 손님들 앞에서 새 디자인의 옷을 입어 보이는 모델 일을 하기도 했었다, 스무 살하고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표현정은 23인치의 허리와 하얗고 둥근 얼굴을 갖고 있었으니 축복받은 편이다. 그 당시 명동은 또래들이 쉽게 일자리를 구하던 전자제품 공장이나 번두리 버스회사 경리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화려한 직장이었다.¹¹³⁾

107) 김홍신, 『인간시장(1)』, 행림출판사, 1981, 83쪽.

108) 최인호, 『꽃밭』, 열림원, 2007, 226쪽.

109) 김연경, 『고양이의 이중생활』, 민음사, 2009, 57쪽.

110) 김경옥, 「그녀를 사랑해선 안 되는 단 한 가지 이유」, 『베틀을 만나러 가다』, 문학동네, 1999, 199쪽.

111) 이봉구, 『명동 엘레지』, 정통한국문학대계 (30), 어문각, 1996, 125쪽.

112) 박완서, 『도시의 흥년(상)』, 세계사, 1993, 259쪽.

세 번째로 명동의 실제 모습이다. 이른바 역사의 소용돌이에 정면으로 맞선 사람들의 서사가 여기에서 시작한다. 한국전쟁의 상처로 ‘폐허’가 되어버린 명동의 모습이나 ‘4·19혁명’과 ‘6월 항쟁’ 등 시대를 관통하는 굵직굵직한 문턱들은 많은 작가에게 문장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는 것이다. 이명랑 소설가가 쓰는 것처럼, “그 날 우린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에게 명동은 하나의 상징이었습죠!”

①⑨ 잡초가 무성하던 명동공원 주변에는 폭격에 무너진 건물 잔해의 골조와 벽에 기대어 임시로 세운 가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식당이나 주점이 비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줄지어 있었다.¹¹⁴⁾

②⑩ 명동 대성빌딩에서 항일 문학의 밤이 있어 그도 동료 문인들과 함께 항일시 한 편을 읽으며, 그 모임을 주최했던 장정후 씨의 강연을 들었고, 다시 그 뒷새 뒤에는 드디어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이 신문지상에 보도되면서 세상은 차츰 소용돌이 속으로 휘감겨 들어가고 있었다.¹¹⁵⁾

②⑪ 그는 아직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목소리로 농성장에서 있었던 일들, 시민들의 반응, 명동 일대에 근무하는 여사원들이 성금과 빵을 전해주던 일들을 들려주었다.¹¹⁶⁾

②⑫ 명동은 포화 속에 반 조각이 되어 버렸지만, 명동 입구에서 문예서점, 명동극장, 국립극장 쪽만 남고 건너편의 많은 건물이 타서 허물어졌고 총무로로 통하는 명동 거리는 절반이 타버려 명동장, 돌체 등이 빈터만 쓸쓸히 눈에 띄었다.¹¹⁷⁾

②⑬ 그러니까 내가 시위 가담자로 경찰에 강제 연행된 것은 그날 오후 명동 입구의 코스모스백화점 부근에서였다.¹¹⁸⁾

②⑭ 명동 입구에 이르렀을 때 미대사관 쪽에서 한 패의 데모대가 달려왔다.¹¹⁹⁾

113) 배수아, 『일요일 스키야키 식당』, 문학과지성사, 2003, 41쪽.

114) 황석영, 『개밥바라기별』, 문학동네, 2008, 215쪽.

115) 이호철, 『문』, 『이호철전집』(5), 청계, 1989, 111쪽.

116) 이창동, 「진짜 사나이」, 『녹천에는 똥이 많다』, 문학과지성사, 23쪽.

117) 안도섭, 『명동 시대』, 글누리출판사, 2011, 232쪽.

118) 이창동, 「진짜 사나이」, 『녹천에는 똥이 많다』, 문학과지성사, 1992, 7쪽.

119) 오학영, 『밀림을 가다』, 정통한국문학대계(37), 어문각, 1996, 30쪽.

㉔ 백발노인이 되어버린 선배들부터 우리 같은 여성들에 이르기까지 시민시위대는 종로에서 명동으로 시청 앞에서 서울역으로 차도에까지 발 디딜 틈도 없이 군중을 이루어 행진했다.¹²⁰⁾

㉕ “그날 우린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에게 명동은 하나의 상징이었습죠. 아, 제가 또 말이 과했나 보군요. 이래서 저는 먹물이라니까요(여기서 아주 잠깐 협동합시다 아저씨는 얼굴을 붉혔다). 혹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신지? 우리들은 서로의 손목을 손수건으로 동여매고 전경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있던 그들, 그들은 호랑이, 늑대, 야수, 짐승이었고 손목을 하나로 묶은 우리들은 야수의 이빨 아래 놓인 선한 먹이었지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빨? 발톱? 우리에게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만이 있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 바로 그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는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명동의 빌딩숲 사이에서, 그 하늘 위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여름,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런 휴지도 있었던 것 같군요(아저씨는 쟁반 위에 놓여 있던 냅킨을 번쩍 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물병, 생수병, 화장지, 김밥, 곰보빵, 크림빵, 소보루빵, 온갖 종류의 빵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¹²¹⁾

명동을 떠오르게 하는 이 모든 시퀀스들은 세월이 무수히 지나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명동은 확고부동한 장소성을 가진 지역이지만, 이제부터는 그 ‘장소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도전과 모험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120) 황석영, 『오래된 정원(하)』, 창작과비평사, 2000, 180쪽.

121) 이명량, 『나의 이복형제들』, 실천문학, 2004, 279쪽.

6장 그 밖의 주요 장소들

1. 빛과 어둠의 절묘한 아케이드, 소공동

가. 김광균의 「장곡천정에 내리는 눈」(1941), 빛나는 추억의 한때

지금도 그렇지만 예부터 ‘소공동’은 선비적 품위와 귀족적 유머, 예의가 넘치는 무척 세련된 장소였다. 우리 근대사의 첫 거리인 ‘소공로’¹²²⁾를 품에 안았으며, 특히 19세기 말 고종이 구상했던 첫 근대 도시계획의 시발점이기도 한 소공동은 조선 3대 임금 태종의 딸이 시집간 소공주택(현재 조선폰텔 인근)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122) 한겨레신문, 2015.10.11일자 기사. 다음을 읽어보자. “남산 아래 한국은행에서 시청 앞까지 500여 미터 비스듬하게 뻗은 너비 20미터의 길과 거리는 근대 도시사의 현장박물관이기도 하다. 1897년 조선폰텔 부근 환구단에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뒤 파리 가로를 본뜬 방사형의 소공로가 났었고, 일제강점기와 1950~70년대 금융기관과 언론사, 양복점, 무역사무실, 식당, 카페 등이 길가 양옆에 들어섰다. 1980년대 이후 쇠락했지만, 소공로변은 지난 100년간 우리 근대 도시 경관이 격변해온 역사를 지금껏 간직하고 있다.”(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12353.html)



일제강점기 조선호텔

이름이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당시 조선주차군사령관이며 제2대 총독이었던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의 이름을 따서 장곡천정으로 불리기도 했다.

박태원도 소설 『구보 씨의 하루』에서 “조선은행 앞에서 구보는 전차를 내려 장곡천정으로 향한다”라는 문장을 썼는데, 이곳이 당대 유명한 예술인들이 살롱처럼 드나들었던 일종의 ‘카페 거리’였다. 박수근은 미스코시 백화점 앞에서 거리를 지나 는 외국인들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궁핍한 생활을 이어갔다는 일화도 있다. 그만큼 소공동은 모던-보이, 모던-걸의 아지트였다.

김광균 시인은 1941년 소공동의 이 물러날 듯 고요하고 풍만하며 넉넉한 풍경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찾집 미모사 지붕 위에

호텔의 풍속계 위에

기울어진 포스트 위에

눈이 내린다

물결치는 지붕지붕의 한끝에 들리던

먼 소음의 호수 잠들은 뒤

물기 낀 기적만 이따금 들려오고

그 위에

낡은 필름 같은 눈이 내린다

이 길을 자고 가면 옛날로나 돌아갈 듯이

등불이 정다웁다

내리는 눈발이 속삭인다

옛날로 가자, 옛날로 가자¹²³⁾

근대는 새로운 이름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근대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제도와 문물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물들이 곳곳에 나타나며, 이것이 근대의 외연을 형성한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진행된 조선의 근대화는, 비록 그것이 정상적인 자본주의 발달과정이 아닐지라도 자본주의의 보편성이 관철되는 근대화였으며,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에는 새로운 사물들에 대한 경이로 가득했다. 3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그것들은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되며, 사람들의 내면 풍경 속으로 자연스럽게 포섭된다. 이것은 30년대 시에 ‘기차, 대합실, 정차장, 철도, 호텔, 고층, 전보, 화물차, 옥상, 분수, 전신주’ 등 헤아릴 수 없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광균은 ‘장곡천정(長谷川町)’에 서 있다. 그곳은 ‘생각의 피로’에 찌든 ‘구보’가 한 잔의 홍차를 마시려는 곳이기도 하다. 김광균은 ‘호텔, 찻집’ 등 이미 전경화되었

123) 김광균, 「장곡천정에 오는 눈」, 『김광균 전집』, 국학자료원, 2002, 73쪽.

지만 여전히 낯선 외래어의 사물을 보고 있다. 그의 내면에 자리잡은 근대의 풍경은 전경화와 후경화의 이중 세계이며, 이들의 언어를 통해 암시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첫 행의 ‘미모사’는 시인 장만영이 운영하던 ‘음악다방’이다.

나. 김수영의 「국립도서관」(1955), 죽어 있는 방대한 서책을 넘어서다

김수영과 소동공의 인연도 깊다. 그의 시 「국립도서관」이 바로 일제강점기 소공동에 위치했던 조선총독부도서관을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들 공부하는 속에 와보면 나도 옛날에 공부하던 생각이 난다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고

누구나 어른들은 말하고 있으나

나는 그 우열을 따지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구태여 달관하고 있는 지금의 내 마음에

샘솟아 나오려는 이 설움은 무엇인가

모독당한 과거일까

약탈된 소유권일까

그대들 어린 학도들과 나 사이에 놓여

있는

연령의 넘지 못할 차이일까……

전쟁의 모든 파괴 속에서

불사조같이 살아난 너의 몸뚱아리-

우주의 파편같이

혹은 혜성같이 반짝이는

무수한 잔재 속에 담겨 있는 또 이



옛 국립중앙도서관의 마지막 모습(1974.7.19.)

무수한 몸뚱아리—들은
지금 무엇을 예의(銳意) 연마하고 있는가

흥분할 줄 모르는 나의 생리와
방향을 가리지 않고 서 있는 서가 사이에서
도적질이나 하듯이 희끗희끗 내어다보는 저 흰 벽들은
무슨 조류(鳥類)의 시뇨(屎尿)와도 같다

오 죽어 있는 방대한 서책들

너를 보는 설움은 피폐한 고향의 설움일지도 모른다
예언자가 나지 않는 거리로 창이 난 이 도서관은
창설의 의도부터가 풍자적이었는지도 모른다

모두들 공부하는 속에 와보면 나도 옛날에 공부하던 생각이 난다¹²⁴⁾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국립도서관의 역사는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선산업은행이 조선총독부도서관 건립 비용을 대는 과정 속에서 도서관이 건립이 마무리되고, 1925년 4월 3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서 열람이 개시되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자리는 조선호텔 동편의 광선문(光宣門) 안쪽 옛 석고단(石鼓壇)으로 지금의 롯데백화점 자리였다. 기록에 따르면, 출입자에 대한 열람료는 1회에 4전씩 징구(徵求)하였으며 신문 열람은 무료였다고 한다.¹²⁵⁾

해방이 되자 조선총독부도서관의 한국인 사서들이 주축이 되어 10월 15일 국립

124) 김수영, 「국립도서관」(1955. 8. 17)

125) 김응교, 앞의 논문, 162쪽 참고. 필자의 다음의 글도 참고하자. “개관 당시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열람 시간은 계절별로 다르지만 오전 8시~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였고, 매주 수요일, 기원절, 시정기념일, 천장절축일, 연말연시(12월 28일~1월 6일)는 정기휴관일로 정하였다.”

도서관을 개관하게 된다. 개관 이듬해 사서 양성기관인 ‘도서관학교’를 열고 1948년 정부수립 후 문교부 산하로 들어갔다. 1957년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분관을 세우고 1963년 도서관법 제정에 따라 현 명칭으로 바꿨으며, 1965년부터 도서 의무 납본제도를 시행했다.¹²⁶⁾ 바로 여기가 위 작품의 내면이자 외재적 장소였다.

전쟁 이후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던 김수영은 번역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는 번역을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소공동의 국립도서관까지 가서 여러 사전을 찾아 확인했다고 한다. 시인의 문장-결벽증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시인은 도서관에 앉아 있다. 엄숙한 정적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공부에 몰두하고 있다. 시인도 옛날에 공부하던 생각이 불쑥 나서, 그 예리했던 시간들을 불러내기도 한다.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일 뿐인,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시절들의 흘러감. 그러나 시인의 마음에는 학생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모독당한 과거’와 ‘약탈된 소유권’이라는 철책이 놓여 있다. 전쟁 통에 모든 것이 파괴되고, 이제는 방향만 남아 재건에 매진하는 시기. “우주의 파편같이/ 혹은 혜성같이 반짝이는/ 무수한 잔재 속에 담겨 있는 또 이 무수한 몸뚱아리-들은/ 지금 무엇을 예의(銳意) 연마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저 방대한 서책들은, 어쩌면 숨을 멈추고 죽어있을지도 모른다. 저 서책들에 묻은 고향의 흔적은 이미 피폐한 시인의 생리일지도. 그러므로, “예언자가 나지 않는 거릴 창이 난 이 도서관”은 이제 멈춰야 한다. 예언자, 곧 시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조립하고 만들어내는 국가가 서책을 덮고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시인의 공부는 그것에 집중돼야 하는 것이 아닐까.

126) 위키백과 ‘국립중앙도서관’ 항목 참고.

2. 치유의 약속, 정동

가. 김소월의 「깊고 깊은 언약」(1922), 모국어의 최대치

소공동에 잠시 머물다가 낙엽이 용단처럼 깔린 덕수궁 돌담길로 발길을 돌려 건다 보면, 정동교회가 보인다. 그 왼편으로 꺾인 길을 조금 더 올라가면 붉은 벽돌 건물에 물이 눈에 들어오는데, 1916년 지어진 배재학당 동관이다. 그 옆에는 500년이 훌쩍 넘은 향나무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우뚝 서 있다.

1922년, 민족의 한과 정서를 모국어로 절실하게 표현했던 한 시인이 배재고등보통학교(배재학당)에 편입하게 되는데, 어쩌면 향나무도 그의 체취와 모습 그리고 서늘한 시선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1920년 ‘낭인의 봄’ ‘그리워’ 등을 <창조>에 발표하면서 화려하게 등단한 김소월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김소월이 가장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한 시기가 1922년도다. 같은 해 <개벽> 1월호에 「금잔디」, 「엄마야 누나야」를, 그리고 우리 민족이 가장 사랑하는 시 중의 하나인 「진달래꽃」을 <개벽> 7월호에 발표하는 등 1922년 한 해에만 50여 편의 시를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다. 시인은 배재학생 청년회 문학부에 소속되면서 교지인 <배재> 2호에 「달밤」, 「깊고 깊은 언약」, 「오시는 눈」, 「접동」, 「길손」, 「봄바람」, 「비단안개」 등 주옥같은 7편의 시와 번역 소설 「떠도라가는 계집」을 상재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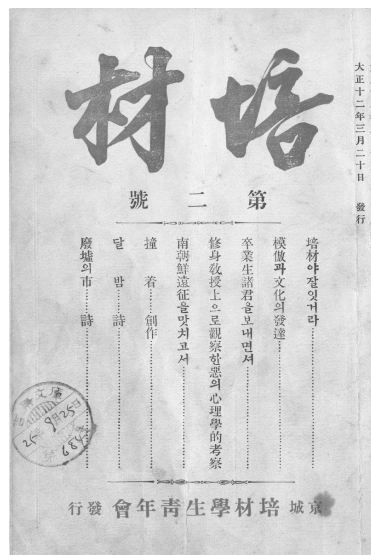
① 몸쓸 꿈을 깨어 돌아누울 때

봄이 와서 멧나물 돋아나올 때
아름다운 젊음이 앞을 지날 때
잊어버렸던 듯이 저도 모르게
얼결에 생각나는 깊고 깊은 언약

② 땅 위에 새하얗게 오시는 눈

기다리는 날에는 오시는 눈
 오늘도 저 안 온 날 오시는 눈
 저녁불 켜 때마다 오시는 눈

인용된 시 중 ①은 「깊고 깊은 언약」이고, ②은 「오시는 눈」이다. 시인의 거의 모든 작품은 모국어의 음감을 최대한 살리고 있으며, 따라서 나지막이 읊조려야 그 맛을 느낄 수 있다. 자 그럼, 문장의 결과 여백을 살려 낭송해보자. 향나무 그늘에 앉아서, 손등을 스치는 봄바람과 함께 말이다. 분명, 1922년 배재학당 재학 당시의 김소월의 밝고 활기찬 마음에 닿게 될 것이다.



배재학당 교지인 〈배재〉 2호.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소장

나. 장만영의 「정동 골목」(1941),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

다시 서울시립미술관 앞으로 가보자. 정동교회의 오른편으로 눈을 돌리면 셋노랑게 물든 은행나무가 마치 외등처럼 늘어선 길이 보인다. 그 길 어딘가에 장만영 시인이 서 있다. 시간을 돌아와 다시 찾은 정동 골목, “해어진 교복을 입었지만/ 배움만이 나에겐 자랑이었”던 학창 시절이 고스란히 거기에 있다.

얼마나 우쭐대며 다녔었나,
 이 골목 정동길을.
 해어진 교복을 입었지만
 배움만이 나에겐 자랑이었다.

도서관 한구석 침침한 속에서
 온 종일 글을 읽다

돌아오는 황혼이면
무수한 피아노 소리,
피아노 소리 분수와 같이 눈부시더라.

그 무렵
나에겐 사랑하는 소녀 하나 없었건만
어딘가 내 아내 될 사람이 꼭 있을 것 같아
음악 소리에 젖는 가슴 위에
희망은 보름달처럼 둥긔 떠올랐다.

그 후 20년
커어다란 노목이 서 있는 이 골목
고색창연한 긴 기와담은
먼지 속에 예대로인데
지난날의 소녀들은 어디로 갔을까,
오늘은 그 피아노 소리조차 들을 길 없구나.¹²⁷⁾

온 종일 침침한 도서관 한 구석에서 책을 읽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늘 황혼이 곁을 지켰다. 그 아스라한 황혼을 밀어내며 들리는 ‘피아노 소리’, 그 소리가 분수처럼 분명하고 서늘해서 눈부시기도 했다. 비록 사랑하는 소녀 하나 없었지만, “어딘가 내 아내 될 사람이 꼭 있을 것 같아/ 음악 소리에 젖는 가슴 위에” 희망을 보름달처럼 내걸기도 했다. 그렇게 세월이 가고 20년이 흘러 “커어다란 노목이 서 있는 이 골목”에 다시 온 것이다. 고색창연한 긴 기와담은 여전히 정동 골목을 지키고 있는데, 그 피아노를 치던 소녀는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면 아득하다.

127) 장만영, 「정동 골목」, 〈문예〉, 1949 수록

다. 박성현의 「저녁이 머물다」(2021), 정동에서 삶을 치유하다

“잠시 병(病)을 내려놓고 걸어 다녔”다는 박성현 시의 정동은 쓸쓸한 황혼과도 같다. 그는 바람이 불어 미세먼지가 씻겨 간 오후에 시청역으로 향한다. 시청광장에서 사진을 찍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바라보다가 길을 돌려 덕수궁으로 향한다. 마침 수문장 교대식 시간이라 분장한 사람들의 규칙적이고 질서정연한 행렬을 살펴본다.

바람이 불었네
미세먼지가 씻겨 간 오후
외투에 툭, 떨어진 햇살 한줄 물컹했네
잠시 병(病)을 내려놓고 걸어 다녔네
시청과 시립미술관이 까닭 없이 멀었네
정동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해 기우는 서촌에서 부스럼 같은 구름을 보았네
물고기는 허공이 집이라 바닥이 닿지 않는데
나는 바닥 말고는 기댈 곳 없었네
가파르게 바람이 불어왔네
내 몸으로 기우는 저녁이 쓸쓸했네
쓸쓸해서 오래 머물렀네¹²⁸⁾

미세먼지가 씻겨간 오후의 서울은 깊고 푸르렀다. 간혹 구름이 드물게 지나갔지만, 대체로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를 들여다보는 듯했다. 수문장 교대식을 지켜보다가 몇 사람의 발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수직으로 길게 뻗은 새카만 수염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들 중 두어 명은 피로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돌담을 돌아 서울시의회 별관을 지난다. 이 길도 사진을 찍으면서 생(生)의 순간을 기

128) 박성현, 「저녁이 머물다」, 『내가 먼저 빙하가 되겠습니다』, 문학수첩, 2021, 수록

록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별은 기울었지만 아직은 따뜻하다. 몇 발 더 가면 시립미술관인데, 시인은 잠시 별이 스며든 돌담에 기대기로 한다.

시청과 시립미술관과의 거리가 까닭 없이 멀었다. 왜냐하면 아주 사소하고 좁은 발걸음이라도 보면 볼수록 생경한 표정들이 많기 때문이다. 중간중간 쉬어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배재학당 쪽으로 걸을까 하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정동길로 향한다. 은행나무가 샛노랗게 변색된 채 아찔한 낙하만을 기다리는 계절, 시인은 늦은 점심을 먹는다. 먹으면서 다시 은행나무의 의지를 생각한다.

서촌까지 갔을 때, 구름이 다시 고이기 시작했다. 부스럼처럼, 황혼을 듬성듬성 밟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많이 걸었는데,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땅에 밀착하는 느낌이 좋았다. 인간은 허공이 아니라 바닥에 기대야 한다. 아니, 바닥 말고는 기댈 곳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 잠시 내려놓았던 병이 더 깊은 곳으로 씻겨가는 듯했다. 쓸쓸해서 더 그랬다. 어쩌면 쓸쓸함이란 가장 깊은 행복이 아닐까.

3. 젊음의 성지, 을지로

가. 최서림의 「아내는 버들피리를 분다」(1995), 지하 콘크리트에 씨앗을 심다

최서림 시인은 을지로 3가역 지하통로를 지나면서 갑자기 지하 콘크리트를 파고드는 미세한 균열을 느끼게 된다. 산발적으로 들려오는 소리지만, 그것은 확실한 음과 색을 가지고 있는, 마치 숲을 통째로 옮겨다 놓은 듯한 소리였다.

을지로 3가역 지하통로. 시골노파가 버들피리 팔고 있다. 밤 10시 반, 노파는 석상같이 굳어져, 표정 없이 바쁜 발걸음들 밑으로 줄기차게 버들피리 불어 보내고 있다. 지하철 소음 사이사이, 짓눌린 공기가 버들피리 울음 먹을 때마다 파랗게 떨며 조그맣게 부풀어오르고 있다. 눈알이 시뻘게지도록 토해내는 버들피리 소리 유효사거리, 전철 소음에 반비례로 오무라지고 늘어난다. 전철 소음에 밝힌 버들피리 소리 무심코 밟고 지나가

다, 하고많은 세상 장사 중에 왜 저것밖에 모를까?

아내는 스스로에게 짜증내며 돌아가 백 원짜리 하나 산다. 난생 처음, 요리조리 붙여보는 아내에게 드디어 버들피리는 그 파란 소리를 내어 주었다.

노파가 시킨 대로, 아내는 버들피리를 물에 붙여 냉장고에 넣어둔다. 지친 골목들을 돌아오는 아내가 버들피리 꺼내 불면, 이곳 저녁 공기는 파랗게 부풀고 새가 그 사이로 울며 간다. 아내의 파란 피리소리에는 지하철역 노파의 싸구려 나무색 치마가 들어 있다.

나는 홀로 남은 병든 시골 노모를 떠올린다. 아내의 피리소리에는 내가 모르는 아내의 아픈 비밀들이 묻어 나온다. 나는 내 속의 슬픈 사연을 더듬는다.

아내는 마포 밀폐된 사무실에서 버들피리를 불고 싶어 한다.¹²⁹⁾

최서림 시인은 아내와 함께 을지로 3가역 지하통로를 지나고 있다. 서울에서 가장 사람이 붐비는 곳이긴 하지만, 밤 10시 반이라 그런지 상가 문은 굳게 닫혀 있지만, 인적은 낮에 비해 많지 않다. 개찰구가 어딘지를 가늠하다가, 문득 어디선가 버들피리 소리가 들려온다. 서울에서, 그것도 지하철 통로에서 숲의 소리가 들리다니, 어찌면 환청일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한 무게와 질감, 방향을 갖고 있다. 시인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의 출처를 찾아내고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늦은 밤의 을지로 3가역 지하통로에 갑자기 버들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높은 주파수라 소리는 더없이 투명하고 귓속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출처를 보니 개찰구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있는 한 시골 노파였다. 노파는 “표정 없이 바쁜 걸음들 밑으로 줄기차게 버들피리를 불어 보내”는 것이었다. 지하철이 들고나는 소음 사이 사이, “짓눌린 공기가 버들피리 울음 먹을 때마다 파랗게 떨며 조그맣게 부풀어오르고 있”는 것. 노파는 음표 하나하나에 힘을 주면서, 눈알이 시뻘게지도록 소리를 토해내는데, 아내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며 노파에게 간다. 아내의 표정을 보니 “하고많은 세상 장사 중에 왜 저것밖에 모를까?”라는 걱정과 짜증이 뒤섞여 있다.

아내는 버들피리를 산다.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노파에게 백 원을 건네고 악기

129) 최서림, 「아내는 버들피리를 분다」, 『伊西國으로 들어가다』, 문학동네, 1995 수록.

하나를 받는다. 악기를 입에 물고 계속 숨을 몰아내더니 어느 순간 표정이 풀리고 악기에서 파란 소리가 튀어나온다. 지하철 통로를 길게 지나가는 낮은 피리소리, 삭막한 콘크리트에 씨앗 하나 날아든 기분이다. 집에서 아내는 노파가 시킨 대로 물에 불려 냉장고에 넣어둔다. 지친 골목들을 돌아오는 아내가 벼들피리를 꺼내 불면 이곳 저녁 공기는 파랗게 부풀고 새가 그 사이로 울며 지나간다. 시인은 그 ‘파란 소리’를 들으며 시골 노모를 떠올리고, 아내 또한 그 소리를 쏴아내며 자신의 아픈 비밀들을 보듬어 안는 것이다.

나. 소설에 나타난 을지로의 다양한 모습들

‘을지로’는 현대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장소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을지로’가 가진 장소성이 서울의 남북이나 동서를 가로지르기 위해서는 대체로 을지로를 지나야 하기 때문이고,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우리나라 무역산업과 금융의 주요 집결지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을지로는 첫째, 역사적·이념적 장소이고, 둘째, 생활의 터전으로서의 산업 중심지이며, 셋째, 종로와 명동, 충무로와 더불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 을지로는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역사와 이념의 장소로서의 을지로다. 여기에는 4·19혁명을 비롯해, 1987년 6월 민주항쟁, 같은 해 7·8·9 노동자투쟁, 촛불 혁명 등이 해당된다.

① 을지로 입구의 네거리 일대를 가득 메운 수천 인파.¹³⁰⁾

② 학생 데모대는 청계천에서 을지로 쪽으로 몰려갔다.¹³¹⁾

③ 아침 느지막이 중학다리 집을 떠나 종로 광교 을지로입구 남대문까지 우린 너무 느리게 걸었고, 어머니가 이렇게 굼벵이처럼 걷다간 해 안에 한강도 못 건너겠다고 걱정

130) 현기영, 『위기의 사내』, 한국소설문학대계(72), 동아출판사, 1995, 388쪽.

131) 오학영, 『석영』, 정통한국문학대계(37), 어문각, 1996, 133쪽.

을 하는 바람에 이제부터 앞만 보고 기운 내서 열심히 가야겠다고, 마지막 돌아보는 셈치고 돌아다본 시야에 문득 남대문이 의연히 서 있었다.¹³²⁾

④ 또 그해 여름, 이한열에 대한 추모 데모로 명동과 을지로 일대가 최루탄 가스로 뒤덮일 때, 너는 가스 자욱한 사무실에 혼자 남아 마스크를 쓴 채 쿨룩거리며 내 대학원 논문을 끝까지 정성껏 타이핑해 주었다.¹³³⁾

둘째, 생활의 터전으로서의 을지로다. 여기에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상가를 연 사람들, 시장에 터를 잡은 사람들 등이 해당된다.

⑤ 을지로입구 전차 정류장은 어두컴컴하고 전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¹³⁴⁾

⑥ 남대문시장에서 비끼를 시작으로, 명동 바닥을 훑으며 공갈협박을 일삼는 건달로, 을지로3가 시절에는 권투도장을 들랑거리며 집털이로 나섰다, 그럴 사이, 감옥 생활로 보낸 기간을 빼고 서울을 터 삼아 보낸 세월이 빠르게 흘러갔다.¹³⁵⁾

⑦ 공대 건축과를 나온 명호는 외삼촌 회사에서 오 년을 근무한 끝에 지금은 독립하여 을지로삼가에서 건축 자재상을 열고 있었다.¹³⁶⁾

⑧ 그는 을지로 방산시장에 아는 재단사가 있기로 지후를 오바로쿠 미싱을 돌리는 시대로 집어넣어 준 적이 있었다.¹³⁷⁾

⑨ 전철을 타고 을지로 3가에서 내린 현주는 서둘러 걸었다 세민 아트콤은 간판이 작고 입구가 허술했으나 을지로 일대의 같은 업종 중에서는 꽤 큰 회사였다.¹³⁸⁾

⑩ 오후 세 시쯤 회사를 빠져나오면서 그는 영업부 국내수출과, 곧 로컬 무역업무를 담당하는 그의 부서 직원에게 “나, 거래처에 나간다. 누가 찾으면 한영실업으로 전하

132) 박완서,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일지사, 1974, 166쪽.

133) 이명훈, 『꼭두의 사랑』, 문학사상, 2004, 43쪽.

134)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웅진출판, 1995, 228쪽.

135) 김원일, 『전갈』, 실천문학, 2007, 31쪽.

136) 김원일, 『가을 별』, 김원일 중단편전집(4), 문이당, 1997, 318쪽.

137) 박태순, 『한 오백 년』, 한국소설문학대계(50), 동아출판사, 1995, 97쪽.

138) 안이희옥, 『버지니아 울프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문학동네, 2000, 47쪽.

좀 돌려줘라”라고 일렀고, 곧장 을지로 입구쪽에 있는 어느 끝맛한 빌딩 속에 파묻힌 한영실업주식회사에 들렀다.¹³⁹⁾

⑪ 「지금은 읊으로 승격됐지만 그때 면 소재지였어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노래를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서울대 음대에 가는 줄 알았죠. 무조건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대 음대에 원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시험을 치러 갔지요. 실기시험 치는 날, 조교가 나보고 반주자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난 반주자가 있어야 되는 줄도 몰랐어요. 수험생이 반주자를 데리고 가는 줄은 꿈에도 몰랐죠. 촌하고 도시는 그렇게 다르더군요. 우습지도 않게 서울대 음대에 떨어지고 나서 지난 35년간 나는 을지로6가 근처만 지나가면 가슴이 떨렸어요. 거기에 옛 서울대 음대가 있었거든요. 본 대학이랑 떨어져서요. 그렇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유학 와서 정식 코스를 밟은 내 친구는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어요. 그때는 내가 더 잘한다고들 했지만, 지금은 그 애가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된 거예요. 오늘 난 그애의 독창회에 갔다 왔어요. 정말 멋지더군요.」¹⁴⁰⁾

⑫ 김 전도사는 을지로6가에 있는 중앙의료원으로 갔다, 정부에서 경영하는 국립병원 이니까 이런 위급 환자를 설마 내쫓지는 않겠지 하는 불안하면서도 막연한 기대를 앞세우고 있었다.¹⁴¹⁾

셋째, 사람들이 모이는 사교로서의 장소다. 여기에는 종로와 명동, 충무로와 인접했지만, 을지로만이 가지는 독특한 감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⑬ “을지로3가에 있는 간판 없는 한 술집에는 미자라는 이름을 가진 색시가 다섯 명 있는데 그 집에 들어온 순서대로 큰미자, 둘째미자, 세째미자, 네째미자, 막내미자라고들 합니다.”¹⁴²⁾

⑭ 종로, 을지로, 세종로, 남대문로, 소공동, 명동의 거리, 오가는 남녀노소의 물결에는

139) 김원우, 『가슴 없는 세상』, 미완, 1987, 241쪽.

140) 이청해, 『두 사람』, 『악보 넘기는 남자』, 문이당, 2004, 145쪽.

141) 조정래, 『한강』(7), 해냄출판사, 2007, 111쪽.

142)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정통한국문학대계(37), 어문각, 1996, 442쪽.

긴장이 풀린 호흡이 흐른다.¹⁴³⁾

⑮ 종로에서 을지로입구로 명동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사람의 떼가 사태 난 것처럼 많이 밀려다니고 사방에 크리스마스카드 장사가 많은 데 인수는 우선 놀랐다.¹⁴⁴⁾

⑯ “여기 을지로 먹자골목인데요, 눈앞에 낙지가 자글자글 끓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이리로 나오시죠, 십 분이면 될 텐데.”¹⁴⁵⁾

⑰ 조 차장을 필두로 한 우리 일행은 을지로입구역에서 무교동 쪽으로 나와 레벤브로이 호프집에서 천시시짜리 조끼에다 족발로 부추김치를 싸서 안주 겸 식사 삼아 먹는 걸로 일차를 때웠다.¹⁴⁶⁾

⑱ 명보극장과 을지로 사이에 있는 어떤 다방에서 딱 한 차례 사내의 흔적을 찾아낸 적이 있으나 그것은 이미 두 달 전의 일이며 내가 사내를 처음 만나기 훨씬 이전의 것이었다.¹⁴⁷⁾

⑲ 우리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서울 시내에 뮤직홀이라는 곳이 여럿 있었는데, 전축 하나 집에 들여놓기가 힘겨웠던 그 무렵 우리들은 을지로입구의 아폴로나 무교동의 르네상스 뮤직홀 같은 곳으로 가서 암전히 벌 서는 아이들처럼 줄지어 앉아 음악 몇 곡을 신청해 들으며 차를 마시고는 했었다.¹⁴⁸⁾

⑳ 그러다 그해 초겨울에 을지로6가의 고서점에서 모던 라이브러리 판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발견하고 구입하였다.¹⁴⁹⁾

마지막으로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로서의 을지로다.

㉑ “다음으로 우리는 약 4000명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143) 김광식, 『213호 주택』, 한국 3대문학상 수상소설집 (1), 가람기획, 1998, 47쪽.

144) 전영택, 『크리스마스 전야의 풍경』, 정통한국문학대계(27), 어문각, 1960, 146쪽.

145) 엄창석, 『호랑이 무늬』, 『비늘 천장』, 실천문학사, 2006, 218쪽.

146) 김소진, 『사랑니 앓기』,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솔, 1993, 171쪽.

147) 윤홍길, 『꿈꾸는 자의 나성』, 한국소설문학대계(60), 동아출판사, 1995, 486쪽.

148) 안정호, 『헐리우드키드의 생애』, 민족과문학사, 1992, 39쪽.

149) 유종호, 『내 마음의 망명지』, 문학동네, 2004, 104쪽.

조건을 갖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 조건은 첫째, 종로3가역을 중심으로 도보로 2,30분 내에 있는 회사나 상점에서 일하는 사람이며 둘째, 20-30대의 남자이며 셋째, 청량리 이북에 거주하며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사람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신이문역 주변에 거주하고 종로3가역과 을지로3가 역 주변에 근무하는 통근자를 1급 용의자로 보고 200여 명 정도로 압축해서 거주지와 직장 양쪽을 병행해 알리바이 조사 및 탐문 수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경감은 목이 걸려서 기침을 한 뒤 말을 이으려는데 황 경정이 말했다.¹⁵⁰⁾

이처럼 소설에 나타나는 을지로의 모습은 서울 중구의 이미지를 압축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현대’라는 시대적 풍경을 한 편의 문학적 알레고리로 만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말부터 을지로에 하나둘 자리 잡기 시작한 색다른 분위기의 식당과 카페, 술집들은, 젊은이들의 감성을 충분히 사로잡으며 지금은 을지로의 명물이 되고 있다. 훗날 우리 문학은 전환기의 을지를 기념하는 문장들을 산출할 것이다.

150) 박상욱, 『지하철 환승역 살인』, 명지사, 1994, 145쪽.

소설가 구보 씨가 걸던 중구

1934년의 어느 날 정오, 나비넥타이를 맨 키 크고 정갈한 남자가 청계천변 집을 나선다. 그는 노트를 옆구리에 끼고 필기도구는 주머니에 넣고서는 단장을 짚는다. 때로는 무기력해 보이고, 때로는 의기소침한 남자는, 어머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출이 더없이 분명하다는 듯 얼굴에 어떤 표정도 짓지 않는다. 결혼과 직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그는 걷고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이 26세를 지나는 소설가의 천직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의 외출은 1934년 서울의 장소들을 셔터를 누르듯 찍어내고 노트에 인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그가 바로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의 주인공, ‘구보’다.

직업과 아내를 갖지 않은, 스물여섯 살짜리의 아들은, 늙은 어머니에게는 온갖 종류의 근심, 걱정거리였다. 나이 찬 아들의, 기름과 분 냄새 없는 방이, 늙은 어머니에게는 애 달랐다. 어머니는 어디 월급자리라도 구할 생각은 없이, 밤낮으로 책이나 읽고 글이나 쓰고, 혹은 공연스리 밤중까지 쏘다니고 하는 아들이, 보기에 딱하고, 또 답답하였다. 아들은 지금 세상에서 월급자리 얻기가 얼마나 힘 드는 것인가를 말한다. 하지만, 보통

학교만 졸업하고도, 고등학교만 나오고도, 회사에서 관청에서 일들만 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또 동경엘 건너가 공부를 하고 온 내 아들이, 구하여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¹⁵¹⁾

그럼에도 구보는 걷고 관찰하고 기록한다. 어쩌면 이것이 그가 소설가의 일이라 믿는, 혹은 소설가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는 바일 것이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다. 집을 나서고 방향을 설정한다. 광고 쪽으로 기운다. 멀지 않은 곳에 화려한 ‘미스코 시백화점’이 있고, ‘미나카이백화점’과 ‘화신백화점’이 있다. 걷는 것에는 이력이 나 있으니 방향이야 상관없을 테지만 아무리 기록하는 것이 소설가의 임무라 해도 적어도 서사를 이끌어 나갈 어떤 통일성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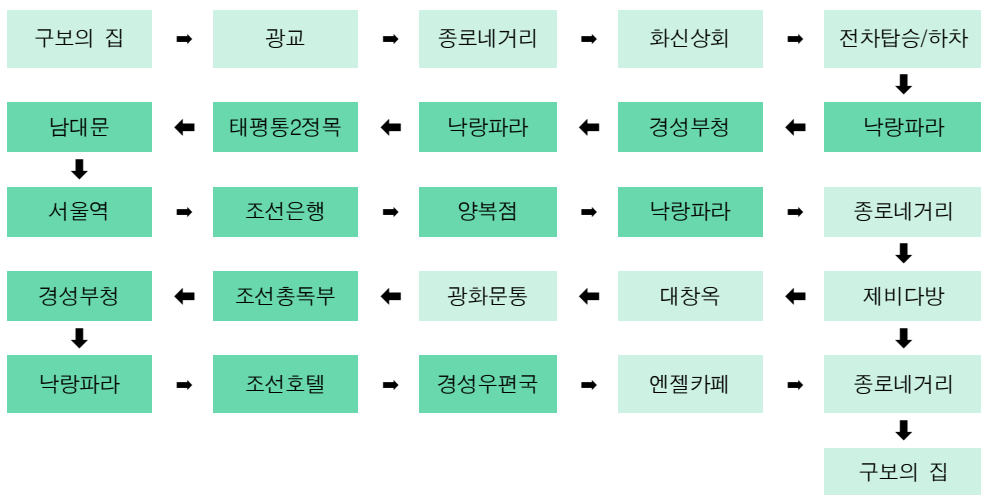
구보 씨는 노트를 펼치고 몇 가지 머릿속을 떠도는 문장을 쓴다. 종로 네거리에 우뚝 서 있는 화신백화점을 기웃거리다가 나와서 전차에 오른다. 전차는 은행과 백화점이 즐비한 중구 소공동 쪽으로 진입할 것이다. 당시 ‘소공동’은 은행촌으로 불렸다. 전차에서 우연히 1년 전쯤 맞선을 보았던 여자를 만나게 되지만 결혼질로 슬쩍 쳐다보기만 한다. 구보 씨는 그녀에게 흥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안부를 묻는 것은 더 부질없다. 그는 ‘조선은행’ 앞에서 내리고 ‘낙랑파라’에 들린다. 낙랑파라는 1920년대 말부터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카페 열풍의 한 가닥이다. 다방에서 나왔을 때, 구보 씨는 보통학교를 같이 다녔던 동창을 보게 된다. 하지만 그는 구보 씨를 피한다. 서울역 대합실로 발길을 돌려, 이번에는 군중 속에 파묻힌다. 글자 그대로 ‘파묻히는 것’이다. 그때 전당포집 아들인 중학 동창생을 만나게 되는데, 애인과 함께 ‘칼피스’를 주문하는 친구를 보고 이내 자리를 뜨게 된다.

다시 그 사내는 조선은행 앞까지 걷는다. 사람들이 북적대는 ‘서울’에서 그는 일종의 구경꾼이다. 다시 말하자 그는 군중 속에서 자신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으며 그러한 익명을 배경으로 도시를 배회하는 일종의 ‘산책자’다. 구보 씨는 자신을 ‘산책자’로 생각할 것이다. 그 후 그는 몇몇 친구와 중학 선배를 만나지만, 사소한 대화

151)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문학과지성사, 2005. 88~93쪽.

다. ‘조선평호텔’까지 와서 낙원정의 어느 카페에 들르고 여급들의 싸구려 웃음소리와 의미 없는 대화를 듣는다. 물론 그들의 화제는 여느 때와 똑같다. 열에닐곱 살 정도의 앳된 여급에게 내일 산책 나가자고 제안한다. 그녀는 구보 씨의 말을 거절해버린다. 새벽 2시가 되자, 그는 친구와 함께 거리를 걷는다. 조선평호텔 앞을 지나고, 맞은편의 경성우편국을 바라본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멈추지 않는다. 구보 씨는 자신을 걱정하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결혼도 하고 창작에 전념하리라 다짐하며 집으로 향한다.

구보 씨가 걸은 서울의 주요 장소들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구보의 행로는 종로와 중구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위 동선에 나타나는 것처럼 3분의 2 정도가 ‘중구’의 장소들이다. 일별하면 ‘한국은행’, ‘소공동’, ‘시청’, ‘신세계백화점’, ‘남대문’, ‘서울역’ 등이다. 이는 당시 서울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리라. 박태원은 구보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도 구보의 내면에 나타나는 미묘한 심리적 변화도 놓치지 않는다. 그의 카메라는 장면을 아주 낮설게 만들어버리는 신기한 재주를 갖고 있는 모양이다. 구보는 종로2가 근처의 광고에서 동대문으로 향하고, 한국은행과 소공동 일대를 거닐다가 다시 시청과 광화문, 신세계백화점, 남대문을 지나 서울역으로 간다. 새벽 2시가 되자 종로에서 집으로 향했던 것이다. 그는 당시 서울의 중심지였던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산책

하면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만났던 것인데, 단지 ‘관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 반응하는 뭉클콜리한 자신의 내면에도 집중했다. 그가 거닐었던 중구의 장소들은 자신을 비추는 내면의 거울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서울 중구는 우리나라 근대사는 물론 현대사를 통해서도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인정되는 특별한 지역이다. 특히 문학에는 이러한 중구의 장소성이 상징적으로 녹아들며 작품의 개연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도 한다. 수많은 시인과 작가들이 서울 중구를 ‘구보’처럼 산책하면서 시야에 포착되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물들을 스케치하는 이유는 이미 한국문학 속에 ‘중구’의 이미지가 다양하게 각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서울 중구는 명승과 청빈의 공간으로 표상되는 ‘남산’ 일부와 변화한 도시적 유상공간인 ‘청계천’ 일대, 그리고 생동하는 서민의 생활공간으로 지금의 남대문시장 전신이었던 ‘칠패’ 등을 포함한다. 당시의 서울 중구는 고답스럽고 정제된 사대부의 공간이 아니라 언제든지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조선을 개혁할 의지가 있으며 상당히 개방적인 선비들과 중인들의 거점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장소들은 역사의 암흑 속에서 결코 자신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도, 발전시킬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근대화의 열풍과 조선 개화라는 세계사적 도전에 직면했을 때 서울 중구는 유연하게 응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한양의 중심부를 감싸 안은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명’을 완수해나갔던 것이다. 바로 이 과정에서 한국문학은 시대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그것을 내면화한다. 조선시대와 애국계몽기 시기를 거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4·19 혁명과 1987년 6월 항쟁, 1997년의 금융위기 등에 이르기까지 굵직굵직한 현대사가 한국문학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서울 중구는 역사의 무수한 질곡을 짊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가들의 내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한국문학의 명칭한 ‘장소’다.

부록

1. 중구의 문학비를 찾아서
2. 서울 중구의 문학단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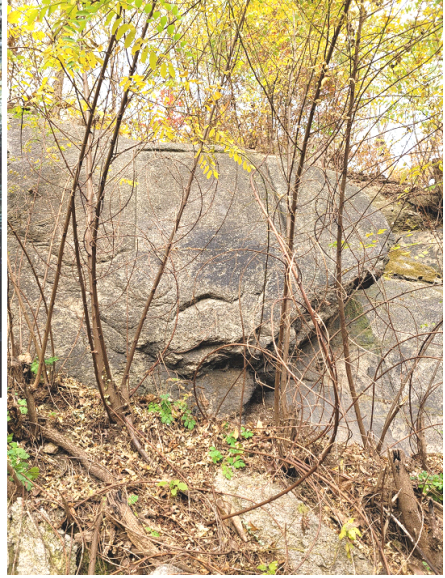
【부록1】중구의 문학비를 찾아서

선인의 터에 새긴 시, 필동의 녹옹 조현명 선생 금석문(金石文)

서울 중구문화원에서는 고유 사업 중 하나인 향토사 조사·연구와 사료 수집·보존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산 자락의 필동에 위치한 금석문을 발굴하여 탁본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녹옹(鹿翁) 조현명(趙顯命, 1690~1752) 선생의 금석문 발굴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구 필동은 한양의 5부(동, 서, 남, 북, 중) 가운데 하나인 남부(南部, 지금의 중구청)의 관아가 있어 ‘부동’이라 불리다가, 방언으로 부와 붓이 비슷하여 ‘붓동’이 되었다가 현재의 ‘필동’이 되었다. 한편 남산골 한옥마을은 옛날에는 청학동으로 불렸으며, 한양에서 경관이 좋은 다섯 동네(청학동, 삼청동, 인왕동, 백운동, 쌍계동) 중 하나이다.

필동 2가 134번지에는 노인정(老人亭) 회담(1894년 일제가 조선의 내정개혁 문제에 불법으로 간섭했던 회담) 장소로 알려진 노인정 터가 있다. 이 노인정은 조선



△ 녹옹 조현명 선생 금석문의 탁본 작업 모습(1998년)
▷ 꾀말이나 안내문 없이 옛 상태 그대로인 현재 모습

말 현종 때 세도정치를 했던 풍양 조씨의 좌장 조만영이 세운 것이라 하며, 그 뒤 후손이 대대로 이곳에 세거하였고 지금도 정자 서쪽 바위에 ‘조씨노기(趙氏老基)’라는 글자가 전한다. 노인정 터에 조금 못 미쳐 오른쪽 골목으로 10여 미터를 가면 바위에 새겨진 녹옹 조현명 선생의 금석문이 자리하고 있다. 조현명 선생은 영조 때의 영의정으로 필동에 세거했던 인물이다.

이 금석문은 그동안 알아보는 이가 없어 하마터면 무심한 바위로 방치될 뻔한 것을, 중구문화원 향토사연구 제2집 『남산의 역사와 문화』와 제3집 『서울 중구 도심 속으로의 역사기행』을 작업하는 도중 발굴한 것이다. 그러나 마모가 워낙 심한 탓에 다섯 차례의 탁본을 거치고, 선생의 저서인 『귀록집(歸鹿集)』에서 원문을 찾아내 한학자 장태한 선생이 번역하고 동국대 국문학부 이종찬 교수가 감수하여 비로소 뜻을 풀이하였다.

이 시는 오언율시로 압운은 ‘년, 원, 전, 연’이며, 원문과 풀이는 다음과 같다.

先人種德地 선친이 덕을 쌓으신 터전
荒廢幾多年 황폐한 지 여러 해가 되었네

襟帶雙溪合 옷깃 돌리듯 두 시내 만나고
 風烟一局圓 바람 안개 자연도 한 줄기 원만하다
 胡爲損白壁 어찌 빈터로 버려두어서
 終愧失青氈 끝내 유업 잃을까 부끄럽네
 是有堂構責 이에 명당을 개축할 책무가 있어
 吾將結數椽 내 장차 두어 칸 집을 지으리라
 鹿翁(녹옹)

— 정리 : 중구문화원 사무국장 향토사학자 김동주

걷다 보면 만나는 존재만으로도 살아있는 언어 ‘시비(詩碑)’

서울 중구에는 자연 속에서 문학과 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다. 그야말로 근사하고 의미 있는 공간이 아닐 수 없다. 남산을 중심으로 하는 중구에는 남산공원을 비롯하여 도심 곳곳에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명한 동상과 기념비, 시비가 산재하고 있다.

동상으로는 김유신 장군상, 백범 김구 선생상, 성재 이시영 선생상, 안중근 의사상, 다산 정약용 선생상, 퇴계 이황 선생상, 김용환 지사상, 일성 이준 열사상, 유정 사명대사상 등이 있고, 기념비에는 3·1독립운동 기념탑, 자연보호헌장비, 소월 시비, 조지훈 시비, 반공청년 운동비, 외솔 최현배 선생비, 순국열사 이한응 선생비, 파리장서비, 장충단비, 제일강산태평비, 만해 한용운 시비, 박웅진 시비, 서정주 시비 등이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의 동상과 문학인의 문학비가 많다는 것은 중구가 그만큼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깊은 서울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특히 남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남산이 한국 문학의 시맥(詩脈)과 문화가 흐르는 중심지요, 모든 예술인과 문학인의 땀과 추억, 작품과 관련한 사연이 녹아 있는 장소이기예 가능할 터이다.

우리의 정서와 문화에 업적이 있는 시비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현재 중구에 있는 시(詩)비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조지훈 시비 - 서울시 남산공원 산책로 목면산방 부근 [파초우]
- 조지훈 시비 - 서울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내 [승무]
- 신경림 시비 - 서울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혜화문 입구 [목계장터]
- 한용운 시비 - 서울시 중구 동국대학교 내 [님의 침묵]
- 윤동주 시비 - 서울시 중구 소공동 OCI 빌딩 앞 [서시]
- 김소월 시비 - 서울시 중구 남산도서관 옆 [산유화]
- 김소월 시비 - 서울시 중구 소월로 힐튼호텔 옆길 [길]
- 서정주 시비 - 서울시 중구 무교동 효령빌딩 앞 [국화 옆에서]
- 박웅진 시비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가 403(훈원원공원 내) [울 너머 동이 트니]
- 이안눌 동아시단비 - 서울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내
- 양주동 시비 - 서울시 중구 소월로 힐튼호텔 옆길 [산 넘고 물 건너]
- 천상병 시비 - 서울시 중구 소월로 힐튼호텔 옆길 [귀천]
- 오동춘 시비 - 서울시 중구 약수동 매봉산 공원 팔각정
- 최현배 기념비 - 서울시 중구 동호로 동국대 정문 옆 남산 입구
- 김동리 문학비 - 서울시 중구 퇴계로 충무아트센터
- 심훈 시비 - 서울시 중구 손기정로 손기정 체육공원
- 이희승 문학비 - 서울시 중구 퇴계로 남산한옥마을

남산공원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근현대 시인들의 시비가 많다. 첫 번째는 박두진, 박목월과 함께 청록파의 대표 시인으로 불리는 조지훈(조동탁, 1920~1968) 시비이다. 「파초우」는 파초 앞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고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말에 쓴 시로 추정되며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싸고 도는 가운데서도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시이다.

남산 산책로 자락에 위치한 조지훈의 「파초우」 시비는 1971년 조지훈 시비 건립위원회에서 시인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남산에 세워진 여러 탑과 시비 중

에서도 단연 돋보인다. 시비에는 자연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한 「파초우」가 새겨졌다. 고전적 상상력과 기개가 넘치는 선비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조지훈시비건립위원회는 1968년 8월에 발족한 단체로 조지훈의 문단 선후배와 제자들로 구성되었다. 높이 2.5미터의 이 시비는 1968년 작고한 시인을 추모하기 위한 것으로 문인비(文人碑) 건립이 활발했던 1960년대에서 1970년대 문화계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세워졌다.

「파초우」는 7.5조인 민요조 가락을 사용하여 고풍스러운 언어로 씌어졌는데, 이 시는 화자(話者)가 구름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자연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공원길 507 (예장동 산5-6) 목멱산방 부근에 위치해 있다.

파초우 — 조지훈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 던고.
성긴 빗방울
파초앞에 후두기는 저녁 어스름
창 열고 푸른 산과
마조 앉어라.
들어도 싫지 않는 물소리기에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산아
온 아침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 던고.

동국대학교 내에는 조지훈 시인의 두 번째 시비가 있다. 동국대학교는 1906년 설립된 명진학교의 후신인데, 명진학교는 불교계 선각자들이



남산공원길의 조지훈 시비

교육을 통하여 나라를 구하고자 세운 학교로 1953년 2월 종합대학교로 승격 개편되었고, 6월에는 대학원 과정을 신설하였다.

조지훈의 「승무」는 1939년 발표된 시로 자연과 무속 등을 주제로 한 서정적이고 동양적인 미를 추구한 시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낭송하고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다. 조지훈 시인은 청록파 시인으로 유명하며 고전적 풍물을 소재로 민족 정서를 섬세한 언어로 노래한 시를 주로 썼으며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족적인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는 시들도 많다.

승무 — 조지훈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동국대학교 내의 조지훈 시비

빈 대에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이 접어올린 외씨보선이야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우고
복사꽃 고운 땀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뺏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밤사 귀뚜리도 지새는 삼경인데
 앓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두 번째 시비는 같은 동국대 혜화문 입구에 있는 신경림 시인의 「목계장터」 시비이다. 신경림 시인은 농민의 고달픔을 다루면서도 항상 따뜻하고 잔잔한 감성을 바탕으로 그려내어 감동을 준 시인으로 유명하다.

1936년 4월 충북 충주 출생으로 동국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동국대학교 내에 시비가 건립된 이유이기도 하다. 등단 작품인 「갈대」, 「묘비」 등은 대상을 농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인간적인 삶의 보편적인 쓸쓸함과 고적함을 주된 분위기로 하고 있다. 여타의 노동시에 비해 강력한 울분이나 격렬한 항의, 개혁의 의지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감동을 주기도 한다. 전체 독자층이 많은 시인으로 특히 중간층의 독자들이 많다는 평을 받고 있다.

목계장터 — 신경림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가을별도 서러운 방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동국대학교 내의 신경림 시비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서리 맵차거든 풀속에 얼굴 묻고
 물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민물새우 끓어넘는 토방 뒷마루
 석삼년에 한 이레쯤 천치로 변해
 짐 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세 번째는 선구적인 독립투사이자 민족운동가인 만해 한용운의 시비이다. 만해 한용운(1879~1944)은 기념비적인 시인으로 「님의 침묵」이란 시로 전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다. 만해의 시비는 동국대학교 대학본부 원편에 세워져 있다. 키가 큰 비석으로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만해 시비는 웅장해 보이며 뒷공간에는 아늑한 공원이 조성돼 있다. 화강암 재질에 「님의 침묵」을 새긴 시비는 만해가 시에서 말한 것과 같이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과 같은 곳에 세워져 있다.

시인, 독립운동가, 종교인으로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님’으로 남아 있는 한용운은 유서 깊은 불교 학교인 동국대 1회 졸업생이자 초대 동창회장이었다. ‘나의 시를 읽는 것이 늦은 봄 꽃 수풀에 앉아 마른 국화를 비벼 코에 대는 것과 같을는지 모르겠다’고 읊었던 만해. 그런 낭만이 더해져 만해의 시비는 캠퍼스 커플의 데이트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만해는 교정에 세워진 시비를 통해 여전히 학생들과 함께 존재하며 호흡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에서 개교 80주년을 기념해 항일구국운동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고자 1987년 10월에 세웠다.

님의 침묵 — 한용운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
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
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
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
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指針)을 돌
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
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
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둥니다.

네 번째는 식민지라는 암울하고도 견딜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독립과 우리 민
족에 대한 사랑을 시로 표현한 윤동주 시인의 시비이다. 윤동주 시비는 도심지에 있



동국대학교 내의 만해 한용운 시비

다. 소공동의 동양화학 빌딩 앞에 가지런히 세워져 있다.

지금은 OCI빌딩으로 바뀐 동양화학 빌딩은 1986년에 조경 시설하여 서울시로부터 1987년 10월 우수건물 조경시설로 인정받은 곳이라고 한다. 건물 왼편 작은 공원 한켠에 있으며 지나가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윤동주 시인(1917~1945)은 일제 말기를 대표하는 시인이며, 암울한 민족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자아 성찰의 시세계를 보여준다. 일제강점기에 26세의 젊은 나이로 짧게 살다간 젊은 시인이었으며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시사대학에서 학업도중 항일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2년형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복역 중 건강이 악화되어 짧은 생을 마감했다.

시인 윤동주와 연관된 영화, 책 등이 많으며 그에 관련된 곳즈도 많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시인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도 교토, 후쿠오카 등에 시비가 건립되어 있어 힘들게 살다간 윤동주 시인의 가치가 인정하고 빛을 발하는 것 같아 시비 이상의 의미가 있다.

서시(序詩) —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와 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소공동에 위치한 윤동주 시비

다섯 번째는 남(南)에서나 북(北)에서나 거의 유일하게 함께 시비를 세워 기리고 있는 김소월 시인의 시비이다. 1968년 3월 13일 한국 신(新)시 60주년을 기념해 한국일보사가 「산유화」를 음각해 건립한 시비이다. 남산공원 내 남산도서관 옆에 있는 소월 시비는 높이는 1.2미터이고 그의 대표작인 「산유화」가 새겨져 있다.

김소월(1902~1934)은 서른둘에 요절했으나 그리움이 절절한 그의 시들은 뛰어난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으며, 유일한 시집 『진달래꽃』(1925년)으로 불멸의 위치에 놓였다. “소월은 고향이 부르는 소리에 쏠살같이 돌아온 귀향자와 같았다.”(서정주) 즐겨 애송되는 그의 시는 동요가 되고, 가요가 되고, 가곡이 되었다.

7·5조의 정형률을 많이 써서 한국의 전통적인 한(恨)을 노래한 시인이라고 평가받으며, 짙은 향토성을 전통적인 서정으로 노래한 그의 시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산유화」에는 피고 지는 꽃의 생명원리, 태어나고 죽는 인생원리, 생성하고 소멸하는 존재원리에 관한 깊은 통찰을 드러낸 생에 대한 깨달음이 잘 나타나 있다.

산유화 — 김소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새여



남산공원 내의 소월 시비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소월로 길가에 위치한 소월 시비

한편 서울시 중구 소월로 힐튼호텔 가는 길 옆에서 뜻밖의 시비를 만나게 된다. 김소월 시인의 「길」이라는 시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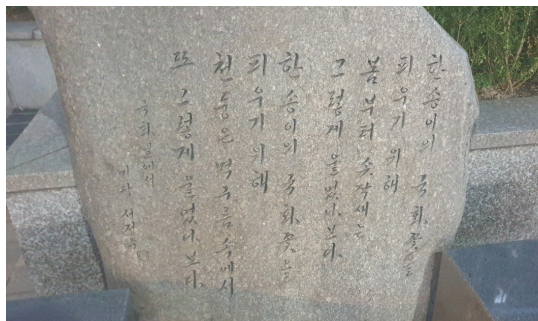
여섯 번째는, 다양한 논란이 있지만 우리의 서정적인 정서를 노래한 서정주 시인의 시비이다. 「국화 옆에서」 시비는 효령빌딩 소공원에 있다. 예전에는 소공원이었으나 현재는 빌딩 바로 옆 한쪽에 시비가 놓여 있다. 아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자리 같은, 그냥 빌딩 상가 옆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다.

서정주 시인은 1936년 동국대학교를 중퇴하고, 같은 해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벽」이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했다. 《시인부락》을 창간하는 등 문단 활동을 많이 하였지만 줄곧 한국 문학계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군부독재와 유신독재 치하에서의 처신 등으로 시인으로서의 자질과 문학적 명성과는 별개로 그 역사적으로는 매우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국화 옆에서」는 가장 많이 구전되는 시이기도 하여 시 낭송가들이나 시민들이 애송하는 작품이다. 문학은 문학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국화 옆에서」는 문학적 가치가 높은 시비이기에 관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화 옆에서 — 서정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서정주 시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림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뒀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여.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일곱 번째 박웅진 시비 「울 너머 동이 트니」는 중구 을지로5가 403(훈련원공원 내)에 있다. 이 시비는 공원 내에 깨끗하게 조성되어 있다. 시인은 충북 충주 출생으로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이다. 문학박사로 제1회 국제 문화예술상 대상(시 부문), 허균문학상 특별공로대상, 황희문화예술상 문학 부문 대상 등 수상 경력이 화려하다.

보라매공원에도 시비가 있는 시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다작을 하는 몇 안 되는 시인이기도 하다.

박웅진 시인을 기념하기 위해 훈련원공원에 세워진 시비에는 그의 대표작인 「울 너머 동이 트니」가 적혀 있다. 시비의 글은 서예가 심응섭이 썼다. 이 시에서 ‘울 너

머'의 울은 울타리를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휴전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휴전선을 넘어 하루빨리 동이 트기를 바라는 통일의 염원이 담겨 있다.

울 너머 동이 트니 — 박웅진

울 너머 동이 트니

잠자던 산들이 깨어나

두런거리고

강물로

이제야 물길을 내는구나

보아라

풀잎 위로만 지나가는 바람

너울대며 지나가는

민초들

이제야 목청껏 울고

새들도 따라 울고

이제야 해도 둥글어지고

하늘이 넓어지고

산 너머 어느 집

빨래 행구는 소리

하얗게 하얗게 들려오는구나



훈원원공원에 세워진 박웅진 시비

여덟 번째 동악 이안눌의 동악선생 시단비를 소개한다.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은 조선조 선조 광해군 인조대의 유명 시인으로 명성이 높으며 1571~1637년 조선 중기 문학사를 빛낸 ‘동악시단(東岳詩壇, 조선 중기 이안눌이 중심이 된 문인들의 모임)’의 주창자다. 특히 그는 왕성한 창작 활동으로 4379수(首)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시를 남겼다. 죽은 후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청백리에 뽑혔다. 그는 당시(唐詩)에 뛰어났으며, 효성이 지극하기로 유명하였다. 저서로 『동악집(東岳集)』(1640)이 있다.

서울 남산(南山)의 별칭인 동악(東岳)에 살았기 때문에 이안눌은 스스로 ‘동악’을 호로 삼았다. 그가 살았던 집의 위치는 현재 동국대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서울 중구 필동이다.

영조 때 이안눌의 현손인 이주진이 그곳 바위에다 ‘동악선생시단(東岳先生詩壇)’이라 새겨놓았는데, 1984년 동국대학교에서 고시학관을 지을 때 그 바위를 학생회관 옆으로 옮기다가 쪼개져버렸다. 현재 그 쪼개진 조각들은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동악선생시단비

서 보관하고 지금 세워놓은 동악선생시단 안내석은 쪼개져 버린 바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다.

동악시단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당대의 문인 지식인들의 모임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시사(韓國詩史)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경내는 서울을 내려다보는 신선의 고장이라 하여 낙선방 청학동(樂善坊 靑鶴洞)이라고도 불리었다. 이곳 학림관 사범대학 좌측에 동악선생시단비가 있고 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곳은 조선조 선조년간의 대표적 시인의 한 분인 동악 이안눌의 유지가 있었던 곳이다. 동악과 함께 교유하고 그를 흠모하던 당대 문사들이 모여 이곳에 시단을 이룬 연유로 후일 영조 임금이 고 4대손 주진으로 하여금 동악선생시단이라는 여섯 글자를 암면에 음각케 하였다. 수년전 계산고시학사를 신축하면서 이 유적을 잘 보존코자 하였으나 오랜 풍상으로 마애암면이 훼손되매 이를 안타까이 여기면서 우리 동국인들이 동악이라는 이름과 동악시단의 유래를 잘 알게 하고자 이 돌을 세워 그 뜻을 새긴다.

단기 4320년 8월 20일 동국대학교 총장 李智冠

아홉 번째 시비는 양주동 시인의 시비이다. 시이자 국문학자인 무애(無涯) 양주동 시인은 경기도 개성에서 출생하여 어린 시절을 황해도 장연에서 보냈다가 광복 후에 동국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여(1947), 중간에 수년간 연세대학교 교수로 옮겨있었던 것(1958~961)을 빼고는 종신토록 동국대학교에 헌신하였다.

젊었을 때는 영문학을 강의하면서 한편으로는 시인 및 문학이론가로서 문단에서의 활약이 화려하였으나, 향가 해독에 몰입하면서부터는 주로 고시가(古詩歌)의 주석에 전념하는 국학자로 전신하였다. 『금성(金星)』(1923) 동인으로 등장하여 민족주의적 성향의 시를 주로 썼다. 시집 『조선의 맥박(脈搏)』(1930)은 그의 대표작이기도 한데, 그의 시들이 가지는 성격을 잘 보여준다.

염상섭(廉想涉)과 함께 『문예공론(文藝公論)』(1919)을 발간하며 시작된 양주동의 평론은 문학사가들에 의하여 절충론이라고 불린다. 염상섭과 박영희(朴英熙) 사

이의 문학 논쟁을 이어받아 경향파(傾向派)의 기수였던 김기진(金基鎭)과의 사이에 쪼갬 논전은 특히 유명하다.

국보적 존재로 자타가 함께 인정해 마지않았던 양주동은 황해도 장연(長淵) 출신(이곳에서는 시인 노천명, 소설가 강경애 등이 배출되었다)이며, 서울의 중동중학, 일본의 와세대대학 영문과를 졸업하여 일찍이 평양 소재 송실전문학교 교수로 있었다. 시인 김현승(金顯承)이 그 문하생으로 그의 추천을 받은 바 있다.

산 넘고 물 건너 — 양주동

산 넘고 물 건너
내 그대를 보러 길 떠났노라

그대 있는 곳 산 밑이라기
내 산길을 토파 멀리 오너라

그대 있는 곳 바닷가라기
내 물경을 해치고 멀리 오너라

아아, 오늘도 잃어진 그대를 찾으로
이름 모를 이 마을에 헤메이노라



양주동 시비

열 번째 시비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 시비이다. 천상병(1930~1993)은 시인이자 평론가로 경상남도 마산 출신이며 본관은 영양(潁陽)이고 호는 심온(深溫)이다. 1930년 일본 효고현[兵庫縣] 히메지시[姫路市]에서 태어났으며, 1945년 귀국하여 마산에서 성장하였다. 1955년 마산중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입학하였다. 43세가 되도록 독신으로 오랜 유랑생활을 하다가 1972년 목순옥(睦順玉)과 결혼하여 비로소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 뒤 지병으로 죽기 전까지 부인

의 지극한 보살핌에 힘입어 왕성한 창작 활동을 보였다.

천상병의 문단 활동은 마산중학교 5학년 때인 1949년 7월 <죽순(竹筍)>에 시 「공상(空想)」 외 1편을 처음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6·25전쟁 중에는 송영택(宋永澤) 등과 함께 동인지 『신작품(新作品)』을 발간, 여기에 시를 발표하였다. 이어 1952년 『문예(文藝)』지에 시 「강물」, 「갈매기」 등으로 추천을 받았고, 1953년 같은 잡지에 평론 「사실의 한계: 허윤석론(許允碩論)」, 1955년 『현대문학』에 「한국의 현역대가(現役大家)」 등을 발표하였다.

가난과 무직, 주벽, 무절제한 생활 등으로 많은 일화를 남긴 천상병은 1971년 문우들의 주선으로 제1시집 『새』를 뒤늦게 발간하였다. 그 뒤 제2시집 『주막에서』(1979)와 제3시집 『천상병은 천상 시인이다』(1984), 제4시집 『저승 가는 데도 여비가 든다면』(1987), 제5시집 『요놈 요놈 요 이쁜 놈』(1991)을 펴냈다.

그 밖에 유고집으로 시집 『나 하늘로 돌아가네』(1993)와 수필집 『한낮의 별빛을 너는 보느냐』(1994)가 있다.

천상병의 시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서정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순수성을 되비쳐 보여준다. 동심에 가까운 이러한 순진성은 가난과 죽음, 고독 등 세상사의 온갖 번거로움을 걸러내고 있으며 일상적인 쉬운 말로 군더더기 없이 간단명료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귀천 —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천상병 시비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열한 번째 시비는 오동춘 시인의 「매봉산에서」 시비이다.

시인이자 문학박사인 오동춘 시인은 1937년 일본 다카야마에서 태어나 경남 함양에서 자랐다. 마천초등, 함양중, 용문고교를 거쳐 연세대 국문과 및 연세대 교육대학원, 한양대 대학원 국문과(문학 석사, 박사 학위 취득)를 졸업했다.

저서로 시, 시조 선집 『한글나무』 외 15권, 수필집 『짚신은 한국의 얼 우리 빛일세』 외 4권, 논문집 『위당시조연구』(박사논문집), 기타 『교회와 우리말』(공저), 『이슬우화』가 있으며, 1978년 제2회 흙의 문학상, 1990년 국무총리 표창, 1990년 제15회 노산문학상, 1990년 연세교육인상, 2002년 제3회 장로문학상, 2005년 제27회 외솔상, 대신고교 20년 근속상 등을 수상했다. 2016년 한글발전 유공자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매봉산에서 — 오동춘

해 오르는 마음으로
정든 매봉산 오르면,
확 트여 오는 눈앞에
하늘 푸른 한강물 흘러가고,
동호 큰 다리의 차물결도
씩씩하게 내닫는다.
한결같은 산이 좋아 기쁘게 둘러선
매봉 팔각정에서 산바람 주욱 마시면
새 힘이 솟는 팔다리



오동춘 〈매봉산에서〉 시비

튼튼해지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
 아! 상쾌하구나 참! 보람차구나
 항상 봐도 반가운 사람들
 오늘도 서로 손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찾아 온 매봉산에서
 해를 맞는다.
 산을 마신다.
 꿈을 낳는다.
 산이 되어 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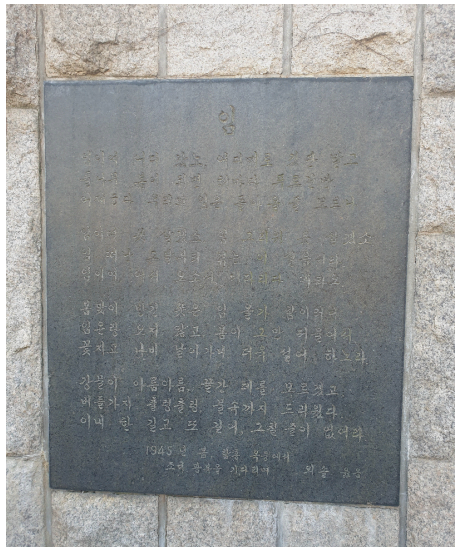
열두 번째 기념비는 시비는 아니지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외솔 최현배 선생의
 기념비이다. 동국대학교 정문에서 남산
 등산로 입구로 가다 보면 외솔 선생의 기
 념비를 볼 수 있다.

외솔 최현배 선생은 국어학자로, 일제
 강점기 조선어학회 회원으로 적극적인 활
 동을 전개하여 한글맞춤법통일안 제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해방 후 한글학
 회의 중추로서 한글전용, 국어순화 등 실
 용적인 어문 활동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조선어학회 회원으로서 ‘한글맞춤법
 통일안’ 제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국
 어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
 다. 심장마비로 사망하기 직전까지 한글
 학회의 중추로서 한글전용 국어순화 등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비



외솔 기념비 뒷면에 새겨진 「임」

실용적인 어문활동에 힘써 많은 업적을 남겼다. 대표적인 저서로 『우리말본』(1930), 『한글잡』(1942), 『조선민족갱생의 도』(1930), 『글자의 혁명』(1947), 『나라 사랑의 글』(1958), 『한글만 쓰기의 주장』(1970) 등이 있다.

최현배 선생 기념비 뒤쪽 벽면에는 1945년 봄 함흥 옥중에서 쓰신 「임」이라는 시가 새겨져 있다.

열세 번째 기념비는 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문학마당 문학비다. 김동리 소설가는 한국의 현대 소설가들 가운데서 전통의 세계, 종교의 세계, 민속의 세계에 가장 깊이 관심을 기울인 작가로 평가된다. 본명은 김시중(金始鍾), 동리는 필명이다.

소설가 김동리의 문학 세계에서 가장 뚜렷한 흐름을 이루는 것은 토착적인 한국인의 삶과 정신을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우주 속에 놓인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의 궁극적인 모습을 이해하려는 끈질긴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바위», 「무녀도», 「황토기», 「역마», 「등신불», 「을화」 등 그의 주요 작품 대부분은 그러한 노력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김동리 문학 마당비

그러나 김동리의 문학 세계가 반드시 이 방면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당대의 역사적 상황과 지식인의 고민을 정면으로 다룬 작품들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바 있으니, 「혼구」(1939), 「홍남철수」(1955), 「밀다원시대」(1955)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김동리의 많은 작품들은 그 문체와 구성에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 4월 10일 충무아트센터에서 문학비 제막식이 열리면서 문학비가 세워지게 되었다. 지금의 충무아트센터 자리 근처 서울시 중구 홍인동 155번지에

김동리·손소희 소설가 부부가 26년간 살았던 집터 동희빌딩이 있다.

열네 번째 기념비는 손기정 체육공원에 서 있는 심훈 문학비이다. 심훈은 일제 강점기 「상록수」, 「영원의 미소」, 「황공」 등을 저술한 소설가이며 시인, 영화인으로 본명은 심대섭(沈大燮)이다.

서울 출생으로 1919년 3·1운동에 가담하여 투옥, 퇴학당하였다. 1920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1921년 항저우(杭州) 치장대학(之江大學)에 입학하였다. 1923년 귀국하여 연극·영화·소설 집필에 몰두하였는데 처음에는 특히 영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1935년 장편 「상록수(常綠樹)」가 동아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장편소설 특별공모에 당선, 연재되었다. 「동방의 애인」·「불사조」 등 두 번에 걸친 연재 중단 사건과 애국시 「그날이 오면」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작품에는 강한 민족의식이 담겨 있다. 「영원의 미소」에는 가난한 인텔리의 계급적 저항의식, 식민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정신, 그리고 귀농 의지가 잘 그려져 있으며, 대표작 「상록수」는 젊은

이들의 희생적인 농촌사업을 통하여 강한 휴머니즘과 저항의식을 고취시킨다.

행동적이고 저항적인 지성인이었던 그의 작품들에는 민족주의와 계급적 저항의식 및 휴머니즘이 기본정신으로 관류한다. 특히 농민계몽문학에서 이후의 리얼리즘에 입각한 본격적인 농민문학의 장을 여는 데 크게 공헌한 작가로서 의의를 지닌다. 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 지배의 부조리를 폭로한 작가로 평가된다.



심훈 시비

서울시 중구 만리동에는 손기정 체육공원이 있고 그 안에 손기정 기념관이 있다. 1936년 8월 9일, 독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당시 양정고보 재학생이었던 손기정 선수가 우승했다는 소식은 한민족이 열등한 민족이라 일본에게 지배당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세뇌를 당하며 살았던 당시 민초들에게 민족의 자긍심을 살려준 사건이었다.

심훈 선생의 「오오, 조선의 남아여!」는 올림픽 우승 소식이 전해진 1936년 8월 10일 감격에 겨워 지은 시라고 한다. 심훈 선생은 1936년 9월 16일 유행병으로 36세의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으며, 이 작품이 유작이 되었다.

2017년 8월 31일 손기정 선생의 베를린 올림픽 우승 8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심훈 선생의 시비 제막식도 같이 하게 되면서 심훈가의 종손인 심천보 씨가 폭 2.8미터, 높이 2.3미터의 시비를 직접 제작, 손기정 기념 재단에 기증하였다. 이 시비는 서예가 서병채 씨가 재능 기부한 글씨로 예술적 가치를 더하였다.

오오, 조선의 남아여! — 심훈

그대들의 첩보를 전하는 호외 뒷 등에
뺏을 달리는 이 손은 형용 못할 감격에 떨린다!
이역의 하늘 아래서 그대들의 심장 속에 용솟음치던 피가
이천 삼백만의 한 사람인 내 혈관 속을 달리기 때문이다.

‘이겼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우리의 고막은
깊은 밤 전승의 방울 소리에 터질 듯 찢어질 듯,
침울한 어둠 속을 짓눌렀던 고토의 하늘도
올림픽 거화를 켜든 것처럼 화닥닥 밝으려하는구나!

오늘 밤 그대들은 꿈속에서 조국의 전승을 전하고자
마라톤 험한 길을 달리다가 절명한 아테네의 병사를 만나보리라

그보다도 더 용감하였던 선조들의 정령이 가호하였음에
두 용사 서로 껴안고 느껴느껴 울었으리라.

오오, 나는 외치고 싶다! 마이크를 쥐고
전 세계의 인류를 향해서 외치고 싶다!
‘인제도 인제도 너희들은 우리를 약한 족속이라고 부를 터이냐!’

열다섯 번째 기념비는 일석 이희승 시인의 학덕 추모비이다.

남산 북쪽 기슭 남산골 한옥마을이 들어선 필동에는 청학동천 물이 모이는 청학지(靑鶴池)가 있고 풍류를 즐기는 천우각(泉雨閣)이라는 누각이 지금도 있다.

청학동천(靑鶴洞川)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일석(一石) 이희승(李熙昇) 선생의 학덕(學德) 추모비(追慕碑)가 보인다. 일석 이희승(1896~1989)은 시인이자 국어국문 학자로, 경기도 개풍군 임한면 상조강리에서 출생했고 1930년 경성제대 조선어급 문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학을 수료했으며 1932년 이화여전 교수로 있으면



이희승 선생 학덕 추모비

서 시와 시조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고 1946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되어 1961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제자들을 길렀다. 1994년 10월 31일 그의 제자들이 선생의 학덕을 추모하는 비(碑)를 세웠다.

우리 중구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시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시비, 그리고 업적을 기리거나 시대상을 알려주는 문학비 및 기념비 등이 많다. 이 비들은 우리 문학과 역사의 흔적인 동시에, 바쁜 현대인들에게 쉼터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 시비와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시비는 길거리에 있어 언제든 잠시 머무르며 잠시 위안을 얻고 가는 자리라면, 다른 시비들은 남산 주변을 산책하며 찾아가는 문학기행을 겸할 수 있어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장소 역할도 한다.

그래서인지 중구의 시비를 찾아 사진을 찍고 걸으면서 좀 더 좋은 곳, 깨끗한 장소에 더 많은 시비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았다. 시는 그것을 읽고 음미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비로소 의미가 되고 빛이 된다. 비록 빌딩들 사이로 시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시비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

중구의 곳곳에 자리한 이 귀한 보물들을 보다 많은 이들이 찾아보았으면 한다. 시를 아름답게 해주는 이 시비들이 시를 아는 모든 이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리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문학의 메카 명동에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이라고 노래한 박인환의 시비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정리 : 시인 이경아

시비(詩碑) 노래

이경아

우리 곁에 살아 있네

주옥같은

한 글자

한 마디

살아 숨쉬는

시의 노래

마음 한켠

자연스럽게 발길이 머무는 곳

시는

우리에게

쉼을 주고

힐링하는 시간을 주고 있다.

바쁘다는 핑계는 말라

길을 우연히 걷다가

가끔은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옆도 보아라

고개를 돌리면 보이는 시비

술래잡기처럼

찾는 즐거움을 주는 우리들의 시비

지나치는 돌덩이가 아닌
잠시
머무르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우리들에게 친구 같은 존재
“시비”

시를 모르는 사람도
머무르게 만드는
시대상을 느끼게 하는 내용들

코로나 19로 지친 이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리들의 시비
시인의 영혼이 담긴 보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시비가
그대의 가슴 안에서 노래하리...
아름다운 시여...
시비로 우리 곁에 늘 함께하소서

【부록2】 서울 중구의 문학 단체들



문학의 집 · 서울

문학의 집 · 서울은 문학의 숨결이 깃든 남산의 풍류가 가득한 곳으로, 서울 시민과 문학인들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조성한 문학 공간이다.

대지 793.7㎡, 연건평 491.94㎡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며, 1975년부터 국가안전기획부장 공관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1996년 서울특별시가 매입하였다. 이후 남산 한옥마을 조성 등 남산 제 모습 찾기 사업이 추진되면서 서울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하여, 2001년 7월 12일 개보수 작업에 들어가 같은 해 10월 ‘시민의 날’ 주간에 맞춰 개장하였다.

피천득 작가의 강론을 시작으로, 이미 작고한 문인들과 현재 활동 중인 문인들의 다양한 자취를 접하고 우리 문학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기획을 통해 서울 시민들을 위한 문학관으로 거듭났다.

건물 1층은 전시실 · 세미나실 · 자료정보실로, 2층은 접견실 · 사랑방 · 휴게



문학의 집 · 서울 입구(위)와 내부에 위치한 산림문학관(아래)

실로 이용된다. 또 매주 작가와의 만남, 시낭송회, 시화전 등을 개최하며, 청소년 관련 문학 행사의 하나로 백일장을 열고 문학 강연을 한다. 운영은 100여 명의 문인이 설립한 사단법인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에서 맡고, 김후란 시인이 이 사장을 맡고 있다.

○ 홈페이지 : <http://www.imhs.co.kr>

○ 문의: 02-778-1026



한국현대문학관

한국현대문학관은 한국 문학사 100년을 수놓은 작가들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곳으로, 수필가 전숙희 선생이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 문학관이다.

이곳은 근현대 한국 문학사를 이룬 시인, 소설가, 수필가 등 주요 문학인들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작가들의 친필 원고를 비롯해 대표 시집과 소설집 초판본, 수필집과 번역소설 방각본, 딱지본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염상섭의 소설집 『만세전』(1924),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 정지용의 시집 『백록담』(1941), 김동인의 소설집 『감자』(1935) 등 귀중한 소장 자료들이 눈에 띄는데, 빛바랜 원고지에서 작가들의 살아생전 창작 열정이 피어오르는 듯하다.

한국현대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영랑시집』의 표지 글씨는 활자가 아니라 날렵한 붓 터치로 쓴 글씨이며, 표지 그림 또한 전통적인 창살 무늬를 연상케 한다. 이 시집에 수록된 시는 모두 제목이 없고, 책의 목차도 없다. 단지 페이지 번호에 맞게 작품마다 번호를 붙여놓았을 뿐이다. 마침표, 쉼표 등 구두점도 전혀 없어서 마치 강물의 흐름처럼 53편의 작품이 하나의 시상으로 전개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영랑의 대표 시로 꼽히는 「돌담에 속삭이는 햇빛같이」는 이 시집의 두 번째, 「모란이 피



1935년 시문학사에서 발행한 김영랑의 『영랑시집』

기까지는」은 마흔다섯 번째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다.

1948년 정음사에서 발행한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윤동주가 연희전문학교 졸업반 때 자신의 시 18편을 정선하고 시집의 서문을 시로 써서 총 19편으로 만들어 원고지에 정서해 묶어서 친구 정병욱에게 남겼던 것을

그가 독립운동의 죄명으로 옥사한 후 펴낸 것이다.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애송된 시집일 뿐만 아니라, 문학사적으로도 일제 말기의 어두움을 밝혀준 작품집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현대문학은 민족의 현실과 역사 상황에 대한 문학적 인식을 드러내며 전개되어 온 만큼, 문학관 한쪽에는 ‘함성’이라는 표제로 일제 치하 3·1운동에서 비롯된 문학의 흐름을 정리하여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자리한 종합전시관은 한국문학 백 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현대문학 계보도를 중심으로 시인, 소설가, 월북 문인을 분류하여 초판본 저서와 사진자료를 전시하였으며, 작가들의 친필 원고와 필체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한국현대문학관은 전시뿐 아니라 문학 세미나 및 시낭송회, 문학인 영상자료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홈페이지 : <http://www.kmlm.or.kr>

○ 문의: 02-2277-4857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년)



1982년 4월에 열린 한국여성문예원 개원식(앞줄 중앙이 고(故) 장금생 명예원장)

한국여성문예원

한국여성문예원은 여성 문화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권익 보호와 해외 교류활동 등을 목적으로 1982년 설립된 비영리 여성문학단체이다. 문학 관련 행사 및 문예지 발간, 서울문학축제 등 문학과 예술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성의 문학적 재능과 자질 향상에 선구적 역할을 해왔다.

고(故) 장금생 명예원장이 개원한 이래 소설가 김동리, 수필가 조경희, 화가 권옥연 등이 고문이자 강사로 참여하였다. 그간의 활동을 살펴보면 1982년부터 1998년까지 문학을 비롯하여 미술 · 음악 · 연극 · 영화 등의 예술 강좌를 진행하였고, 1993년에는 『중구문예』 창간호를 발간하고 1998년 제1회 서울시 여성 백일장을 개최했으며 1998년에는 『서울여성문예』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2003년에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시낭송제를 개최하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청계천 시낭송 축제를 열었다. 또한 2009년 9월 제1기를 시작으로 2019년 제11기까지 시낭송 전문가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2009년 12월에는 제1회 ‘서울문학축제’를 개최하고 제1회 서울문학대상을 제정하였다. 2012년 12월에는 『문학, 상



2019년 열린 제11회 서울문학축제(위)와
2019년 명동시낭송 콘서트(아래). 앞줄
왼쪽부터 나태주 시인, 이길원 시인,
최불암 연기자.

『像』 창간호를 발간하였고, 2015년 문학의 본향인 명동을 중심으로 ‘명동 시낭송 콘서트’를 개최하여 2021년 제20회 콘서트를 하였다.

한편 2013년 중구시설관리공단과 한국여성문예원은 지역 주민의 독서 문화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 및 상호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지역 주민들의 독서 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인문학적 지식과 사고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건전한 여가생활 및 문학활동 지원, 인성 및 정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로 했다. 협약 체결 이후 중구의 도서관을 순회하며 성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낭송’ 강의를 열고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한국여성문예원은 다양한 기획으로 꾸준히 문학적, 예술적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여성문예원 백일장 출신인 문인들이 전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홈페이지 : <http://munyewon.co.kr>,

○ 문의: 02-2268-9210



『중구문학』 제10호 출판 기념회(2020년 1월)

서울중구문인협회

서울중구문인협회(약칭 ‘서울중구문협’)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약칭 ‘한국문협’)의 전국 192개 지회·지부 중 하나로 2009년 7월 7일에 창립되었습니다. 서울중구문협은 한국문협 약 15,000명 정회원 중 중구에 주소를 둔 70여 분과 소통하며 중구에 직장을 가지거나 연고가 있는 50여 명의 회원이 꾸준히 여러 문학지에 좋은 글을 써서 게재하는 한편 문학지나 문학 작품집 퍼내기, 중구민과 함께하는 시화전이나 백일장 열기, 중구 소재 도서관을 통해 수집된 독후감 심사, 뛰어난 신진문학인을 발굴하여 신인문학상을 수여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제39회 대통령기 독후경진대회에서는 중구문협 심사에서 대상을 받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중등부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올해 제41회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에서도 서울중구문협 심사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독후감이 서울시 작은 도서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전국 단위 3차 심사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서울중구문협은 한국문협이 주관하는 여러 문학상에 회원들의 작품집을 수상 후보로 추천하고, 전국 192개 한국문협 각 지회·지부와 문학 정보를 교류하거나 특정 주제를 정하여 좋은 글을 주고받으며 특집으로 꾸미기도 합니다. 중구예총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여, 2019년 중구구민회관에서 개최한 제1회 중구예총문화예술축전에 좋은 시화 작품들을 출품했습니다. 또한 중구구민회관 내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구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나 중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도 늘 글을 통해 소통의 폭을 넓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학 활동들로 저희 중구문협은 대도심에 정서의 과일나무를 하나씩 심고, 정서의 맑은 샘물들을 조금씩 솟아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9일에는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중구문학』 제10호 출판 기념회를 성대히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말 촉발하여 전 세계로 번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활동과 모임에 제약을 받게 되어 2020년 말 제2회 중구예총문화예술축전에는 준비한 시화 작품들을 특별히 비대면, 온라인으로 출품해 참여했습니다. 다행히 2021년 12월에는 좋은 시화 작품들을 준비하여 충무아트홀에서 7일부터 14일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제3회 중구예총문화예술축전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극복되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문화예술활동의 꽃이 중구에도 만개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중구문인협회 회장 이두백

서울중구문협 회장단 명단(2021년 현재)

직위	성명	직위	성명
회장	이두백	부회장	배건해
감사	황용운	이사	손점암
수석부회장	이미옥	사무국장	이현주

박성현

시인. 서울교육대학교 강사.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9년 〈중앙일보〉로 등단하였으며, 서울문화재단 창작기금 수혜(2013), 문체부장관상(2018), 한국시인협회 젊은시인상(2019) 등을 수상하였다. 시집으로 『내가 먼저 빙하가 되겠습니다』(2020), 『유쾌한 회전목마의 서랍』(2018)이 있다.

성민경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냈고, 고려대, 국립 한밭대 등에서 강의하며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문학속에 피어난 서울 중구

중구향토사자료 제22집

발행처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
발행인 중구문화원장 남월진
기획 중구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회
집필 박성현·성민경
감수 김광시(중구문화관광해설사회 회장)
자문 김도경(한국여성문예원 원장)
발행일 2021년 12월 30일
제작 도서출판 상상박물관

ISBN 979-11-954622-7-8 03810

©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 비매품

0454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장교동 1번지 한화빌딩 1층)
 전화 02) 775-3001, 팩스 02) 775-3068
 홈페이지 www.junggucc.or.kr